

발간등록번호
11-1240000-000844-01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활용한
한국인의 삶 심층분석』**

**(A Study on Time Structure of Daily Lives of Korean:
Based on 2014 Korean Time Use Survey Data)**

2015년 통계청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15. 11.

제 출 문

제 출 문

통계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활용한 한국인의 삶 심층분석』” 연구용역 결과물로 제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수행기관 : 한국인구학회

(연구진)

책임연구원: 은기수

공동연구원: 김외숙 조희금 송혜림 서지원 송유진 김은지 차승은

연구보조원: 박은정

주 의

1. 이 보고서는 통계청에서 수행한 2015년 정책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통계청이 소유하며, 통계청은 정책상 필요시 보고서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요약문>

1. 유급노동: 노동시간과 근로조건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2014년 생활시간조사자료 전체 응답자 중 지난 한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다고 응답(무급가족종사자 포함)한 비율은 60%임.

- 지난 한주 동안 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령별 성별 시간사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유급노동시간은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조금 길게 나타남.
- 개인유지와 집안일, 돌봄 시간은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더 길고 여가 시간은 남성이 김.
- 돌봄 시간은 자녀 양육이 집중되는 30~40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집안일에 투여하는 시간은 연령에 상관없이 꾸준히 관찰되며 여성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집안일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짐.
- 남성의 시간은 개인유지를 제외하면 유급노동과 여가에 집중되는 반면, 여성의 시간은 유급노동, 집안일, 돌봄, 여가로 구성되며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음. 시간부족에 대해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압도적임.
- 시간부족 인식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충분하다는 인식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남성은 40대부터 시간이 충분하다는 인식이 늘어나는 반면, 여성은 50대 이후에나 시간이 충분하다는 인식이 높아짐. 특히 시간부족 인식은 남성의 경우 30대에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여성은 60대에야 시간부족 인식이 낮아짐.
- 시간부족 인식의 원인을 살펴보면 남성은 직장일과 사회적 교제가 주된 원인인 반면, 여성은 직장일, 자녀양육, 집안일, 사회적 교제가 주된 원인으로 등장함. 이는 시간부족 인식 역시 남성과 여성의 생활시간 구성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줌. 남성의 시간은 유급노동시간에 집중되고 40대가 되면 일에 적응되고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약간의 시간 여유가 생길 수 있지만, 여성은 유급노동 뿐 아니라 자녀양육 및 돌봄과 집안일에 대한 부담이 끊임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50대까지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됨.
- 삶의 만족도는 보통 정도의 의견이 대다수이며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짐.

종사상지위에 따른 시간구성을 살펴보면, 상용직의 노동시간이 가장 길지만 실제의 차이는 남성은 30분, 여성은 50분 정도임.

-
- 집안일이나 여가 시간도 종사상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자영업과 무급가족종사자가 집안일을 많이 함.
 - 전반적으로는 시간부족 인식이 높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상용직을 제외하면 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이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는 응답보다 높음. 그러나 여성은 종사상지위에 관계없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시간이 충분하다는 인식보다 확연히 높음.
 - 삶의 만족도는 남성은 임시 및 일용직과 무급가족종사자가, 여성은 임시 및 일용직의 경우가 낮게 나타남.
 - 근무일과 휴일에는 시간사용이 다르며 근무일에는 유급노동과 여가 시간이 주를 차지한다면, 휴일에는 개인유지(주로 수면), 여가와 집안일로 이루어짐.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이중부담은 지속적으로 확인됨.
 - 일하는 여성일지라도 집안일과 돌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여성은 다양한 역할 속에서 시간을 구성해 내야함.
 - 24시간이라는 동일한 자원이 주어졌음에도 다양하고 복잡한 활동들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간 부족을 인식하고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휴일의 시간구성에서도 여성의 집안일 시간이 길다는 것은 여성은 평소의 여가시간 뿐만 아니라 주말의 휴식시간도 남성보다 짧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임시 및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노동시간은 상용직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는 낮은 것은 고용불안정성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됨.

2. 학습시간의 차별성과 정책적 함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10세 이상 초중고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시간의 차별성을 살펴봄. 특히 도시/농촌의 지역별 학습시간의 차별성과 부모의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 등으로 표현되는 부모의 경제력 혹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습시간의 차별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

- 전국적인 수준에서 여학생의 총학습시간이 남학생의 총학습시간보다 더 길게 나타남.
- 특히 사교육이라고 표현되는 학교외 학습시간의 측면에서 여학생의 학교외 학습시간이 남학생의 학교외 학습시간보다 더 길게 나타남.
- 요일별로 학교외 학습시간은 주중에는 193분, 토요일에는 180분, 일요일에는 163분 등으로 감소하지만, 주중, 토요일, 일요일 모두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학교외 학습시간을 기록하고 있음.
- 전국적인 수준에서 도시지역의 학생들의 총학습시간이 농촌지역 학생들의 총학습시간보

다 더 길게 나타남. 학교외 학습시간의 경우, 도시지역 학생들의 학교외 학습시간이 거의 40분 가까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남.

- 행정구역별로도 학습시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학교외 학습시간의 경우 요일을 통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남지역의 학생들의 학교외 평균 학습시간은 142분인데 반해,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학교외 평균 학습시간은 222분에 달해 행정구역별로도 학교외 평균 학습시간에 큰 차이가 존재함. 서울과 전남지역의 차이는 한국의 최고의 도시와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학교외 학습시간의 차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음.
- **도시와 농촌**의 평균 학습시간의 차이를 초, 중, 고로 나누어 살펴보아도 여전히 학교 학습시간 및 학교외 학습시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도시지역 학생들의 평균 학습시간이 농촌지역 학생들의 평균 학습시간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남.

한국사회의 불평등이 교육을 통해 대물림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음. 교육성취는 학습시간 특히 학교외 학습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혹은 경제력이 자녀교육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았음.

-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자녀의 학교외 학습시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초, 중, 고 재학생 자녀의 학교외 학습시간은 증가함. 이는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동일한 현상임.
- 또한 가구소득은 초, 중, 고에 재학중인 자녀들의 학교외 학습시간과 정의 관계를 이룸. 즉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초, 중, 고에 재학 중인 자녀들의 학교외 학습시간은 증가함. 이는 도시와 농촌에 관계없이 마찬가지로 나타남.
- 이 연구 결과,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도시와 농촌의 학습시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존재함을 발견함. 도시/농촌의 차이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시간 특히 학교외 학습시간의 차이에서 유의미하게 존재함. 이는 농촌출신 학생들의 사회적 성취가 도시출신 학생들의 사회적 성취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해줌.
- 부모의 경제력과 계급적 지위가 교육을 통해 대물림된다는 연구가 있음. 교육성취를 평균 학습시간 특히 평균 학교외 학습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부모의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과 학교외 평균 학습시간의 정의 관계는 부모세대의 계급적 지위가 교육을 통해 대물림되고 있다는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줌.
- 대학 입학 및 학력, 학벌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의 속성상, 도시/농촌의 학습시간의 차별성 및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습시간의 차별성이 한국사회의 계급재생산의 한 단면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름.

3. 유자녀가족의 가사·돌봄시간 구성 변화와 재분배 추이

지난 15년간 한국 유자녀가족의 가사·돌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1999-2014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막내자녀 연령별 맞벌이, 외벌이, 한부모 남녀의 시간사용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모든 양부모 가족에서 남성은 가사돌봄시간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핵심가사와 쇼핑가사 시간, 아이돌봄시간이 증가함. 이로 인해 남녀간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모든 양부모가족에서 여성은 가사시간은 감소하는 반면 돌봄시간은 증가함.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경향을 가구 단위의 돌봄시간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해석함.
- 한부모가족은 양부모가족과는 전혀 다른 경향을 보였으며, 변화양상에 있어서 남녀가 유사한 방향을 보임. 한부모들은 가사시간을 줄이는 경향은 양부모가족과 동일하였지만, 돌봄시간은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경향을 한부모가족의 새로운 전략, 또는 자원의 한계로 해석함.

4. 여가시간 구성비율에서의 차별성과 정책적 함의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임. 또한 생활시간조사 자료가 건강관련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에 있어 얼마나 유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병행하였음. 이 연구에서 MET(metabolic Equivalent Task) 수준에 따라 유형화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수행하는 신체활동의 유형과 빈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 대해 알아봄. 2014생활시간자료에서 20세 이상 성인자료만을 추출하였고, 여기에서 다시 현재 재학 중인 학생, 일지를 쓴 당일 날 아파서 쉬었다는 응답이 있는 대상자들의 일지를 제외한 44,111개의 일지가 분석됨. 시간자료에서 주행동 위주의 분석이 이루어졌음을 밝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심박수를 높이는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는 비율은 하루 평균 10.0%미만이었음. 특히 평일에는 5.0%에 채 미치지 못함. 주말평균으로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꼴로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임. 격렬한 신체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행위시간은 평균 1시간 20분이었고, 가장 빈도 높게 나타난 격렬한 신체활동은 구기운동 그 다음이 등산이었음.
-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수행하는 가벼운 활동은 걷기와 산책이었고 그 다음 순이 개인 운동이었으나 이러한 활동은 전체 여가시간 중 20.0%에 채 미치지 못하였음. 앉아

있는 경우 가장 많이 하는 행위는 식사, 실시간 방송보기, 간식 및 음료섭취 그리고 대면교제 순이었음. 실제로 방송시청(85.0%)은 주행동으로 음료 및 간식먹는 것(78.0%)보다도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났음.

- 이러한 신체활동은 계절적 요인을 받는 경향이 강하여 휴가철, 연휴가 많은 시기에 신체활동 빈도가 높았음.
- 신체활동에서 성별 격차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남녀 모두 실제 건강지침에서 권고하는 신체활동량에는 미치지 못하였음.
- 연령별로는 20-30대가 총여가시간 및 신체활동 비율에서 가장 열악하게 나타났음. 격렬한 신체활동이 활발한 시기는 40-60대 연령에 집중되었음.
- 총여가시간은 학력이 낮을수록 더 길었고, 반면에 신체활동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커지는 패턴이 나타났음.
- 소득수준으로 살펴보면, 고소득층의 여가시간이 매우 짧지만, 신체활동수준은 다른 어떤 소득집단보다 신체활동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고, 실제 행위시간도 길게 나타남.
- 한편 신체활동과 삶의 질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같은 신체활동의 영역에 속하지만, 심박수 상승을 초래하는 격렬한 활동은 각종 삶의 질 지표들과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가벼운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행위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생활만족도, 지각된 건강 모두에서 부정적인 인식과 관계가 있었음.

5. 기혼취업집단의 일-생활 균형

농가를 제외하고 20-60세 기혼취업집단의 일-생활 균형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개인유지에 투입된 시간의 배분을 유형화하였음.

- 근무일에는 일-개인유지 병행형, 여가 집중형, 가사노동 집중형, 일 집중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고, 일-개인유지 병행형>일 집중형>여가 집중형>가사노동 집중형의 순으로 나타남. 이 분석에서 성별 차이가 명확하게 도출되었음. 여가집중형의 경우 시간부족감과 시간피곤함 정도가 가장 낮고, 일 집중형은 시간부족감과 시간피곤함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비근무일에는 가사 집중형, 여가 집중형, 일-개인유지 병행형 등 세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고, 이 세 유형은 그 분포에 있어 비율적으로 큰 차이가 없게 골고루 나타났음.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 집중형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음.
- 심층분석으로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장시간 노동집단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는데, 근무일에 가사노동 중심형, 일 집중형, 여가 중심형 등 세 유형이 나타났고, 이 중 일

집중형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성별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 남성은 일 집중형이 60.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가사노동 중심형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비근무일에는 가사노동 집중형, 여가 집중형, 일-개인유지 병행형 등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났고, 여가집중형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남성의 경우 여가집중형이, 여성은 가사노동 집중형이 1순위로 나타나 성별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음.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집단의 경우, 근무일에 여성은 남성보다 총노동시간이 길고 여가시간이 짧았음. 비근무일 역시 여성은 가사노동시간이 길어 총노동시간이 남성보다 길었음. 이로써 여성의 경우, 자녀돌봄을 포함한 가사노동시간이 다른 생활시간영역에 영향을 미쳐, 일-생활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을 알 수 있음.

6. 유자녀 맞벌이가정의 시간빈곤과 가사노동시간사용

시간자원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져 있음에도 이를 재량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빈곤'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시간빈곤은 소득빈곤과 마찬가지로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시간빈곤은 객관적 시간빈곤과 주관적 시간빈곤으로 유형화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시간빈곤 중 일(시장노동)시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여가시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를 상대적 시간빈곤의 개념으로 측정하고, '시간부족감'을 주관적 시간빈곤으로 측정함.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간빈곤의 개념을 적용하여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의 시간빈곤율을 파악하고 시간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 간의 차이를 규명하였으며, 성별과 소득수준의 차원에서 시간빈곤집단의 가사노동 시간사용의 차이를 검증함.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 맞벌이가정의 시간빈곤에는 여가 기준을 적용한 상대적 시간빈곤의 개념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일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시간빈곤은 여성의 시간빈곤을 파악하기에 부적절하며, 주관적 시간빈곤에 따른 빈곤율은 지나치게 높은 경향이 있음.
- 시간빈곤 유형에 따라 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의 가사노동시간사용에는 차이가 있었음. 일 기준 상대적 시간빈곤을 적용하여 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은 더 많은 가정관리활동영역에서, 여성은 더 많은 가족돌봄영역에서 차이가 나타남. 여가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시간빈곤의 경우 남성은 청소, 주거관리에서, 여성은 음식준비나 구매에서 시간빈곤집단의 시간사용량이 적었음.
- 시간빈곤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가사노동시간사용의 성차를 살펴본 결과, 주관적 시간빈곤에서 차량관리를 제외한 모든 유의한 차이가 있는 가사노동영역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음. 한편, 시간빈곤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가 기준 상대적 시간빈곤에서 애완동식물 돌보기와 주관적 시간빈곤에서 자녀돌봄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시간빈곤집단과 시간비빈곤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시간빈곤문제를 경험하는 맞벌이가정의 가정생활에 대한 시간사용 실태를 규명하였으며, 시간빈곤계층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목 차

I. 연구목적과 연구배경	1
II. 국내의 선행연구고찰	4
1. 성인 및 고령자의 유급노동 관련연구	4
2. 학생의 교육 및 학습시간 관련연구	5
3. 한국인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의 구성 관련연구	6
4. 성인의 비노동시간 및 여가활동 관련연구	8
5. 기혼취업자의 일-생활 균형 관련연구	9
III. 연구내용	12
1. 과제연구의 방향	12
2. 연구의 내용	12
IV. 자료	14
1. 자료구성 및 가중치 문제	14
2. 변수구성	14
V. 시계열분석: 한국인의 24시간 시간배분의 변화	16
1. 유급노동시간의 변화 추이	17
2. 학생의 교육시간 변화 추이	24
3. 가사노동시간의 변화 추이	29
4. 비노동시간의 변화 추이	36
5. 기혼취업자의 일-생활시간 배분의 변화 추이	45
VI. 취업자의 유급노동	56
VII. 청소년의 학습시간	66
VIII. 유자녀가족의 가사·돌봄시간 구성 변화와 재분배 추이	92

IX. 성인의 여가시간과 신체활동수준	111
X. 기혼취업자의 일-생활 균형	125
XI. 유자녀 맞벌이 부부의 시간빈곤 실태와 정책적 함의	172
XII. 추후고려사항	188
참고문헌	189

표 목차

<표 4-1> 변수의 구성	15
<표 4-2> 표본의 일반적 특성: 연도별, 전체	16
<표 5-2-1> 학급별 학교에서의 학업시간, 1999-2014	24
<표 5-2-2> 학교에서의 학업시간, 1999-2014	25
<표 5-2-3> 학교 외 학업시간, 1999-2014	26
<표 5-2-4> 학교에서의 학업시간과 방과 후 학업시간의 합, 1999-2014	26
<표 5-3-1> 성인들의 연령별 가사노동시간(가사노동, 돌봄노동) 추이	32
<표 5-4-1> 성별, 연령별 개인유지시간 그리고 여가시간: 1999-2014	38
<표 5-4-2> 남성과 여성에 따른 여가시간 각 활동시간의 연도별 추이	40
<표 5-4-3> 비노동시간에서의 남녀격차에 대한 국가별 비교	44
<표 5-5-1> 기혼취업자의 일반적 특성의 연도별 변화	45
<표 5-5-2> 기혼취업자의 일-생활시간 배분의 연도별 변화	46
<표 5-5-3> 기혼취업자의 요일별 일-생활시간 배분의 변화추이	48
<표 5-5-4> 기혼취업자의 일-생활시간배분의 연령별 변화추이	50
<표 5-5-5> 기혼취업자의 성별 연도별 시간배분의 변화추이	52
<표 6-1> 취업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56
<표 6-2> 성별과 연령에 따른 생활시간 구성	57
<표 6-3> 종사상 지위에 따른 생활시간 구성	62
<표 6-4> 전일제와 시간제 근로자의 생활시간 구성	64
<표 7-1> 10세 이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67	
<표 7-2> 전국적인 수준에서 10세 이상 청소년의 학습시간	68
<표 7-3> 전국 도시/농촌별 총학습시간	69
<표 7-4> 전국 도시/농촌별 학교외 학습시간	74
<표 7-5> 부부-자녀 가족의 부모 교육수준별 초등학생의 학습시간	76
<표 7-6> 부부-자녀 가족의 가구소득별 초등학생의 학습시간	77
<표 7-7> 부부-자녀 가족의 부모 교육수준별 중학생의 학습시간	78

<표 7-8> 부부-자녀 가족의 가구소득별 중학생의 학습시간	79
<표 7-9> 부부-자녀 가족의 부모 교육수준별 고등학생의 학습시간	79
<표 7-10> 부부-자녀 가족의 가구소득별 고등학생의 학습시간	80
<표 7-11> 도시 부부-자녀 가족의 부모 교육수준별 초등학생의 학습시간	80
<표 7-12> 도시 부부-자녀 가족의 가구소득별 초등학생의 학습시간	81
<표 7-13> 도시 부부-자녀 가족의 부모 교육수준별 중학생의 학습시간	81
<표 7-14> 도시 부부-자녀 가족의 가구소득별 중학생의 학습시간	81
<표 7-15> 도시 부부-자녀 가족의 부모 교육수준별 고등학생의 학습시간	82
<표 7-16> 도시 부부-자녀 가족의 가구소득별 고등학생의 학습시간	82
<표 7-17> 농촌 부부-자녀 가족의 부모 교육수준별 초등학생의 학습시간	83
<표 7-18> 농촌 부부-자녀 가족의 가구소득별 초등학생의 학습시간	83
<표 7-19> 농촌 부부-자녀 가족의 부모 교육수준별 중학생의 학습시간	83
<표 7-20> 농촌 부부-자녀 가족의 가구소득별 중학생의 학습시간	84
<표 7-21> 농촌 부부-자녀 가족의 부모 교육수준별 고등학생의 학습시간	84
<표 7-22> 농촌 부부-자녀 가족의 가구소득별 고등학생의 학습시간	84
<표 7-23> 초등학생의 학교외 학습시간의 회귀분석	88
<표 7-24> 중학생의 학교외 학습시간의 회귀분석	89
<표 7-25> 고등학생의 학교외 학습시간의 회귀분석	90
<표 8-1> 가사돌봄시간의 정의	95
<표 8-2> 맞벌이가족의 총 가사돌봄시간 변화	97
<표 8-3> 외벌이가족의 총 가사돌봄시간 변화	100
<표 8-4> 한부모가족의 총 가사돌봄시간 변화	101
<표 8-5> 맞벌이가족의 가사노동시간 유형별 변화	103
<표 8-6> 외벌이가족의 가사노동시간 유형별 변화	104
<표 8-7> 맞벌이가족의 돌봄노동시간 유형별 변화	106
<표 8-8> 외벌이가족의 돌봄노동시간 유형별 변화	108
<표 8-9> 한부모가족의 돌봄노동시간 유형별 변화	109
<표 9-1> 변수의 정의	112
<표 9-2> 신체활동유형별 하루 평균 활동시간: 요일별 분포	113

<표 9-3> 신체활동의 유형별 행위자비율과 행위시간 순위: 앉아있는 활동, 일상적 활동	114
<표 9-4> 신체활동의 유형별 행위비율 순위: 가벼운 활동, 격렬한 활동	115
<표 9-5> 성과 연령에 따른 총여가시간 및 신체활동의 비중 차이	116
<표 9-6> 계절 및 기타 다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총여가시간 및 신체활동의 비중 차이	116
<표 9-7> 교육수준과 가계소득에 따른 총여가시간 및 활발한 신체활동의 비중 차이	117
<표 10-1> 분석대상자료의 일반적 특성	128
<표 10-2> 유자녀 기혼취업자의 시간배분	129
<표 10-3> 성별 시간배분의 차이(근무일)	131
<표 10-4> 성별 시간배분의 차이(비근무일)	132
<표 10-5> 연령별 시간배분의 차이(근무일)	134
<표 10-6> 연령별 시간배분의 차이(비근무일)	136
<표 10-7> 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근무일)	139
<표 10-8> 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비근무일)	142
<표 10-9> 기혼취업자의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 유형별 빈도 및 표준화 점수 (근무일)	144
<표 10-10> 기혼취업자집단의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 시간배분 유형별 특징 (근무일)	146
<표 10-11> 여성의 맞벌이 유무에 따른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 유형 (근무일)	147
<표 10-12>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 시간배분 유형별 시간부족감, 시간피곤함, 삶의 만족도, 가사분담 만족도, 시간활용만족도(근무일)	148
<표 10-13> 기혼취업자의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 유형별 빈도 및 표준화 점수 (비근무일)	149
<표 10-14> 기혼취업자집단의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 시간배분 유형별 특징 (비근무일)	151
<표 10-15> 남성의 맞벌이 유무에 따른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 유형 (비근무일)	153
<표 10-16>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 시간배분 유형별 시간부족감, 시간피곤함, 삶	

의 만족도, 가사분담 만족도, 시간활용만족도(비근무일)	154
<표 10-17> 주당 52시간 이상 근로자의 시간배분 실태	155
<표 10-18>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집단의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에 대한 시간 배분의 유형(근무일)	156
<표 10-19>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집단의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 시간배분 유 형별 특징(근무일)	158
<표 10-20> 장시간 근로 집단의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 시간배분 유형별 시간부 족감, 시간피곤함, 삶의 만족도, 가사분담 만족도, 시간활용만족도(근무일)	160
<표 10-21>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집단의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에 대한 시간 배분의 유형(비근무일)	160
<표 10-22>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집단의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 시간배분 유 형별 특징(비근무일)	162
<표 10-23> 장시간 근로 집단의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 시간배분 유형별 시간부 족감, 시간피곤함, 삶의 만족도, 가사분담 만족도, 시간활용만족도(비근무일)	164
<표 10-24> 미취학자녀를 둔 유배우 맞벌이 남성과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근무일)	165
<표 10-25> 미취학자녀를 둔 유배우 맞벌이 남성과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비근무일)	166
<표 11-1> 유자녀 맞벌이가정의 시간빈곤률	176
<표 11-2> 일 기준 시간빈곤 여부에 따른 유자녀 맞벌이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시간 사 용구조	177
<표 11-3> 여가 기준 시간빈곤 여부에 따른 유자녀 맞벌이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시간 사용구조	178
<표 11-4> 주관적 시간빈곤 여부에 따른 유자녀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사용구조	180
<표 11-5> 일 기준 상대적 시간빈곤 집단의 성별, 소득수준별 가사노동시간 사용구조	181
<표 11-6> 여가 기준 상대적 시간빈곤 집단의 성별, 소득수준별 가사노동시간 사용구조	182
<표 11-7> 주관적 시간빈곤 집단의 성별, 소득수준별 가사노동시간 사용구조	183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내용과 범위	2
[그림 5-1-1] 연도별 취업률	17
[그림 5-1-2] 성별 취업률	18
[그림 5-1-3] 연령별 취업률	19
[그림 5-1-4] 국가별 취업률	19
[그림 5-1-5] 국가별 임시직 비율	20
[그림 5-1-6] 국가별 자영업 비율	20
[그림 5-1-7] 취업자의 노동시간: 1999, 2014	21
[그림 5-1-8] 취업자의 성별 노동시간	21
[그림 5-1-9] 취업자의 연령별 노동시간: 1999, 2014	22
[그림 5-1-10] 취업자의 요일별 노동시간: 1999, 2014	22
[그림 5-1-11] 국가별 노동시간	23
[그림 5-2-1] 학교에서의 학업시간, 1999-2014	24
[그림 5-2-2] 주중 각급별 학교 학업시간 및 학교외 학업시간	27
[그림 5-2-3] 토요일 각급별 학교 학업시간 및 학교외 학업시간	27
[그림 5-2-4] 일요일 각급별 학교 학업시간 및 학교외 학업시간	28
[그림 5-3-1] 성인들의 가사노동시간(가사노동, 돌봄노동)의 변동 추이	29
[그림 5-3-2] 성인들의 성별 가사노동시간(가사노동, 돌봄노동) 추이	30
[그림 5-3-3] 성인들의 요일별 가사노동시간(가사노동, 돌봄노동) 추이	31
[그림 5-3-4] 10세미만 자녀 부모의 가사노동시간(가사노동, 돌봄노동) 추이	33
[그림 5-3-5] 10세미만 자녀 부모의 성별 가사노동시간(가사노동, 돌봄노동) 추이	34
[그림 5-3-6] 10세미만 자녀 부모의 요일별 가사노동시간(가사노동, 돌봄노동) 추이	35
[그림 5-4-1] 연도별 비노동시간(수면, 개인유지, 여가활동시간)의 배분 비율	36
[그림 5-4-2] 연도별 비노동시간(수면, 개인유지, 여가시간)의 배분 비율: 평일, 토요일, 일요일	37
[그림 5-4-3] 연도별 여가시간 활동(tv미디어, 능동적 활동, 컴퓨터활동, 교제활동, 취미 및	

유희적 활동)의 배분 비율	39
[그림 5-4-4] 연령에 따른 텔레비전 시청시간의 연도별 추이 비교	41
[그림 5-4-5] 연령에 따른 여가시간 배분 추이: 연도별 비교	43
[그림 5-5-1] 기혼취업자의 일-생활시간 변화의 연도별 변화	47
[그림 5-5-2] 요일별 일-생활시간 배분의 변화	49
[그림 5-5-3] 기혼취업자의 일-생활시간배분의 연령별 변화추이	51
[그림 5-5-4] 기혼취업자 남녀의 하루 시간배분의 연도별 변화	53
[그림 5-5-5] 기혼취업자 남녀의 성별 총 노동시간의 변화추이	54
[그림 5-5-6] 기혼취업자 남녀 시간부족감의 연도별 변화	55
[그림 6-1] 성별, 연령에 따른 생활시간 구성	59
[그림 6-2] 성별과 연령에 따른 시간압박감	60
[그림 6-3] 성별과 연령에 따른 시간 압박인식의 이유	61
[그림 6-4] 성별과 연령에 따른 삶의 만족도	61
[그림 6-5] 종사상지위에 따른 삶의 만족도	62
[그림 6-6] 근무일과 휴일에 따른 생활시간 구성	63
[그림 7-1] 도시/농촌의 10세 이상 초중고 학생들의 평균 학습시간	70
[그림 7-2] 도시/농촌별 초등학생의 학습시간	72
[그림 7-3] 도시/농촌별 중학생의 학습시간	72
[그림 7-4] 도시/농촌별 고등학생의 학습시간	73
[그림 7-5] 행정구역별 10세 이상 청소년의 학습시간	75
[그림 7-6] 주중 초등학생의 오후 학습시간	85
[그림 7-7] 주중 중학생의 오후 학습시간	86
[그림 7-8] 주중 고등학생의 오후 학습시간	87
[그림 8-1] 합계출산율 추이	92
[그림 8-2] 어린이집 이용률 추이	92
[그림 8-3] 주요국의 성별 가사노동시간	94
[그림 8-4] 맞벌이-미취학 가사돌봄시간	97
[그림 8-5] 맞벌이-취학 가사돌봄시간	97
[그림 8-6] 외벌이-미취학 가사돌봄시간	99

[그림 8-7] 외벌이-취학 가사돌봄시간	99
[그림 8-8] 한부모-취학 가사돌봄시간	101
[그림 8-9] 맞벌이-미취학 가사시간	102
[그림 8-10] 맞벌이-취학 가사시간	102
[그림 8-11] 외벌이-미취학 가사시간	104
[그림 8-12] 외벌이-취학 가사시간	104
[그림 8-13] 한부모-취학 가사시간	105
[그림 8-14] 맞벌이-미취학 돌봄시간	106
[그림 8-15] 맞벌이-취학 돌봄시간	106
[그림 8-16] 외벌이-미취학 돌봄시간	107
[그림 8-17] 외벌이-취학 돌봄시간	107
[그림 8-18] 한부모-취학 돌봄시간	108
[그림 9-1] 신체활동유형별 교차대응분석 결과	118
[그림 9-2] 신체활동유형 및 지각된 건강상태와 교차대응분석 결과	119
[그림 9-3] 신체활동유형 및 시간부족과 교차대응분석 결과	120
[그림 9-4] 신체활동유형 및 시간부족과 교차대응분석 결과	121
[그림 10-1] 일-가사-여가시간의 성별 비교(근무일)	131
[그림 10-2] 일-가사-여가시간의 성별 비교(비근무일)	132
[그림 10-3] 일-가사-여가시간의 연령별 비교(남성, 근무일)	134
[그림 10-4] 일-가사-여가시간의 연령별 비교(여성, 근무일)	135
[그림 10-5] 일-가사-여가시간의 연령별 비교(남성, 비근무일)	137
[그림 10-6] 일-가사-여가시간의 연령별 비교(여성, 비근무일)	137
[그림 10-7] 기혼취업자의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 시간배분의 유형 (근무일)	145
[그림 10-8] 기혼취업자의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 시간배분 유형의 성별 특징 (근무일)	147
[그림 10-9] 기혼취업자의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 시간배분의 유형(비근무일)	149
[그림 10-10] 기혼취업자집단의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 시간배분 유형의 성별 특징(비근무일)	152
[그림 10-11] 기혼취업자집단의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 시간배분 유형의 맞벌이	

여부/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른 특징(비근무일)	153
[그림 10-12]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집단의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에 대한 시간배분의 유형(근무일)	157
[그림 10-13]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집단의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 시간배분 유형의 성별 특징(근무일)	159
[그림 10-14]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집단의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 시간배분의 유형(비근무일)	161
[그림 10-15]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집단의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 시간배분 유형의 성별 특징(비근무일)	163
[그림 10-16] 미취학자녀를 둔 유배우 맞벌이 남성과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근무일)	165
[그림 10-17] 미취학자녀를 둔 유배우 맞벌이 남성과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비근무일) ·	166
[그림 10-18] 미취학자녀를 둔 유배우 맞벌이 남성과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 - 근무일과 비근무일의 비교	167

1. 연구목적과 연구배경

이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 그리고 이에 따른 여러 사회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생활세계'와 '시간'이라는 새로운 개념 및 시각에서 찾아보려는 시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인구고령화 문제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개인의 삶의 질은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생활시간의 구조, 시간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체험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시간자원(하루 24시간, 주 7일)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으나 활용방식, 활용가능성은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다. 시간자원의 불균등한 활용은 각 생애과정에 있는 개인과 가족 그리고 더 넓게는 사회적인 수준의 생활세계에서 저출산 및 고령화, 그리고 이와 얽혀 있는 여러 문제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생활시간자료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인들의 생활세계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해 왔고, 그들의 일상생활은 어떠한지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임금노동, 무급노동, 여가, 교육 그리고 일-가족 양립의 다섯 가지 요소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의 현 위치와 변동방향을 예측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에 바탕을 두고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체계적인 지식을 창출하고, 통해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인 정책수립의 기초적인 자료 제공 할 수 있도록 연구 목표를 설정하였다.

한국사회가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하면서, 개인의 생활세계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 주요 영역은 일-삶(work-life)으로 크게 양분화 될 수 있다. 대학졸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고학력 여성의 경력단절이 더 문제시되는 현 상황은 결혼기피, 늦은 결혼, 늦은 출산 그리고 저출산이라는 그 파급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여성의 취업률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양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관찰되는 취업경력은 취업/직업단절/재취업을 반복하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 특히 여성이 직업역할과 가족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지 못하고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할 만큼, 여전히 두 가지 역할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남녀 모두 일과 가족역할을 양립하는 문제에서 유리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직업역할과 가족역할을 병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정책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동안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여성고급인력의 활용도 역시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고령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모습과 욕구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고령자에 대한 유급노동, 여가와 관련된 상호모순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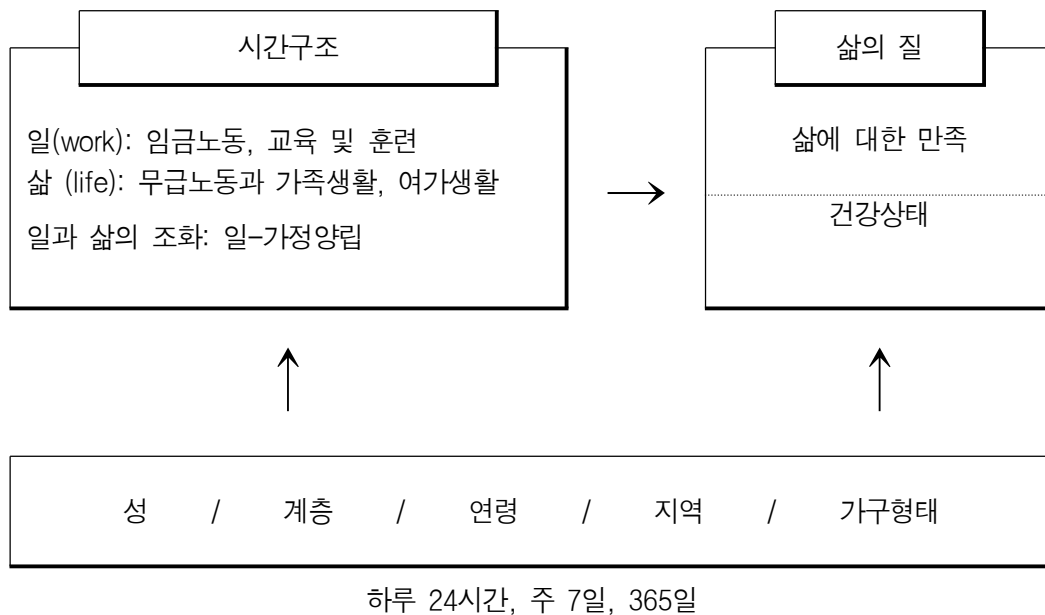
한국인의 생활세계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활용한 정보가 생산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한국인들의 삶을 이해하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 창출을 의미한다. 생활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정책적 방향을 재설정하는 작업은 현대 가족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함에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시간자원은 일-삶의 균형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료 및 분석틀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개개인의 하루일상이 어떠한 문법과 구성으로 짜여 지며, 그것의 반복성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중요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내거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하루, 일주일 그리고 일 년으로 이어지는 행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정책방안 모색을 위해 일(work)과 삶(life) 그리고 삶의 질(quality of life)의 문제를 핵심적인 키워드(keyword)로 삼고, 이를 대표하는 다섯 가지 영역에서의 생활세계 세 요소간의 상호관련성을 기술함으로써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연구내용과 범위는 <그림 1>에서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내용과 범위



본 연구에서 살펴볼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일(work)은 조직의 영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임금을 얻기 위한 직장 생활에서부터 가사노동, 각종 사회참여, 학교생활에 이르기까지 조직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세계의 시간구조 및 시간경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둘째, 삶(혹은 생활, life)은 삶의 영역에서는 개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운동, 흡연, 음주행위에서부터 간식이나 음식섭취와 같은 개인적인 시간을 비롯하여, 가족영역의 생활세계의 모습으로 가족역할과 관련된 시간, 여가,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 시간 등을 다루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였다.

셋째,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생활세계를 살아가는 개개인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정서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상을 영위하는 개인이 느끼는 만족도, 건강상태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시간사용의 구체적인 영역들과 삶의 질 영역들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은 각각의 영역에서 차별화된 시간경험을 하는 동시에, 개별 영역에서의 시간을 생활세계라는 이름으로 모두 경험하게 되므로 각 주제영역에서 시간에 대한 통합적 관점(holistic perspective)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II. 국내외 선행연구고찰

1. 성인 및 고령자의 유급노동 관련연구

한국은 OECD 국가 중 2번째로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급노동 시간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999년과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15년 동안 유급노동시간의 양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연령, 성별, 교육수준 등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유급노동시간의 양은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유급노동의 형태는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하루의 생활시간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술적인 수준에서 분석한다. 고령화와 청년취업 등 한국사회의 당면과제를 고려하여 청년층과 노년층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들의 유급노동 형태와 시간이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지난 2000년대 진입 이후 유급노동에서 나타나는 주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유급노동 형태의 다양화에 있다. 종사상지위나 취업형태(전일제, 시간제)에 따라 차별적인 모습을 나타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성별과 연령과 같은 기본적인 인구사회적 특성뿐만 아니라 종사상지위나 취업형태에 따라서 유급노동시간의 양과 생활시간 구성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인식과 그 이유, 삶의 만족도도 함께 살펴본다.

이 연구는 첫째, 1999년과 2014년 자료를 비교하여 전체적인 취업자의 비율과 노동시간의 변화를 간략히 살펴본다. 더불어 OECD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노동시간과 노동시장의 현황을 기술적인 수준에서 비교한다. 둘째, 성별과 연령에 따라 노동시간 뿐만 아니라 생활시간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와 시간 부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다. 주된 비교기준은 성별과 연령이다. 셋째, 종사상지위와 취업형태에 따라 생활시간 구성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상용직, 임시 및 일용직,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의 하루 생활과 삶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살펴보고, 전일제와 시간제 근로자의 생활시간 및 노동시간의 차이를 살펴본다. 기술적인 수준의 분석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밝히거나 단언적인 결론을 짓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추후 연구에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학생의 교육 및 학습시간 관련연구

이 연구는 한국 초, 중, 고등학생들의 교육시간을 분석하여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심층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학생들의 교육관련 정책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 학생들의 경우, 과도한 입시 경쟁, 직업의 전문화와 세분화와 청년실업 증가에 따른 취업 준비의 압박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교육에 투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에서 학생들의 학습시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학생들의 시간관리에 대한 이론적 저서나 청소년들의 삶과 의식구조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시도되었으나 전국적인 수준의 대규모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청소년 온라인 행태조사자료나 청소년패널조사, 그리고 아동실태조사 등을 통해 학생들의 생활 특히 학습시간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로 학생들이 정규교육과 사교육에서 언제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여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에서도 시간사용의 주체로서 아동 청소년에 관한 관심이 꾸준히 있었지만, 막상 학생들의 학습 및 교육시간에 초점을 둔 체계적인 연구는 많지 않았다. 교육 분야에서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직접 활용한 연구로는 1999년도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한국의 초중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의 생활시간 사용실태 및 의미를 밝히고자 한 연구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후에는 주5일 수업제의 확산에 따른 학생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2004년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공개는 교육 분야에서 생활시간 연구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이어졌다. 그 밖에 가족구조에 따른 아동의 생활시간을 탐색한 연구, 청소년의 생활시간 활용실태와 변화과정을 학생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니트(NEET, 학교에도 다니지 않고 일도하지 않는 청소년)청소년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탐색한 연구 정도가 발견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첫째, 생활시간자료를 활용하여 1999-2014년까지 학생들의 공부시간에 대한 투여가 얼마나 이루어져 왔는지 변화과정을 추적해보고 그 변화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둘째, 2014년 현재 시점에서 학생들은 성과 연령, 계층 및 지역별로 공부시간에 대한 투여가 어떠한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통계청의 2014생활시간자료는 지난 1999, 2004, 2009의 세 번의 조사와는 달리 여름, 가을, 겨울 등 계절에 따른 생활시간활용 양상이 조사되었다. 이는 학생들의 경우 방학과 학기 중에 공부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특히 정규교육시간과 사교육시간, 혼자 공부한 시간의 분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수준에서 기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지난 3번의 조사와는 달리, 2014년 자료에서는 가계소득수준, 부모의 취업상태 등이 함께 조사되기 때문에 학생의 교육시간에 대한 투자가 가구특성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상당히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셋째, 2014년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성과 연령, 계층 및 지역별로 학생들이 투입하는 학업 시간량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자료는 지난 1999, 2004, 2009년에 이루어진 지난 조사와는 달리, 여름, 가을, 겨울 등 계절에 따른 시간사용 양상이 조사되었다. 이에, 학기 중과 방학 동안 학습시간을 비교할 수 있으며, 특히 정규교육시간과 사교육시간, 혼자 공부한 시간의 분포를 구체적인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2014년 자료에서는 가계소득수준, 부모의 취업상태 등이 함께 조사되었으므로 가구특성 별 학업시간에 대한 투자양상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관련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실제에 가깝게 규명함으로써 다른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후 이 분야 연구를 촉발 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된다.

3. 한국인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의 구성 관련연구

이 연구는 1999-2009년간 이루어진 가사노동의 구성과 재분배 추이가 지난 5년 동안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었는지, 또한 가사노동의 구성과 재분배 추이의 변화가 감지된다면 그것은 어떠한 방향성을 나타내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가구유형, 성별, 아동의 연령과 수, 계층 변수 등에서 드러나는 변화의 차이를 탐색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시간압력을 낮추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가사노동시간의 변동에 대한 연구는 시간사용 데이터를 통해서만 분석이 가능하며, 특히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간일지(time-diary) 방식으로 작성한 생활시간조사는 가장 신뢰도 높은 분석 자료이다. 가사노동은 가족원에 의하여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생산활동으로 정의되는데, 생활시간조사에서 가사노동은 크게 '가정관리활동'과 가족원 '돌봄활동'의 두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정관리영역에는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가계부 정리, 은행 및 관공서 일보기 등의 세부영역이 포함된다. 돌봄영역에는 미취학아동, 초중고생,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 등 가족구성원별 보살핌 시간이 측정되었다. 따라서, 생활시간조사는 복잡다양한 일상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의 속성을 가장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적 도구가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무급노동 부분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환산의 부분이다. 시간이라는 객관적 자원을 토대로 한 비임금부문의 계량화를 시도함으로써 무보수노동으로서의 가사노동의 가치측정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경제적 기여도를 산출할 수 있으며, 시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구조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론적·실천적 의의가 높다. 교환가치를 측정할 수 없으나 사용가치 또는 효용을 산출하는 생산활동으로서 중요한 경제적 함의를 지니는 영역인 무급노동에는 가계생산에 해당하는 가사노동이 대표적인 유형으로 포함되고 있다. 가사노동시간의 양적 분석은 자본주의체제에서 시장교환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논의에서 제외되어 온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을 유지하는 가정관리활동과 가족구성원을 보살피는 돌봄이 지닌 사회적 기여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였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 한국사회가 시도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한 고용 및 복지정책 과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의 배분 비율이 각 사회집단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인들의 가사 및 돌봄 등 무급노동시간은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남성의 가사노동 및 돌봄시간은 매우 짧아 남녀 간 시간사용의 극심한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 1999-2009년의 생활시간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자녀연령 및 가족유형과 관계없이 주요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둔 여성, 특히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자녀돌봄시간이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미취학자녀를 둔 아버지의 가사노동 및 돌봄시간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여성은 가사노동시간을 줄이고 자녀돌봄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간사용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는 반면, 남성은 자녀돌봄을 중심으로 한 비임금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2014년까지 15년간의 시계열 자료 분석 그리고 일-가족 양립정책이 정교화된 2010년이후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2014년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가사노동시간 사용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긴장의 문제를 예측함으로써 가족정책 및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적 논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가사노동의 부부간 성역할의 추이를 분석하여 새로운 가족문화와 성평등지표의 제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복잡다양한 행동을 포함하는 가사노동의 유형별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함으로써 총가사노동시간의 양적 추이는 물론 가사노동의 내용적·구조적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 미취학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가사노동시간 증가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배우자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시간 정책’의 효과가 탄력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가사노동에 관한 분석을 통해 경제적 불황의 심화와 경쟁의 압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가족 단위의 재생산노동이 어떻게 재구조화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 가족 단위의 시간압력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의 유형과 내용을 개발하는 데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미래세대를 위한 가족생활교육, 성평등교육 등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성인의 비노동시간 및 여가활동 관련연구

일상생활 연구가 사회과학의 중요한 연구주제로 인식되면서 일상생활 가운데 그동안 관심영역에서 벗어나 있던 비노동시간(혹은 여가시간) 대한 연구가 최근들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는 추세이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사회학 분야를 중심으로 여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외국에서의 연구 현황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임금 기혼 맞벌이 노동자의 노동시간과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을 탐색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후 진행된 연구들은 비노동시간 중에서도 텔레비전 확산에 따른 텔레비전 시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관련연구들은 당시 서구의 연구 경향을 반영하듯 텔레비전에 의한 여가의 식민화, 여가 패턴의 동시화, 여가의 관행화, 생활양식의 사사회, 미디어 대체, 사회자본과 텔레비전 시청의 차별화 등의 이론적 논의로 그 폭이 확대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주5일 근무제 실시와 여가생활 패턴의 변화에 대한 관심으로 연구가 활성화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와 함께, 여가관련 선행연구들은 1999년과 2004년에 실시된 통계청 조사 자료를 이용한 한국인의 여가생활과 미디어 사용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최근 여가 연구들은 운동, 건강행동, 문화생활 등 여가산업 및 서비스 업종의 확대에 의해 어떠한 여가생활에 사람들이 시간을 배분하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고 있다.

생활시간자료의 분석결과로 볼 때, 한국사회는 지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노동시간의 감소 및 비노동시간의 증가 현상이 목격되었다. 이러한 비노동시간의 증가 현상을 두고 학자들은 그것이 곧 여가활동의 다양화 특히 개개인의 건강함과 직결되는 여가활동의 증가로 이어졌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늘어난 비노동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때문에 한편에서는 비노동시간에 어떤 활동들이 주로 이루어지는지, 그것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얼마나 차별적인지와 같은 비노동시간의 변화 추세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비노동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실제 건강한 생활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지 활동의 내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최근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건강하고 활동적인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동일한 시기에, 텔레비전,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 기기에 이르기까지, 미디어에 의한 여가시간의 식민화·여가 패턴의 동시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도 목격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여가강박, 여가중독이라고 해서 과도한 여가시간을 즐기고 탐닉하는 집단의 출현에 주목한 연구들도 보인다. 그런가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도 텔레비전 시청과 같이 수동적이고 비활동적인 여가가 주류를 이루는 집단도 발견된다. 여가시간이 사회계층에 따라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계층간 건강불평등성으로 이어질

우려도 조심스럽게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서구 연구들은 스마트 기기나 컴퓨터 활동, 텔레비전 시청과 같은 “혼자 하는 활동”이 증가하고, “함께 어울리는 활동”의 성격을 지닌 여가시간이 줄었다는 점에도 주목하면서, 이 여가시간 활용과 시민의식의 변화를 점치는 연구들도 발견된다. 여가를 둘러싼 이러한 상반된 경향성을 고려해 볼 때, 지난 15년 기간 동안 능동적/수동적 여가시간의 비율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그것은 사회적으로 균일하게 분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15년간 비노동시간이 증가하면서 비노동시간을 활용하는 방식에 무엇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 변화 모습을 추적한다. 또한 능동적 여가와 수동적 여가의 배분 비율, 사회 내에서 능동적/수동적 여가의 배분양상은 한 사회의 건강관련정책을 수립함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2014년까지 20세 이상 성인의 능동적/수동적 활동시간의 배분양상은 총노동시간과 비교해서 얼마나 되는지, 능동적/수동적 (여가)활동시간에는 어떠한 활동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전반적 추이분석과 심층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능동적 여가활동에는 운동, 야외활동 그리고 문화 및 각종 관람활동을 포함시켰다. 수동적 여가활동은 주로 앉아서 수행하는 활동들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텔레비전 및 컴퓨터 활용과 같은 미디어 사용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5. 기혼취업자의 일-생활 균형 관련연구

이 연구에서는 가구 및 가족을 단위로 하여 일/가정, 일/생활의 양립 형태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구형태별로, 남녀에 따라 생활의 영역별 시간사용 및 시간대별 분석을 통하여 일과 가정/일과 생활의 양립상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맞벌이 혹은 외벌이 가족에서 살아가는 개개인들이 느끼는 시간부족감, 시간피로도, 삶의 만족도 등과 일-가정 양립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한다. 이러한 생활시간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정책 및 다양한 사회정책 분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맞벌이 가구의 보편화와 일-가정 양립의 문제가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한국 사회는 여성의 취업률 증가와 함께 맞벌이 가정의 보편화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취업생활을 하는 여성과 남성의 부모권 그리고 노동권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사회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부상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생애 일정한 시기에 경력을 중단하는 M커브형 생애노동주기현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제 2차 가족실태조사(2010)에서 일하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이유로 가사부담 그리고 자녀양육부담이 우선순위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여성의 경력 단절, 결혼과 출산의 회피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 바, 일하는 여성이 일과 가

정을 양립할 수 있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서비스는 결과적으로 여성인력의 지속적 활용, 저출산문제 해결 등 중요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 가구의 증가는 비단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일-가정 양립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일과 가족 역할을 병행한다는 것은 남성에게도 주어져야 하는 권리로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생계부양의 부담이나 장시간 노동과 같은 상황은 남성이 가족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남성에게도 일과 가정의 양립은 이들 집단의 삶의 질 향상, 생활만족도와 행복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 남성의 경우 현실적으로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나(38.9%), 희망사항은 일과 가족을 동시에 중요하게 여기거나(32.3%),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31.3%)가 많았다. 일하는 아빠의 희망사항과 현실의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희망하는 삶의 가치는 일과 가족생활 양립>가족생활>일>개인생활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의 삶의 실상은 일>일과 가족생활 양립>가족생활>개인생활 등의 순서로 나와 남성에게도 일과 가정이 양립은 매우 중요한 삶의 요구로 등장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이상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은 가족정책은 물론 노동정책, 저출산정책, 여성정책 등의 차원에서 핵심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족정책 차원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은 여성이 갖는 돌봄과 가사의 부담 경감, 남성의 가족역할 회복, 가족 간 평등한 역할분담 등의 차원에서 핵심적인 아젠다로 추진되어오고 있다. 생활시간자료를 통해 현재 맞벌이 가구가 처해있는 생활세계에 대한 집중적인 탐색과 삶의 질의 연계를 살펴보는 분석결과는 가족정책은 물론 다양한 사회정책 차원에서 국민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적 서비스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일-가정 양립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는 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제도를 다루거나 개인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분석하여 왔다. 개인의 시간 일지 분석을 통해 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돌봄노동시간 포함), 여가시간의 양과 함께 각 영역의 비중을 탐색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생활의 균형 실태를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다.

동일한 맞벌이 가구의 24시간도 최근의 정책변화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변해 왔는지 파악할 수 있다. 지난 1999년 이후 2014년 현재까지 그동안의 일-가정 양립 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의 시간자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며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상징인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경우 1차(2006-2010)에서는 직장가정 양립이 6개 정책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었으며, 2차(2011-2015)의 경우 남성의 가족생활참여 지원,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의 차원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과 관련된 제도적 서비스의 활성화가 부각되고 있다. 여성정책의 경우 제 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 기반 구축이 7개 정책과제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제2차 저출산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 플랜(2011-2015)의 경우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가 주요 추진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고용노동부에서도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고용평등사회 실현을 추구하는 다양한 제도적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Ⅲ. 연구내용

1. 과제연구의 방향

이상의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면서 과제연구의 방향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특이성과 구체성에 초점을 두었다. 일상생활의 주요 주제들이 지난 15년간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특징을 포착하는 추이변화에 대한 분석과 2014년 현재 생활세계의 모습을 구체적인 수준에서 묘사하고 기술하는 분석을 동시에 실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특이성에 주목하였다. 다섯 개의 세부 주제영역, 유급노동, 가사노동, 교육과 여가 그리고 일가족 양립 양상의 내용과 성격이 지난 15년간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전반적인 추세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구체성에 주목하였다. 다섯 가지 주요 주제 내에서 생활시간의 변화가 연령을 비롯한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징과 맞물려 어떠한 차별성과 동일성을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된 결과는 노동, 교육, 문화, 건강, 가족정책 등 각종 국가 및 사회정책 효과 분석 및 신규 정책 수립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의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지난 1999년부터 현재(2014)까지 한국인의 일상생활의 특성과 변화를 시간사용의 관점에서 기술하는데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사회의 특성들을 포착하고, 이를 통해 각종 국가 및 사회정책 효과 분석 및 신규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연구의 내용은 위에 제시한 연구틀 및 연구 방향을 근거로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시계열적으로 한국인의 시간배분 상황을 기술하고 그 변화를 추적, 유급노동, 가사노동과 가족생활, 여가생활 및 교육의 분야에서 지난 15년간 한국인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추이 분석을 통해 변화의 방향을 진단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둘째, 대중적인 관심에 초점을 맞춘 주제들을 선정하였다. 기존에 생활시간자료에 대한 분석이 학문적 영역의 관심에 머물러 노동이나 여가관련 이론 검증에 연구논문이 치우쳐 온 것을 탈피, 조금 더 대중적 주제들을 발굴하고자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겪는

각종 시간과 관련된 딜레마가 실제 시간활용 측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포착하고 진단하고자 한다.

셋째, 시간량 분석과 시간대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생활시간자료를 다각도에서 조명하고 분석 및 해석하고자 한다. 기존 한국의 시간연구는 주로 시간량 연구에 집중되어 온 측면이 있었다. 이 연구를 계기로 기존에 이루던 시간량 분석과 함께, 시간대 자료에서 나타나는 시간대별 시간사용의 특성, 장소변수까지 포함하는 시·공간적 정보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자 한다.

넷째, 성과 연령, 계층, 지역 그리고 가구형태를 중심으로 각 시간영역이 어떻게 분석될지 파악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시간연구가 유급노동, 가사노동, 그리고 여가와 교육의 각 분야에서 산발적으로 수행되어 왔던데 비해, 이 연구는 우리의 일상을 이루는 각 영역을 보편성과 특이성이라는 주제 하에, 성과 연령 그리고 계층에 따라 어떻게 각 영역의 시간배분이 이루어지는지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다섯째, 이번 2014년부터 생활시간자료에 포함된 삶의 질 지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간배분유형과 삶의 질이 상호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지금까지 시간사용연구가 기술분석, 추론분석에 머무르던 것에서 시간사용의 결과물(outcome)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이 가능해 졌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 영역 변수들과 시간사용 변수의 연계성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여섯째, 일과 삶 그리고 그 두 영역의 균형과 삶의 질의 문제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모형이나 그림, 그래픽으로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시간사용연구들이 주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모델링을 통해 방향성을 추론하는데 치우친 경향이 있다. 때문에 현실세계에서 직접적 관련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시간연구내용을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제시해 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갖춘 여러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시작함으로써, 각 분야별로 시간사용 문제에서의 딜레마를 발굴하고 탐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동연구는 추후 의학, 보건학, 지리학 등 생활시간자료를 다루지 않았던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작업하는데 있어서 포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V. 자료

1. 자료구성 및 가중치 문제

본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계청이 생산한 1999-2014 총 4개년도 생활시간자료의 원자료와 통계청의 생활시간분석 자료집을 분석에 활용한다. 데이터 파일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우선 시계열 분석을 위해, 지난 15년 동안 이루어진 생활시간 자료, 즉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자료에 나타난 변수들을 호환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여 4개 차수의 자료를 통합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다만, 시계열을 관통하는 가중치가 현재 생활시간조사자료에서는 가용하지 않은 관계로 이번 시계열 분석에서는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도별 행위시간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통계청의 2014생활시간 원자료를 활용하여 심화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여기에는 각 행위별로 타겟 분석대상자를 선정하여 심화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장에서 제시하는 연구 주제마다 선별한 인구집단이 달랐기 때문에, 일괄적인 가중치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가중치를 활용하지 않았다. 때문에 모수 추정을 하지 않는 단순 집계값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작성하거나 분석한 통계청의 공표자료와는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연도별 분석의 경우 개별 연도마다 응답자의 수나 성과 연령 그리고 가구 비율 등이 다르지만 시계열을 관통하는 가중치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분석한 결과이다. 따라서 시계열 분석에서 나타나는 연도별 차이에는 표본설계의 영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변동으로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지하기 바란다.

2. 변수구성

이 연구에서 다루는 유급노동시간, 학습시간, 가사노동, 여가시간(개인유지 및 여가시간)의 구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 4-1>에 제시하였다.

<표 4-1> 변수의 구성

유급노동 (취업자의 경우)	노동시간 출퇴근시간 그 외 일관련이동시간	직장, 제테크, 사업체 등에서 노동시간 및 노동관련된 업무시간
학습시간 (학생의 경우)		학교활동 학교외 활동 및 학습시간
가사노동	돌봄시간 돌봄관련이동시간 가사시간 가정관리, 구매 및 서비스 가정관리,가사노동관련이동시간	미취학아동, 초중고등학생 자녀, 배우자, 기타가족원 돌봄시간 의식주생활과 관련된 모든 노동시간 가정계획 및 재정관리, 관련서비스 이용 및 각종 구매활동
개인유지 (생활필수)	수면 기타 개인유지	주수면, 잠을 이루지 못함* 위생활동, 먹기(음식, 간식, 음료), 외모가꾸기, 자가치료, 아파서 쉽, 이미용서비스 받기, 건강관리, 의료서비스 받기
여가(활동)시간	관람 및 문화 종교활동 자원봉사 및 행사참여 사교시간 건강행동 TV 기타 미디어 이용 여가활동과 관련된 이동시간의합 과 기타 이동시간	공연, 전시장 관람 및 기타 문화생활, 각종 취미활동과 놀이, 게임 종교활동 및 종교모임 및 행사참여 자원봉사, 각종 조직 대인 접촉 및 교제시간, 기기를 이용한 교제 등산, 걷기, 헬스시설이용, 단체스포츠, 및 각종 야외활동 텔레비전 시청 및 각종 비디오, PMP DMB와 같은 영상물시청 신문, 잡지 읽기, 라디오, 오디오, 컴퓨터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블 로그 만들기, 웹검색) 등

V. 시계열분석: 한국인의 24시간 시간배분의 변화

이 총론부분에서는 포괄성과 구체성에 초점을 두었다. 일상생활의 주요 주제(대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는 세부 주제에 대한 동시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의 시계열 분석을 위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표 4-2>에 제시하였다.

<표 4-2> 표본의 일반적 특성: 연도별, 전체

(단위: 명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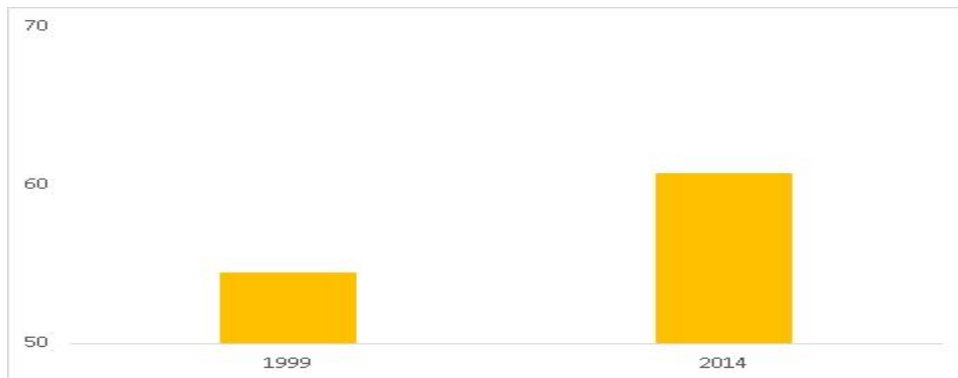
		1999	2004	2009	2014	전체
전체		N=85,860 (100)	N=63,268 (100)	N=40,526 (100)	N=53,976 (100)	N=243,630 (100)
요일	주중	52,339 (60.9)	37,955 (59.9)	24,256 (59.8)	32,427 (60.0)	146,977 (60.3)
	토요일	16,976 (19.7)	12,704 (20.0)	8,173 (20.1)	10,808 (20.0)	48,661 (19.9)
	일요일	16,545 (19.2)	12,609 (19.9)	8,097 (19.9)	10,741 (19.9)	47,992 (19.7)
성별	남성	40,296 (46.9)	29,798 (47.1)	19,428 (47.9)	25,384 (47.0)	114,906 (47.1)
	여성	45,564 (53.0)	33,470 (52.9)	21,098 (52.0)	28,592 (52.9)	128,724 (52.8)
연령	10대	15,896 (18.5)	10,714 (16.9)	7,368 (18.1)	7,648 (14.1)	41,626 (17.0)
	20대	14,392 (16.7)	8,588 (13.5)	4,810 (11.8)	5,746 (10.6)	33,536 (13.7)
	30대	17,462 (20.3)	12,306 (19.4)	7,106 (17.5)	8,672 (16.0)	45,546 (18.6)
	40대	14,596 (17.0)	12,922 (20.4)	8,174 (20.1)	10,160 (18.8)	45,852 (18.8)
	50대	10,288 (11.9)	7,830 (12.3)	5,620 (13.8)	9,426 (17.4)	33,164 (13.6)
	60대	8,052 (9.3)	6,308 (9.9)	3,888 (9.5)	5,892 (10.9)	24,140 (9.9)
	70대 이상	5,174 (6.0)	4,600 (7.2)	3,560 (8.7)	6,432 (11.9)	19,766 (8.1)
학생여부	학생	17,576 (20.4)	12,356 (19.5)	8,396 (20.7)	9,140 (16.9)	47,468 (19.4)
	비학생	68,284 (79.5)	50,912 (80.4)	32,130 (79.2)	44,836 (83.0)	196,162 (80.5)
취업여부	취업자	47,216 (54.9)	35,116 (55.5)	21,898 (54.0)	29,934 (55.4)	134,164 (55.0)
	비취업자	38,644 (45.0)	28,152 (44.5)	18,628 (45.9)	24,042 (44.5)	109,466 (44.9)
혼인상태	미혼	35,478 (41.3)	25,536 (40.3)	16,558 (40.8)	21,750 (40.3)	99,322 (40.7)
	(미혼, 사별, 이혼 포함)					
	기혼	50,382 (58.6)	37,732 (59.6)	23,968 (59.1)	32,226 (59.7)	144,308 (59.2)

앞서 변수 설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학습을 포함한 노동시간(일)과 비노동시간(삶)으로 활동을 구분하였다. 노동 및 학습시간에는 유급노동, 학생의 학습시간, 그리고 가사노동이 포함된다. 비노동시간에는 개인유지와 여가시간을 포괄한다.

특히 이 시계열 분석에서는 선행연구(Moen, 2003; Bianchi et al, 2006)들을 참고로 하여 요일과 성별, 그리고 연령에 따라 분석대상자들의 유급노동, 학생의 학습시간, 가사노동, 개인유지(생활필수 병기함) 그리고 여가시간의 분포가 어떻게 다른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네 가지 주요활동시간의 증감이 요일의 리듬에 따라 그리고 남녀가 처한 다양한 맥락에 따라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면밀하게 살펴보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혼 취업자를 대상으로 일-삶의 배분방식이 지난 15년간 어떻게 달라졌는지 시간배분 비율의 요일, 성별, 연령별 분석을 시도하였다.

1. 유급노동시간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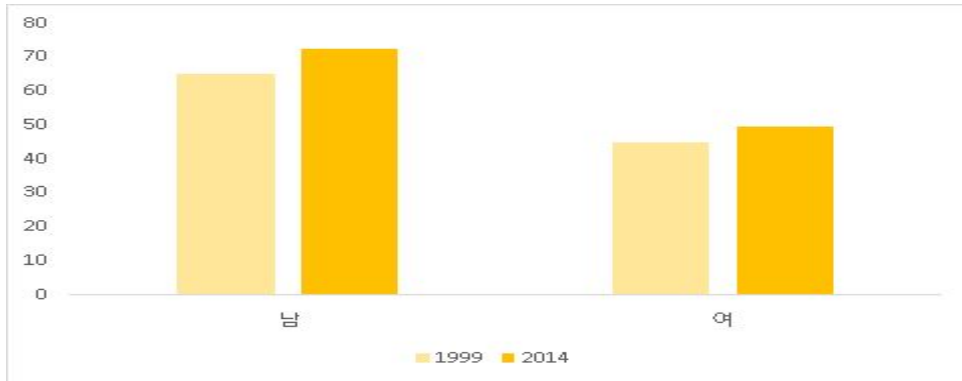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우선적으로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난 한 주일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무급가족종사자 포함)을 살펴보고, 이후에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유급노동시간(이하 유급노동시간 혹은 노동시간으로 기술함)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요일, 성별, 그리고 연령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OECD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활동참가율 및 노동시간을 비교한다.



[그림 5-1-1] 연도별 취업률 (단위: %)

[그림 5-1-1] 은 “지난 1주일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무급가족종사자는 18시간 이상 일을 하였음)?”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대답한 경우만을 추려서 그래프로 작성한 것이다. 응답비율은 1999년 54.5%에서 2014년 60.7%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99년에는 경제위기의 여파가 남아서 일하는 응답자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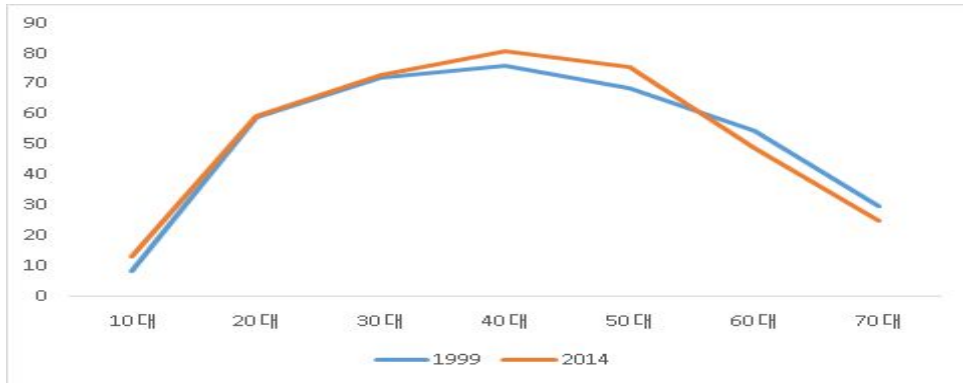
낮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1-2] 성별 취업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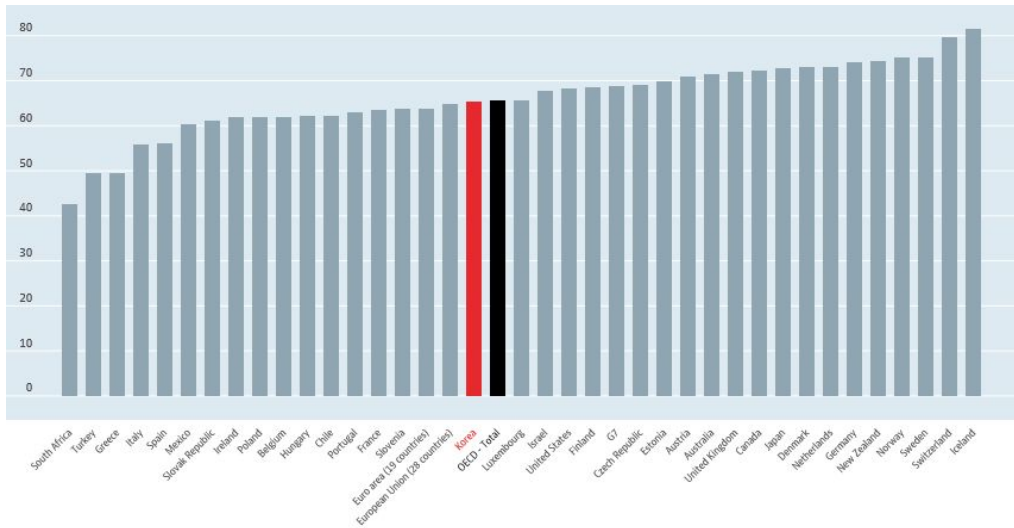
전반적인 취업률은 1999년에 비하여 2014년에 증가하였으나 성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남성의 취업률은 1999년 65.2%에서 72.4%로, 여성의 경우에는 1999년 44.9%에서 2014년 49.6%로 증가하였으나 여성의 과반은 여전히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연령 인구의 감소에 대하여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구조와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대하여 차별적인 구조(예: 임금차이 등)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의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성별 취업률은 그 자체보다 어떤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성들이 종사하는 직종이나 직업 안정성, 임금수준은 남성과 비교하여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변수와 교차하여 보다 구체적인 분석과 비교를 하는 것은 뒷부분에서 다룰 예정이다.

연령대별 취업률은 거의 유사하지만, 1999년과 비교하여 2014년에 10대, 40대, 50대의 취업률이 약간 높다는 점과 60대 이상 고령자의 취업률이 약간 낮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10대는 가장 취업률이 낮은 연령대이지만 1999년에 비하여 2014년에 약간 높아졌다. 이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40대와 50대의 취업률은 1999년과 2014년을 비교하였을 때, 각각 76.1%에서 80.8%, 그리고 68.7%에서 75.5%로 높아졌다. 반면 60대와 70대의 취업률은 1999년에 각각 54.6%, 29.6%에서 2014년 49.0%, 24.8%로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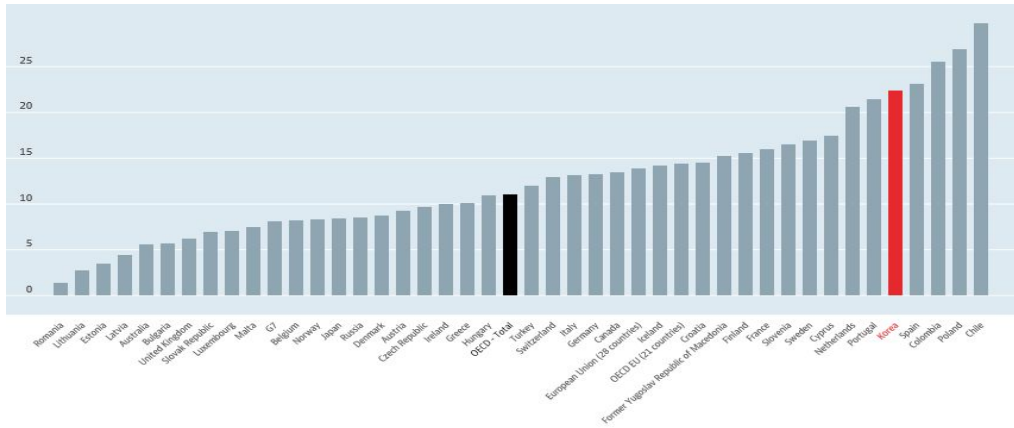
[그림 5-1-3] 연령별 취업률 (단위: %)

취업률의 변화는 교육수준과 성별, 연령 등 다양한 변수를 교차하여 어떤 특성을 가진 집단의 참여가 변화하였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10대와 60대 이상 고령자의 취업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연령집단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요인별로 전반적인 기술통계를 살펴보는 것은 뒷부분에서 수행하고, 여기에서는 전반적인 변화추이를 기술적인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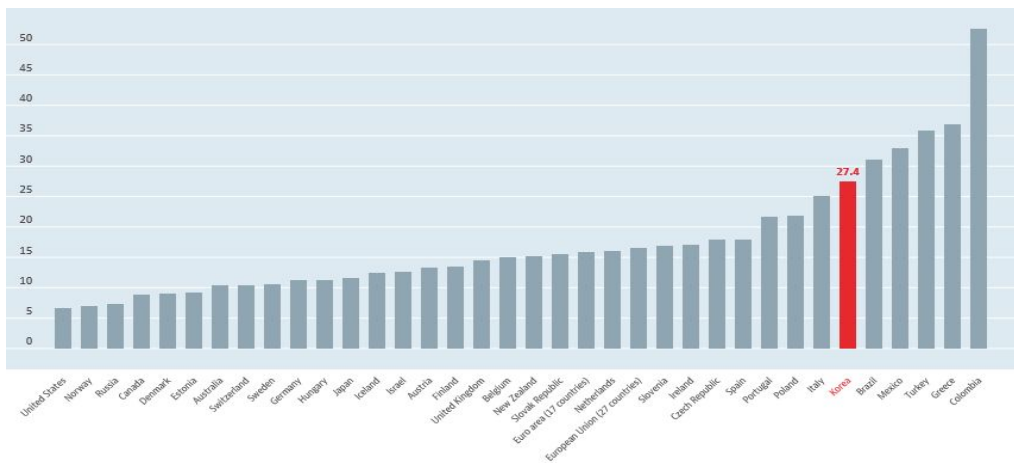
[그림 5-1-4] 국가별 취업률 (단위: %)

국가별 취업률을 비교하면 한국의 취업률은 65.5%로 OECD 평균과 유사하다. 그러나 <그림 5-1-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의 임시직 비율은 매우 높다. 임시직 비율의 OECD 평균은 11.1%인데 반하여 한국은 22.4%로 2배에 가까우며 칠레, 폴란드, 크로아티아, 스페인에 이어 5번째로 임시직의 비율이 높다. 임시직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고용불안 및 열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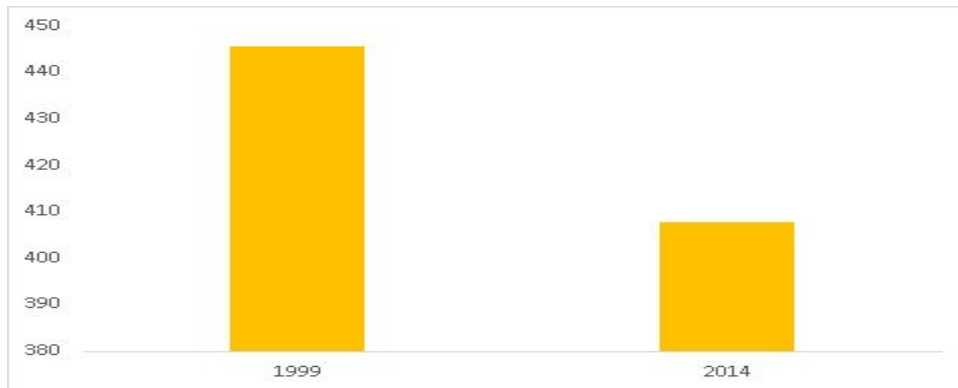
[그림 5-1-5] 국가별 임시직 비율 (단위: %)

한 근로조건과 연계되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생활시간 조사자료에는 종사상지위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가령 상용직인지 임시직인지, 또한 취업형태가 전일제인지 시간제인지 등 다양한 형태로 근로조건이 포착되므로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종사상지위나 취업형태에 따라 시간사용, 소득, 건강상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림 5-1-6] 국가별 자영업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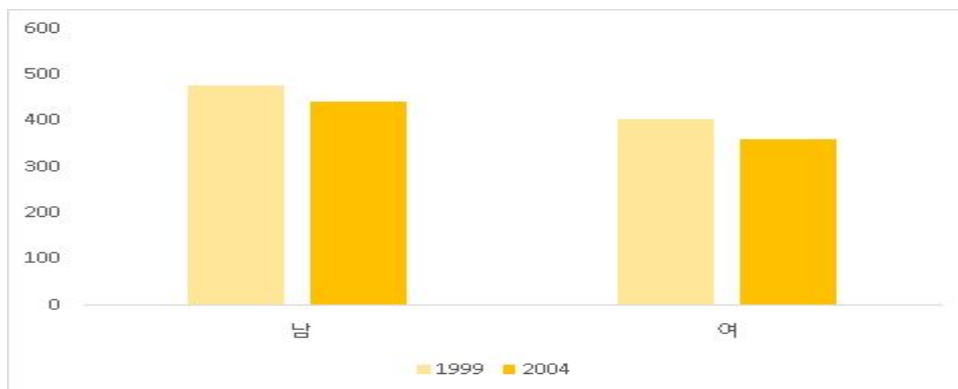
또한 한국은 OECD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자영업의 비율도 높은 편이다. OECD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소규모 영세 자영업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 역시 한국인의 근로조건이 그다지 안정적이거나 긍정적이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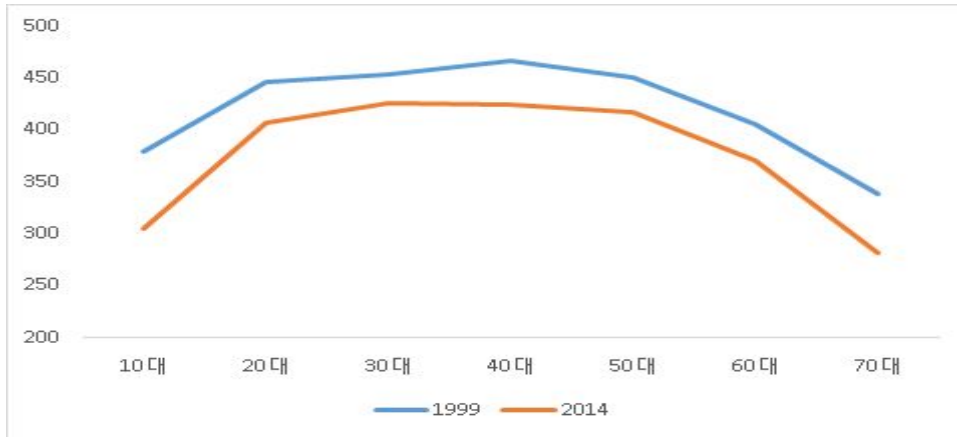
[그림 5-1-7] 취업자의 노동시간: 1999, 2014 (단위: 분/하루)

이번에는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노동시간을 비교하면 1999년에는 하루 평균 445분 정도 일하였다면 2014년에는 하루 평균 407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인 노동시간은 약간 감소하였다.

성별 노동시간 역시 1999년에 비하여 2014년에 감소하였으며 취업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이 남성보다 짧다. 여성은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노동시간 자체를 단축하거나 남성에 비하여 출퇴근 시간을 짧은 경향이 있다는 보고도 있지만 <그림 5-1-8>은 기술적인 수준의 단순분석이기 때문에 왜 여성들의 유급노동시간이 남성에 비하여 짧은지, 같은 취업자라 하더라도 여성과 남성이 종사하는 직종과 직업안정성, 소득에는 차이가 없는지, 가사노동시간과 종합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관찰되는지는 알 수 없다. 이러한 구체적인 분석 역시 뒷부분에서 간략히 다루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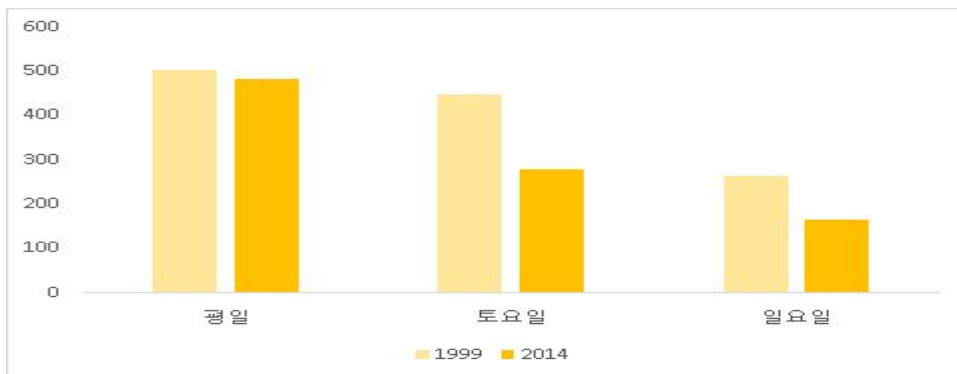


[그림 5-1-8] 취업자의 성별 노동시간 (단위: 분/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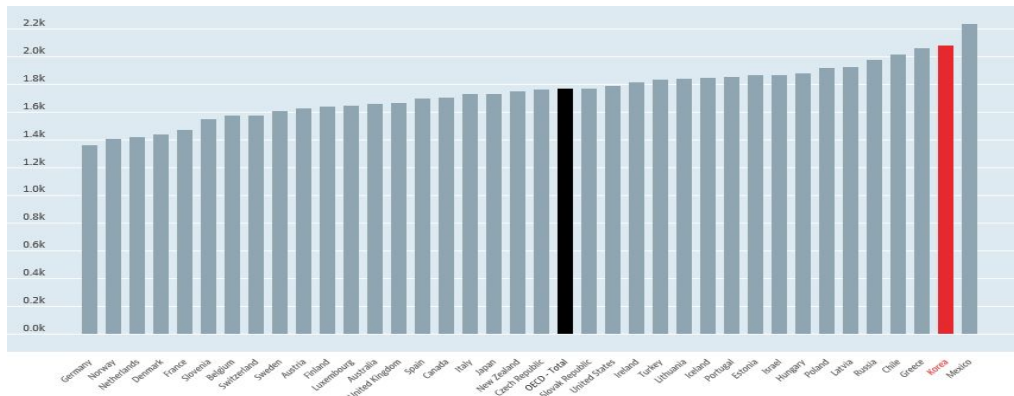
[그림 5-1-9] 취업자의 연령별 노동시간: 1999, 2014 (단위: 분/하루)

취업자의 연령별 노동시간 역시 1999년에 비하여 2014년에 짧아졌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10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0대의 경제활동참여율은 1999년과 비교하여 2014년에 약간 높아졌지만, 취업자의 노동시간은 짧아졌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그림 5-1-10] 취업자의 요일별 노동시간: 1999, 2014 (단위: 분/하루)

다음으로 요일별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평일과 주말의 변화가 현격하다. 이는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제도적 변화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가령 평일의 노동시간은 1999년에 비하여 2014년이 짧지만 그 차이는 20여분에 불과하다. 반면 토요일의 노동시간은 1999년 446분에서 2014년 278분으로 낮아졌고 일요일의 노동시간은 1999년 263분에서 2014년 163분으로 짧아졌다. 취업자의 노동시간은 과거에 비하여 명백히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동시간은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긴 나라 중 하나이다.



[그림 5-1-11] 국가별 노동시간 (단위: 시간/년)

<그림 5-1-11>는 OECD 국가의 취업자 1인 연평균 노동시간은 1,770시간인데 반하여 한국인 취업자 1인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79시간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동시간이 긴 것에 반해 생산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보고도 있었던 것처럼 긴 노동시간이 실제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용되는지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99년과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기술적인 수준에서 비교하고 OECD 자료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관찰되었다. 전반적인 취업률은 1999년과 비교할 때 2014년에 높아졌으며 노동시간은 짧아졌다. 이는 2004년에 시행된 주5일 근무제와 1997년 경제위기 여파가 일부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생각된다.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여전히 한국의 노동시간은 가장 긴 편이며 자영업과 임시직의 비중이 높다. 대부분의 자영업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소득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임시직은 고용불안정성이 높다. 사회안전망도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실직에 대비하는 준비도 미흡하고 노후의 불안정성 역시 높다. 추후 연구에서는 자료를 이용한 시계열적 비교와 정책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제언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송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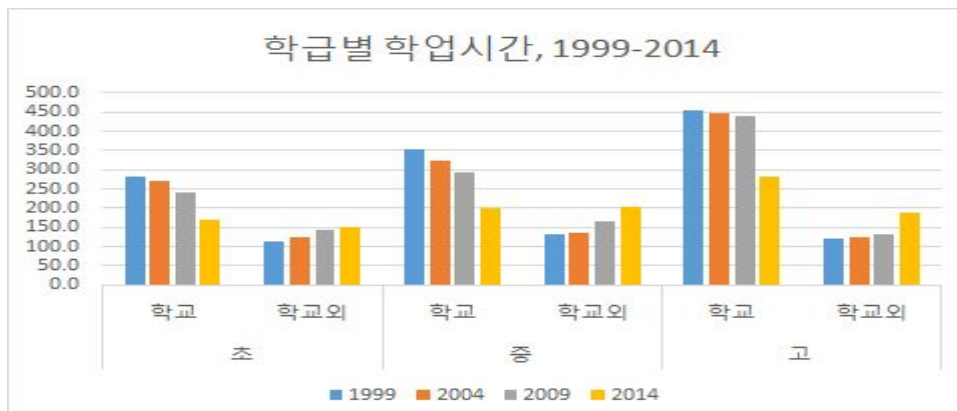
2. 학생의 교육시간 변화 추이

여기에서는 요일과 성별 그리고 연령집단별로 청소년의 학업시간의 15년간 변화 추이를 확인해 보게 된다.

먼저 이 소절의 분석을 위해 대상을 다음과 같이 한정하였다. 1999, 2004, 2009, 2014년의 생활시간조사 자료에서 조사 당시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혼인상태가 미혼인 경우로 한정하였다.¹⁾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성별과 주중/토요일/일요일로 나누어 학업시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다음 <표 5-2-1>은 1999년부터 2014년까지 학급별로 학교 학업시간과 학교외 학업시간의 변화를 보여준다.

<표 5-2-1> 학급별 학교에서의 학업시간, 1999-2014 (단위: 분/하루)

		1999	2004	2009	2014
초	학교	282.5	270.9	240.8	169.8
	학교외	112.6	122.6	144.4	151.7
중	학교	354.4	323.3	294.9	198.1
	학교외	130.3	136.1	166.1	203.2
고	학교	454.3	447.2	441.6	281.2
	학교외	122.1	123.8	131.8	189.2



[그림 5-2-1] 학교에서의 학업시간, 1999-2014 (단위: 분/하루)

1) 2014년에는 7월, 9월, 12월 등 세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 7월에는 초중고 학교가 방학하는 시기와 겹쳐 다른 조사시점 및 다른 연도의 학업시간과 비교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이 분석에서 2014년의 경우에는 9월 및 12월 조사자료만 포함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학생들의 학업시간의 유형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 학업시간은 꾸준히 감소하고, 반면에 학교외 학업시간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1999년에 학교에서 받는 학업시간은 모든 요일을 고려하면 평균 454분 이었는데, 2014년에는 281분으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학교외 학업시간은 1999년에 122분에서 2014년에는 189분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학교에서 학업시간이 감소한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주5일 학교수업제도가 확대 정착되면서 빚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학교에서의 학업시간의 감소와 학교외 학업시간의 증가는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현저하게 나타난다.

<표 5-2-2> 학교에서의 학업시간, 1999-2014 (단위: 분/하루)

		1999	2004	2009	2014
초	남	278.6	265.5	241.8	175.9
	여	286.6	277.1	239.7	178.7
	주중	367.7	361.1	355.9	282.0
	토요일	279.9	254.4	130.7	17.7
	일요일	5.2	6.9	3.7	5.8
중	남	346.6	323.1	291.1	236.7
	여	362.3	323.7	298.8	221.9
	주중	466.6	444.6	445.6	367.9
	토요일	316.0	288.1	139.5	11.3
	일요일	10.4	10.1	12.3	3.7
고	남	455.3	438.3	430.5	310.0
	여	453.2	457.1	453.0	295.2
	주중	582.9	600.8	634.1	479.8
	토요일	414.6	364.9	238.1	50.0
	일요일	58.6	66.4	58.2	13.5

다음 <표 5-2-2>와 <표 5-2-3> 그리고 <표 5-2-4>는 학교에서의 학업시간의 변화, 학교외 학업시간의 변화, 그리고 학교 및 학교외 학업시간을 합한 결과를 각급별, 성별, 그리고 요일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이 세 개의 표를 통해 지난 15년간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시간의 변화를 성별, 요일별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변화를 좀 더 쉽게 파악하기 위해 다음 그림을 활용하여 살펴본다.

<표 5-2-3> 학교 외 학업시간, 1999-2014 (단위: 분/하루)

		1999	2004	2009	2014
초	남	107.9	120.9	146.2	155.2
	여	117.7	124.6	142.3	157.6
	주중	132.1	155.4	182.1	199.6
	토요일	76.0	68.3	86.5	101.1
	일요일	85.4	74.2	87.9	75.9
중	남	128.8	137.3	157.7	204.8
	여	131.8	134.8	175.0	231.7
	주중	140.5	156.3	178.2	226.3
	토요일	99.6	99.1	148.0	220.5
	일요일	125.4	115.5	149.0	193.6
고	남	115.1	122.0	126.1	176.8
	여	129.5	125.8	137.8	210.3
	주중	104.7	95.8	90.8	162.7
	토요일	121.3	143.9	178.3	243.4
	일요일	182.4	188.1	210.2	2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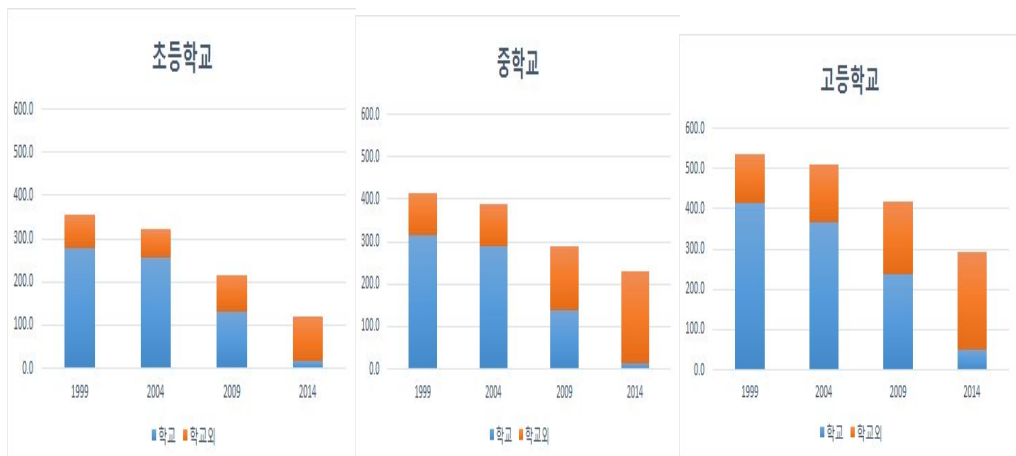
<표 5-2-4> 학교에서의 학업시간과 방과 후 학업시간의 합, 1999-2014 (단위: 분/하루)

		1999	2004	2009	2014
초	남	386.6	386.3	388.0	331.1
	여	404.3	401.7	382.0	336.3
	주중	499.8	516.5	538.0	481.6
	토요일	356.0	322.6	217.2	118.8
	일요일	90.5	81.1	91.6	81.7
중	남	475.4	460.4	448.8	441.5
	여	494.1	458.4	473.8	453.6
	주중	607.1	600.9	623.8	594.2
	토요일	415.6	387.3	287.5	231.8
	일요일	135.7	125.7	161.3	197.3
고	남	570.5	560.2	556.6	486.8
	여	582.7	582.8	590.8	505.5
	주중	687.6	696.5	725.0	642.5
	토요일	535.9	508.9	416.3	293.4
	일요일	241.0	254.5	268.5	246.2

다음 <그림 5-2-2>은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주중에 각급별 총 학업시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초중고 학생에게 공통적인 현상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는 학교에서의 학업시간은 감소하고, 반면에 학교외 학업시간은 증가하였는데, 이를 합한 총 학업시간은 일관성있게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모든 학급에서 총 학업시간의 감소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며, 특히 고등학생들의 총 수업시간의 감소가 다른 학급별 학생들의 학업시간 감소보다 더 의미있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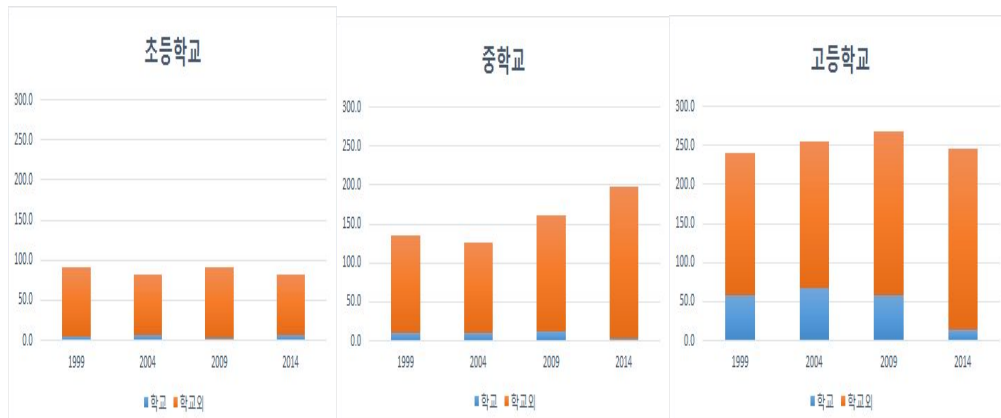


[그림 5-2-2] 주중 각급별 학교 학업시간 및 학교외 학업시간 (단위: 분/하루)



[그림 5-2-3] 토요일 각급별 학교 학업시간 및 학교외 학업시간 (단위: 분/하루)

다음 <그림 5-2-3>는 토요일에 각급별 총 학업시간의 변화를 보여준다. 모든 학급별에서 토요일의 총 학업시간은 꾸준히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해왔다. 총 학업시간은 고등학생들의 경우, 1999년에는 536분이었지만, 2014년에는 293분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경우에도 토요일의 총 학업시간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5-2-4] 일요일 각급별 학교 학습시간 및 학교외 학습시간 (단위: 분/하루)

그러나 일요일의 총 학습시간의 변화는 주중이나 토요일의 총 학습시간의 변화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1999년부터 2014년 사이에 일요일의 총 학습시간에 증감을 거듭하면서 총 학습시간에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중학생의 경우에는 2009년부터 일요일의 총 학습시간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2014년에는 중학생의 일요일 학습시간이 197분으로 4개의 비교시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일요일의 총 학습시간이 1999년부터 2009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는데, 2014년에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등학생의 일요일 총 학습시간이 2009년에는 268.5분이었는데, 2014년에는 246분으로 평균 20분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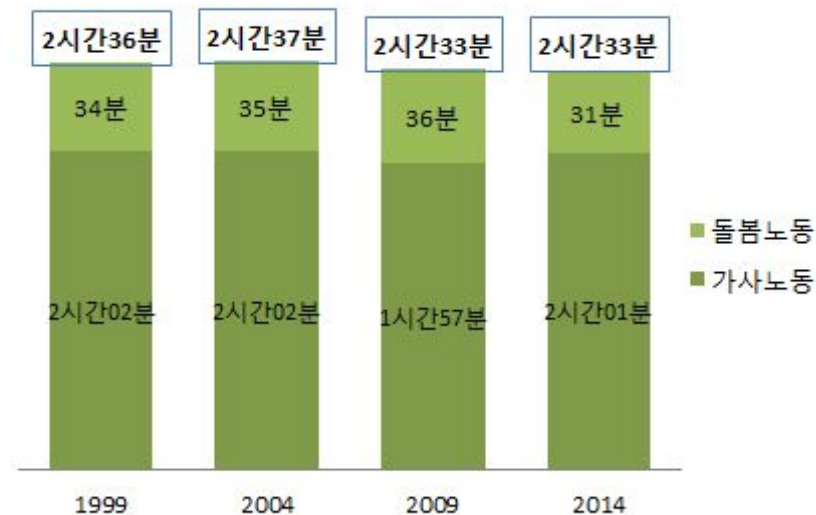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은기수)

3. 가사노동시간의 변화 추이

이 절에서는 20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가사노동시간의 15년간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전체 성인들의 가사노동시간을 돌봄시간과 일상적인 집안일과, 가정관리, 구매 활동 등의 영역을 모두 가사노동으로 간주하여 그 추이를 살펴보고, 성별, 요일별, 연령별 추이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가사노동의 부담이 가장 큰 10세미만 아동을 둔 부모만을 선택하여 가사노동시간, 돌봄시간의 전체 추이 및 성별, 요일별 추이를 살펴보았다.

1) 성인들의 가사노동시간의 추이

한국의 20세 이상 성인들이 지난 15년간 가사·돌봄에 보낸 시간 추이를 살펴보면, 1999년 하루 156분(2시간 36분)에서 2014년 하루 153분(2시간 33분)으로 근소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는 1999년에서 2009년까지 10년간은 가사노동이 다소 감소하고(1999년 2시간2분, 2009년 1시간57분) 돌봄노동이 다소 증가하는(1999년 34분, 2009년 36분) 추세였다가, 2014년의 최근 5년간 그 경향이 다소 반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가사노동 2시간1분, 돌봄노동 31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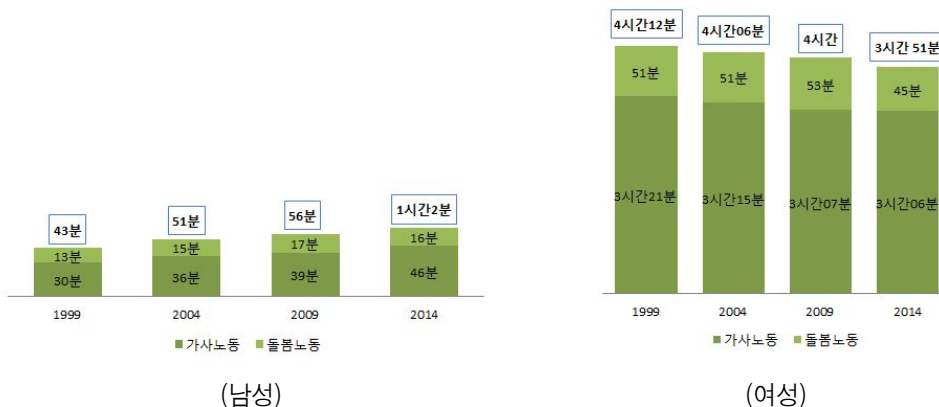


[그림 5-3-1] 성인들의 가사노동시간(가사노동, 돌봄노동)의 변동 추이 (단위: 분/하루)

일반적으로 가사·돌봄시간을 결정하는 변수 중 가장 중요한 변수는 성별 변수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남성 성인들은 하루 62분(1시간 2분)을, 여성 성인들은 하루 231분(3시간 51분)을 가사·돌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남성들의 시간이 여성들의 시간

의 27%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가사노동의 경우 남성 성인들은 하루 46분, 여성들은 186분, 돌봄노동의 경우 남성 성인들은 하루 16분, 여성 성인들은 45분으로 특히 가사노동에서 남녀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남성 가사노동은 여성의 25%, 남성 돌봄노동은 여성의 35%).

그러나 지난 15년간의 경향을 살펴보면 남성들의 가사·돌봄시간은 증가추세인 반면, 여성들의 가사·돌봄시간은 감소추세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남성들의 가사·돌봄시간은 1999년 43분에서 2004년 51분, 2009년 56분, 2014년 62분(1시간2분)으로 5년마다 평균 약 6분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여성들의 가사·돌봄시간은 1999년 252분(4시간 12분), 2004년 246분(4시간 6분), 2009년 240분(4시간), 2014년 231분(3시간 51분)으로 5년마다 평균 약 7분씩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가사·돌봄시간이 근소하게 감소하는 경향 속에서 여성은 보다 큰 폭으로 가사·돌봄시간을 줄이고 남성이 그 부족분을 메꾸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가사·돌봄시간 중에서도 특히 가사노동에서 그 경향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남성들은 가사노동시간은 1999년 30분에서 2014년 46분으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여성들의 가사노동시간은 1999년 201분(3시간 21분)에서 2014년 186분(3시간 6분)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림 5-3-2] 성인들의 성별 가사노동시간(가사노동, 돌봄노동) 추이 (단위: 분/하루)

한편, 시간사용의 행태는 요일, 특히 주말과 주중에 따라 매우 달라진다. 2014년을 기준으로 성인들은 평일에는 144분(2시간 24분),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두 165분(2시간 45분)을 사용하고 있어 주중보다 주말에 가사·돌봄에 보내는 시간이 길었다. 이러한 차이는 특히 가사노동에서 두드러지는데, 평일에 가사노동에 보내는 시간은 112분(1시간 52분)인데 비하여 토요일에는 134분(2시간 14분), 일요일에는 136분(2시간 16분)으로 주중에 밀린 가사노동

을 주말에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돌봄노동시간의 경우 평일에는 32분, 토요일에는 31분, 일요일에는 29분으로 요일에 따른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오히려 주중에 다소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5년간의 요일별 경향을 살펴보면 주중의 가사·돌봄시간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인 반면, 주말의 가사·돌봄시간은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꾸준히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중의 경우 1999년 154분(2시간 34분)에서 2004년 153(2시간 32분), 2009년 146분(2시간 26분), 2014년 144분(2시간 24분)으로 5년마다 평균 약 3분씩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 주말의 경우 1999년 158분(2시간 38분)(토요일), 159분(2시간39분)(일요일), 2004년 163분(2시간43분)(토요일, 일요일), 2009년 164분(2시간44분)(토요일, 일요일), 2014년 165분(2시간44분)(토요일, 일요일)로 5년마다 평균 약 2분씩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한국인들은 주중의 가사·돌봄시간은 점차 줄이고 주말에 가사·돌봄시간을 더 벌충하는 방식으로, 다시말해 주중과 주말의 차이를 늘리는 방식으로 가사·돌봄시간을 조정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5-3-3] 성인들의 요일별 가사노동시간(가사노동, 돌봄노동) 추이 (단위: 분/하루)

삶의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의 하나인 연령대별로 성인들의 가사·돌봄시간 추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3-1>과 같다. 2014년의 결과를 살펴보면, 가사·돌봄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집단은 독보적으로 30대로, 하루 205분(3시간 25분)을 가사·돌봄시간에 보내고 있었고, 이는 특히 돌봄노동에 많은 시간 하루 88분(1시간 28분)을 보내는 것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가사·돌봄의 수행집단, 특히 돌봄노동의 수행집단으로 30대라는 특정한 연령대가 부각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99년 191분(3시간 11분) 수준이었던 30대의 돌봄노동은 2004년에는 196분(3시간 16분)으로, 2009년과 2014년에는 205분(3시간 25분)으로 크게 증가하여 다른 집단과의 차이를 확대해 왔다. 30대는 특히 돌봄노동의 수행시간을 급격히 늘린 집단으로 나타나는데, 1999년 58분 수준이었던 돌봄노동이 2014년에는 88분(1시간28분)까지 증가하였다. 반면 다른 연령대의 돌봄노동시간은 40대를 제외하면 모두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0대의 가사·돌봄, 특히 돌봄노동이 크게 증가한 것은 20대의 가사·돌봄시간이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감소해 온 경향을 고려할 때 만혼과 출산지연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50대 이후의 중장년층, 노년층의 돌봄노동시간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과 비교해 볼 때 30대라는 특정한 연령대가 돌봄노동을 전담하게 된 경향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표 5-3-1> 성인들의 연령별 가사노동시간(가사노동, 돌봄노동) 추이 (단위: 연도, 분/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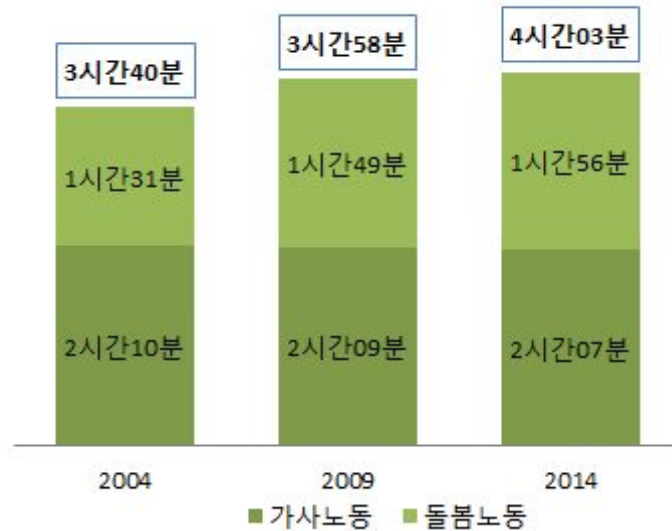
		1999		2004		2009		2014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총 가사 노동	20대	2시간02분	186.5	1시간33분	159.2	1시간30분	150.5	1시간19분	132.2
	30대	3시간11분	203.3	3시간16분	202.8	3시간25분	205.5	3시간25분	212.4
	40대	2시간33분	170.6	2시간33분	164.4	2시간35분	164.2	2시간37분	163.2
	50대	2시간37분	173.3	2시간38분	166.8	2시간25분	151.7	2시간20분	150.6
	60대	2시간38분	160.9	2시간51분	160.9	2시간40분	148.5	2시간43분	149.8
	70대	2시간10분	139.7	2시간35분	142.9	2시간20분	127.3	2시간29분	128.3
가사 노동	20대	1시간21분	117.5	1시간01분	95.1	1시간01분	89.2	1시간00분	86.1
	30대	2시간12분	147.7	2시간04분	134.2	2시간02분	127.7	1시간57분	126.4
	40대	2시간14분	152.5	2시간09분	142.4	2시간03분	134.5	2시간07분	135.7
	50대	2시간17분	152.0	2시간19분	147.5	2시간09분	135.1	2시간07분	136.1
	60대	2시간16분	139.7	2시간30분	142.6	2시간21분	132.2	2시간26분	135.5
	70대	1시간56분	123.0	2시간22분	133.8	2시간08분	115.7	2시간22분	123.2
돌봄 노동	20대	41분	98.0	31분	88.9	30분	86.1	19분	73.1
	30대	58분	94.4	1시간13분	106.8	1시간23분	116.1	1시간28분	125.8
	40대	19분	53.3	24분	59.3	31분	66.8	30분	66.6
	50대	20분	63.7	20분	64.0	16분	52.7	13분	49.5
	60대	22분	70.3	21분	68.0	19분	58.6	17분	55.6
	70대	14분	57.2	13분	50.6	12분	47.4	8분	35.5

2) 10세미만 자녀 부모의 가사노동시간 추이

가사·돌봄 부담이 가장 큰 10세미만 자녀를 둔 부모만을 대상으로 가사·돌봄시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 전체 성인들의 경향과는 달리, 10세미만 자녀를 둔 부모의 가사·돌봄시간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4년 하루 220분(3시간 40분)에서 2009년에는 238분(3시간 58분), 2014년에는 243분(4시간 3분)으로 5년마다 11분씩 평균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사노동시간은 근소하게 감소경향을 보이는 반면(2004년 130분(2시간10분), 2009년 129분(2시간9분), 2014년 127분(2시간7분)), 돌봄노동시간은 크게 증가하고 있어(2004년 91분(1시간31분), 2004년 109분(1시간49분), 2014년 116분(1시간56분)) 돌봄노동이 무급가사노동시간의 증가추세를 주도하고 있었다. 성인전체와 비교해 볼 때, 성인 전체의 평균적

2) 1999년 자료는 10세미만 자녀에 대한 정보를 아직 제공받지 못하였다.

인 가사·돌봄시간이 다소 감소하는 가운데 10세미만 자녀의 부모와 같은 특정한 인구집단에 가사·돌봄시간이 집중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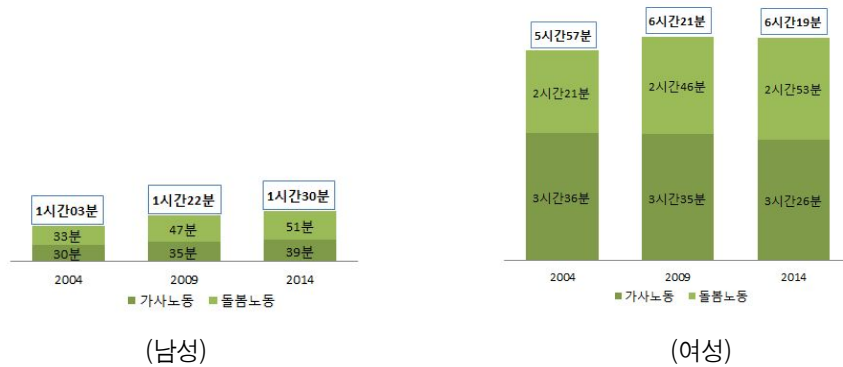
[그림 5-3-4] 10세미만 자녀 부모의 가사노동시간(가사노동, 돌봄노동) 추이 (단위: 분/하루)

10세미만 자녀의 부와 모의 가사·돌봄시간 차이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아버지들은 하루 90분(1시간 30분)을, 어머니들은 하루 379분(6시간 19분)을 가사·돌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아버지들의 시간이 어머니들의 시간의 24%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가사노동의 경우 아버지들은 하루 39분, 여성들은 206분(3시간 26분), 돌봄노동의 경우 남성 성인들은 하루 51분, 어머니들은 173분(2시간53분)으로 전체 성인들의 경향에서와 같이 가사노동에서 남녀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남성 가사노동은 여성의 19%, 남성 돌봄노동은 여성의 29%).

그러나 지난 15년간의 경향을 살펴보면 10세미만 자녀 아버지들의 가사·돌봄시간은 분명하게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버지들의 가사·돌봄시간은 2004년 63분(1시간 3분)에서 2009년 82분(1시간 22분), 2014년 90분(1시간 30분)으로 5년마다 평균 약 14분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어머니들의 가사·돌봄시간은 2004년 357분(5시간 57분), 2009년 381분(6시간 21분)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379분(6시간 19분)으로 증가추세가 꺾인 경향을 보인다. 가사·돌봄을 종류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다 경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아버지남성들의 경우 가사노동(2004년 30분, 2014년 39분)과 돌봄노동(2004년 33분, 2014년 51분) 모두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어머니들은 가사노동은 감소(2004년 216분(3시간36분), 2014년 206분(3시간26분))하고 돌봄노동은 증가(2004년 141분(2시간21분), 2014년

173분(2시간53분))하는 경향이 드러난다.

결국 10세미만 자녀를 둔 부모들의 가사·돌봄시간은, 여전히 남녀차이가 크지만 그 차이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아버지들은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모두 늘리는 반면, 여성들은 가사노동시간은 줄이고 돌봄노동시간은 늘리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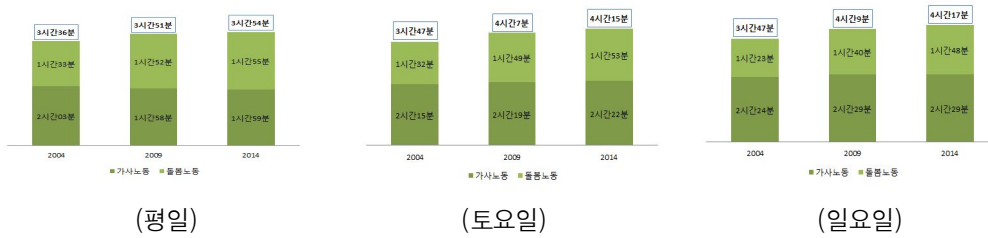
[그림 5-3-5] 10세미만 자녀 부모의 성별 가사노동시간(가사노동, 돌봄노동) 추이(단위: 분/하루)

10세미만 자녀 부모의 요일별 가사·돌봄시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4년을 기준으로 10세미만 자녀 부모들은 평일에는 234분(3시간 54분), 토요일은 255분(4시간 15분), 일요일은 257분(4시간 17분)을 사용하고 있어 주중보다 주말에 가사·돌봄에 보내는 시간이 길었다. 이러한 차이는 전체 성인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사노동에서 두드러지는데, 평일에 가사노동에 보내는 시간은 115분(1시간 55분)인데 비하여 토요일에는 142분(2시간 22분), 일요일에는 149분(2시간 29분)으로 주중에 밀린 가사노동을 주말에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돌봄노동시간의 경우 평일에는 119분(1시간 59분), 토요일에는 113분(1시간 53분), 일요일에는 108분(1시간 48분)으로 주중에 다소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지난 15년간의 경향을 살펴보면 주말에 가사·돌봄이 집중되던 전체 성인들의 경향과는 달리, 10세미만 자녀 부모는 주중과 주말 모두 가사·돌봄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중의 경우 2004년 216분(3시간 36분)에서 2014년 234분(3시간 54분)으로, 주말의 경우 2004년 227분(3시간47분, 토요일, 일요일)에서 2014년 255분(4시간15분, 토요일), 257분(4시간17분, 일요일)로 모두 증가하고 있다. 단 주말의 증가세가 더 가파른 것은 전체 성인들의 경향과 유사하다.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나누어 살펴보면, 평일 가사노동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2004년 123분(2시간3분), 2014년 115분(1시간55분)) 전체적인 가사·돌봄시간의

추세와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그 외의 가사·돌봄시간은 종류와 요일에 관계없이 모두 증가추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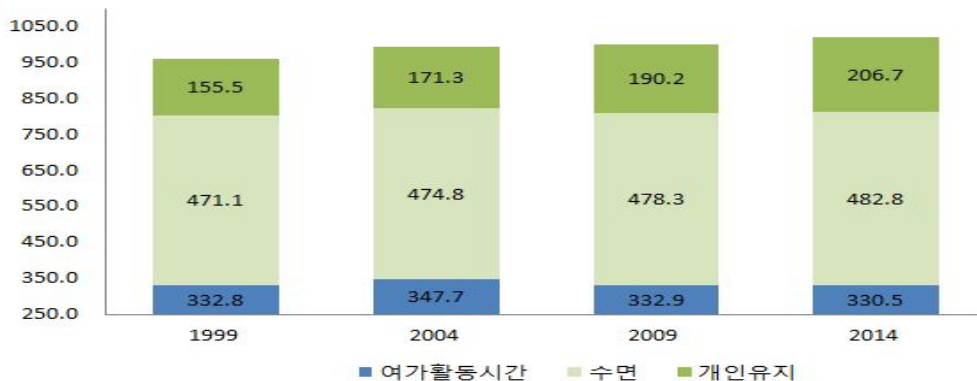
[그림 5-3-6] 10세미만 자녀 부모의 요일별 가사노동시간(가사노동, 돌봄노동) 추이(단위: 분/하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지)

4. 비노동시간의 변화 추이

여기에서는 하루 24시간 가운데, 유급노동과 가사 그리고 학습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인 비노동시간에 대해 탐색하였다. 지난 15년간 어떠한 추세로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요일과 성별 그리고 연령집단별로 비노동시간에서의 격차가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1999-2014년도에 조사된 243,630개의 시간일지 표본 전체가 분석되었다.

이 연구에서 비노동시간은 개인의 생명유지를 위해 활용되는 시간과 유희적 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유지를 위한 필수시간(이하 개인유지시간)에는 수면을 비롯한 섭식, 위생시간(씻기, 기타위생), 치료(의료적 처치 및 관리) 등이 포함된다. 좁은 의미의 여가활동시간은 비노동에 해당하는 활동 중에서 효용성의 관점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즐거움이나 특정한 효용을 발생시키는 활동”으로 정의(Aguiar & Hurst, 2006)하며, 이는 상품으로 대체가능하지 않다는 특징을 갖는다³⁾. 이 여가활동시간을 이 연구에서는 다시 텔레비전 및 미디어시간, 능동적 레크레이션활동(이하 능동적 활동), 컴퓨터 활용, 교체시간, 그리고 휴식 및 유희적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 비노동시간은 여가활동시간과 개인유지와 수면시간을 포함하였다. 다만, 생명유지를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시간이고,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자원축적의 시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여가시간라고 간주함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좁은 의미의 여가활동시간과 개인유지, 그리고 수면까지 포함한 넓은 개념을 비노동시간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그림 5-4-1] 연도별 비노동시간(수면, 개인유지, 여가활동시간)의 배분 비율 (단위: 연도, 분/하루)

- 3) 즐거움이라는 효용을 갖고, 상품대체가 불가능한 활동 중에 자녀를 동반한 여가활동, 그리고 정원가꾸기나 애완동물돌보기와 같은 활동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는 실제 여가관련된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중요한 논쟁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생활시간자료에서는 10세미만 자녀와 함께 수행한 여가활동은 조사되지 않았고, 또한 해당 활동이 돌보기가 주된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여가활동에 자녀가 동반한 것인지 판단하기도 시간일지의 조사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더욱이 이 연구에서는 정원가꾸기부터 자녀돌봄의 전체 활동을 가사노동의 영역에서 다루기 있기 때문에, 여가활동을 파악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제외하고 여가시간을 파악하였다.



[그림 5-4-2] 연도별 비노동시간(수면, 개인유지, 여가시간)의 배분 비율: 평일, 토요일, 일요일 (단위: 분/하루)

<표 5-4-1> 성별, 연령별 개인유지시간 그리고 여가시간: 1999-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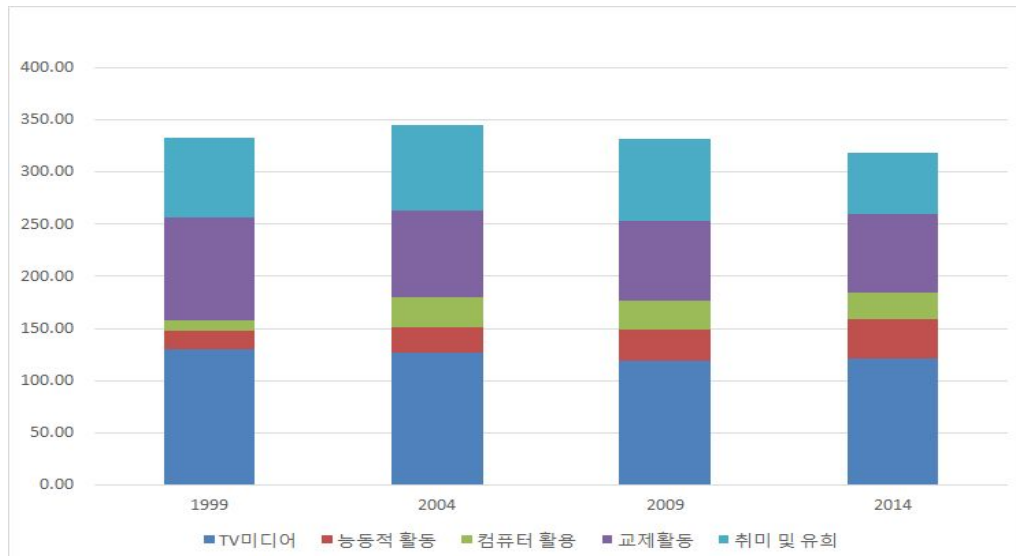
(단위: 분/하루)

			1999		2004		2009		2014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개인유지	성	남성	152.9	66.8	169.3	64.4	189.5	63.0	205.8	71.0
		여성	157.7	74.6	172.9	71.2	190.7	71.2	207.4	75.8
	연령	20대	155.5	60.0	170.9	60.0	191.0	63.7	209.9	73.0
		30대	152.8	58.7	166.6	58.5	183.8	62.5	203.0	70.2
		40대	158.2	65.3	174.4	62.8	191.9	63.3	210.1	67.9
		50대	159.7	75.8	180.2	72.9	199.2	69.7	213.7	73.6
		60대	161.1	88.5	181.4	87.0	202.6	76.7	217.5	84.2
		70대	179.5	135.4	186.7	103.6	204.7	91.8	210.0	88.4
수면	성	남성	474.5	100.9	478.3	101.7	479.1	97.6	483.8	99.2
		여성	468.0	96.7	471.6	96.2	477.6	93.4	481.9	95.2
	연령	20대	472.1	102.5	483.3	106.0	486.1	105.5	494.7	103.8
		30대	460.9	94.3	467.3	97.8	477.1	94.0	486.2	97.4
		40대	451.6	93.6	454.6	95.9	455.1	90.4	464.3	92.0
		50대	461.4	90.8	460.3	91.4	462.1	86.5	461.7	86.5
		60대	478.4	94.6	474.9	92.2	481.2	86.6	477.4	87.9
		70대	530.1	107.9	514.5	103.2	512.3	92.8	510.4	96.2
여가활동시간	성	남성	352.6	226.0	364.5	218.3	351.7	211.7	344.4	208.8
		여성	315.2	194.4	332.7	188.4	315.5	183.2	318.0	183.2
	연령	20대	355.7	212.5	355.7	212.5	337.5	202.2	312.3	191.8
		30대	303.8	181.2	303.8	181.2	284.1	175.3	267.6	174.6
		40대	324.7	193.0	324.7	193.0	303.7	184.3	293.7	177.7
		50대	360.9	206.5	360.9	206.5	348.0	193.5	328.6	192.8
		60대	407.7	216.5	407.7	216.5	402.8	202.3	397.0	195.9
		70대	490.3	195.9	490.3	195.9	480.1	189.1	476.8	182.1

1) 비노동시간의 추이 (개인유지, 수면, 여가활동시간)

<그림 5-4-1>을 살펴보면, 지난 15년간 비노동시간은 99년도에 하루 평균 958분에서 2014년에는 1018분으로 약 한 시간가량, 주당시간으로 보면 거의 7시간 가까이 증가하였다. 여가시간은 지난 15년간 주당평균 14분(하루 평균 2분)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지만 수면시간은 15년간 주당 70분(하루 평균 10분) 늘었다. 개인유지시간은 동일 기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주당 약 5.6시간(하루 평균 약 50분)이 증가하였다. 비노동시간의 증가세가 전체적으로 하루 평균 1시간가량이었던 점을 상기해 보면, 그 증가분이 대부분 개인유지, 수면과 같은 필수시간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의 삶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시간이 우선적으로 증가하였음을 말해준다.

요일별 비노동시간의 시기별 분포를 살펴본 도표가 <그림 5-4-2>이다. 전체적으로 비노



[그림 5-4-3] 연도별 여가시간 활동(tv미디어, 능동적 활동, 컴퓨터활용, 교제활동, 취미 및 유희적 활동)의 배분 비율 (단위: 분/하루)

동시간은 평일보다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999에 비해 2014년에는 주중과 주말 비노동시간 길이가 늘었다. 비노동시간에 투여하는 시간이 요일에 따라 분화되는 양상이다. 비노동시간 중에서도 그 요일별 변화가 가장 큰 시간은 여가시간이다. 수면시간과 개인유지시간은 요일별 증감 없이 15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이 관찰되지만, 여가시간의 경우 요일에 따라 증가양상이 다르다. 여가시간은 평일의 경우, 99년에 비해 2014년 오히려 줄었지만, 토요일에는 조금 더 늘었다. 일요일 여가시간은 99년과 2004년에 비해 2014년에 오히려 줄었다.

한편, 앞서 전체적으로 수면시간도 늘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수면시간의 경우 2009년까지는 주수면과 낮잠을 구분한 반면, 2014년에는 “수면”과 “잠 못 들”으로 수면시간을 조사한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관찰되는 수면시간의 증가는 혹여 이러한 조사방식의 차이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하루 24시간의 변화로 보았을 때, 유급노동시간 감소 가사노동시간에서의 감소분과 이 비노동시간 특히 수면의 증가가 함께 목격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사방법의 차이로 수면시간 증가가 나타나는 부분은 미미할 수 있다.

비노동시간이 성과 연령별로 어떠한 분포를 나타내며 그 분포가 시기별로 변화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과 연령별 비노동시간과 그 세부 항목들을 시기 순으로 제시하였다(<표 5-4-1> 참조). 비노동시간을 구성하는 세 개의 시간의 분포는 연령집단에 따라 그 패턴이 매우 다르다. 개인유지시간의 경우 1999년에는 연령집단 간 편차가 발견되지만, 최근 올수록 모든 연령에서 개인유지시간이 늘었고, 연령 격차가 상당부분 해소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5-4-2> 남성과 여성에 따른 여가시간 각 활동시간의 연도별 추이 (단위: 분/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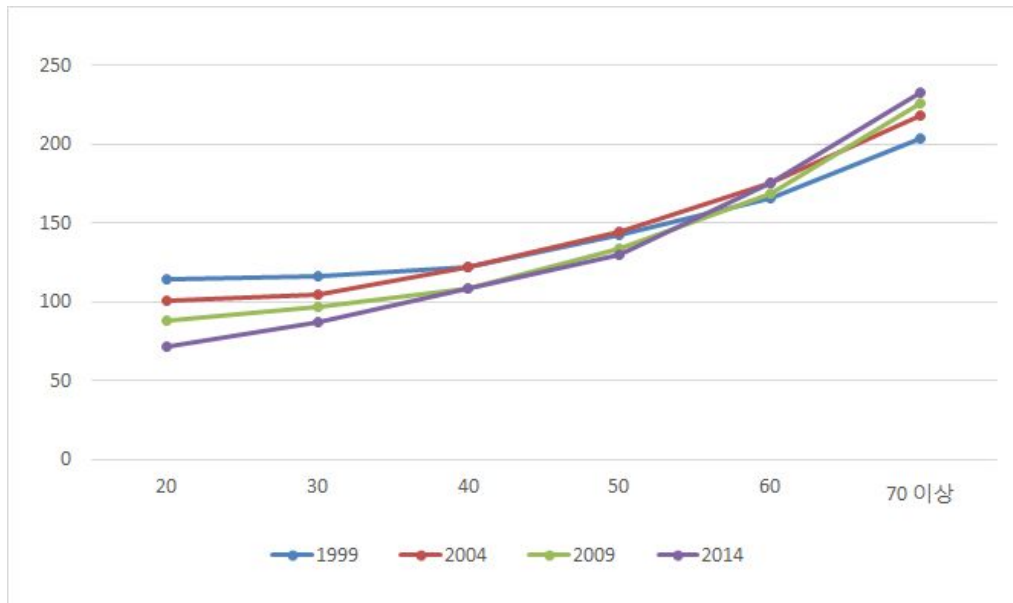
	TV 및 미디어	능동적 활동	컴퓨터 활용	교제활동	취미 및 유희
남성					
1999	133.1	23.6	15.8	93.5	86.7
2004	128.5	28.6	40.3	76.2	89.1
2009	119.9	36.0	39.5	68.7	86.2
2014	123.7	43.5	35.6	68.0	63.1
여성					
1999	128.1	13.1	4.2	102.2	67.8
2004	124.9	21.2	18.2	90.4	75.7
2009	118.1	24.0	17.1	83.1	71.9
2014	119.5	32.8	15.2	83.4	53.9

특히 20대와 30대의 개인유지시간이 증가폭이 컸던 점이 연령 간 개인유지시간의 격차가 해소된 원인으로 보인다. 최근 세대에서 개인유지 부분의 시간투여가 많은 것인지, 코호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수면시간도 15년 간 증가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수면시간은 중년기(30-50대)에 수면시간이 감소하고, 다시 서서히 수면시간이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난다. 연령별 수면시간의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4년과 단선적으로 비교해 보면, 과거에 비해 2014년의 20-40대 연령이 잠을 더 많이 자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9년에 가장 잠을 못하는 연령대는 40대이었지만, 2014년에는 50대가 다른 어떤 연령대 보다 수면시간이 가장 짧다. 개인유지시간과 수면시간의 변화를 살펴볼 때, 젊은 연령층에서 “개인적 시간 확보”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흥미롭게도 50대 연령층의 수면시간은 하루 평균 460분 수준으로서 1999년에서 2014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모든 연령에서 수면시간이 15년간 약간씩 증가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50대 연령층에서는 이러한 수면시간의 변화가 크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 코호트의 특성일 가능성도 있고 혹은 중년기 생리학적 변화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수면방해를 경험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5년간 경향을 볼 때, 모든 연령에서 여가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인 연령별 여가시간 분포는 10-20대에 살짝 증가하다가 30대에 급감하고 이후 40-70대까지 완만하게 여가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그런데, 연도별 여가시간의 변화를 보게 되면, 20-40대의 여가시간이 약 30-40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위에서 20-40대에서 개인유지시간, 수면시간이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인 패턴이다.



[그림 5-4-4] 연령에 따른 텔레비전 시청시간의 연도별 추이 비교 (단위: 분/하루, 연령, 연도)

한편, 전체 비노동시간의 성별패턴을 살펴보면, 99년에 남성이 여성보다 주당3.8시간 (하루 평균 33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성별격차가 2014년에는 주당 2.7시간 (하루 평균 25분)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수면시간, 여가시간에서 성별 시간격차가 줄어든 점이 특이하다.

2) 여가활동시간의 배분양상: 성별, 연령별 비교

다음에서는 여가시간의 구체적인 활동별로 더 살펴보도록 하자. 여가시간 활동을 크게 텔레비전 및 미디어활동시간(이하 TV시청), 능동적 활동시간, 컴퓨터 사용시간(주로 게임과 인터넷이용), 교제 및 종교 및 활동시간(이하 교제시간으로 표기함. 교제시간에는 대면 교제, 전화나 문자를 이용한 교제시간, 종교활동, 자원봉사활동이 포함됨), 취미 및 유희시간으로 구분하였고 자세한 활동 분류 목록⁴⁾은 각주에 제시하였다.

지난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여가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개별 활동시간의 변

4) TV시간: TV를 비롯한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영상물 시청시간의 합
 능동적 활동시간: 걷기, 달리기, 헬스, 각종운동시간과 야외활동 및 관람, 전시행사참여시간의 합
 컴퓨터 활용시간: 컴퓨터나 기기를 활용한 게임, 스마트 폰을 활용한 인터넷 검색이나 활용시간의 합
 교제활동: 대면교제, 전화를 활용한 교제 (문자 포함), 종교활동 및 모임참여, 자원봉사활동시간의 합
 취미 및 유희: 각종취미활동(음악감상, 독서, 기타 취미생활), 노래방, 음주 및 가무, 담배피우기, 아무 일도하지 않기 등 위에서 언급한 활동 이외의 모든 여가활동시간의 합

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여가활동이 내용상 다양해 졌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여가시간을 다섯 영역으로 구분했을 때, 1999년에는 주요 여가활동이 크게 세 부분, TV시청, 사교활동 그리고 취미 및 유희적 활동의 비중이 크게 나타난다. 그런데, 2014년의 여가시간 활동의 영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TV시청시간, 교제활동에 할애한 시간이 1999과 비교해서 줄어든 대신 컴퓨터 이용시간, 건강유지시간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성별 여가활동시간에서 격차가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을 앞에서 확인 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격차는 여가활동 내용에 따라 그 변화내용이 다르다. 가령, 텔레비전 시청시간은 성별격차가 감소하다가 2014년 자료에서 오히려 남성이 여성보다 텔레비전 시청시간이 더 증가한 양상이다. 교제활동시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유일하게 높게 나타나는 영역인데, 이 역시 성별격차가 최근으로 올수록 더 벌어졌다. 그에 비해, 취미 및 유희 활동 능동적 활동, 그리고 컴퓨터 활용시간은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더 긴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격차가 최근 들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남녀 차이를 고려해 볼 때, 성별에 따라 여가시간을 즐기는 방식에 있어 수렴하는 영역과 차이가 나타나는 영역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연령에 따라 여가시간의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연도별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연령이 높아질수록 TV시청시간은 길어지는 패턴이다(그림 <그림 5-4-5> 참조). 이러한 연령 집단 간 TV시청시간의 격차는 최근 연도로 올수록 더 강화된다. 특별히, 고령층(60-70)대의 하루 평균 텔레비전 시청시간은 최근으로 올수록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5-4-6>에서는 여가시간 활동들의 연령에 따른 변화 추이를 연도별로 제시한 결과 제시하였다. 여가시간에서 각 활동의 비율을 시계방향으로 따라가면 연도별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모든 연도에서 여가시간에서 TV시청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다. 그런데, 이 각각의 여가활동 영역에 해당하는 세부항목들은 시기별로 연령별로 상이하게 진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20대에서 나타나는 여가활동 내용의 가장 큰 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TV시청시간과 교제시간이 크게 감소한 점이다. 반면에 컴퓨터 활용시간이 늘었고 또한 능동적 활동시간이 증가하였다. 30대 역시 TV시청시간, 교제시간, 유희 및 취미활동시간은 줄었지만 반면에 컴퓨터 활용시간과 능동적 활동시간은 늘었다. 그런데, 20대와 비교해 보면 전체 여가시간에서 컴퓨터 활용시간의 증가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에 비해, 50대의 여가시간에서 시기별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은 취미 및 유희적 시간은 줄어든 대신 능동적 활동시간이 크게 증가한 점이다. 그런데 TV시청은 이러한 능동적 활동시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50대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15년간 변화하지 않은 점이다. 70대 이상 고령층의 여가시간에서는 인터넷이용을 포함한 컴퓨터 활용시간은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15년간의 여가시간의 변화를 이끈 내용을 살펴보면, 능동



[그림 5-4-5] 연령에 따른 여가시간 배분 추이: 연도별 비교 (단위: %)

적 활동시간은 다소 늘었고,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고령층의 TV시청시간도 오히려 15년간 늘었다. 그 대신 사교시간이 감소하였고, 취미나 유의적 시간도 감소했다. 15년간 TV시청의 증가와 능동적 활동시간의 증가가 실제로 고령층의 건강함을 보장함에 있어 어떻게 연계되는지 구체적인 탐색이 더 필요하다.

3) 비노동시간에서 국제비교

다음으로 한국의 비노동시간의 분포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어떠한 수준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여기에서 사용한 자료는 MTUS(Multinational Time Use Study) simple 5.1version 자료(20세 이상 성인자료)에서 2000년 이후 조사된 생활시간자료가 있는 국가만 추려서 분석해 보았다. 현재 MTUS에 수록된 한국의 생활시간자료는 2009년 자료이다.

수면시간의 경우 한국은 하루 평균 460분으로 네델란드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약 40분가량 잠을 덜 자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덴마크인들과 비교에서는 수면시간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유지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는 미국(100분)과 노르웨이(103분)이었는데, 우리나라는 128분으로 이들 국가보다는 긴 편이었고, 반면에 이탈리아 158분에 비하면 30분가량 짧았다. 여가시간의 분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가시간이 384분으로 함께 살펴본 7국가 가운데 가장 길었다. 네델란드 사람들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여

<표 5-4-3> 비노동시간에서의 남녀격차에 대한 국가별 비교 (단위: 분/하루)

	덴마크	이탈리아	네델란드	노르웨이	한국(2009)	영국	미국
수면							
남성	459.3	486.4	489.6	476.1	463.7	487.4	493.9
여성	475.9	489.4	513.6	492.2	461.9	501.0	507.1
전체	468.0	487.9	503.3	484.1	462.8	494.3	500.6
개인							
남성	145.4	159.7	127.5	98.2	121.3	112.7	95.4
여성	155.9	159.8	134.8	109.1	134.8	123.7	105.1
전체	150.9	159.7	131.7	103.6	128.0	118.3	100.4
여가시간							
남성	357.8	332.6	382.2	372.8	405.5	382.8	360.1
여성	343.7	273.9	386.0	377.5	363.4	366.1	346.3
전체	350.3	302.8	384.3	375.1	384.7	374.3	353.1

출처: MTUS (Multinational Time Use Study) ver.5.1자료

가시간이 길었다. 7개국 가운데서 여가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는 이탈리아(300분)로 드러났다.

비노동시간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성별 격차이다. 노동시간이 휴식, 재충전, 욕구충족 등 삶의 질을 담당하는 중요한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각국에서 나타나는 비노동시간에서의 젠더격차는 그 나라의 성별 격차를 드러낼 수 있다. 개인유지시간은 비교가 이루어진 7개 국가 모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긴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면시간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일반적으로 더 긴데, 한국의 경우 2009년 자료에서는 남녀 격차가 크지 않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2-3분가량 수면시간이 더 짧게 나타난다. 그런가하면, 여가시간은 네델란드와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여가시간 투여가 긴 것으로 나타난다. 즉, 비노동시간을 즐기는 방식이 다른 국가의 경우 남성은 여가시간, 여성은 개인유지 및 수면시간에서 우위를 점유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남녀의 비노동시간에서 균형을 맞추는 양상이다. 노르웨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수면, 개인유지, 여가시간 모든 영역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을 볼 때, 한국의 경우 비노동시간의 분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차승은)

5. 기혼취업자의 일-생활시간 배분의 변화 추이

1) 기혼취업자의 일반적 특성의 연도별 변화

일-가정양립은 기혼취업자의 일과 가정생활 균형의 문제가 중심이 되므로, 분석대상을 연령이 20-60대인 기혼의 취업자로 제한하였다.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변화를 보면 <표 5-5-1>과 같다.

<표 5-5-1> 기혼취업자의 일반적 특성의 연도별 변화

(단위: N(%))

변수	구분	1999	2004	2009	2014
요일	평일	22,228(60.7)	16,528(60.0)	10,146(59.5)	13,606(60.4)
	토요일	7,267(19.9)	5,487(19.9)	3,435(20.2)	4,388(19.5)
	일요일	7,123(19.5)	5,541(20.1)	3,463(20.3)	4,534(20.1)
성별	남	20,724(56.6)	15,590(56.6)	9,954(58.4)	13,002(57.7)
	여	15,894(43.4)	11,966(43.4)	7,090(41.6)	9,526(42.3)
연령	20대	2,430(6.6)	1,128(4.1)	598(3.5)	518(2.3)
	30대	11,246(30.7)	7,494(27.2)	4,202(24.7)	4,546(20.2)
	40대	11,080(30.3)	9,952(36.1)	6,328(37.1)	7,642(33.9)
	50대	7,184(19.6)	5,450(19.8)	3,968(23.3)	6,930(30.8)
	60대	4,678(12.8)	3,532(12.8)	1,948(11.4)	2,892(12.8)
기혼	유배우	33,688(92.0)	25,230(91.6)	15,648(91.8)	20,368(90.4)
	사별	2,044(5.6)	2,326(8.4)	602(3.5)	842(3.7)
	이혼	886(2.4)	0(0.0)	794(4.7)	1,318(5.9)
교육수준	중졸이하	15,924(43.5)	9,332(33.9)	4,170(24.5)	4,222(18.7)
	고졸이하	14,216(38.8)	11,292(41.0)	7,512(44.1)	9,088(40.3)
	전문대졸이하	1,884(5.2)	1,666(6.1)	1,920(11.3)	3,242(14.4)
	대졸이상	4,594(12.6)	5,266(19.1)	3,442(20.2)	5,976(26.5)

기혼취업자의 요일별 응답자 수는 연도별로 그 비율에 변화가 없이 평일이 60%, 토요일과 일요일이 각각 20%정도로 분포되어 있으며, 성별 비율 역시 연도별로 남성이 57-58%, 여성이 42-43%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연령별 분포는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20, 30대의 비중이 줄고 40-50대의 비중이 증가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1999년의 분석대상은 20대 7%, 30대 31%이며 40대 30%, 50대가 20%였으나, 2014년은 20대 2%, 30대 20%로 20대는 5%, 30대가 10%정도 감소한 반면, 40대 34%, 50대가 31%로 각각 4%, 11%가 증가한 것이다. 60대의 비중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이처럼 20, 30대의 기혼취업자수가 감소한 것은 이 기간 동안 남녀의 초혼 연령이 1999년 남자 29.1세, 여자 26.3세에서 2014년 남자 32.4세, 여자 29.8세로(통계청, 각

년도) 남녀모두 3세 이상 급격히 상승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기혼취업자의 혼인상태별 변화를 보면, 유배우 및 사별의 비율은 감소하고, 이혼의 비율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시기 한국사회의 이혼 증가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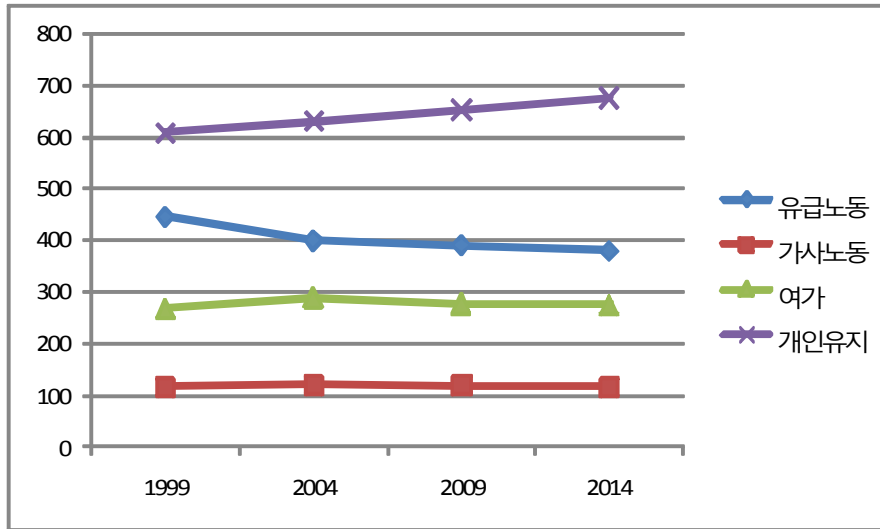
기혼취업자의 학력 역시 연도별 변화를 보이는데, 중졸의 비율이 대폭감소하고 고졸이상, 특히 2014년에는 전문대졸 및 대졸의 비중이 상승하여 기혼취업자의 전반적인 학력상승이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2) 기혼취업자의 일-생활시간 배분의 연도별 변화

기혼취업자의 일-생활시간 배분의 변화를 보기 위해 유급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및 개인유지시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표 5-5-2>에서 보면 20세 이상 기혼취업자의 일과 생활시간의 시간배분의 전반적인 추이는, 유급노동시간의 비중이 감소하고 가사노동시간의 비중은 변화가 없으나 여가시간과 개인유지시간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유급노동시간은 446분으로 하루의 31%를 차지하고 가사노동은 117분으로 8%, 여가는 268분으로 19%, 개인유지시간은 609분으로 42%를 차지했으나, 2004년에는 유급노동시간의 비중이 급격히 줄면서(31%-->28%), 여가와 개인유지시간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가사노동시간의 비중은 변화가 없었다. 2009년 및 2014년에도 유급노동시간은 감소하고 가사노동시간은 변화가 없는 반면, 여가시간의 비중은 줄고, 개인유지시간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즉, 기혼취업자의 일-생활시간 배분의 전반적인 경향은 유급노동시간의 감소와 개인유지시간의 증가로 요약될 수 있다. 2004년 7월 1일부터 부분 시작되어 2011년에 전면 실시된 주 40시간 근로제로 인한 유급노동시간의 감소는 가사노동시간의 증가나 여가시간의 증가보다는 수면이나 식사 및 개인적인 유지를 위한 개인유지시간의 증가로 이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그림<5-5-1>에서 보면 그 변화가 더 분명히 나타난다.

<표 5-5-2> 기혼취업자의 일-생활시간 배분의 연도별 변화 (단위: 연도, 분/하루)

	1999		2004		2009		2014	
	분	%	분	%	분	%	분	%
유급노동	446	31.0	400	28.0	391	27.0	380	26.0
가사노동	117	8.0	120	8.0	119	8.0	117	8.0
여가	268	19.0	289	20.0	277	19.0	275	19.0
개인유지	609	42.0	631	44.0	653	45.0	676	47.0



[그림 5-5-1] 기혼취업자의 일-생활시간 변화의 연도별 변화 (단위: 분/하루)

3) 기혼취업자의 요일별 일-생활시간 배분의 변화추이

기혼취업자의 하루 일과 생활시간의 시간배분을 요일별로 변화추이를 <표 5-5-3>와 <그림 5-5-2>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요일별 시간배분의 차이를 통해 근무일과 비근무일에 따라 기혼취업자들의 생활모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 기혼취업자의 평일 시간배분을 연도별로 보면, 1999년 하루 497분이었던 유급노동시간은 2004, 2009, 2014년으로 오면서 2004년을 제외하곤 감소하여 2014년은 15분이 감소한 482분이고, 가사노동시간 역시 약간 감소하여 1999년에 111분에 비해 2014년은 97분으로 감소하였다. 여가시간의 비중은 1999년 233분에서 2004년 244분으로 11분 증가했다가 2009년, 2014년에는 각각 225분, 210분으로 약간 감소한 반면, 개인유지시간은 1999년 599분에 비해 2014년 650분으로 51분이나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기혼취업자의 평일 일과 삶의 배분은 지난 15년간 큰 변화는 없으나, 유급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이 모두 약간 감소하고 이는 개인유지시간의 증가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토요일 기혼취업자의 유급노동시간은 1999년 449분이었으나,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점차 감소하여 2014년 토요일 유급노동시간은 283분으로 1999년에 비해 12%인 약 2시간 46분(166분)이 감소하였다. 토요일 기혼취업자의 유급노동시간은 많이 감소하였으나 가사노동시간의 증가는 미미해서 1999년 118분에서 2014년 140분으로 약 22분이 증가했을 뿐이다. 반면, 여가시간은 1999년 270분에서 320분으로 50분 증가하였으며, 개인유지시간은 603분에서 697분으로 1시간 34분이 증가하였다. 즉 기혼취업자의 지난 15년간 토요일 시간배분의

변화는 매우 컸는데, 유급노동시간이 크게 줄면서 이들 시간이 여가시간과 개인유지시간으로 전환된 것을 볼 수 있다.

일요일 시간배분의 변화추이를 보면, 1999년 282분이던 유급노동시간은 점차 감소하여 2014년 167분으로 1시간 55분 줄었으나, 이 기간 동안 여가시간의 증가는 단 10분이 증가한 것에 그쳤으며, 가사노동시간의 증가도 18분이 증가하였으나, 감소한 유급노동시간의 대부분은 개인유지시간의 증가로 나타나서, 1999년 645분이었던 개인유지시간은 2014년 732분으로 87분이나 증가하였다. 즉, 일요일 기혼취업자의 일과 삶의 시간배분의 변화추이를 보면, 유급노동시간의 감소가 개인유지시간의 증가로 이어졌음을 볼 수 있다.

이상에서 기혼취업자의 일과 삶의 요일별 시간배분의 변화추이를 보면, 평일은 유급노동시간 중심의 생활이 지난 15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반면 토요일은 유급노동시간이 크게 감소하고 감소한 시간만큼 여가시간과 개인유지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일요일 역시 유급노동시간이 크게 감소하고, 감소한 유급노동시간은 가사노동시간이 약간 증가하였을 뿐 대부분은 개인유지시간의 증가로 나타났다. 즉, 지난 15년 동안 주40시간 근무제, 주5일 수업제도가 전면 실시되면서 근무시간이 줄고 가족여행 등 여가시간이 증가하리라 예상되었었다. 그러나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본 요일별 변화추이는 토요일은 유급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이 시간은 개인유지시간과 함께 여가시간이 증가로 나타나서 지난 15년간 토요일 여가활동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나, 일요일 역시 지난 15년간 유급노동시간은 많이 감소했으나 이 시간이 여가시간의 증가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개인유지시간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나서 일요일의 여가활동 증가를 기대한 것은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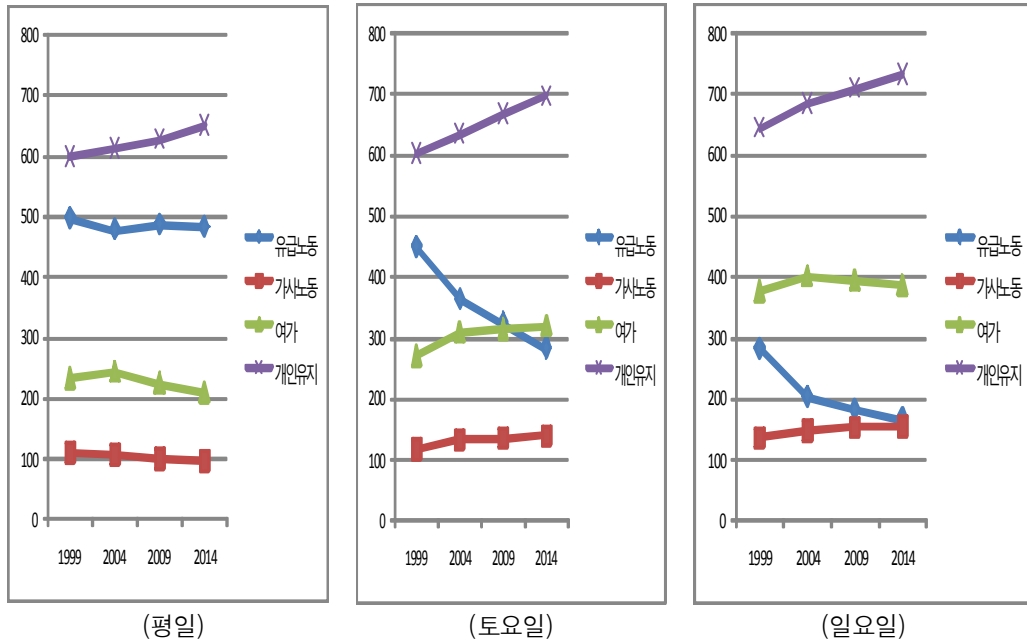
<표 5-5-3> 기혼취업자의 요일별 일-생활시간 배분의 변화추이

(단위: 분/하루)

	1999			2004			2009			2014		
	평일	토	일	평일	토	일	평일	토	일	평일	토	일
유급노동	497	449	282	477	363	204	486	323	182	482	283	167
가사노동	111	118	137	107	133	148	101	136	154	97	140	155
여가	233	270	376	244	309	402	225	314	394	210	320	386
개인유지	599	603	645	613	634	685	628	667	710	650	697	732

4) 기혼취업자 일-생활시간 배분의 연령별 변화추이

연령대별 기혼취업자 시간배분의 연도별 변화를 <표 5-5-4>와 <그림 5-5-3>에서 살펴본다. 유급노동시간은 1999년 20대가 437분으로 30-50대에 비해 적었으며, 2009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14년은 2009년에 비해 오히려 34분이 증가한 396분으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그림 5-5-2] 요일별 일-생활시간 배분의 변화 (단위: 분/하루)

긴 시간을 유급노동에 소비하였다. 이는 모든 연령층에서 지난 15년간 유급노동시간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가사노동시간은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데, 30, 40대의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한 반면, 20, 50, 60대의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였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30대의 가사노동시간 변화이다. 30대의 가사노동시간은 1999년 127분에서 2014년 24분이 증가한 151분이었다. 여가시간은 각 년도별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20대의 여가시간이 짧고 60대의 여가시간이 길었다. 그런데 20대의 여가시간은 2009년까지 증가하다가 2014년에는 2009년에 비해 38분이나 감소하였으며, 30-60대의 여가는 2004년까지 증가했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99년과 2014년을 비교할 때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여가시간이 감소하였다. 개인유지시간은 전 연령층에서 연도별로 크게 증가하였다. 2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개인유지시간이 가장 긴 연령층으로 1999년 620분에서 2014년은 71분이 증가한 691분이었다. 개인유지시간은 모든 연령층에서 1999년에 비해 2014년에 60-70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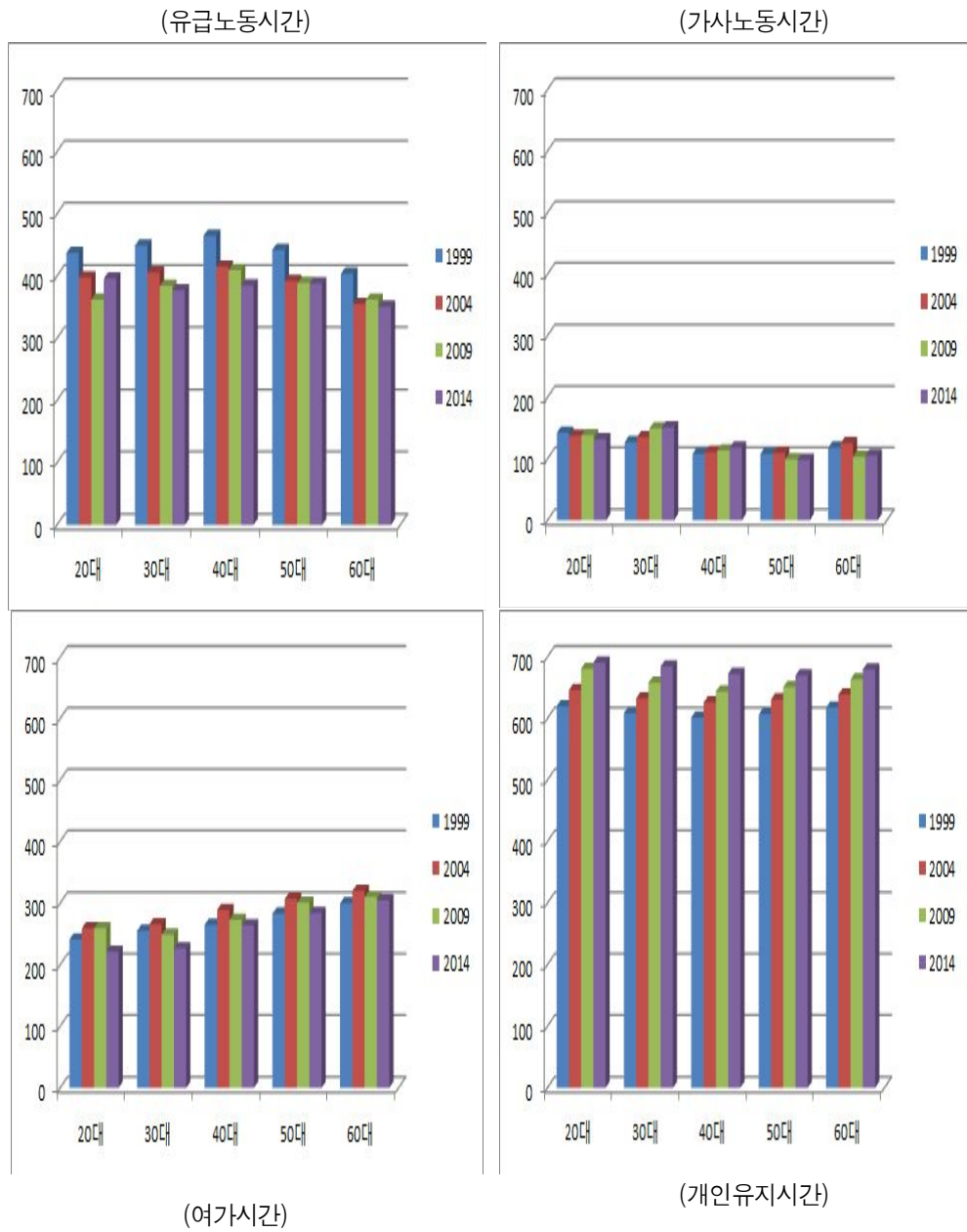
일-생활시간 배분의 연령별 변화를 보면 연령대에 따라 다른 변화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15년 전과 비교하여 20대는 유급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이 모두 감소한 대신 개인유지시간만이 증가하였으며, 30대는 유급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이 감소하면서 가사노동시간과 개인유지시간이 증가하였고, 40대는 유급노동시간이 줄고, 여가시간은 변화가 없으나 가사노동시간과 개인유지시간이 증가하였고, 50대는 유급노동과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여가시간은 별 변화가 없으며, 개인유지시간이 증가하였고, 마지막으로 60대는 가사노

동시간과 여가시간에 큰 변화가 없고 유급노동시간이 감소한만큼 개인유지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5-4> 기혼취업자의 일-생활시간배분의 연령별 변화추이

(단위: 분/하루)

		1999	2004	2009	2014
유급노동	20대	437	398	362	396
	30대	449	406	384	377
	40대	465	415	410	385
	50대	442	392	389	388
	60대	404	355	362	351
가사노동	20대	142	137	138	132
	30대	127	135	149	151
	40대	108	111	113	118
	50대	108	109	99	98
	60대	118	125	103	105
여가	20대	241	259	259	221
	30대	255	266	249	227
	40대	265	289	273	264
	50대	283	307	301	284
	60대	300	320	310	305
개인유지	20대	620	646	681	691
	30대	609	633	658	685
	40대	602	626	644	673
	50대	607	631	651	670
	60대	618	639	664	680



[그림 5-5-3] 기혼취업자의 일-생활시간배분의 연령별 변화추이(단위: 분/하루)

5) 기혼취업자 시간배분의 성별 연도별 변화추이

기혼취업자의 성별 시간배분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5-5-5>, <그림 5-5-4>와 같다. 표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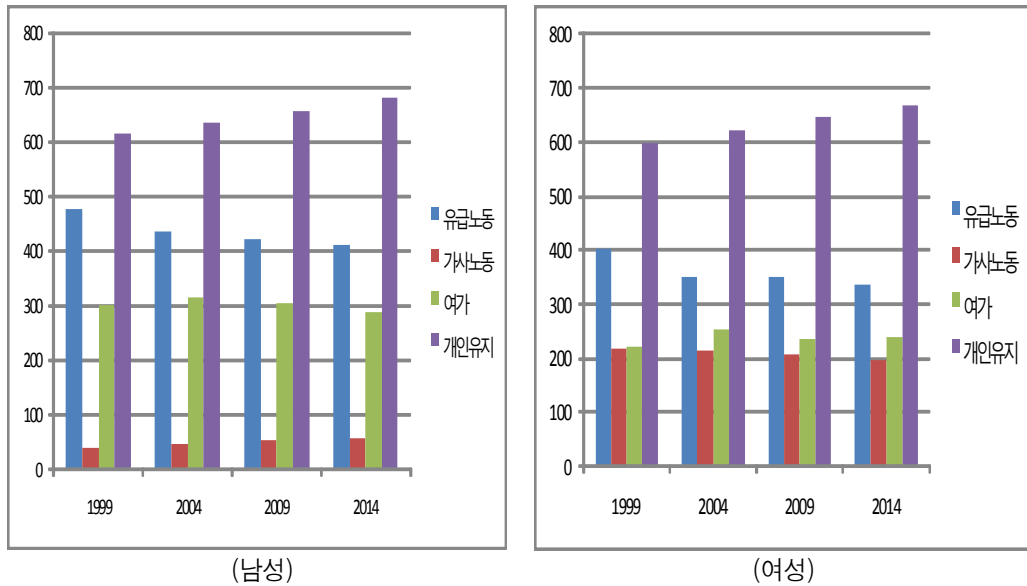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기혼취업자의 하루 시간배분은 성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기혼취업 남성은 1999년 하루 중 480분을 유급노동에 사용하였으나, 그 후 유급노동 시간은 점점 감소하여 2014년 412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지난 15년간 기혼취업 남성은 단지 하루의 40분-60분정도를 가사노동에 사용하였을 뿐이고, 15년간 노동시간이 72분 줄어들었음에도 가사노동시간은 19분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여가시간 역시 1999년 303분에서 2004년 316분으로 증가했다가 그 후 다시 감소하여 2014년 288분으로 15분 감소하였다. 반면 개인유지시간은 1999년 617분에서 2014년 682분으로 65분이 증가하여 감소한 유급노동 시간은 거의 대부분 개인유지시간의 증가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기혼취업자 남성의 하루 시간배분을 지난 15년간 변화로 살펴볼 때, 유급노동시간이 크게 감소하고 여가 시간도 감소하였는데, 이런 감소는 개인유지시간의 꾸준한 증가와 약간의 가사노동시간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기혼취업여성은 일과 삶의 균형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이러한 점이 하루 시간배분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기혼취업 여성은 1999년 401분의 유급노동과 함께 218분의 가사노동을 담당하여 하루의 43%인 619분을 총노동시간으로 사용하였다. 2004년은 유급노동시간이 43분 감소하면서 여가시간이 30분, 개인유지시간이 25분 증가하였으며, 2009년은 유급노동시간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여가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면서 개인유지시간이 증가하였고, 전반적인 유급노동시간의 감소로 2014년에는 336분의 유급노동시간과 197분의 가사노동으로 전체 노동시간이 1999년에 비해 1시간 26분 감소하면서 개인유지시간은 1999년에 비해 70분 증가하였다. 즉, 기혼취업자 여성의 지난 15년간의 시간배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유급노동시간의 꾸준한 감소와 약간의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여 총 노동시간이 감소하였으며, 이런 노동시간의 감소는 여가시간과 개인유지시간의 증가로 나타나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일과 삶의 균형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5> 기혼취업자의 성별 연도별 시간배분의 변화추이

(단위: 분/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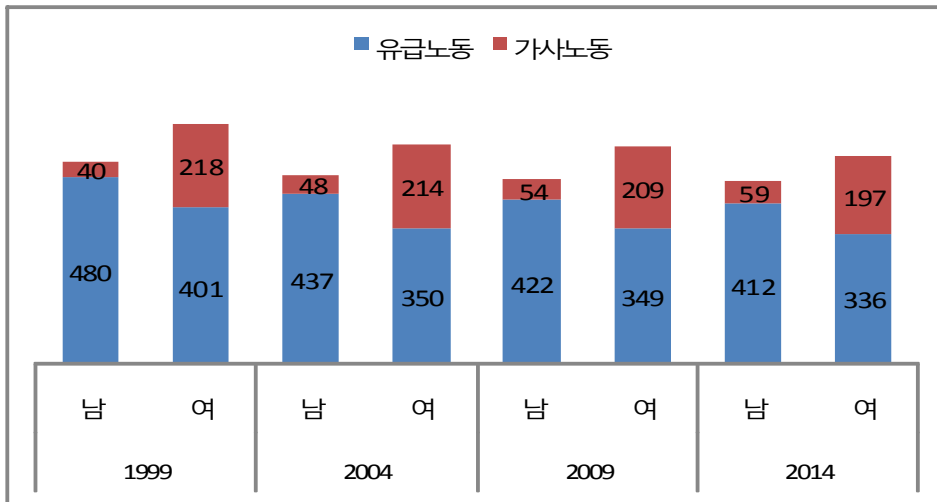
	1999		2004		2009		2014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유급노동	480	401	437	350	422	349	412	336
가사노동	40	218	48	214	54	209	59	197
여가	303	223	316	253	306	237	288	239
개인유지	617	598	638	623	658	645	682	668



[그림 5-5-4] 기혼취업자 남녀의 하루 시간배분의 연도별 변화 (단위: 연도, 분/하루)

6) 기혼취업자 남녀의 총 노동시간의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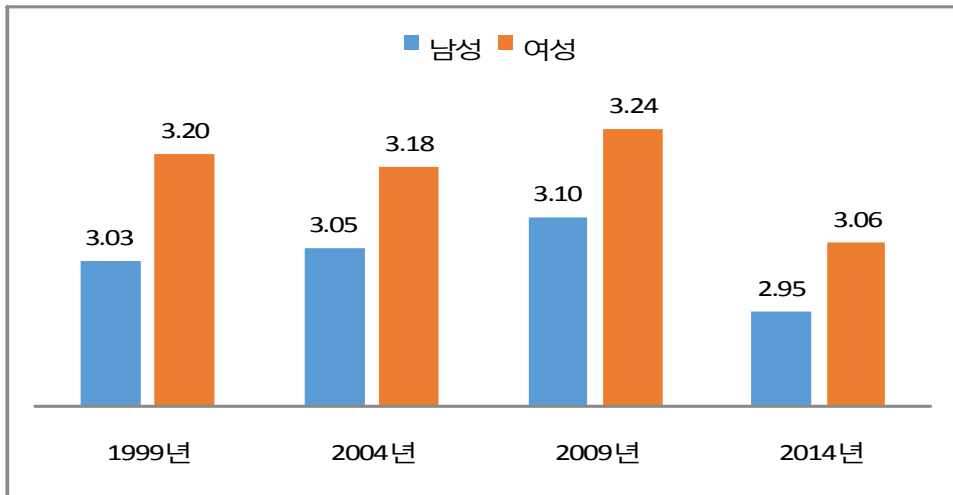
기혼취업자 남녀의 일-가정 양립상태를 보기위해 유급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합한 총 노동시간을 비교해 보았다. <그림 5-5-5>에서 남녀의 유급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 그리고 총 노동시간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1999년 남성의 총 노동시간은 520분, 여성의 총 노동시간은 619분으로 남성에 비해 99분이나 더 많다. 유급노동시간의 감소로 총 노동시간은 감소하고 있으나,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기혼취업자 여성은 남성에 비해 총 노동시간이 길었다. 즉 유급노동시간이 많이 감소한 2014년도 취업기혼 여성의 총 노동시간은 533분으로 총 노동시간 471분인 남성보다 여전히 62분이 더 길다. 기혼취업자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유급노동시간의 감소에도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1999년에 비해 2014년 68분 감소했으나, 가사노동시간은 40분에서 59분으로 19분 증가했을 뿐이다. 여성의 경우는 유급노동시간의 감소와 함께 가사노동시간도 감소했으며, 이런 감소는 여가시간 및 개인유지시간의 증가로 나타났다.



[그림 5-5-5] 기혼취업자 남녀의 성별 총 노동시간의 변화추이 (단위: 연도, 분/하루)

7) 기혼취업자 남녀가 느끼는 시간부족감의 연도별 변화

‘귀하는 평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또는 여유있다고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항상 부족하다고 느낌’에서 ‘항상 여유있다고 느낌’의 4점 척도에(점수가 높을수록 시간부족감을 많이 느낌) 대한 기혼취업자 남녀 응답의 연도별 추이를 <그림 5-5-6>에서 볼 수 있다. 그림에서 보면, 기혼취업자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지난 15년간 시간부족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이는 총 노동시간의 차이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기혼취업자 여성들이 그들의 하루 시간배분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움을 나타낸다. 연도별 변화추이를 보면, 남성들은 시간부족감이 3.03에서 2009년 3.10까지 증가했다가 2014년 2.95로 감소하였으며, 여성들도 1999년 3.2에서 2004년 3.18, 2009년 3.24로 증가하였다가 2014년 3.06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처럼 2014년 기혼취업자 남녀의 시간부족감이 감소한 것은 하루 시간배분에서 유급노동시간의 감소와 개인유지시간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5-6] 기혼취업자 남녀 시간부족감의 연도별 변화 (단위: 연도, 평균)

본 절에서는 일-가정 양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혼취업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일-생활시간 배분이 지난 15년간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04년부터 실시되기 시작한 주5일 근무제, 주40시간 근무시간이 정착해 감에 따라 유급노동시간은 현저하게 감소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감소한 유급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일-가정 양립에 필요한 가사노동시간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가시간의 증가도 미미했으나, 개인유지시간은 크게 증가하였다. 즉 감소한 유급노동으로 증가한 시간은 개인유지시간을 보충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혼취업자들이 그동안의 장시간노동으로 개인유지에 필요한 시간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기혼취업자의 일-생활시간 배분의 변화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성별에 따른 차이이다. 지난 15년 간 남성과 여성 모두 유급노동시간은 감소하고 개인유지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은 일치한다. 그러나 남성에 비해 여성은 가사노동시간이 길고, 지난 15년간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19분 증가하고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21분 감소한 것에 그쳤다. 기혼취업 여성은 기혼취업 남성에 비해 유급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합한 총노동시간이 길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개인유지시간이나 여가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 즉, 기혼취업 여성이 남성보다 일-생활 균형을 취하기 더 어렵다. 한편, 기혼취업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의 증가는 남성들의 부모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기혼취업 남성과 여성 모두가 일-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조희금)

VI. 취업자의 유급노동

이 장에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변수를 활용한 기술통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2014년 자료에서 포착되는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에 따라 취업상태, 종사상지위, 소득, 노동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자 한다. 노동시간은 구체적으로 유급노동시간과 노동 관련 이동시간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어떤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열악한 근로조건을 지니는지 밝힘으로써 취업자 내의 다양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노동조건에 따라 시간압박, 피곤함, 삶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시간일지를 작성한 날의 건강상태와 만족감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기술적인 분석 과정에서는 특히 성별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 취업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표 6-1> 취업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2014 생활시간자료			남성	여성
인구사회적 특성	연령	15~19	1.4	2.0
		20~29	8.5	14.8
		30~39	22.8	18.0
		40~49	27.2	27.3
		50~59	24.6	22.5
		60세 이상	15.4	15.5
	혼인상태	미혼	17.3	21.2
		기혼	77.9	64.3
		사별	1.3	8.8
		이혼	3.5	5.7
	교육수준	무학	0.7	3.7
		초등학교 졸업	5.8	10.7
		중학교 졸업	7.9	9.2
		고등학교 졸업	33.6	33.1
		전문대 졸업	18.3	17.9
		4년제 대학교 졸업	27.4	20.9
		석사	4.8	3.7
		박사	1.5	0.8
	종사상지위	상용직	53.6	42.4
		임시 일용직	15.5	29.6
자영업		9.9	16.7	
무급가족종사자		1.0	11.3	

응답자 중 취업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6-1>과 같다. 전반적으로 남성의 취업률이 높기는 하지만 30대부터 50대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20대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남성들이 군복무 이후 복학하여

학업을 마치는 기간이 길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혼인상태는 기혼 상태가 대다수이지만 여성은 사별과 이혼, 미혼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와 전문대, 4년제 대학졸업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 종사상지위는 대다수가 상용직이지만, 남성의 상용직 비율이 여성의 상용직 비율에 비하여 높다. 여성은 임시 및 일용직과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여전히 여성의 취업조건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열악함을 알 수 있다.

2. 성별과 연령에 따른 생활시간 구성 및 삶의 만족도 비교

성별과 연령에 따라 하루의 일상을 어떤 활동들로 구성하고 있으며 삶의 만족도와 시간압박 정도, 피곤함의 정도, 피곤한 이유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6-2>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하루의 생활시간 구성을 나타낸다.

<표 6-2> 성별과 연령에 따른 생활시간 구성 (단위: 분/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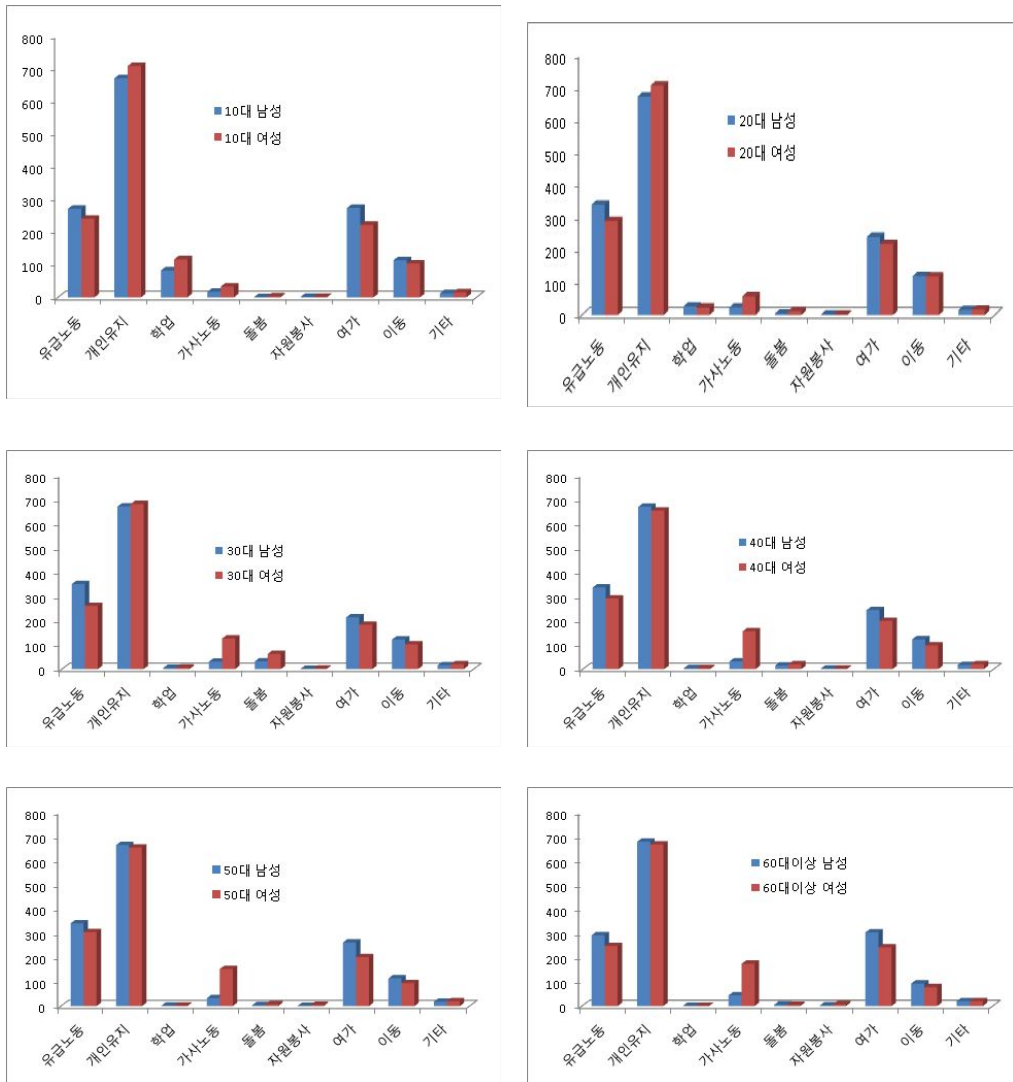
2014 생활시간자료		남성	여성
10대	노동시간	270.6	240.2
	개인유지	670.1	707.5
	학업	82.1	116.1
	가사노동	16.9	32.7
	돌봄노동	0.3	2.9
	자원봉사	1.0	0.9
	여가	273.3	221.4
	이동	113.3	103.2
	기타	12.4	15.2
20대	노동시간	338.8	288.4
	개인유지	670.4	704.5
	학업	26.3	22.6
	가사노동	23.1	57.5
	돌봄노동	5.1	11.8
	자원봉사	1.7	1.9
	여가	239.9	217.5
	이동	119.2	118.9
	기타	15.7	16.8
30대	노동시간	350.4	259.9
	개인유지	670.3	680.2
	학업	4.9	6.2
	가사노동	30.9	125.7
	돌봄노동	31.6	62.9
	자원봉사	0.8	1.5

	여가	213.4	182.1
	이동	121.7	101.6
	기타	16.0	19.9
40대	노동시간	336.5	290.7
	개인유지	668.8	652.8
	학업	4.0	3.7
	가사노동	31.8	155.6
	돌봄노동	14.7	19.6
	자원봉사	2.1	2.0
	여가	242.9	198.4
	이동	122.4	97.1
	기타	16.8	20.1
50대	노동시간	341.3	304.3
	개인유지	663.2	653.2
	학업	2.1	2.0
	가사노동	33.0	152.9
	돌봄노동	4.3	7.0
	자원봉사	1.4	4.7
	여가	262.6	202.1
	이동	114.4	94.2
	기타	17.9	19.6
60대 이상	노동시간	292.2	247.3
	개인유지	677.5	665.9
	학업	1.2	0.7
	가사노동	44.3	174.5
	돌봄노동	5.7	4.8
	자원봉사	2.8	7.7
	여가	303.6	241.6
	이동	92.7	77.8
	기타	20.0	19.7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은 수면을 포함한 개인 유지 이다. 노동시간은 연령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은 30대에 정점을 찍었다가 이후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여성의 노동시간은 10대보다 20대가 길고 30대에 줄었다가 40대와 50대는 길어졌다가 60대 이상에서 다시 짧아지는 경향이 보인다. 즉 여성의 노동시간은 연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약간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는 연령대에 따른 돌봄 노동의 증가나 다른 상황적 여건에 영향을 받은 결과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에서 제시했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면 <그림 6-1>과 같다.

일을 하는 10대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연령의 특성상 학습시간이 하루 평균 1~2시간 나타나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 여성은 수면과 외모관리 등 개인유지시간이 높고, 남성은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이 높다. 20대는 약간의 가사노동시간이 나타나며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약간 높다. 30대는 여성의 노동시간이 남성보다 하루 평균 1시간 30분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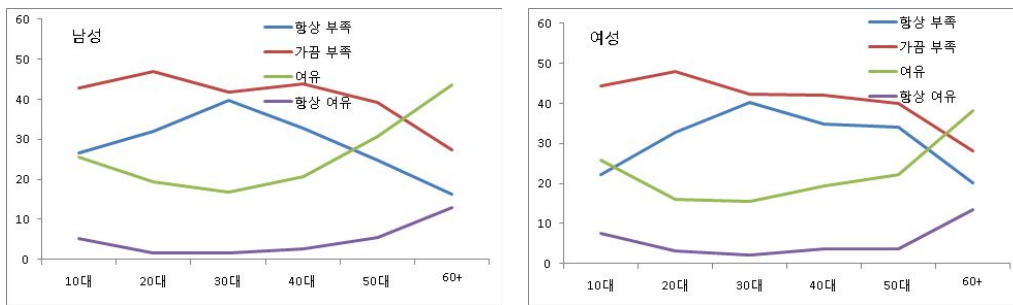
량 짧고 여가시간이 30분 짧은 반면 남성에 비하여 여성은 가사노동시간이 1시간 30분, 돌봄노동시간이 30분 더 길다. 즉 여성은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을 줄여서 가사노동과 돌봄



[그림 6-1] 성별, 연령에 따른 생활시간 구성 (단위: 분/하루)

노동에 투입함을 알 수 있다. 40대는 돌봄노동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가사노동시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2시간 길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별 노동시간의 차이는 40분 가량으로 30대보다 줄었음을 고려할 때 여성은 줄어든 돌봄노동시간을 다시 유급노동시간과 가사노동으로 전환하여 투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여가시간은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40분 가량 짧다. 40대부터는 여성의 개인유지시간도 남성보다 줄어든다는 점이 특징

적이다. 노동시간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여성의 개인유지시간과 여가시간이 남성보다 짧은 것을 50대 이상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나이가 들수록 늘어한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즉 똑같이 유급노동을 하더라도 여성은 여전히 연령에 상관없이 가사와 돌봄노동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여가시간과 개인유지시간의 불평을 경험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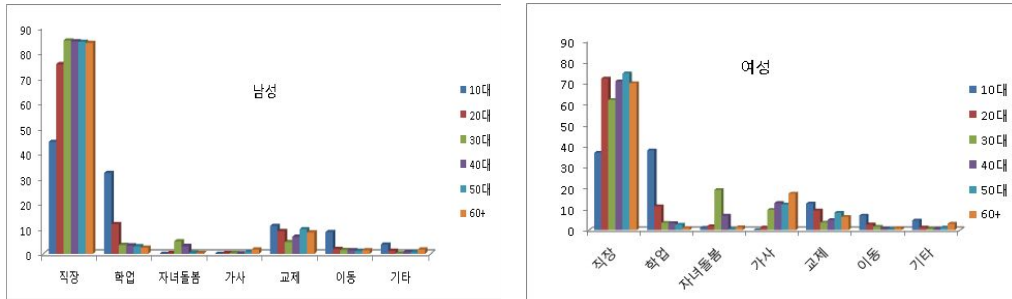


[그림 6-2] 성별과 연령에 따른 시간압박감 (단위: %)

“귀하는 평소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또는 여유있다고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성별과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그림 6-2>와 같다. 성별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응답이 충분하다는 응답보다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단, 60대 이상은 남성과 여성 모두 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다. “가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응답은 연령에 따라 응답비중이 약간의 변화를 보인다.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응답은 남성의 경우 30대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 점차 감소하는 반면 여성은 30대부터 50대까지 비슷한 응답비중을 유지한다. “시간이 약간 여유있다고 느낀다”는 응답은 남성은 50대부터 비율이 늘어나는 반면 여성은 60대 이상에서 여유있음을 느낀다. 시간압박에 대한 인식은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이 약간 높게 나타나며 연령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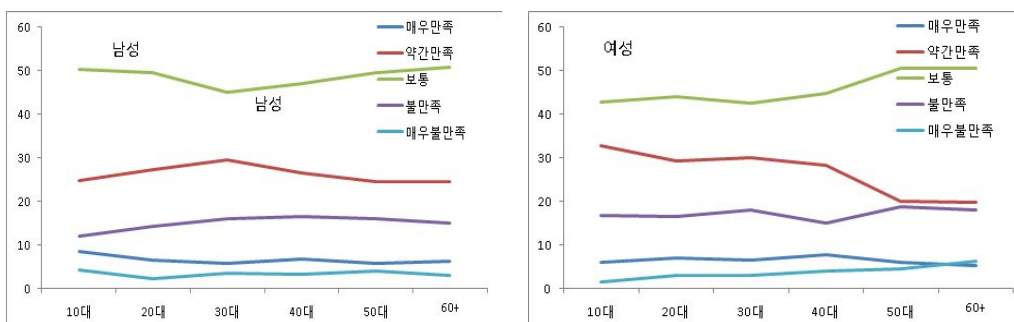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느끼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일 때문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그림 6-3> 참조). 1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시간부족을 인식하는 주된 원인이 ‘일’ 때문이라는 응답이 70%를 넘는다. 특히 30대 이상의 남성은 일 때문에 시간부족을 인식한다는 응답이 80%는 넘었고, 여성은 연령에 따라 60%~75% 사이의 응답비중을 보인다. 10대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학습 때문에 바쁘다는 응답이 32%~37%를 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습은 시간압박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지 않는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은 시간압박의 주된 원인이 일로 집중되는 반면, 여성은 일과 돌봄, 가사노동으로 분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여성의 복잡다단한 삶을 반영한 결과로 생각된다. 즉 여성은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

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함을 인식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림 6-3] 성별과 연령에 따른 시간 압박인식의 이유 (단위: %)

삶의 만족도는 “귀하는 평소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한 응답은 5점 척도로 측정되는데, 평균으로 살펴보면 성별에 관계없이 연령이 올라갈수록 약간씩 높아지는 경향이 관찰된다. 반면 각각의 응답 비중을 살펴보면 <그림 6-4>와 같다. 5점 척도의 문항으로 질문하였을 때 관찰되는 일반적인 경향과 마찬가지로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과반 정도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응답은 “약간 만족”과 “약간 불만족” 순서인데, 여성은 “약간 만족”한다는 응답이 50대부터 낮아지고 “약간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높아지는 반면, 남성은 연령에 따라 큰 차이없이 비슷한 응답비중을 나타낸다.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매우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60대 이상 여성의 경우 약간 높아지는 경향이 흥미롭다.



[그림 6-4] 성별과 연령에 따른 삶의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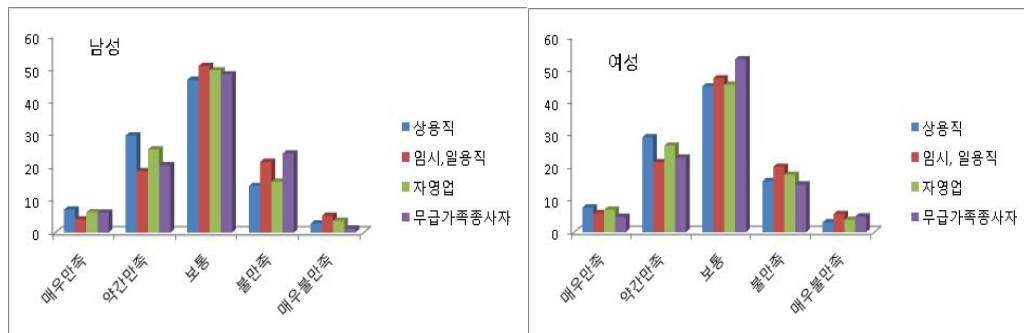
3. 종사상지위에 따른 생활시간 구성 및 삶의 만족도 비교

일하는 사람들 중 종사상 지위에 따라 노동시간을 비롯하여 하루의 생활시간 구성은 어떻게 되며 삶의 만족도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표 6-3> 종사상 지위에 따른 생활시간 구성 (단위: 분/하루)

2014 생활시간자료	상용직	임시 및 일용직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노동시간	344.4	306.0	327.9	321.1
개인유지	666.4	669.7	674.2	667.2
학업	4.5	20.9	1.7	9.8
가사노동	31.0	35.1	34.6	45.7
돌봄노동	17.2	7.6	10.5	3.6
자원봉사	1.3	1.5	2.5	0.9
여가	237.7	272.2	261.0	292.4
이동	120.6	109.8	109.8	79.8
기타	16.8	17.4	17.9	19.5

유급노동시간은 상용직이 가장 길고,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임시 및 일용직 순서이지만 실제로 그 차이는 하루 평균 20분에서 35분가량에 불과하다. 임시 및 일용직의 경우에는 학업시간이 다른 지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길고 여가시간이 길다. 무급가족종사자는 가사노동의 비중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여성들이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종사상 지위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그림 6-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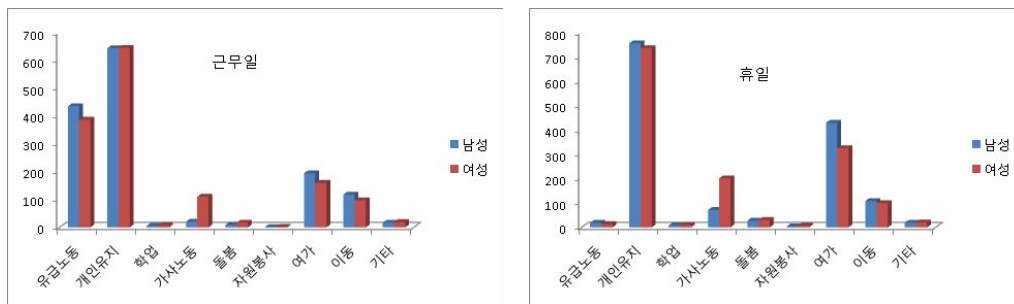
[그림 6-5] 종사상지위에 따른 삶의 만족도 (단위: %)

종사상지위에 따른 응답 역시 “보통”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을 보면 상용직,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임시 및 일용직 순서이다. “불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 역시 임시 및 일용직이 가장 높고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 상용직 순이다. 즉 상용직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고 임시 및 일용직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났다. 남성 무급가족종사자의 만족도도 낮은 편이지만 표본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임시 및 일용직의 노동시간은 상용직에 비하여 하루 평균 35분가량 짧지만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기술적인 통계로만 살펴보았을 때 고용불안정성이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성별에 따른 근무일과 휴일에 따른 생활시간 구성

이번에는 성별에 따라 근무일과 휴일의 생활시간 구성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주중과 주말의 시간구성을 비교하지만 근무일과 휴일이 반드시 주말과 주중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응답자들을 기준으로 근무일과 휴일의 생활시간을 살펴보았다.



[그림 6-6] 근무일과 휴일에 따른 생활시간 구성 (단위: 분/하루)

<그림 6-6>을 살펴보면 성별에 관계없이 근무일에는 개인유지와 유급노동에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은 가사노동에 1시간 30분 가량을 보내며, 여가시간은 여전히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짧다. 휴일에는 크게 개인유지와 여가시간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도 역시 성별 격차가 관찰된다. 여성은 개인유지시간이 남성보다 20분 정도 짧은데 이는 주로 수면시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근무일에 109분에서 휴일에 200분으로 증가하는 반면, 남성은 근무일에 21분에서 휴일 71분으로 증가한다. 성별에 관계없이 휴일에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가사노동시간이 늘어나지만 여전히 성별 격차가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가사노동시간의 격차는 결과적으로 여가시간의 격차로 이어져서 휴일 여가시간조차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1시간 30분 정도 짧다.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생활시간 구성을 살펴본 결과 여성의 이중부담과 성별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5. 취업형태(전일제와 시간제)에 따른 생활시간 구성

상용직과 임시 및 일용직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파악한 전일제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들의 생활시간 구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6-4>에 제시되었다.

<표 6-4> 전일제와 시간제 근로자의 생활시간 구성 (단위: 분/하루)

2014 생활시간자료	전일제		시간제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노동시간	346.6	312.9	200.2	165.5
개인유지	666.2	670.8	679.2	680.4
학업	4.6	5.0	53.8	28.4
가사노동	31.0	115.2	44.3	156.7
돌봄노동	15.7	19.7	7.6	28.3
자원봉사	1.4	1.8	1.0	4.0
여가	238.5	192.3	333.2	256.3
이동	119.3	103.3	103.9	100.8
기타	16.9	19.1	16.8	19.9

전일제, 시간제와 관계없이 남성의 노동시간이 여성보다 약간 길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남성의 학업시간이 여성보다 길다. 반면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은 전일제, 시간제 근무에 상관없이 여성이 남성보다 확연히 길다. 시간제로 근무하는 여성들은 가사와 돌봄의 필요 때문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는 남성들은 재취업이나 경력 관리를 위하여 학업시간을 늘이는 것은 아닌지 추정된다. 여가시간은 전일제 근로자보다 시간제 근로자가 길지만, 역시 성별 격차가 관찰된다. 이동 시간은 전반적으로 여성이 짧다.

6. 소결

취업자들만을 대상으로 기술적인 수준에서 자료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관찰되었다.

종사상지위, 취업형태, 근무일과 휴일, 연령에 관계없이 여성은 여전히 유급노동과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을 담당한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중부담은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짧은 여가시간을 가지게 되는 여가의 불평등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유급노동시간 자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짧지만,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모두 포함하면 총 노동시간은 남성과 유사하거나 길다.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간압박 인식

의 요인도 남성은 '일'로 집중되는 반면 여성은 '일'과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으로 다양하다. 이는 여성의 복잡다단한 생활과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반영한다.

종사상 지위에 따른 노동시간의 차이, 특히 상용직과 임시 및 일용직의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20분~30분에 불과하다. 그러나 고용불안정 때문에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들의 삶의 만족도는 낮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남성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 참여와 사회제도의 지원이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상생활에서는 여성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성별 여가시간의 불평등과 여성의 노동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앞으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삶의 질과 시간압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송유진)

Ⅶ. 청소년의 학습시간

한국 청소년의 학습시간(study time)은, 일반화시켜 표현하면, “매우 길다”. 한국 사회에서 초중고의 모든 교육의 목표는 실질적으로는 고등학교를 마친 후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많은 경우,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 사회적으로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무한경쟁이 시작된다. 학습시간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학업성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두뇌가 특별히 비상하지 않고 모두 평범하거나 일정 수준의 지능을 지니고 있는 경우, 학습시간은 학업성취도와 어느 정도는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 절은 2014년 생활시간조사에 응답한 10세 이상의 응답자 가운데 조사 당시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학습시간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2014년 현재 한국의 초중고에 재학중인 청소년들은 학습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생활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행정구역, 도시와 농촌의 지역, 그리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자녀의 학습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학습시간의 여러 차별성을 밝혀려고 한다.

(1) 분석대상자의 특성

청소년의 학습시간을 분석하기 위해 이 연구는 3348명의 남학생과 3060명의 여학생의 학습시간을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고등학생은 37%, 중학생은 35.8%, 초등학생은 27.3%이다. 연령별로는 18세인 학생이 292명(4.6%)으로 가장 적고, 16세가 824명(12.9%)으로 가장 많다. 분석 대상 학생들은 대부분이 도시지역(5472명, 85.4%)에 거주하고 있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은 936명(14.6%)으로 10%대에 머물러 있다(<표 7-1 참조>).

<표 7-1> 10세 이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변수	명	%
남자	3348	52.3
여자	3060	47.8
초등학생	1746	27.3
중학생	2294	35.8
고등학생	2368	37.0
10세	778	12.1
11	634	9.9
12	698	10.9
13	806	12.6
14	782	12.2
15	798	12.5
16	824	12.9
17	796	12.4
18세	292	4.6
도시	5472	85.4
농촌	936	14.6
합	6408	100.0

1. 전국적인 수준에서 청소년의 학습시간

2014년 현재 10세 이상으로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총 학습시간은 하루 평균 406분 (=6시간 46분)이다. 이 가운데 221분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보낸 시간이고, 184분은 학교 밖에서 학원 등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거나 자기 혼자 스스로 공부한 시간이다.

성별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학습시간이 더 많다. 남학생은 하루 평균 402분을 공부하는데 보낸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평균 8분 정도 더 많은 410분을 공부하면서 보냈다. 학교 내에서 공부한 시간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11분 정도 많지만,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학원 등에서 공부를 하거나 스스로 공부한 사람을 합한 학교외 학습시간이 19분 정도 더 많다. 결과적으로 10세 이상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학습시간을 성별로 나누어보면 여학생의 학습시간이 남학생의 학습시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별로는 10세 이상 학생들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습시간이 증가한다. 그런데 16세 청소년의 학습시간이 하루 평균 486분(=8시간 6분)으로 정점에 달한 후에, 학습시간이 다시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시간은 16세에 정점에 도달하지 않고, 18세에 이르기까지 계속 증가한다. 즉 학교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그리고 고등학교도 1, 2, 3학년 등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보내는 시간은 계속 증가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공부하거나 혹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인

학교외 학습시간이 16세에 정점에 도달한 후 17, 18세의 학교외 학습시간은 16세 때의 학교외 학습시간에 비해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습하는 시간과 학교외에서 학습하는 시간을 합한 총 학습시간은 16세에 정점에 도달한 후 이후에는 약간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7-2> 전국적인 수준에서 10세 이상 청소년의 학습시간

	총 학습시간	학교 학습시간	학교외 학습시간
총 평균	406.2	221.9	184.4
남자	402.1	227.1	175.1
여자	410.7	216.2	194.6
10세	303.7	159.6	144.1
11세	338.1	178.5	159.7
12세	359.7	186.0	173.8
13세	402.3	198.4	203.9
14세	405.0	199.0	206.0
15세	453.9	254.7	199.3
16세	485.8	278.9	206.9
17세	458.9	280.1	178.8
18세	453.9	284.3	169.6
주중	545.4	352.7	192.7
토요일	209.1	29.6	179.5
일요일	170.6	7.3	163.3
농촌	368.4	214.6	153.8
도시	412.7	223.1	189.6

학생들의 학습시간은 주중, 주말에 따라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특히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교 학습시간에 주중, 주말의 차이가 크다. 주중에는 352분의 학교 학습시간과 193분의 학교외 학습시간을 합해 하루 평균 545분을 공부하면서 보낸다고 나타난다. 그러나 토요일에는 총 학습시간이 하루 평균 209분으로 크게 감소하고, 일요일에는 이보다 더 적은, 총 170분을 공부하고, 이 가운데 163분은 학교가 아닌, 학교 밖에서 학원을 다니거나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학습시간은 도시/농촌에서도 차이가 난다. 도시지역의 학생들은 하루 평균 413분을 공부하면서 보내는 반면, 농촌지역 학생들은 하루 평균 368분을 공부하면서 보낸다. 도시와 농촌의 학습시간 차이는 학교에서의 학습시간에서도 농촌에게 불리하게 차이가 나고, 학원 등에서 공부하는 시간이나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인 학교외 학습시간도 도시지역의 학생들이 농촌지역의 학생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학습시간에 도시/농촌과 같은 지역적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2. 도시/농촌별 청소년의 학습시간

<표 7-3> 전국 도시/농촌별 총학습시간

(단위: 분/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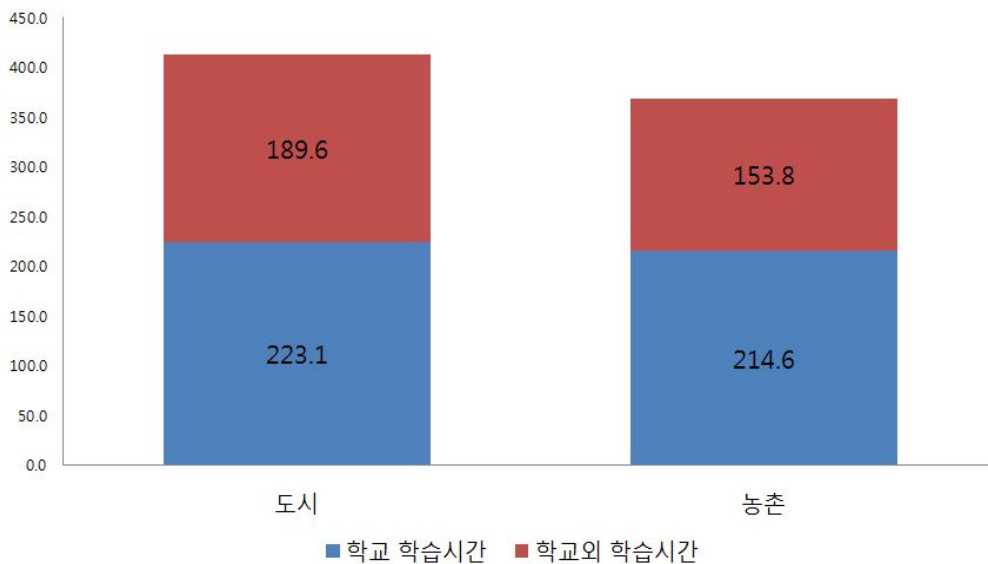
		총 학습시간		
			도시	농촌
초등	총 평균		328.1	287.6
	성별	남자	326.9	290.3
		여자	329.4	284.4
	연령	10세	317.0	243.1
		11세	338.0	338.8
		12세	331.1	324.3
		13세	411.0	-
	주중 주말	주중	469.5	449.7
		토요일	114.2	87.9
		일요일	78.6	56.3
중학	총 평균		404.9	378.5
	성별	남자	407.2	358.4
		여자	402.7	401.4
	연령	12세	384.6	386.9
		13세	406.6	378.1
		14세	409.3	382.5
		15세	412.5	354.0
	주중 주말	주중	545.5	514.8
		토요일	208.2	157.9
		일요일	174.1	143.8
고등	총 평균		480.8	427.8
	성별	남자	469.8	432.7
		여자	493.3	421.8
	연령	15세	486.2	511.4
		16세	502.8	370.6
		17세	465.1	420.0
		18세	453.0	460.9
	주중 주말	주중	613.2	577.5
		토요일	296.2	218.2
		일요일	247.0	232.2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학업시간은 총 학습시간의 측면에서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해서 다시 초중고의 학급별로, 그리고 성별, 연령별, 주중/주말별로 나누어보면 도시와 농촌의 학생들 사이에 학습시간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다음 <표 7-3>은 전국을 도시/농촌으로 나누고 각 학급별 학생들의 학습시간을 보여준다.

먼저 초, 중, 고등학교 등 모든 수준의 학교에서 도시지역의 학생들의 총 학습시간이 농촌지역의 학생들의 총 학습시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거의 예외없이 도시지역의 학생들이 농촌지역의 학생들보다 총 학습시간이 더 길다. 고등학생의 경우 도시지역에서 사는 학생들은 농촌지역에 사는 학생들보다 하루 평균 53분을 더 공부한다. 도시지역 고등학생 중 남학생은 농촌지역 남자 고등학생보다 약 37분 정도 더 공부하지만, 도시지역 여자 고등학생은 농촌지역 여자 고등학생보다 71분, 즉 하루 평균 1시간 11분 정도 더 공부한다. 이러한 현상은 연령별, 주중/주말로 나누어 살펴봐도 비슷한 현상이다. 농촌지역의 학생들이 도시지역의 학생들보다 학습시간이 훨씬 적은 것이다.

다음 <그림 7-1>은 도시와 농촌지역 10세 이상 초중고 학생들의 평균 학습시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림 7-1] 도시/농촌의 10세 이상 초중고 학생들의 평균 학습시간 (단위: 분/하루)

<그림 7-1>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도시와 농촌 지역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시간에 확연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 이런 차이가 초, 중, 고등학교 등 각 학급별로도 역시 차이가 존재하는지 다음 그림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림 7-2>는 초등학생의 학습시간을 학교 학습시간 및 학교외 학습시간으로 나눈 후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도시와 농촌 지역의 초등학교 사이에는 학생들의 학

교 공부시간이 10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외 학습시간은 도시지역 초등학생들이 156분을 사용하는데 반해, 농촌지역 초등학생들은 126분을 사용한다. 결과적으로 도시지역 초등학생들이 농촌지역 초등학생에 비해 하루 평균 30분정도 더 학습에 사용하는 것이다.

<그림 7-3>은 중학생의 학습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중학생의 경우 농촌지역의 학교 공부시간이 도시지역의 학교 공부시간보다 오히려 15분 정도 길다. 그러나 학교외 학업시간에서 도시지역 중학생의 학업시간이 농촌지역 중학생의 학업시간보다 30분 이상 더 길다.

<그림 7-4>는 고등학생들의 학업시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학업시간도 도시지역 학생들의 공부시간이 농촌지역 학생들의 공부시간보다 20분 이상 더 길다. 학교외 학업시간도 도시지역 고등학생들의 학업시간이 농촌지역 고등학생들의 학업시간보다 30분 이상 더 길다. 그래서 도시지역 고등학생들의 총 학업시간이 농촌지역보다 더 길게 된다.

총 학습시간에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외 학습시간은 학생들의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도시/농촌별 학습시간의 차이는 학교외 학습시간에서 더 분명하게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다음 <표 7-4>는 도시/농촌에서 학급별로 학교외 학습시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도시지역의 고등학생은 학교외 공부시간으로 하루 평균 194분, 즉 3시간 14분을 사용한다. 반면에 농촌지역 고등학생은 학교외 공부시간으로 하루 평균 163분, 즉 2시간 43분을 사용한다. 그래서 도시지역 고등학생들은 농촌지역 고등학생보다 하루 평균 30분 이상을 더 학교외 학업시간으로 사용한다. 도시지역 남자 고등학생은 농촌지역 남자 고등학생보다 하루 평균 학교외 학업시간으로 31분 정도 더 사용하지만, 도시지역 여자 고등학생은 농촌지역 여자 고등학생보다 하루에 평균 거의 50분 가량을 더 학교외 학업시간으로 사용한다. 이처럼 도시와 농촌 지역에 따라서 학업시간에 유의미한 수준으로 차이가 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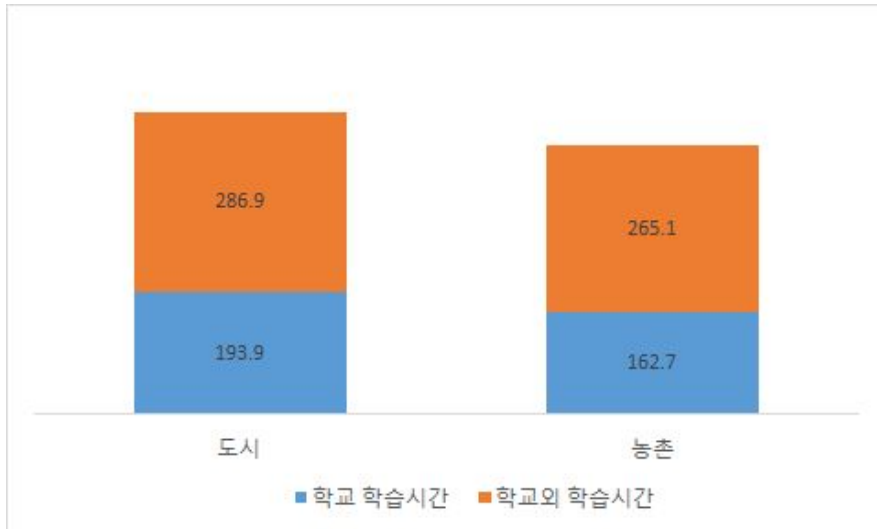
이러한 차이는 중학생과 초등학생의 학교외 학업시간을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 살펴봐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림 7-2] 도시/농촌별 초등학생의 학습시간 (단위: 분/하루)



[그림 7-3] 도시/농촌별 중학생의 학습시간 (단위: 분/하루)



[그림 7-4] 도시/농촌별 고등학생의 학습시간 (단위: 분/하루)

<표 7-4> 전국 도시/농촌별 학교외 학습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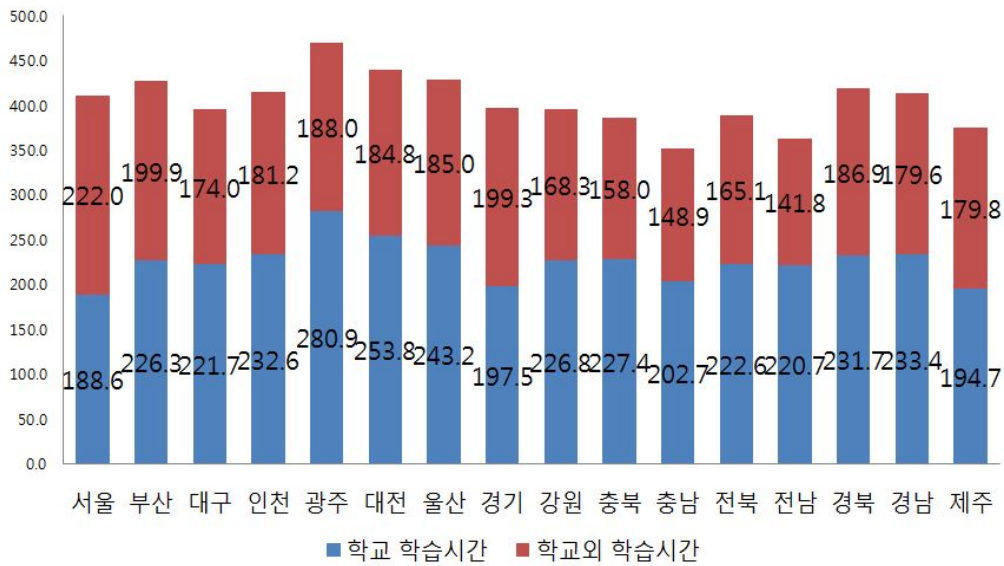
(단위: 분/하루)

			학교외 학습시간	
			도시	농촌
초등	총 평균		156.5	101.2
	성별	남자	156.6	125.5
		여자	156.4	126.3
	연령	10세	151.8	108.9
		11세	161.3	150.0
		12세	156.5	128.3
		13세	188.0	-
	주중 주말	주중	199.6	176.6
		토요일	98.1	65.1
		일요일	73.7	52.0
중학	총 평균		210.0	168.1
	성별	남자	203.4	150.3
		여자	216.4	188.3
	연령	12세	198.7	157.3
		13세	210.1	168.9
		14세	211.0	179.6
		15세	219.2	147.0
	주중 주말	주중	226.5	187.7
		토요일	198.5	137.9
		일요일	171.6	132.9
고등	총 평균		193.9	162.7
	성별	남자	176.9	160.5
		여자	213.4	165.3
	연령	15세	194.2	171.1
		16세	216.0	145.4
		17세	178.6	180.1
		18세	173.0	141.9
	주중 주말	주중	165.8	145.1
		토요일	238.3	178.6
		일요일	238.0	195.7

1) 행정구역에 따른 학습시간

10세 이상 초중고 학생들의 수업시간은 도시/농촌이라는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지만, 행정구역별로도 차이가 난다. 학습시간의 차이 혹은 학습시간의 불평등이 도시/농촌이라는 지역차이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강원 등과 같은 행정구역별로도 차이가 나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현상이다. 다음 <그림 7-5>는 행정구역별로 학교 학습시간 및 학교외 학

습시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림 7-5] 행정구역별 10세 이상 청소년의 학습시간 (단위: 분/하루)

학생들의 학업시간이 도시와 농촌에 따라 여전히 차이가 있는 것도 무척 흥미로운 현상이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농촌은 여전히 도시에 비해 유형 무형의 불이익, 차별 혹은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는 증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생들의 학습시간의 차이는 행정구역별로도 뚜렷하게 차이가 있음이 <그림 7-5>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전국에서 10세 이상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 학습시간이 가장 긴 행정구역은 광주이다.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는 초중고 학생들의 하루 평균 학습시간은 280분으로 4시간 40분이다. 전국에서 공식적으로 학교 학습시간이 가장 짧은 곳은 서울로 10세 이상 초중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평균 188분, 3시간 8분밖에 머무르지 않는다. 학교 학습시간이 가장 긴 광주의 학생들과 학교 학습시간이 가장 짧은 서울의 학생들의 학교 학습시간의 차이는 무려 1시간 30분이나 된다. 제주(194분), 경기(197분) 지역의 학생들도 공식적으로 학교에서의 학습시간이 비교적 짧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학교외 학업시간은 이와 다르게 나타난다. 전국에서 학교외 학업시간이 가장 긴 지역은 서울이다. 서울의 10세 이상 초중고 학생들은 학교외 학업시간으로 하루 평균 222분을 사용한다. 3시간 42분을 학교 밖에서 학원 등을 다니거나 스스로 학습하면서 지내는 것이다. 서울 다음으로는 부산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학교외 학습시간이 거의 200분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은 광주로 학생들의 학교외 학습시간이 188분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볼 때 광주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습하는 시간은 전국에서 제일 길고, 학교외에서 학습하는 시간도 서울, 부산, 경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장 길어, 청소년의 학습시간이 가장 긴 지역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광주를 품고 있는 전남지역은 학교에서의 학습시간도 220분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며, 학생들의 학교외 학습시간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 광주와 전남지역의 이러한 대비는, 광주는 광역시인데 비해, 전남 지역의 많은 부분이 농촌에 속해 있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여겨진다.

3.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상과 청소년의 학습시간

지금까지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10세 이상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시간을 총학습시간, 학교 학습시간, 학교외 학습시간으로 나누고, 도시/농촌이라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⁵⁾과 가구소득이 자녀의 학업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인지 살펴보기 위해 2014 생활시간조사 자료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10대 초중고 재학생만을 골라 학습시간을 분석하였다.

다음 <표 7-5>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학습시간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표 7-5> 부부-자녀 가족의 부모 교육수준별 초등학생의 학습시간 (단위: 분/하루)

		초등학생의 학습시간		
		총 학습시간	학교 학습시간	학교외 학습시간
	총 평균	321.1	169.8	151.3
부 교육수준	중학 이하	275.7	171.0	104.7
	고등	294.7	156.8	138.0
	2년제 대학	341.8	184.7	157.1
	대학 이상	347.1	173.6	173.5
모 교육수준	중학 이하	268.2	167.8	100.3
	고등	300.7	165.3	135.4
	2년제 대학	335.1	172.5	162.6
	대학 이상	354.4	175.8	178.6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총 학습시간은 321분인데, 이 중 학교에서의 학습시간은 170분이고, 학교외 학습시간은 151분이다. 초등학생들의 교육에도 학교외 학습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외 학습시간보다는 학교에서의 학습시간이 거의 20분 가까이 더 길다.

5) 이 장에서의 부모교육수준은 최종학력졸업여부(중학 이하, 고등, 2년제 대학, 대학 이상)로 구분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에 아버지나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초등학생의 총 학습시간은 증가한다. 특히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중학 이하인 경우 자녀인 초등학생의 총 학습시간은 하루 평균 268분이지만,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학 이상인 경우에는 초등학생의 총 학습시간이 354분으로 거의 90분 가량 차이가 난다. 이러한 학습시간의 차이는 학교 학습시간의 차이에서도 기인하지만, 특히 학업외 학습시간의 차이가 이러한 학습시간의 차이를 낳는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학 이상인 경우, 초등학교 자녀의 학교외 학습시간은 178분인데 비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중학 이하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자녀의 학교외 학습시간이 100분으로 78분의 차이가 나타난다.

아버지의 교육수준도 초등학교 자녀의 학교외 학습시간에 영향을 미쳐,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대학 이상이면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외 학습시간은 하루 평균 173분인데 반해, 중학 이하의 교육수준을 지닌 아버지를 둔 초등학생의 학교외 학습시간은 105분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보다는 약간 작지만 거의 70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7-5>를 통해 초등학생의 학습시간에 부모의 교육수준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표 7-6>은 가구소득에 따른 초등학생의 학습시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초등학생의 학습시간은 가구소득과 밀접히 관련을 맺고 있다.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학교외 학습시간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총 학습시간이 증가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학교 학습시간도 증가하지만, 그러나 이 관계는 선형적인 관계가 아니다. 반면에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초등학생의 학교외 학습시간은 선형관계를 이루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초등학생의 학교외 학습시간이 120분인 반면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초등학생의 학교외 학습시간이 181분으로 증가하여 61분 이상의 차이를 낳고 있다.

<표 7-6> 부부-자녀 가족의 가구소득별 초등학생의 학습시간 (단위: 분/하루)

		총 학습시간	학교 학습시간	학교외 학습시간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79.5	159.9	119.6
	200-400만원 미만	308.6	170.6	138.0
	400-600만원 미만	336.4	174.7	161.7
	600만원 이상	345.4	164.6	180.8

<표 7-7> 부부-자녀 가족의 부모 교육수준별 중학생의 학습시간

(단위: 분/하루)

		총 학습시간	학교 학습시간	학교외 학습시간
부 교육수준	총 평균	401.6	197.4	204.1
	중학 이하	318.7	193.3	125.4
	고등	390.3	202.5	187.9
	2년제 대학	431.6	205.3	226.3
	대학 이상	437.2	194.2	243.1
모 교육수준	중학 이하	346.5	194.3	152.1
	고등	392.2	199.3	192.9
	2년제 대학	416.4	207.1	209.4
	대학 이상	437.6	184.2	253.5

<표 7-7>은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중학생 자녀의 학습시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중학생들의 하루 평균 총 학습시간은 401분이다. 이 중 학교에서의 학습시간은 197분이고 학교외 학습시간은 204분으로 중학생의 경우 학교외 학습시간이 학교에서의 학습시간보다 약간 더 길다.

중학생의 경우에도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총 학습시간이 정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중학 이하이면 중학생 자녀의 총 학습시간은 318분이다. 그러나 대학 이상의 학력을 지닌 아버지를 둔 중학생 자녀의 총 학습시간은 437분으로 120분, 즉 두 시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학습시간이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일정한 정도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중학생 자녀의 학교에서의 학업 시간은 증감의 진동을 한다. 그러나 학교외 학습시간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일관성 있게 증가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중학 이하이면 중학생 자녀의 학교외 학습시간은 125분에 그치지만,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대학 이상이면 학교외 학습시간이 243분으로 증가한다. 거의 2시간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어머니의 교육수준도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낳는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중학 이하인 경우와 대학 이상인 경우에 중학생 자녀의 학교외 학습시간의 차이는 각각 152분과 253분으로 100분이상 차이가 난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보다는 적지만,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중학생 자녀의 학교외 학습시간도 큰 폭으로 증가한다.

<표 7-8> 부부-자녀 가족의 가구소득별 중학생의 학습시간 (단위: 분/하루)

		총 학습시간	학교 학습시간	학교외 학습시간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32.8	182.7	150.1
	200-400만원 미만	399.2	205.0	194.1
	400-600만원 미만	409.4	201.1	208.3
	600만원이상	435.7	183.5	252.2

중학생의 경우에도 가구소득은 학교외 학습시간에 정의 관계를 맺으며 영향을 미친다.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중학생 자녀의 학교외 학습시간도 증가한다.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일 때 중학생 자녀의 학교외 학습시간은 하루 평균 150분이다. 그러나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일 때에는 중학생 자녀의 학교외 학습시간이 252분으로 낮은 가구 소득일 때보다 100분 이상의 학교외 학습시간의 차이가 있다.

다음은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에 따라 학습시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자. 다음 <표 7-9>는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고등학생 자녀의 학습시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표 7-9> 부부-자녀 가족의 부모 교육수준별 고등학생의 학습시간 (단위: 분/하루)

		총 학습시간	학교 학습시간	학교외 학습시간
총 평균		475.4	285.2	190.2
부 교육수준	중학 이하	380.1	254.5	125.6
	고등	458.9	282.9	176.0
	2년제 대학	502.5	297.2	205.2
	대학 이상	538.2	302.9	235.3
모 교육수준	중학 이하	377.1	254.8	122.3
	고등	457.3	279.1	178.2
	2년제 대학	515.9	310.1	205.8
	대학 이상	557.3	310.3	247.1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부모의 교육수준은 학습시간의 차이를 낳는 중요한 요인이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중학 이하인 경우와 대학 이상인 경우, 고등학생의 학교외 학습시간은 각각 125분과 235분으로 100분의 차이가 난다.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중학 이하인 경우와 대학 이상인 경우 고등학생 자녀의 학교외 학습시간은 각각 122분과 247분으로 120분 이상 차이가 난다. 이처럼 고등학생의 학습시간에 부모의 교육수준은 큰 영향을 미친다.

<표 7-10> 부부-자녀 가족의 가구소득별 고등학생의 학습시간 (단위: 분/하루)

		총 학습시간	학교 학습시간	학교외 학습시간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99.9	274.3	125.6
	200-400만원 미만	439.8	265.9	174.0
	400-600만원 미만	516.9	308.3	208.6
	600만원 이상	520.3	290.1	230.2

고등학생의 학업시간에 가구소득도 역시 큰 영향을 미친다.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고등학생의 학교외 학습시간은 125분이다. 그러나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학교외 학습시간이 230분으로 크게 증가한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가구소득으로 상징되는 가족의 경제력이 학원 등 학교외 학습시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가구소득에 따른 학교외 학습시간의 차이를 낳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전국적인 수준에서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학습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도시/농촌 지역별 나누어 역시 부모의 교육수준이 청소년 자녀의 학습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가구소득이 도시와 농촌에서도 역시 자녀의 학습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누어 살펴본 결과이다.

다음의 결과를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분석을 도시/농촌으로 나눈 결과를 보여주는데, 전국적인 수준의 결과와 비슷하기 때문에 표를 모아서 제시한 후 간단히 표에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겠다.

<표 7-11> 도시 부부-자녀 가족의 부모 교육수준별 초등학생의 학습시간 (단위: 분/하루)

		총 학습시간	학교 학습시간	학교외 학습시간
부 교육수준	총 평균	327.4	171.3	156.1
	중학 이하	295.5	190.0	105.5
	고등	295.6	154.6	141.0
	2년제 대학	352.5	189.5	163.0
	대학 이상	350.6	174.6	176.0
모 교육수준	중학 이하	279.3	169.5	109.8
	고등	307.0	166.2	140.8
	2년제 대학	340.1	175.2	164.9
	대학 이상	355.9	176.3	179.6

<표 7-12> 도시 부부-자녀 가족의 가구소득별 초등학생의 학습시간 (단위: 분/하루)

		총 학습시간	학교 학습시간	학교외 학습시간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77.0	154.7	122.3
	200-400만원 미만	315.0	172.8	142.2
	400-600만원 미만	338.2	174.6	163.5
	600만원 이상	360.0	170.7	189.3

<표 7-13> 도시 부부-자녀 가족의 부모 교육수준별 중학생의 학습시간 (단위: 분/하루)

		총 학습시간	학교 학습시간	학교외 학습시간
총 평균		404.9	194.8	210.1
부 교육수준	중학 이하	286.8	165.4	121.4
	고등	393.5	199.7	193.8
	2년제 대학	431.7	206.1	225.6
	대학 이상	444.3	195.3	249.1
모 교육수준	중학 이하	346.3	183.9	162.4
	고등	393.1	195.9	197.2
	2년제 대학	424.7	209.0	215.7
	대학 이상	438.8	179.5	259.3

<표 7-14> 도시 부부-자녀 가족의 가구소득별 중학생의 학습시간 (단위: 분/하루)

		총 학습시간	학교 학습시간	학교외 학습시간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25.8	167.2	158.5
	200-400만원 미만	404.1	204.0	200.1
	400-600만원 미만	413.2	200.7	212.5
	600만원 이상	440.1	180.4	259.7

<표 7-15> 도시 부부-자녀 가족의 부모 교육수준별 고등학생의 학습시간 (단위: 분/하루)

		총 학습시간	학교 학습시간	학교외 학습시간
총 평균		483.1	288.3	194.8
부 교육수준	중학 이하	398.8	278.4	120.5
	고등	466.5	285.4	181.1
	2년제 대학	516.9	309.5	207.4
	대학 이상	535.0	299.0	236.0
	대학 이상	535.0	299.0	236.0
모 교육수준	중학 이하	386.3	259.1	127.1
	고등	463.8	282.2	181.7
	2년제 대학	524.5	312.6	211.9
	대학 이상	558.4	308.4	250.1

<표 7-16> 도시 부부-자녀 가족의 가구소득별 고등학생의 학습시간 (단위: 분/하루)

		총 학습시간	학교 학습시간	학교외 학습시간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12.5	279.7	132.8
	200-400만원 미만	447.4	267.9	179.5
	400-600만원 미만	525.2	314.8	210.5
	600만원 이상	519.9	287.2	232.7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교외 학습시간은 모두 부모의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교외 학습시간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예외없이 높아지고 있다.

다음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초중고 재학생의 총 학습시간, 학교에서의 학습시간, 학교외 학습시간을 부모의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에 따라 나누어 살펴본 결과이다. 모두 비슷한 결과를 포함하고 있어, 먼저 표를 제시한 후 공통적인 상황을 간단히 요약하겠다.

<표 7-17> 농촌 부부-자녀 가족의 부모 교육수준별 초등학생의 학습시간 (단위: 분/하루)

		총 학습시간	학교 학습시간	학교외 학습시간
총 평균		287.6	161.8	125.8
부 교육수준	중학 이하	247.5	143.9	103.6
	고등	290.2	168.0	122.2
	2년제 대학	272.9	153.8	119.0
	대학 이상	324.2	167.4	156.8
	모 교육수준	248.8	165.0	83.8
모 교육수준	고등	271.6	161.1	110.5
	2년제 대학	303.7	155.7	148.0
	대학 이상	342.2	172.2	170.0

<표 7-18> 농촌 부부-자녀 가족의 가구소득별 초등학생의 학습시간 (단위: 분/하루)

		총 학습시간	학교 학습시간	학교외 학습시간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88.7	178.9	109.7
	200-400만원 미만	283.0	161.7	121.3
	400-600만원 미만	321.3	175.0	146.3
	600만원 이상	251.8	125.8	126.0

<표 7-19> 농촌 부부-자녀 가족의 부모 교육수준별 중학생의 학습시간 (단위: 분/하루)

		총 학습시간	학교 학습시간	학교외 학습시간
총 평균		382.4	213.0	169.4
부 교육수준	중학 이하	405.3	269.2	136.1
	고등	374.2	216.4	157.8
	2년제 대학	431.0	200.0	231.0
	대학 이상	371.5	184.0	187.4
	모 교육수준	347.1	232.9	114.2
모 교육수준	고등	388.4	215.2	173.2
	2년제 대학	337.3	188.6	148.6
	대학 이상	429.5	216.4	213.1

<표 7-20> 농촌 부부-자녀 가족의 가구소득별 중학생의 학습시간 (단위: 분/하루)

		총 학습시간	학교 학습시간	학교외 학습시간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66.8	257.3	109.5
	200-400만원 미만	372.1	211.0	161.1
	400-600만원 미만	383.5	204.1	179.5
	600만원 이상	412.5	200.0	212.5

<표 7-21> 농촌 부부-자녀 가족의 부모 교육수준별 고등학생의 학습시간 (단위: 분/하루)

		총 학습시간	학교 학습시간	학교외 학습시간
총 평균		426.1	265.3	160.7
부 교육수준	중학 이하	339.8	203.3	136.5
	고등	418.9	269.7	149.1
	2년제 대학	400.6	210.6	190.0
	대학 이상	571.5	343.3	228.3
모 교육수준	중학 이하	343.2	238.8	104.4
	고등	420.5	261.6	158.9
	2년제 대학	413.8	280.8	133.1
	대학 이상	548.3	326.3	222.0

<표 7-22> 농촌 부부-자녀 가족의 가구소득별 고등학생의 학습시간 (단위: 분/하루)

		총 학습시간	학교 학습시간	학교외 학습시간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33.6	245.9	87.7
	200-400만원 미만	395.6	253.7	141.9
	400-600만원 미만	460.8	265.0	195.8
	600만원 이상	524.1	315.9	2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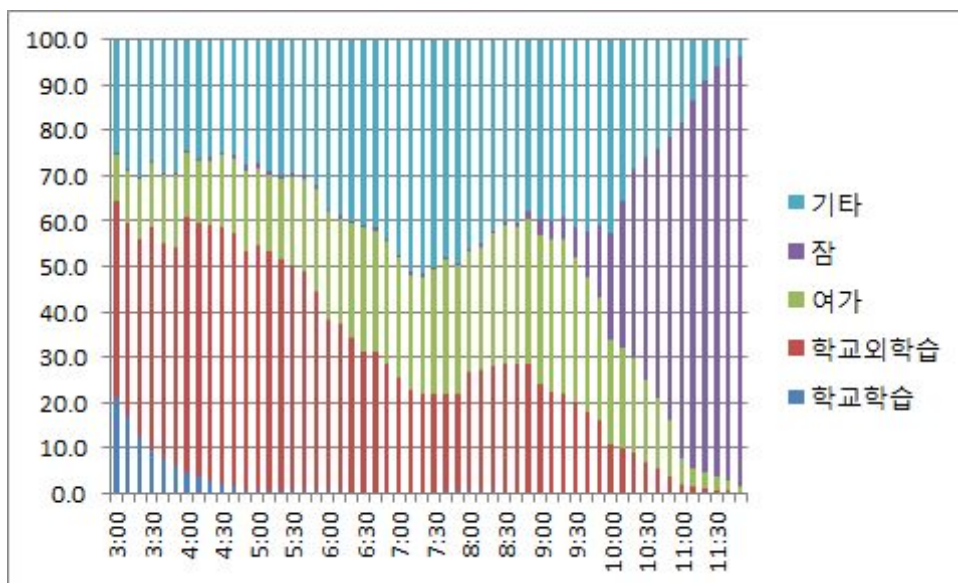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교외 학습시간도 부모의 교육수준, 가구소득에 큰 영향을 받는다. 약간의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사례수가 부족한데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농촌지역에서도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초중고에 재학중인 자녀의 학교외 학습시간이 증가하고,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역시 자녀의 학교외 학습시간이 증가한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자녀의 학습시간은 부모의 교육수준 및 이에 연관되어 있는 가족의 경제력에 깊이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4. 시간대별 학습시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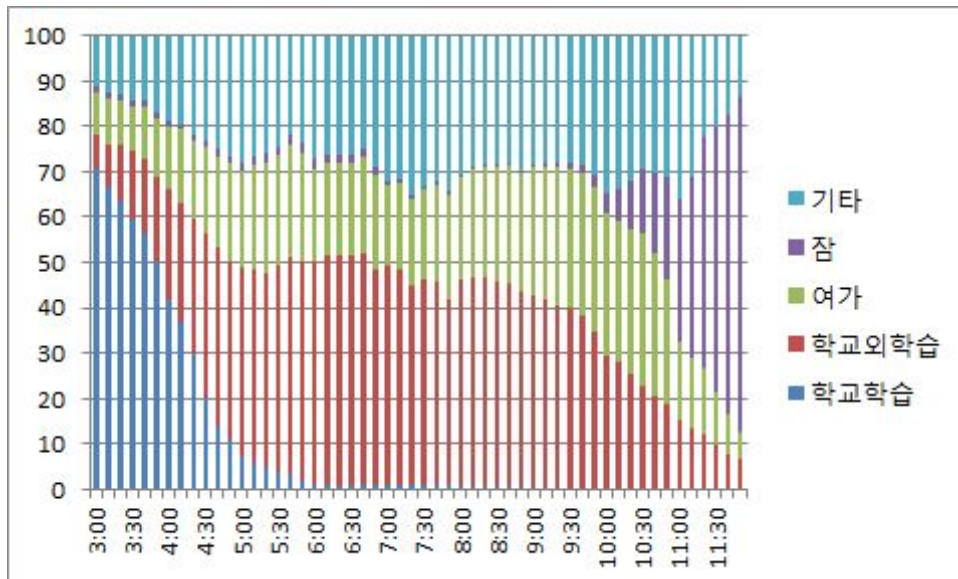
청소년의 학습시간을 평균값을 통해 비교 분석하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다. 그런

데 이에 못지 않게 한국의 청소년이 시간대별로 공부 및 다른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다음 <그림 7-6>은 주중에 초등학생들의 학업을 포함한 일상생활의 중요한 활동을 보여 준다. 주중에 초등학생은 학교 수업이 일찍 끝난다. 오후 4:30 이후에는 학교에서 머무는 초등학생이 거의 없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학교 수업이 일찍 끝나더라도 공부를 멈추지 않는다. 오후 5:30까지는 초등학생의 절반 정도가 학교에서의 수업이나 학교외 학습을 계속 한다. 저녁식사를 하는 시간대에 초등학생들의 학교 및 학교외 학습시간이 많이 줄지만, 밤 9시까지의 초등학생의 20%가 여전히 공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초등학생들이 주중에도 공부에 매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6] 주중 초등학생의 오후 학습시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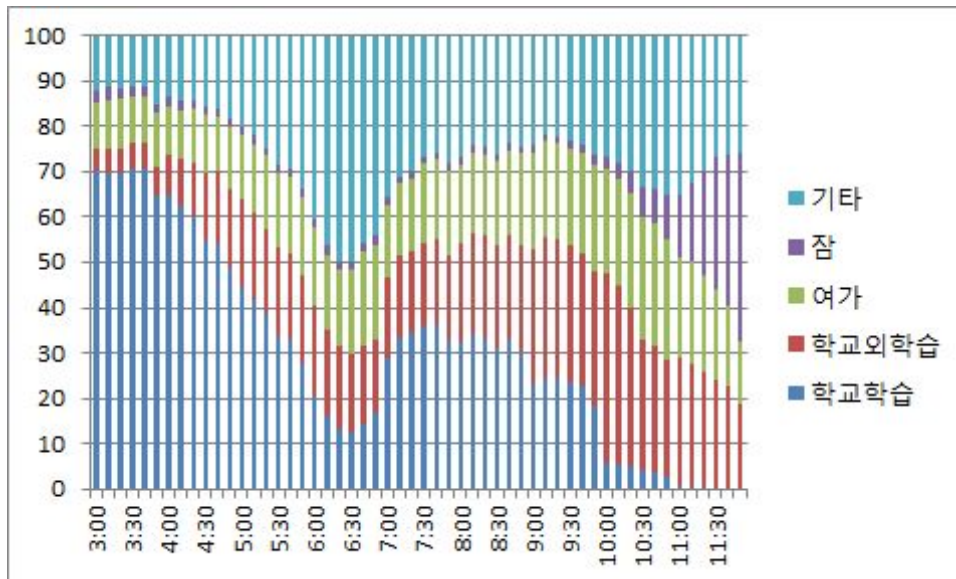


[그림 7-7] 주중 중학생의 오후 학습시간 (단위: %)

중학생은 초등학생보다 학교에서 끝나는 시간이 늦다. 그래서 중학생의 학교에서의 학습 시간이 초등학생의 학습시간보다 길다. 모든 중학생이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는 시간은 거의 6시가 되어서이다. 그러나 중학생들도 학교가 끝난다고 공부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중학생도 학교에서의 학습이 끝나면 다시 학교외 학습으로 돌입한다. 그래서 오후 8:30 정도까지는 전체 중학생 가운데 거의 50%가 여전히 공부를 하고 있다. 9:30이 되면 여전히 공부하고 있는 중학생의 비율이 40%로 감소한다. 그러나 밤 11시가 되어도 중학생의 20% 가까이 여전히 공부하고 있고, 밤 12시가 되어도 거의 10%에 가까운 중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그림 7-7 참조>).

고등학생들의 하루 일과는 초등학생, 중학생의 하루 일과와 많이 다르다. 먼저, 고등학생은 학교의 직간접적인 수업이 끝나 학교에서 물러나는 시간이 다르다. 고등학생들은 학교에 오래 머문다. 공식적인 수업이 오래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림 7-8>에서 알 수 있듯이 고등학생들은 늦게까지 학교에 머물러 있어, 밤 11시가 되어서야 학교에 머물러 있는 학생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된다. 학교에서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오후 5:30-7:30 사이에는 저녁식사 등의 이유로 학교에서의 학습시간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오후 7:30을 지나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비율이 다시 증가한다.

설령 이미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왔다 하더라도, 고등학생은 다시 학교외 학습에 몰두한다. 그래서 오후 9:30이 넘어도 학교 및 학교외에서 여전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이 전체 고등학생의 절반을 넘고 있다.



[그림 7-8] 주중 고등학생의 오후 학습시간 (단위: %)

그래서 밤 11시가 되어서 전체 고등학생의 거의 30% 가까이는 여전히 공부하고 있다. 밤 12시가 되어도 전체 고등학생의 20%는 여전히 공부중이다.

이와 같은 시간대 분석을 통해서 주중에 한국의 초중고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학습으로 하루 학습일과가 종료되지 않고, 학교에서의 정규수업이 끝나는대로 바로 학원 등으로 장소를 옮겨 다시 사교육 등의 형태로 학습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학교외 학습시간의 회귀분석

10세 이상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학업시간은 여러 요인에 의해 차이가 난다.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초중고 재학생의 학습시간을 기술적인 수준에서 분석해 보면, 학생들의 성별, 초중고등의 학급별, 도시/농촌의 지역, 행정구역 등에 따라 학습시간에 차이가 있고, 부부 및 자녀로만 이루어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부모의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은 청소년의 학습시간의 차별성을 낳는 중요한 요인임이 드러났다. 이제 이러한 차이가 변수를 통제된 상황에서도 그러한지 간단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서 이해하기로 한다.

<표 7-23> 초등학생의 학교외 학습시간의 회귀분석

		전체	도시	농촌
		b	b	b
도농	도시	3.7		
성별	남자	- 1.6	0.4	- 6.2
부 교육수준	중학 이하	- 10.0	- 24.1	- 6.4
	2년제 대학	7.1	6.9	- 0.9
	4년제 이상	9.4	7.3	11.0
모 교육수준	중학 이하	- 19.6	- 12.1	- 16.7
	2년제 대학	16.0 **	14.6 *	23.8
	4년제 이상	23.3 **	22.1 ***	25.2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 8.5	- 6.8	- 22.5
	400-599만원	15.3 **	16.1 **	14.2
	600만원 이상	3.1 ***	39.6 ***	9.1

주: *** p<.001, ** p<.01, * p<.05

<표 7-23>은 초등학생들의 학교외 학습시간에 몇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생의 학교외 학습시간에는 도시/농촌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없다. 아버지의 교육수준도 초등학생의 학교외 학습시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낳지 않는다. 그러나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초등학생의 학교외 학습시간에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학교외 학습시간은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가구소득도 초등학생의 학교외 학습시간에 영향을 미친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학교외 학습시간이 증가한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런 관계는 오직 도시지역에서만 유의미하다. 농촌지역에서는 초등학생의 학교외 학습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없다. 그러나 도시지역에서는 초등학생의 학교외 학습시간에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학습시간도 증가하는 정의 관계를 보인다.

<표 7-24>는 중학생의 학교외 학습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초등학생과는 달리 중학생의 학교외 학습시간에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존재한다.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의 학교외 학습시간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의 학교외 학습시간보다 평균 24분 많은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이다. 뿐만 아니라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서도 학교외 학습시간에 차이가 있다. 남자 중학생은 여자 중학생보다 평균 15분 정도 학교외 학습시간이 적다. 중학생의 학교외 학습시간에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중학생 자녀의 학교외 학습시간은 증가한다. 어머니의 교육수준도,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학 이상이면, 그렇지 않은 어머니를 둔 중학생보다 학교외 학습시간이 길다. 가구소득 역시 중학생의 학교외 학습시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표 7-24> 중학생의 학교외 학습시간의 회귀분석

		전체	도시	농촌
		b	b	b
도농	도시	24.4 **		
성별	남자	- 14.6 *	- 11.7	- 36.8 **
부 교육수준	중학 이하	- 48.7 ***	- 57.6 ***	- 23.3
	2년제 대학	25.0 **	19.2	61.1 **
	4년제 이상	21.6 **	22.6 **	12.2
모 교육수준	중학 이하	- 3.8	1.4	- 27.1
	2년제 대학	4.7	10.3	- 38.7
	4년제 이상	35.4 ***	37.7 ***	29.4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 37.7 ***	- 34.3 **	- 68.1 **
	400-599만원	9.6	5.2	17.0
	600만원 이상	38.2 ***	37.4 ***	25.1

주: *** p<.001, ** p<.01, * p<.05

이 분석을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보면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들 사이에 성별에 따른 학교외 학습시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버지의 교육수준의 효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의 효과, 그리고 가구소득의 효과는 전체 자료에서 보이는 결과와 유사하다.

반면에 농촌지역 중학생의 학교외 학습시간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학교외 학습시간에 차이가 있다. 남자 중학생의 학교외 학습시간이 여자 중학생의 학습시간보다 적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의 효과는 아버지가 2년제 대학 학력인 경우에 다른 학력의 아버지를 둔 중학생보다 학교외 학습시간이 길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중학생에게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유의미한 차이를 낳지 않는다. 가구소득이 가장 가구소득이 적을 때만 학습시간이 적은 효과가 나타난다.

<표 7-25>는 고등학생의 학교외 학습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고등학생의 학교외 학습시간에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확실하게 존재한다. 여자 고등학생이 남자 고등학생에 비해 하루 평균 33분 정도 학교외 학습시간의 양이 더 많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대학 이상의 학력을 지녔을 때 다른 학력의 아버지를 둔 고등학생보다 학교외 학습시간이 유의미하게 더 많다. 그러나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모든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관계가 성립한다. 그래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고등학생의 학교외 학습시간은 증가한다. 가구소득 또한 고등학생의 학교외 학습시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고등학생의 학교외 학습시간이 증가한다.

이를 다시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보면, 도시 지역 고등학생들 사이에 성별에 따른 학교외 학습시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존재한다. 도시 지역 여자 고등학생은 남자 고등학생에

비해 하루 평균 37분 정도 학교외 학습시간의 양이 더 많다. 고등학생의 학교외 학습시간에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오직 대학 이상의 학력을 지녔을 때에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의 학교외 학습시간에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고등학생의 학교외 학습시간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 가구소득 역시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고등학생의 학교외 학습시간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농촌지역은 도시 지역의 고등학생의 학교외 학습시간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먼저, 농촌 지역에서는 성별에 따른 고등학생의 학교외 학습시간의 차이가 없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의 학교외 학습시간에 전혀 유의미한 차이를 낳지 않는다. 가구소득 또한 400만원-599만원의 가구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이보다 못한 가구소득인 고등학생에 비해 학교외 학습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난다.

<표 7-25> 고등학생의 학교외 학습시간의 회귀분석

		전체	동부	읍면부
		b	b	b
도농	도시	11.3		
성별	남자	- 33.2 ***	- 36.5 ***	- 18.7
부 교육수준	중학 이하	- 18.5	- 32.4	65.2
	2년제 대학	14.7	9.6	41.4
	4년제 이상	24.6 *	19.7	44.8
모 교육수준	중학 이하	- 30.9 *	- 39.0 *	- 50.2
	2년제 대학	21.1 *	25.8 *	- 50.3
	4년제 이상	50.4 ***	51.4 ***	40.2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 40.1 ***	- 43.6 ***	- 30.0
	400-599만원	28.6 ***	22.6 *	55.1 *
	600만원 이상	32.7 **	31.6 *	9.2

주: *** p<.001, ** p<.01, * p<.05

6. 소결

이 연구는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10세이상 초중고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시간의 차별성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특히 도시/농촌의 지역별 학습시간의 차별성과 부모의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 등으로 표현되는 부모의 경제력 혹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습시간의 차별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전국적인 수준에서 여학생의 총 학습시간이 남학생의 총 학습시간보다 더 길다. 특히 학원 등의 수업을 포함한 학교외 학습시간의 측면에서 여학생의 학습외 학습시간이 남학생의 학습외

학습시간보다 더 길다. 요일별로 학교의 학습시간은 주중에는 193분, 토요일에는 180분, 일요일에는 163분등으로 감소하지만, 주중, 토요일, 일요일 모두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학교의 학습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전국적인 수준에서 도시지역의 학생들의 총 학습시간이 농촌지역 학생들의 총 학습시간보다 더 길다. 학교의 학습시간의 경우, 도시지역 학생들의 학교의 학습시간이 거의 40분 가까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난다. 행정구역별로도 학습시간의 차이가 크다. 학교의 학습시간의 경우 요일을 통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남지역의 학생들의 학교의 평균 학습시간은 142분인데 반해,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학교의 평균 학습시간은 222분에 달해 행정구역별로도 학교의 평균 학습시간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서울과 전남지역의 차이는 한국의 최고의 도시와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학교의 학습시간의 차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도시와 농촌의 평균 학습시간의 차이를 초, 중, 고로 나누어 살펴보아도 여전히 학교 학습시간 및 학교의 학습시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도시지역 학생들의 평균 학습시간이 농촌지역 학생들의 평균 학습시간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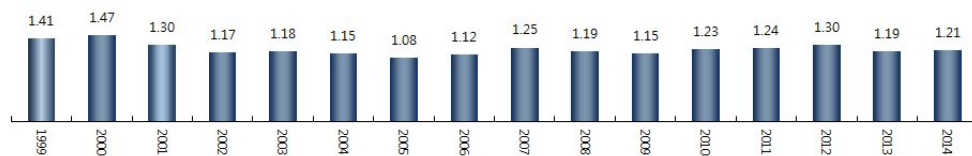
한국사회의 불평등이 교육을 통해 대물림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교육성취는 학습시간 특히 학교의 학습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혹은 경제력이 자녀교육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자녀의 학교의 학습시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학급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초, 중, 고 재학생 자녀의 학교의 학습시간은 증가한다. 이는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동일한 현상이다. 또한 가구소득은 초, 중, 고에 재학중인 자녀들의 학교의 학습시간과 정의 관계를 이룬다. 즉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초, 중, 고에 재학중인 자녀들의 학교의 학습시간은 증가한다. 이 연구 결과,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도시와 농촌의 학습시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존재함을 발견했다. 도농의 차이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시간 특히 학교의 학습시간의 차이에서 유의미하게 존재한다. 이는 농촌출신 학생들의 사회적 성취가 도시출신 학생들의 사회적 성취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해준다. 부모의 경제력과 계급적 지위가 교육을 통해 대물림된다는 연구들이 있다. 교육성취를 평균 학습시간 특히 평균 학교의 학습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부모의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과 학교의 평균 학습시간의 정의 관계는 부모세대의 계급적 지위가 교육을 통해 대물림되고 있다는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학 입학 및 학력, 학벌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의 속성상, 도시/농촌의 학습시간의 차별성 및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습시간의 차별성이 한국사회의 계급재생산의 한 단면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은기수)

VIII. 유자녀가족의 가사돌봄시간 구성 변화와 재분배 추이

이 장에서는 지난 15년간 유자녀가족의 가사노동시간의 구성변화와 인구집단별 재분배 추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가사노동시간을 집안일과 가정관리 및 쇼핑을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용어 역시 가사·돌봄시간으로 재정의하였다. 지난 15년간 한국사회에서는 매우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어, 유자녀가족의 숫자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한국사회의 출산율은 10여년전부터 'lowest low' 수준인 1.3을 밑돌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구성원 재생산의 '위기'의식이 매우 고조되어 있다.

합계출산율(단위: 가임여성1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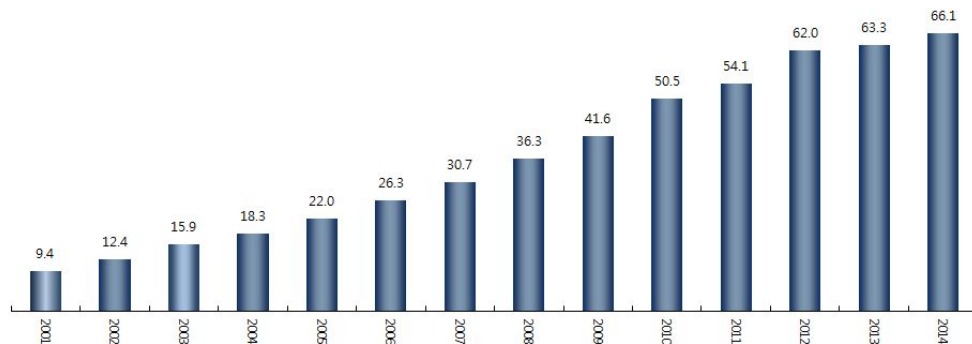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합계출산율',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

[그림 8-1]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가임여성 1명당 명)

이와 같은 낮은 출산율로 인해 유자녀가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특히 미취학아동에 대한 지원정책이 크게 확대되었다. 만0-2세 어린이집 이용률이 2001년 9.4%에 불과하던 것에서 2010년에는 절반인 50%를 넘어섰고, 2014년에는 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0-2세 어린이집 이용률(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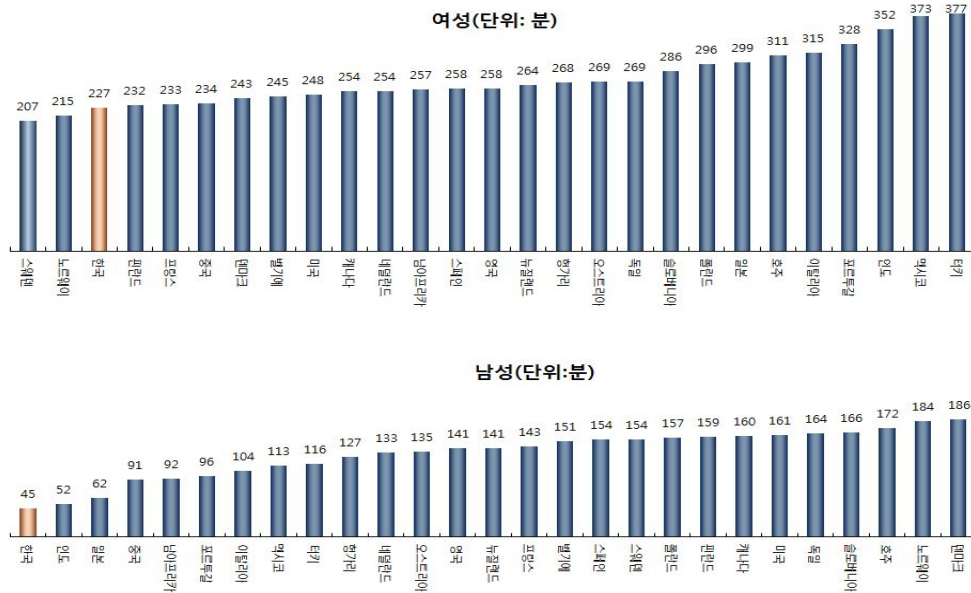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어린이집 이용률',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925

[그림 8-2] 어린이집 이용률 추이 (단위: %)

이와 같은 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환경은 여전히 아이를 키우기에 유리하지 못하다. 장기간의 경기불황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물가, 등록금, 취업난, 집 값 등 경제적,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스스로 돌봄 여유도 없다는 이유로,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기약 없이 미루”는 “삼포세대”가 등장하고 있다(위키디피아, ‘삼포세대’, <https://ko.wikipedia.org/wiki/삼포세대>). 즉,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당연시되는 ‘가족규범’만으로는 한국사회의 사회구성원 재생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가족규범이 강한 국가’들로 흔히 분류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사와 가족돌봄 등 가족에 할애하는 시간은 많지 않다. OECD 주요 국가들과 가사·돌봄시간을 비교해보면, 남성들이 가사·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은 어떤 국가들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준이며, 한국 다음으로는 인도,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시간이 가장 짧다. 이는 이들 국가들에서 보수적인 성역할에 기반한 가족주의가 강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성들의 경우에도 한국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성평등의식이 강하고 복지정책이 크게 발달한 북유럽 국가 수준으로 가사·돌봄시간을 보내고 있다. 즉 ‘가족주의’가 강한 국가이지만 실제 가족을 위해 할애하는 시간은 매우 낮은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주요국의 성별 가사노동시간',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sIdxSearch.do?idx_cd=2924&stts_cd=292403&clas_div=&idx_sys_cd=550&idx_clas_cd=1

[그림 8-3] 주요국의 성별 가사노동시간 (단위: 분/하루)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족들의 가사 및 돌봄시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우기는 쉽지 않고, 아이의 숫자는 줄어들며,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넉넉하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유자녀 가족의 가사·돌봄시간은 지난 15년간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가사·돌봄시간의 구성변화, 즉 가사·돌봄활동 중에서 어떤 활동의 비중이 커지고 어떤 활동이 줄어들었는가의 측면이다. 둘째, 가사·돌봄시간의 재분배추이로서, 각 활동들에 누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왔는가의 측면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대상은 18세미만 미성년자녀의 부모로 한정하고, 가족유형별(외벌이, 맞벌이, 한부모), 성별, 자녀연령별 가사·돌봄시간 추이와 구성변화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가사·돌봄시간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돌봄지원을 위한 정책적 함의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김은지외(2010) 중 일부를 확장,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김은지외(2010)에서는 1999년과 2009년의 두 자료를 비교하여 생활시간의 변화를 가족유형별, 자녀연령별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중 가사·돌봄시간 분석만을 활용하여 2014년 자료를 추가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15년간의 가사·돌봄시간 변화 추이를 한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사·돌봄시간에 포함되는 활동의 내용은 <표 8-1>에서 제시하였다. 시간 분류는 김은지외(2010)의 방식을 차용하였으며, 이 방식은 Bianchi et al(2000) 등의 분류를 따른 것이다. 김은지외(2010)의 시간분류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가사노동은 주로 음식준비, 의류관리, 청소 등의 가사노동시간으로, 시간이 많이 들고 반복적인 특성을 지니며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담당한다(Bianchi et al, 2000). 둘째, 기타가사노동시간은 생활시간분류상 집관리와 가정경영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간소비가 많지 않으며 개인의 재량이 비교적 많은 가사노동시간이다. 미국의 연구에서는 남성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할 때는 주로 이 범주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셋째, 쇼핑시간은 여가의 측면도 갖는다는 점에서 국외 연구에서 다른 가사노동시간과는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Gershuny, 2000) 별도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넷째, 가사노동의 다른 축인 돌봄노동시간의 경우에는 미취학 및 취학아동 등 아동돌봄시간과, 아동 외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 기타 성인가족에 대한 돌봄시간을 구분하였다(김은지외, 2010).

<표 8-1> 가사돌봄시간의 정의

가사돌봄시간의 종류		구체적인 활동내용
가사 노동	핵심가사노동	시간이 많이 들고 반복적인 가사노동. 음식준비, 의류관리, 청소 등
	쇼핑가사노동	생활용품 및 내구재 관련 물품구입
	기타가사노동	기타 가사노동으로 재량이 있고 시간소비가 많지 않은 특성을 지님. 집관리, 가정경영 등.
돌봄 노동	아동돌봄	미취학 및 취학 아동을 보살피고 돌보는 시간.
	기타돌봄	배우자, 부모 및 그 외 가족을 돌보는 시간.

주: 김은지외(2010)에서 발췌·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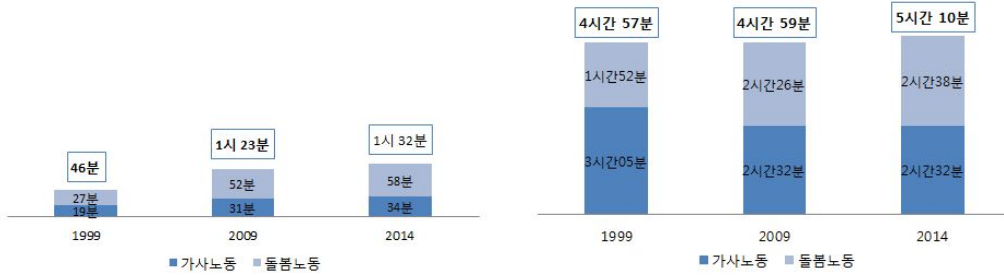
분석은 주중과 주말을 합친 주 평균시간으로 분석하였으며, 가중치는 김은지외(2010)과 동일하게 요일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요일가중치는 맞벌이, 외벌이, 한부모가구의 남성·여성 각각 주중 5/7, 토요일 1/7, 일요일 1/7로 분포되도록 조정해주는 가중치이다. 자의성을 줄이기 위해 원자료에서 제공하는 기존의 가중치에 최소한의 주말가중치만 적용하였다. 가구원 정보를 활용하여 맞벌이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분석하였다.

1. 총 가사돌봄시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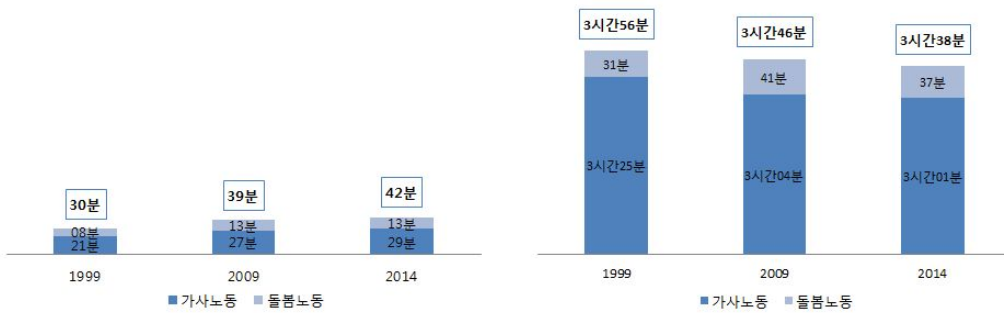
전체 가사·돌봄시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맞벌이로 미취학아동을 둔 가족의 경우, 남성, 여성 모두 총 가사·돌봄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들의 경우 하루 평균 가사·돌봄시간은 1999년 46분, 2009년 1시간 23분, 2014년 1시간 32분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 가사노동시간(1999년 19분, 2009년 31분, 2014년 34분)과 돌봄노동시간(1999년 27분, 2009년 52분, 2014년 58분)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들의 경우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남성들보다 훨씬 많은 가사·돌봄노동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그 시간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1999년 4시간 57분, 2009년 4시간 59분, 2014년 5시간 10분이었다. 그러나 여성들의 경우 돌봄노동시간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1999년 1시간 52분, 2009년 2시간 26분, 2014년 2시간 38분) 가사노동시간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1999년 3시간 5분, 2009년과 2014년 2시간 32분, 2014년 34분) 남성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취학아동을 둔 맞벌이가구의 경우, 남성들의 가사·돌봄시간은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여성들의 가사·돌봄시간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들의 경우 하루 평균 가사·돌봄시간은 1999년 30분, 2009년 39분, 2014년 42분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 가사노동시간(1999년 21분, 2009년 27분, 2014년 29분)과 돌봄노동시간(1999년 8분, 2009년과 2014년 13분)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절대 시간은 하루 1시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아주 작다. 여성들의 경우 아이들이 취학연령이 되어도 여전히 3시간 이상의 가사·돌봄노동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미취학아동들과는 달리 가사·돌봄시간의 총량은 감소하는 추세(1999년 3시간 56분, 2009년 3시간 46분, 2014년 3시간 38분)를 보였다. 돌봄노동의 경우 증가와 감소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가사노동시간은 확연하게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었다(1999년 3시간 25분, 2009년 3시간 4분, 2014년 3시간 1분).

즉 맞벌이가족의 가사·돌봄시간은 남성들의 시간은 느린 속도로 가사와 돌봄 모두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여성들의 경우 총량이 여전히 남성보다 훨씬 많지만 가사노동을 줄이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남성)
[그림8-4] 맞벌이-미취학 가사·돌봄시간



(남성)
[그림8-5] 맞벌이-취학 가사·돌봄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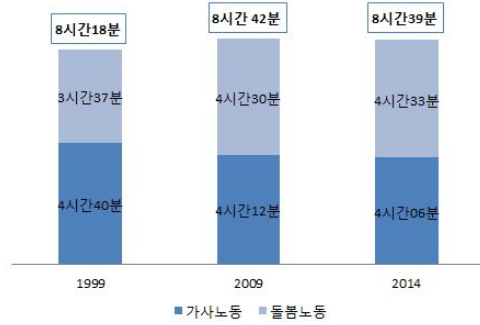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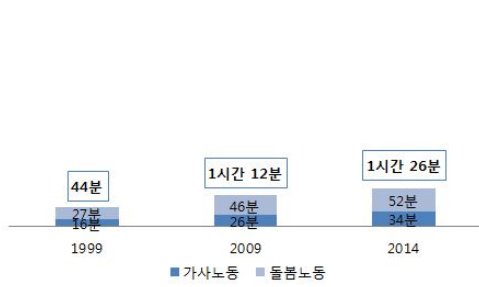
<표 8-2> 맞벌이가족의 총 가사돌봄시간 변화 (단위: 연도, 분/하루, 가구)

			1999		2009		2014	
			시간	사례수		사례수		사례수
맞벌이	남성	총 가사돌봄시간	46분		1시간 23분		1시간 32분	
		가사노동시간	19분	2288	31분	766	34분	1209
		돌봄노동시간	27분		52분		58분	
	여성	총 가사돌봄시간	30분		39분		42분	
		가사노동시간	21분	4092	27분	2029	29분	2326
		돌봄노동시간	08분		13분		13분	
맞벌이	남성	총 가사돌봄시간	4시간 57분		4시간 59분		5시간 10분	
		가사노동시간	3시간 05분	2070	2시간 32분	766	2시간 32분	1103
		돌봄노동시간	1시간 52분		2시간 26분		2시간 38분	
	여성	총 가사돌봄시간	3시간 56분		4시간 46분		3시간 38분	
		가사노동시간	3시간 25분	3625	3시간 04분	2029	3시간 01분	2194
		돌봄노동시간	31분		41분		37분	

다음으로, 외벌이로 미취학아동을 둔 가족의 경우, 맞벌이 가족과 마찬가지로 남성, 여성 모두 총 가사·돌봄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들의 경우 하루 평균 가사·돌봄시간은 1999년 44분, 2009년 1시간 12분, 2014년 1시간 26분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 이러한 시간은 사실상 맞벌이 남성들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외벌이 남성들의 또한 가사노동시간(1999년 16분, 2009년 26분, 2014년 34분)과 돌봄노동시간(1999년 27분, 2009년 46분, 2014년 52분)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외벌이 여성들, 즉 전업주부들의 경우 가사·돌봄노동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사시간은 감소하고 돌봄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체 가사·돌봄시간은 1999년 8시간 18분, 2009년 8시간 42분, 2014년 8시간 39분으로 총량에서의 변화는 명확하지 않지만, 종류별로 가사·돌봄시간을 구분하였을 때 가사시간은 1999년 4시간 40분, 2009년 4시간 12분, 2014년 4시간 6분으로 명확하게 감소하는 반면, 돌봄시간은 1999년 3시간 37분, 2009년 4시간 30분, 2014년 4시간 33분으로 증가추세를 보여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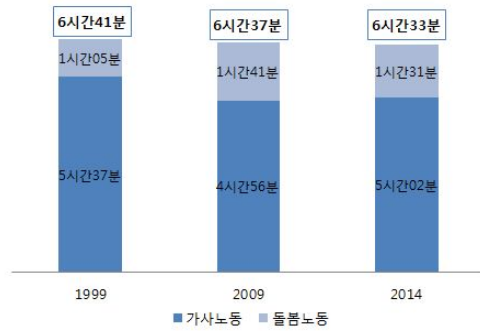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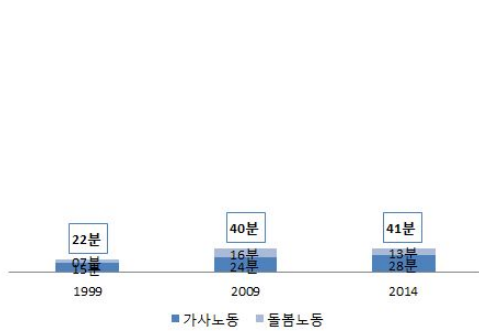
취학아동을 둔 외벌이가구의 경우에도 맞벌이가구와 유사하게, 남성들의 가사·돌봄시간은 미미한 수준에서 증가경향을 보이는 반면, 여성들의 가사·돌봄시간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들의 경우 하루 평균 가사·돌봄시간은 1999년 22분, 2009년 40분, 2014년 41분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 가사노동시간(1999년 15분, 2009년 24분, 2014년 28분)의 증가추세가 더욱 분명하였다. 여성들의 경우 가사·돌봄시간의 총량은 감소추세인 반면 시간 구성의 변화는 지속적이지 않다. 1999년과 2009년 사이의 변화는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고 돌봄노동시간이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2009년과 2014년의 경우 가사시간이 약간 늘고 돌봄시간이 약간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외벌이 가족의 경우에도 가사·돌봄시간은 남성들의 시간은 느린 속도로 가사와 돌봄 모두 증가하고 있었고, 총량에서는 맞벌이 남성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여성들의 경우 자녀가 미취학이면 가사·돌봄시간의 총량을 가사노동시간을 중심으로 늘리고 있는 반면, 자녀가 취학연령인 경우에는 가사·돌봄시간을 다소 줄이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남성)
[그림8-6] 외벌이-미취학 가사·돌봄시간

(여성)



(남성)
[그림8-7] 외벌이-취학 가사·돌봄시간 (단위: 분/하루)

(여성)

<표 8-3> 외벌이가족의 총 가사·돌봄시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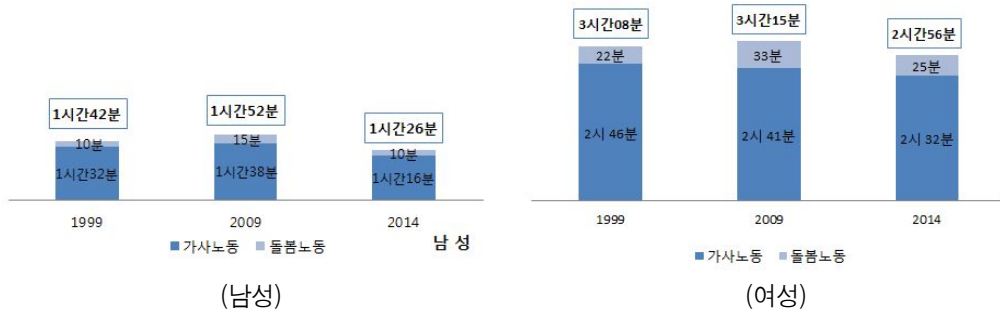
(단위: 연도, 분/하루, 가구)

				1999		2009		2014	
				시간	사례수		사례수		사례수
외벌이	남성	미취학아동	총 가사·돌봄시간	44분	3954	1시간 12분	1242	1시간 26분	1846
			가사노동시간	16분		26분		34분	
			돌봄노동시간	27분		46분		52분	
		취학아동	총 가사·돌봄시간	22분	2530	40분	1264	41분	1410
			가사노동시간	15분		24분		28분	
			돌봄노동시간	07분		16분		13분	
	여성	미취학아동	총 가사·돌봄시간	8시간 18분	3576	8시간 42분	1242	8시간 39분	1691
			가사노동시간	4시간 40분		4시간 12분		4시간 06분	
			돌봄노동시간	3시간 37분		4시간 30분		4시간 33분	
		취학아동	총 가사·돌봄시간	6시간 41분	2238	6시간 37분	1264	6시간 33분	1279
			가사노동시간	5시간 37분		4시간 56분		5시간 02분	
			돌봄노동시간	1시간 05분		1시간 41분		1시간 31분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을 분석하였다. 미취학아동을 한부모가족의 경우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아 제외하고 취학아동을 둔 가족만을 분석하였다. 양부모가족의 경우 성별차이가 매우 명확하게 드러났던 반면, 한부모가족의 경우 절대량의 차이는 있지만 남성과 여성의 변화 추이가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절대량의 경우에도 남성한부모의 가사·돌봄시간은 맞벌이남성보다 훨씬 길고, 여성한부모의 가사·돌봄시간은 맞벌이여성보다 짧다.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 모두 가사·돌봄시간이 증가하다가 2014년에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의 경우 하루 평균 가사·돌봄시간은 1999년 1시간 42분, 2009년 1시간 52분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 1시간 26분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구분해도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15년에 걸친 꾸준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는다. 여성들의 경우 예도 1999년 3시간 8분, 2009년 3시간 15분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 2시간 56분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남성한부모와 동일하였으며, 단 가사노동의 경우 1999년 2시간 46분, 2009년 2시간 41분, 2014년 2시간 32분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즉 한부모가족의 경우 남녀가 유사한 변화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가사·돌봄시간은 늘었다가 다시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 명확한 추세가 발견되지 않았다. 단, 여성한부모들은 가사시간을 줄이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림 8-8] 한부모-취학 가사·돌봄시간 (단위: 분/하루)

<표 8-4> 한부모가족의 총 가사·돌봄시간 변화

(단위: 연도, 분/하루, 가구)

				1999		2009		2014	
				시간	사례수	시간	사례수	시간	사례수
한부모	남성	취학아동	총 가사·돌봄시간	1시간 42분		1시간 52분		1시간 26분	
			가사노동시간	1시간 32분	127	1시간 38분	87	1시간 16분	125
			돌봄노동시간	10분		15분		10분	
	여성	취학아동	총 가사·돌봄시간	3시간 08분		3시간 15분		2시간 56분	
			가사노동시간	2시간 46분	221	2시간 41분	203	2시간 32분	258
			돌봄노동시간	22분		33분		2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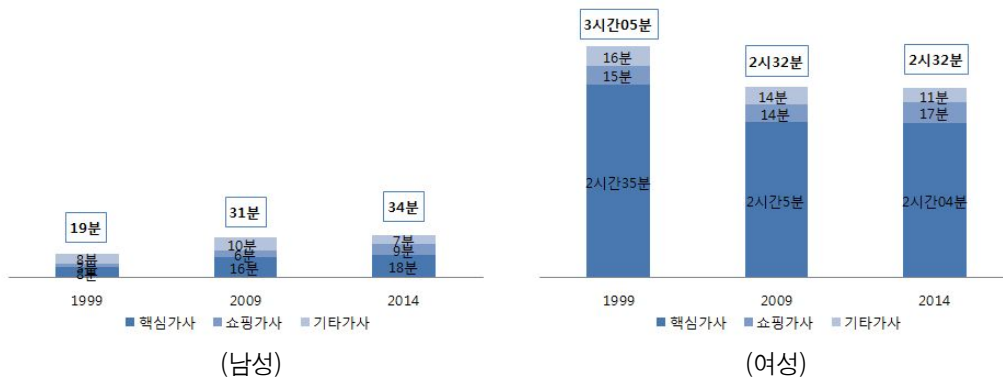
2. 가사노동시간 변화

가사노동시간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맞벌이로 미취학아동을 둔 가족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남성의 가사노동은 증가하는 반면 여성의 가사노동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녀 모두 이러한 추세를 이끄는 것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가사노동시간이다. 남성의 핵심가사노동시간은 1999년 8분, 2009년 16분, 2014년 18분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여성의 핵심가사노동시간은 1999년 2시간 35분, 2009년 2시간 5분, 2014년 2시간 4분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의 경우 기타가사노동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외의 하위 가사노동 범주에서 명확한 경향은 발견되지 않는다.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고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차이는 매우 명확해서 2014년을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4.5배의 가사노동을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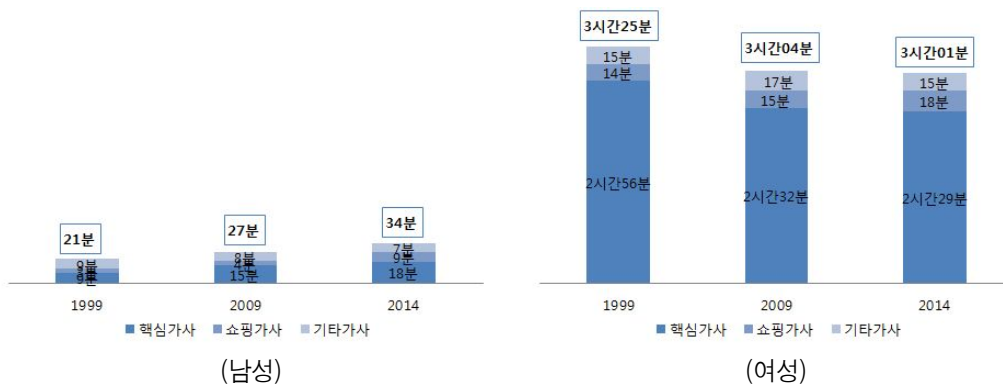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학아동을 둔 맞벌이가구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향은 동일하다. 남성의 핵심가사노동시간은 1999년 9분, 2009년 15분, 2014년 18분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여성의 핵심가사노동시간은 1999년 2시간 56분, 2009년 2시간 32분, 2014년 2시간 29분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외에도 남녀 모두 쇼핑가사노동시간이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취학 아동 부모와 마찬가지로 취학아동부모의 경우에도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고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차이는 매우 명확해서 2014년을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5.3배의 가사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맞벌이가족의 가사노동시간은 자녀연령에 관계없이 남성들의 가사시간은 증가하고 여성들의 가사시간은 감소하고 있으나, 남녀간의 불균형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사시간의 하위범주 중에서는 핵심가사노동시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변화추이를 이끌고 있었다.



[그림8-9] 맞벌이-미취학 가사시간 (단위: 분/하루)



[그림8-10] 맞벌이-취학 가사시간 (단위: 분/하루)

<표 8-5> 맞벌이가족의 가사노동시간 유형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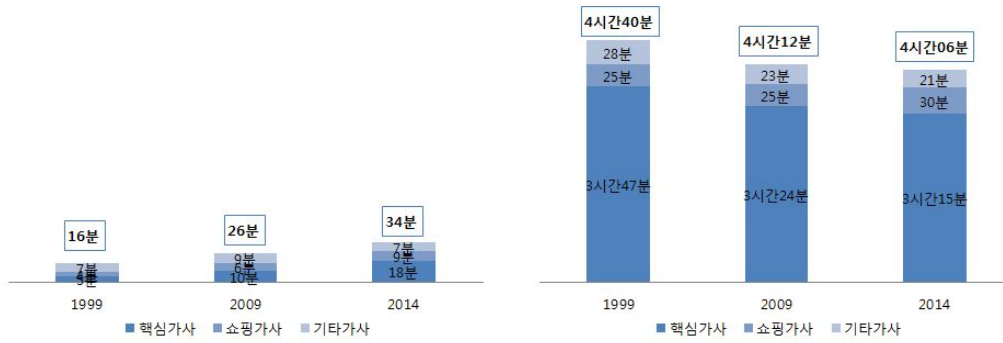
(단위: 분/하루)

				1999		2009		2014	
				시간	사례수	시간	사례수	시간	사례수
맞벌이	남성	미취학아동	총가사노동시간	19분	2288	31분	766	34분	1209
			핵심가사노동	08분		16분		18분	
			쇼핑가사노동	03분		06분		09분	
			기타가사노동	08분		10분		07분	
	취학아동	총가사노동시간	21분	4092	27분	2029	34분	2326	
		핵심가사노동	09분		15분		18분		
		쇼핑가사노동	03분		04분		09분		
		기타가사노동	09분		08분		07분		
여성	미취학아동	총가사노동시간	3시간 05분	2070	2시간 32분	766	2시간 32분	1103	
		핵심가사노동	2시간 35분		2시간 05분		2시간 04분		
		쇼핑가사노동	15분		14분		17분		
		기타가사노동	16분		14분		11분		
취학아동	총가사노동시간	3시간 25분	3625	3시간 04분	2029	3시간 01분	2194		
	핵심가사노동	2시간 56분		2시간 32분		2시간 29분			
	쇼핑가사노동	14분		15분		18분			
	기타가사노동	15분		17분		1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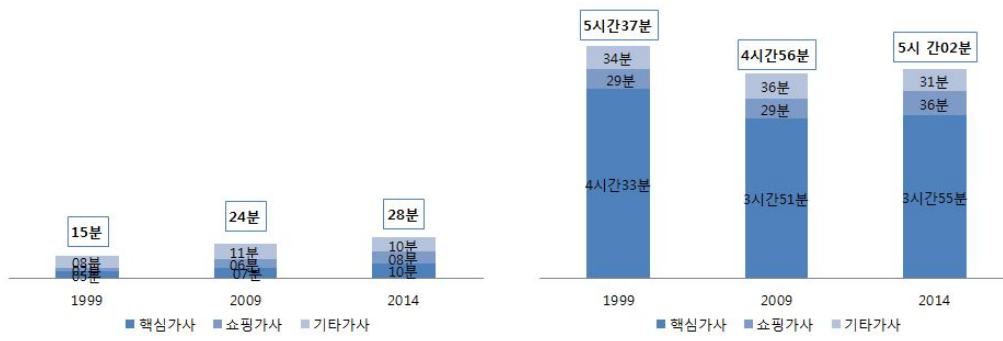
다음으로, 남성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맞벌이와 마찬가지로 남성의 가사노동은 증가하는 반면 여성의 가사노동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벌이 미취학아동 가족의 경우에도 남녀 모두 이러한 추세를 이끄는 것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가사노동시간이다. 남성의 핵심가사노동시간은 1999년 5분, 2009년 10분, 2014년 18분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여성의 핵심가사노동시간은 1999년 3시간 47분, 2009년 3시간 24분, 2014년 3시간 15분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의 경우 기타가사노동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쇼핑가사노동시간은 약간 증가추세가 된다.

취학아동을 둔 남성의 경우 남성의 가사시간은 증가하는 반면 여성들의 가사시간은 감소했다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들의 경우 가사노동시간의 절대량 자체가 매우 적기는 하지만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고, 여성들은 쇼핑가사노동이 다소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명확한 경향이 관찰되지 않는다.

남성의 경우 맞벌이 가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들의 시간이 약간씩 증가경향을 보이는 반면 여성들은 미취학아동을 둔 경우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집단에서 이러한 경향을 주도하는 것은 맞벌이 가족과 마찬가지로 핵심가사노동시간이었다.



(남성)
[그림8-11] 외별이-미취학 가사시간 (단위: 분/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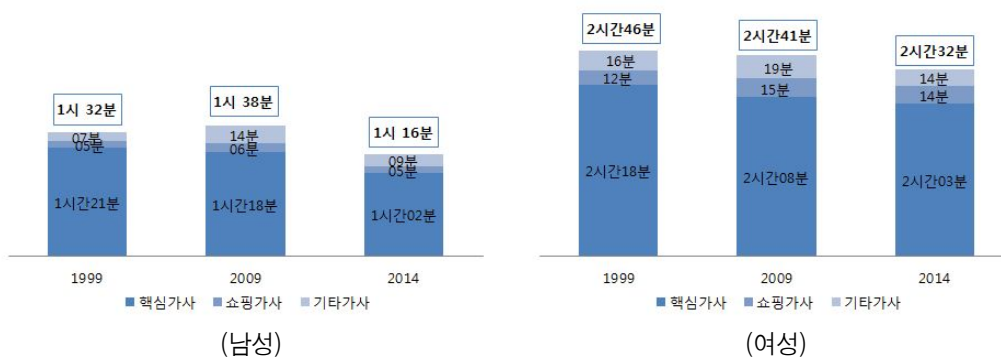


(남성)
[그림8-12] 외별이-취학 가사시간 (단위: 분/하루)

<표 8-6> 외별이가족의 가사노동시간 유형별 변화 (단위: 분/하루)

외별이	성별	취학이동	가사노동시간	1999		2009		2014	
				시간	사례수	시간	사례수	시간	사례수
외별이	남성	미취학이동	총가사노동시간	16분	3954	26분	1242	34분	1846
			핵심가사노동	05분		10분		18분	
			쇼핑가사노동	04분		06분		09분	
			기타가사노동	07분		09분		07분	
	취학이동	총가사노동시간	15분	2530	24분	1264	28분	1410	
		핵심가사노동	5분		7분		10분		
		쇼핑가사노동	2분		6분		8분		
		기타가사노동	8분		11분		10분		
여성	미취학이동	총가사노동시간	4시간 40분	3576	4시간 12분	1242	4시간 06분	1691	
		핵심가사노동	3시간 47분		3시간 24분		3시간 15분		
		쇼핑가사노동	25분		25분		30분		
		기타가사노동	28분		23분		21분		
취학이동	총가사노동시간	5시간 37분	2238	4시간 56분	1264	5시간 02분	1279		
	핵심가사노동	4시간 33분		3시간 51분		3시간 55분			
	쇼핑가사노동	29분		29분		36분			
	기타가사노동	34분		36분		31분			

마지막으로 취학아동을 둔 한부모가족의 경우,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 모두 가사노동 시간은 감소추세인 가운데, 특히 핵심가사노동이 명확하게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유형의 가사노동에서는 명확한 추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남성한부모의 핵심가사노동 시간은 1999년 1시간 21분, 2009년 1시간 18분, 2014년 1시간 2분, 여성한부모의 핵심가사노동 시간은 1999년 2시간 18분, 2009년 2시간 8분, 2014년 2시간 3분으로 명확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8-13] 한부모-취학 가사시간 (단위: 분/하루)

3. 돌봄노동시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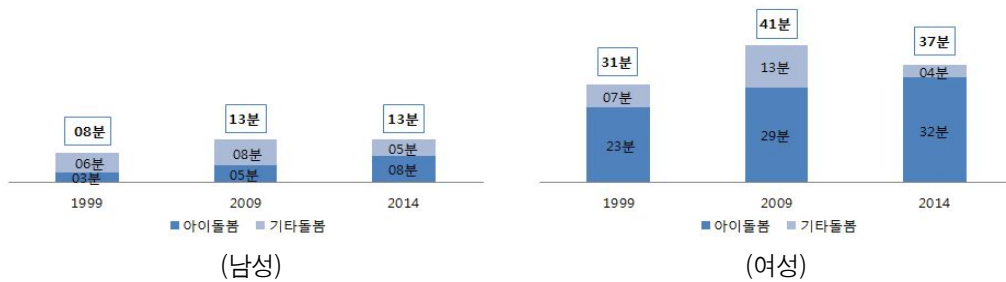
돌봄노동시간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맞벌이가족의 경우, 미취학아동을 둔 남성과 여성의 돌봄시간은 명확하게 증가추세이며, 이러한 경향은 아이돌봄시간만 살펴볼 때 더욱 명확해진다. 남성의 경우 1999년 20분, 2009년 41분, 2014년 55분, 여성의 경우 1999년 1시간 38분, 2009년 2시간 7분, 2014년 2시간 35분으로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돌봄시간 총량으로 비교해 보면, 1999년 여성의 돌봄시간은 남성의 4.1배였으나, 2014년에는 여성의 돌봄시간이 남성의 2.7배로, 남성의 속도가 돌봄시간 증가비율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돌봄시간만 비교해보아도 1999년에는 여성이 남성의 4.9배였으나 2014년에는 2.8배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이 수행하는 돌봄시간의 양이 남성보다 훨씬 많았다.

취학아동을 둔 맞벌이가족의 경우, 증가추세는 미취학아동을 둔 맞벌이가족만큼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아이돌봄시간만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분명한 증가추세가 관찰된다. 그러나 2014년에도 남성은 8분, 여성은 32분에 그치고 있어 돌봄시간의 절대량 자체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요컨대, 맞벌이가족의 돌봄시간은 특히 아이돌봄시간을 중심으로 남녀 모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8-14] 맞벌이-미취학 돌봄시간 (단위: 분/하루)



[그림8-15] 맞벌이-취학 돌봄시간 (단위: 분/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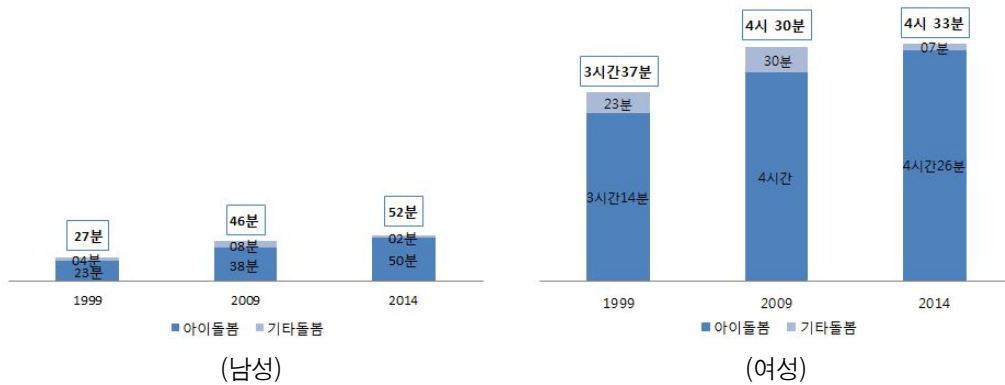
<표 8-7> 맞벌이가족의 돌봄노동시간 유형별 변화 (단위: 분/하루)

			1999		2009		2014		
	시간	사례수	시간	사례수	시간	사례수			
맞벌이	남성	미취학아동	총돌봄시간	27분	2288	52분	766	58분	1209
		아동돌봄	20분	41분		55분			
		기타돌봄	08분	10분		03분			
	여성	미취학아동	총돌봄시간	1시간 52분	2070	2시간 26분	766	2시간 38분	1103
		아동돌봄	1시간 38분	2시간 07분		2시간 35분			
		기타돌봄	14분	19분		03분			
남성	취학아동	총돌봄시간	08분	4092	13분	2029	13분	2326	
	아동돌봄	03분	05분		08분				
	기타돌봄	06분	08분		05분				
여성	취학아동	총돌봄시간	31분	3625	41분	2029	37분	2194	
	아동돌봄	23분	29분		32분				
	기타돌봄	07분	13분		04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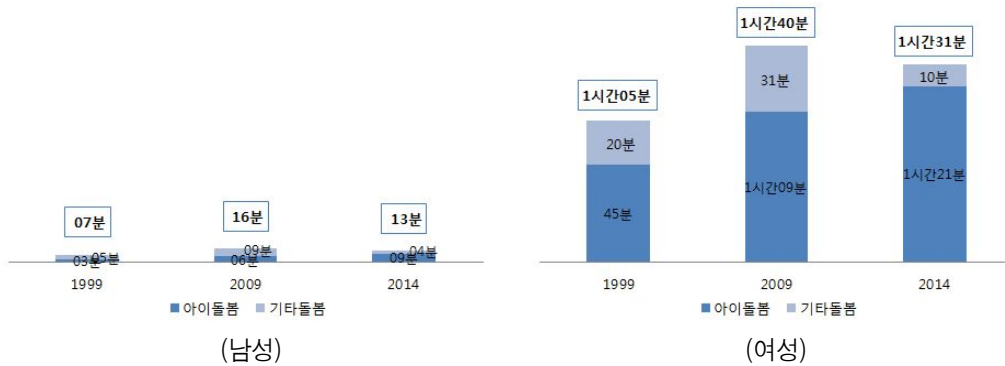
외벌이가족의 경우에도 전체적인 추세는 맞벌이 가족과 유사하다. 미취학아동을 둔 남성과 여성의 돌봄시간은 명확하게 증가추세이며, 이러한 경향은 아이돌봄시간만 살펴볼 때 더욱 명확해진다. 남성의 경우 1999년 23분, 2009년 38분, 2014년 50분, 여성의 경우 1999년 3시간 14분, 2009년 4시간, 2014년 4시간 26분으로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맞벌이 가족에서와 마찬가지로 취학아동을 둔 외벌이가족의 경우, 증가추세는 미취학아동 부모만큼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아이돌봄시간만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분명한 증가 추세가 관찰된다. 그러나 남성의 돌봄시간은 2014년에도 9분 수준이어서 절대량 자체가 매우 낮다.

요컨대, 외벌이가족에서도 맞벌이가족과 유사하게 아이돌봄시간을 중심으로 남녀 모두 돌봄시간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8-16] 외벌이-미취학 돌봄시간 (단위: 분/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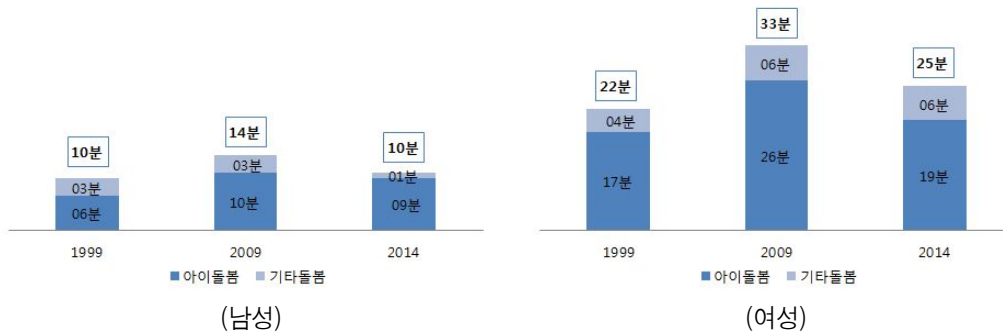


[그림8-17] 외벌이-취학 돌봄시간 (단위: 분/하루)

<표 8-8> 외벌이가족의 돌봄노동시간 유형별 변화 (단위: 분/하루)

				1999		2009		2014	
				시간	사례수	시간	사례수	시간	사례수
외벌이	남성	미취학아동	총돌봄시간	27분	3954	46분	1242	52분	1846
			아동돌봄	23분		38분		50분	
			기타돌봄	04분		08분		02분	
		취학아동	총돌봄시간	07분	2530	16분	1264	13분	1410
	아동돌봄		03분	06분		09분			
	기타돌봄		05분	09분		04분			
	총돌봄시간		3시간 37분	3576		4시간 30분		1242	
	미취학아동	아동돌봄	3시간 14분		4시간 00분	4시간 26분			
기타돌봄		23분	30분		07분				
여성	취학아동	총돌봄시간	1시간 05분	2238	1시간 40분	1264	1시간 31분	1279	
		아동돌봄	45분		1시간 09분		1시간 21분		
		기타돌봄	20분		31분		10분		

한편 취학아동을 둔 한부모가족의 경우, 모든 집단 중에서 유일하게 아이돌봄시간을 늘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남성도 양부모가족의 남성처럼 아이돌봄 시간이 하루 10분에 미치지 못하며, 한부모 여성들의 경우에도 하루 30분을 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14년에는 오히려 돌봄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관찰된다.



[그림8-18] 한부모-취학 돌봄시간 (단위: 분/하루)

<표 8-9> 한부모가족의 돌봄노동시간 유형별 변화 (단위: 분/하루)

				1999		2009		2014	
				시간	사례수	시간	사례수	시간	사례수
한부모	남성	취학아동	총돌봄시간	10분	127	14분	87	10분	125
			아동돌봄	06분		10분		09분	
			기타돌봄	03분		03분		01분	
	여성	취학아동	총돌봄시간	22분	221	33분	203	25분	258
			아동돌봄	17분		26분		19분	
			기타돌봄	04분		06분		06분	

4. 소결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사·돌봄시간의 변화 추이에서 양부모와 한부모는 매우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양부모의 시간변화추이는 성별차이가 극명하였고, 맞벌이-외벌이 차이보다는 막내자녀 연령차이가 오히려 중요한 균열지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부모들은 양부모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가 유사한 변화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모든 양부모 가족에서 남성은 가사돌봄시간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핵심가사와 쇼핑가사시간, 아이돌봄시간이 증가하였다. 남녀간의 불균형은 여전히 심하였고, 맞벌이 가족의 경우에도 여전히 젠더갭은 매우 큰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간의 차이가 다소 좁혀지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경향이었다.

셋째, 모든 양부모가족에서 여성은 가사시간은 감소하는 반면 돌봄시간은 증가하였다. 가사·돌봄시간의 총량으로 볼 때는 자녀가 미취학연령인 경우에는 전체 가사돌봄시간이 증가하였던 반면, 자녀가 취학연령인 경우에는 전체 가사돌봄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상이하였으나, 구성을 살펴볼 때 양부모 여성들의 자녀연령과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가사시간, 특히 핵심가사시간을 줄이고, 아동돌봄시간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부모가족은 양부모가족과는 전혀 다른 경향을 보였으며, 변화양상에 있어서 남녀가 유사한 방향을 보였다. 한부모들은 가사시간을 줄이는 경향은 양부모가족과 동일하였지만, 돌봄시간은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을 살펴볼 때, 한국의 유자녀가족들은 지난 15년간 ‘돌봄시간의 극대화전략’을 선택해 온 것으로 조심스럽게 해석해볼 수 있다. 즉 남성은 가사와 돌봄시간을 모두 늘리고, 여성은 가사시간을 줄이는 대신 돌봄시간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사·돌봄시간을 조정해 온 것이다. 이는 특히 지난 15년간 자녀수는 꾸준히 감소하였고 보육정책이 크

게 확대되어 온 것을 고려해 볼 때 여러 가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삼포세대’의 등장에서처럼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닌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그만큼 더 중요하고 가치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모들은 주변적인 가사노동보다는 아이를 직접 돌보는 시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수 있다. 다른 한편, 경제적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면서 자녀교육을 위한 시간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는 미국 중산층에서 부모가 온종일 아이에게 매달려 아이의 소양을 높여주기 위해 애쓰는 ‘집중 육아(concerted cultivation)(Lareau, A., 2011)’의 한국적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부모가족의 경우 아이돌봄시간을 늘리지 못했던 경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집중육아’ 방식이 중산층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한국사회에서도 한부모가족과 같이 자원이 한정된 가족들의 경우 이러한 방식을 따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연구가설로서, 추후 보다 엄밀한 분석을 통해서 규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지)

IX. 성인의 여가시간과 신체활동수준

이 장에서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남은 시간 즉, 여가시간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였다. 과연 우리사회에서 여가시간에 이루어지는 신체활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그것이 건강함을 도모함에 있어 적절한 수준인지 하루 24시간의 기록을 담은 시간일지를 통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가시간에 이루어지는 에너지 소모의 관점에서 유형화하였다.

다양한 활동들을 에너지 소모 수준에 따라 분류해 내기 위해 최근 건강관련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MET(metabolic equivalent of task) score에 나타난 신체활동수준 정보를 활용하였다(Tudor-Locke et al., 2010). MET 점수는 신체활동의 에너지대사량을 수치화한 지표이다. 특정 활동의 MET 점수는 분당 에너지소모의 양을 상대적으로 나타낸다. MET 점수가 높을수록, 혹은 해당 활동을 한 시간량이 증가할수록 에너지 소모율이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앉아있는 활동일 때, 1 MET 점수를 부여하게 되고, MET 점수는 수면(0.9)부터 시속 23km로 달리기(23)에 이르는 점수분포를 갖는다.

이 장에서는 시계열적 분석에서 이미 확인한 여가시간의 시기별 추세를 염두에 두면서, 특별히 2014 생활시간자료에서 나타나는 비노동시간에 대한 심화된 분석을 실시한다. 단, 이 장에서 여가시간은 기존의 유희적 효용을 가지는 여가활동에 수면을 제외한 개인유지활동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의 여가시간 개념을 활용한다. 이동시간의 경우 행사참여나 여가를 위한 이동시간만 포함하였고, 출퇴근이나 돌봄활동을 위해 소요된 이동시간 역시 제외하였다.

2014한국생활시간자료에서 수면시간을 제외한 비노동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e.g.개인유지활동 및 여가활동)을 선행연구(Lee & Paffenbarger, 2000)를 참고로 하여, 에너지 소모 수준에 따라 격렬한 활동(vigorous activity), 가벼운 활동(mild activity), 일상적 활동 그리고 앉아있는 활동(sedentary activity)으로 구분하였고 이것을 신체활동 유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 신체활동유형의 배분비율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과연 우리사회에서 건강함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알려진 신체활동을 향유하는 집단은 누구이고,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여가시간에서의 격차가 존재한다면 그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탐색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신체활동유형별로 각각의 활동을 즐기는 인구의 규모를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파악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서 이 연구에서 MET 점수에서 제시하고 있는 활동의 에너지 레벨로 그 수준을 구분함으로써 하루 24시간을 기록한 시간일지가 MET score를 측정해 내는데, 다른 설문조사와 어떠한 차별성을 갖는지도 탐색하게 된다. 이는 생활시간자료가 한국

<표 9-1> 변수의 정의

	구체적인 활동내용
격렬한 활동	(MET score 6 이상 활동) 달리기(인라인 스케이팅 포함), 자전거타기, 하이킹, 구기운동
가벼운 활동	(Met score 3.0-5.9 이하) 구호활동 및 재난구조활동, 걷기, 춤추기 및 유희, 낚시하기, 운동, 그 밖에 다른 스포츠 활동, 야외활동
일상적 활동	(MET score 1.6-2.9 이하 활동) 옷입기, 목욕하기, 자원봉사, 타인 돕는 활동, 취미생활, 컴퓨터 게임, 관람활동(미술관, 박물관), 영화보기, 가족의례참여, 종교행사참여, 이동하기, 다른 기타 여가 활동
앉아있는 활동	(MET score 1- 1.5 이하 활동) 식사, 간식, 치료 및 건강관리, 목욕이외 위생활동, 담배 피우기, 휴식, 아무 일도 하지 않기, 텔레비전시청, 음악감상, 읽기, 교제하기(문자 및 전화교제 포함), 종교 활동(기도하기), 시간일지 작성

주) Met score에 따른 이와 같은 구분은 Tudor_Locke 와 동료들(2010)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을 반영함. 다만, 이동시간의 경우 생활시간자료에서 운전자와 승차자의 구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이동시간은모두 일상적 활동으로 간주함.

인의 하루일상에서 신체활동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분석을 위해 시간일지 가운데 20세 이상 성인이 작성한 시간일지로 범위를 한정하였고 그중에서 현재 재학 중인 사람이 작성한 일지, 그리고 신체활동에 관한 분석인 만큼 건강이 나쁜 경우를 제외하기 위해 당일 날 “아파서 쉬었다”에 시간이 표시된 일지는 포함하지 않았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시간일지는 총 44,111개이다.

이 연구에서 여가활동에 포함되는 활동의 내용은 <표 9-1>에서 제시하였다. 이동활동의 경우 걷기, 자전거 타기, 자동차 타기 등 다양한 이동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MET 점수도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특히, 걸어서 이동하는 경우, 걷기 활동만 나타날 수 있지만, “걸어서 차타는 곳까지 간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걸어서 지하철을 탄다”라고 할 때, 다양한 교통수단과 걷기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엄밀하게 보자면, 이동시간에 이루어지는 에너지 소모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통수단을 모두 고려해서 실제 MET 수준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ATUS의 활동을 MET로 환산한 지표에 따르면, 이동시간에 이루어진 활동들의 MET 점수는 자전거 타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활동이 대 MET 점수 1.6-2.9 사이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한국의 생활시간일지는 이동에서 운전자와 승차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참고로, 미국 생활시간일지를 바탕으로 MET 점수를 산출했을 때 (Tudor-Locke et al., 2010), 운전자인지 단순 승차자인지에 따라 에너지 소모 수준을 다르게 보았다. 이러한 몇 가지 제한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한국적 상황에서 이동시간에

<표 9-2> 신체활동유형별 하루 평균 활동시간: 요일별 분포 (단위: 분/하루)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총여가시간	557.8	203.4	648.4	215.3	691.6	212.0
	행위자 비율	행위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시간
앉아있는 상태	100.0%	402.9	100.0%	448.7	100.0%	464.4
일상적 활동	99.3%	118.8	99.1%	148.0	98.9%	174.2
가벼운 활동	37.7%	82.8	43.0%	97.5	42.2%	96.1
격렬한 활동	4.9%	112.0	7.8%	139.3	9.5%	149.5

는 걷기와 앉아 있기의 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승차자라고 하더라도 대중교통수단을 옮겨다니는 대기자가 된다는 판단에서, 편의상 이동시간을, 교통수단의 구분을 이루지 않고, 일상적 활동(MET 점수 1.6-2.9)으로 간주하였다. 때문에, 이동시간이 긴 한국의 상황에서 사람들의 활동시간이 예상외로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신체활동의 각 유형과 삶의 질 지표의 연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활용한 삶의 질 관련 설문문항은 2014생활시간자료에서 가용한 지각된 건강 그리고 생활만족도, 그리고 시간부족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성인의 성, 연령, 취업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총여가시간과 4개의 신체활동 유형이 총여가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성별, 연령별, 요일별 특성으로 구분하여 파악한다.

둘째, 신체활동의 분포가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과 같은 사회적 불평등성과 연계되어 있는지 파악한다.

셋째, 신체활동유형과 지각된 건강함 및 시간부족과 연계성을 파악한다.

1. 총비노동시간과 신체활동 유형별 분포

<표 9-2>에 따르면, 총여가시간(좁은 의미의 여가 + 개인유지 중 수면제외)은 평일 557.8분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648분, 691분까지 늘어난다. 이중에서 가벼운 활동과 격렬한 활동을 합한 총 신체활동을 하는 행위자 비율은 평일 42%,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51%이었다. 주말에는 여가시간이 약 100분가량 늘어나지만 막상 신체활동을하는 행위자 비율은 10%채 늘지 않는다. 그에비해 앉아있거나 일상적인 활동은 행위자 비율이 100%로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적 활동보다는 에너지 축적성 활동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3> 신체활동의 유형별 행위자비율과 행위시간 순위: 앉아있는 활동, 일상적 활동 (단위: %)

앉아있는 활동				
순위	행위율	활동내용	활동영역	MET score
1	99.8	식사	개인유지	1.5
2	85.0	실시간 방송보기	미디어	1.3
3	78.0	간식 음료 섭취	개인유지	1.5
4	52.5	대면교제	교제	1.5
5	36.2	아무것도 안하고 쉬	기타	1.2
6	32.6	화상 및 음성교제	교제	1.5
7	17.9	인터넷 정보검색	미디어	1.5
일상적 활동				
순위	행위율	활동내용	활동영역	MET score
1	98.0	개인위생(씻기, 화장실 활동)	개인유지	2.1
2	55.2	외모관리	개인유지	2.1
3	40.2	교제 및 여가관련 이동	이동	2.5
4	32.8	개인위생관련 이동	이동	2.0
5	9.0	컴퓨터 모바일 게임	미디어	1.9

주) 일상적 활동 Met Score 1.6~2.9의 활동의 상당부분은 가사노동활동인데, 이 연구에서는 비노동활동에 초점을 두어 대부분의 가사노동활동은 제외되어 있음을 밝힘.

흥미로운 점은 신체활동을 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그들의 행위시간을 살펴본 결과, 격렬한 활동을 한 사람들은 평균 120분, 가벼운 신체활동은 평균 90분 정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의 행위자 비율은 높지 않지만, 한번 활동을 시작하면 상당시간에 걸쳐 시간 투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간일지가 연속된 이틀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일주일의 신체활동비율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하루 평균 7%의 격렬한 신체활동이 이루어진다고 가정 했을 때, 주 7일로 환산해 보면 일주일에 한번 꼴로 신체활동을 할 확률이 50% 정도 추정된다. 그리고 이렇게 신체활동이 이루어 질 때에는 거의 1시간 반에서 2 시간 정도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신체활동유형 각 영역별로 빈도가 높게 나타난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신체활동 영역 중 가벼운 활동 영역에서는 걷거나 산책하기, 개인운동, 유희 그리고 놀이나 다른 스포츠 활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행위자 비율로 볼 때, 가벼운 신체활동을 한다는 것은 주로 걷거나 운동을 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격렬한 활동 가운데 빈도가 높게 나타난 활동은 구기운동과 등산이었고 1%가 채 되지 않는 응답으로 자전거나 달리기가 나타났다.

한편, 앉아있는 상태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섭식활동 이었고 그 다음이 텔레비전 시청 그리고 간식이나 음료섭취 이었다. 그밖에도 대면교제, 아무것도 안하고 쉬기, 화상 및 전화교제 순으로 앞서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나타났다. 일상적 활동에는 개인위생(씻기), 외모가꾸기, 그리고 각종이동활동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5 순위로는 컴퓨터 게

<표 9-4> 신체활동의 유형별 행위비율 순위: 가벼운 활동, 격렬한 활동 (단위: %)

가벼운 활동				
순위	행위율	활동내용	활동영역	MET score
1	19.0	걷기, 산책	운동	3.8
2	16.0	개인운동	운동	3.0
3	4.0	유흥(춤, 노래방)	놀이	4.5
4	3.0	집단 놀이 및 게임	놀이	5.1
5	0.6	기타 스포츠 및 레포츠 활동	운동	4.7
격렬한 활동				
순위	행위율	활동내용	활동영역	MET score
1	3.1	구기운동	운동	7.0
2	2.3	등산	운동	6.0
3	0.8	자전거, 인라인	운동	8.0
4	0.3	달리기, 조깅	운동	7.5

임이 있었다.

미국의 생활시간자료를 바탕으로 MET score 목록을 만든 Tudor-Locke와 그 동료들의 연구(2010)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경우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격렬한 활동은 헬스기계를 이용한 심박수 운동과 달리기로 각각 2.2% 및 1.1%의 빈도로 나타났다. 우리는 미국인들과 비교해 보면, 격렬한 활동을 하는 유형이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앉아 있는 상태 가운데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섭취와 간식 및 음료 섭취 그리고 텔레비전 시청 순이었다. 이 역시 텔레비전 시청이 간식 및 음료섭취보다 높게 나타난 우리와는 다른 점이다.

2. 총여가시간 및 총여가시간에서 신체활동 비율에서의 차별성

다음으로, 성과 연령별 신체활동의 수준을 가늠해보도록 하겠다. <표 9-5>에서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총여가시간과 총여가시간에서 앉아있는 상태, 신체활동을 하는 비중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았다. 성별 총여가시간의 분포를 보게 되면, 남성이 여성보다 총여가시간을 조금 더 확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남성은 여성보다 신체활동의 행위 비율이 높다. 즉, 여가시간도 길고 그 시간동안 신체활동을 하는 비율도 남성이여성보다 높다. 여가시간이 길수록, 신체활동의 비중이 높을수록 건강함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남성이 여성보다 건강함을 유지하는데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총여가시간은 20대부터 30대까지 총여가시간이 줄어들다가 40대를 거치면서 늘어나는 구도이다. 이렇게 총여가시간은 30대에 가장 짧고 점차 늘지만, 그 늘어난 여가시간은 주로 앉아 있는 시간이다. 신체활동의 비율은 총여가시간의 패턴과는 다르게 40대 이후 늘다가 70대 이후 급격히 감소한다. 총여가시간 가운데 신체활동의 비중이

<표 9-5> 성과 연령에 따른 총여가시간 및 신체활동의 비중 차이 (단위: 분, %)

		총여가시간		앉아있는 상태 비중		전체 신체활동 비중		격렬한 활동 비중	
		평균시간	t/F값	평균비중	t/F값	평균비중	t/F값	평균비중	t/F값
성	남성	619.8	15.2***	71.2%	-10.7***	7.2%	22.3***	1.6%	20.8***
	여성	588.2		72.7%		5.3%		0.6%	
연령	20	574.2	1036.1***	66.5%	198.7***	5.0%	103.9***	0.6%	53.3***
	30	515.1		71.7%		4.7%		0.7%	
	40	559.7		71.9%		5.8%		1.3%	
	50	599.9		71.7%		6.6%		1.5%	
	60	672.9		72.9%		7.5%		1.3%	
	70	735.4		75.0%		8.0%		0.7%	
	80 이상	784.0		78.1%		7.1%		0.2%	

***: p<.001

<표 9-6> 계절 및 기타 다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총여가시간 및 신체활동의 비중 차이 (단위: 분, %)

		총여가시간		앉아 있는 활동 비중		전체 신체활동 비중		격렬한 활동 비중	
		평균시간	t/F값	평균비중	t/F값	평균비중	t/F값	평균비중	t/F값
계절	7월	612.8	26.3***	71.9%	46.9***	6.3%	129.5***	1.0%	31.7***
	9월	603.3		71.5%		6.7%		1.3%	
	11월	592.1		73.1%		5.0%		0.8%	
취업여부	취업중	544.2	83.2***	71.5%	-18.8***	5.4%	-125.4***	1.1%	2.54*
	비취업	713.4		72.8%		7.7%		1.0%	
가구 내 10세 이하 자녀유무	자녀있음	533.7	-53.6***	72.5%	5.74***	5.3%	14.8***	1.0%	-1.17
	자녀없음	641.7		71.7%		6.7%		1.1%	
지역	도시	601.8	-0.40***	74.2%	14.7***	5.5%	-7.9***	0.7%	-9.8
	농촌	602.9		71.5%		6.3%		1.2%	

*: p<.05 ***: p<.001

가장 높게 나타나는 시기는 60대이다. 총여가시간에서 격렬한 활동의 비중 역시 60대 50대 70대 그리고 40 대 순으로 나타난다. 예상외로 20-30대는 전체적으로 총여가시간 자체도 적을 뿐 아니라 신체활동을 수행하는 비율도 낮았다.

<표 9-6>에서는 계절을 비롯한 기타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총여가시간 및 총여가시간에서 차지하는 앉아 있는 상태, 신체활동의 비중 차이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총여가시간은 계절별로 약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들어나는데 휴가가 있었던 7월에 비해 11월에는 여가시간이 다소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기온의 타인지 앉아 있는 비율도 7월에 비해 11월에 더 높다. 신체활동은 반면에 7월, 9월에 비해 11월에 비율이 낮아진다. 그런데, 신체활동의 계절적 편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이기는 하나 예상만큼 차이가 크지는 않다. 취업자에 비해 비취업자는 총여가시간은 길고 그 긴 총여가시간동안 앉아 있는 비중도 그리고 신체활동 비중도 높다. 그런데, 취업자는 비취업자보다 격렬한 활동을 하는 다소 높았다.

<표 9-7> 교육수준과 가계소득에 따른 총여가시간 및 활발한 신체활동의 비중 차이 (단위: 분, %)

		총여가시간		앉아 있는 활동 비중		가벼운-격렬한 활동 비중		격렬한 활동 비중	
		평균시간	격차	평균비중	격차	평균비중	격차	평균비중	격차
학력	중졸이하	660.8	457.1***	75.3	347.1***	6.4	18.5***	0.6	70.8***
	고졸	594.0		71.8		6.2		1.3	
	대학교졸	554.0		70.5		5.5		1.0	
	대학원이상	583.7		69.7		6.4		1.3	
가계소득 (3분위)	하 (하위 25%)	673.7	894.7***	74.2	265.6***	6.7	53.2***	0.7	81.94***
	중	576.3		71.7		5.8		1.1	
	상 (상위 25%)	581.4		69.3		6.8		1.6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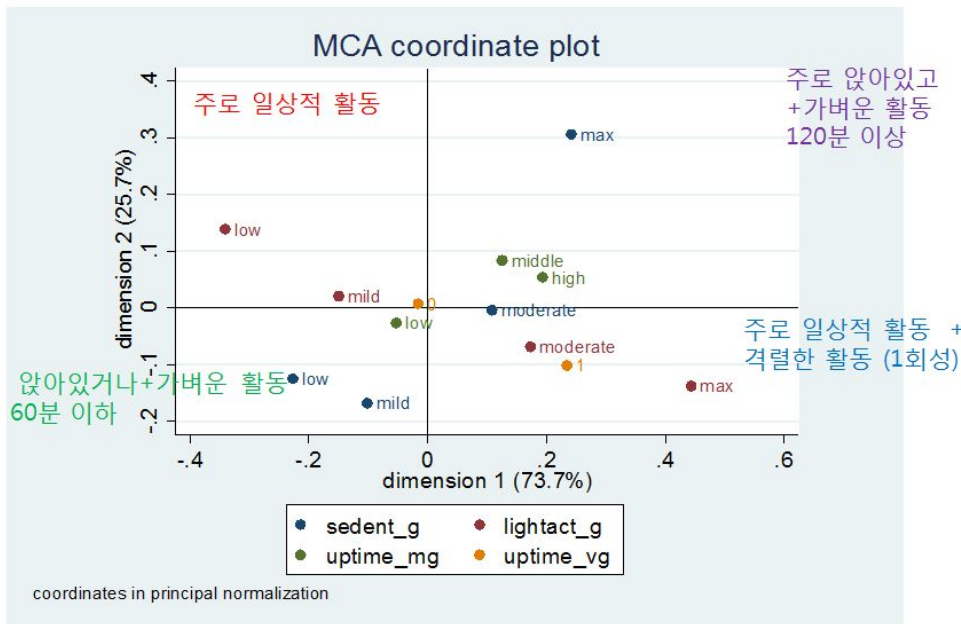
가구 내에 1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총여가시간은 짧지만, 앉아있는 비중은 더 높게 나타나고 반면에 신체활동 비중은 더 작다. 지역별 격차를 살펴보면, 도시/농촌간 총여가시간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농촌거주자의 앉아 있는 비율이 도시보다 낮은 반면 신체활동을 하는 비중은 농촌거주자가 도시거주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농촌지역에 사는 경우 에너지소모 면에서 움직이는 시간이 도시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계층에 따른 신체활동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교육수준에 따라 총여가시간은 유의미하게 달랐다. 중졸이상이 고졸 혹은 전문대 졸 이상보다 총여가시간이 길었다. 그런데 총여가시간 가운데 앉아있는 시간은 오히려 대졸이상이 가장 짧았지만, 신체활동이 총여가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더 대졸자가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높았다. 소득수준의 경우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3 분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총여가시간은 짧았지만, 그 짧은 여가시간 동안 고소득층은 더 신체활동을 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고, 앉아 있는 비율은 오히려 다른 소득집단에 비해 짧았다.

실제로 여가시간에 대한 격렬한 활동의 행위자비율과 행위시간을 계산해 보면,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평균 5분정도 더 길었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였다. 고소득층(상위 75% 이상) 짧은 여가시간이라도 신체활동에 투여하는 행태가 드러난 반면, 저소득층은 긴 여가시간을 대체로 앉아 있는데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한편 중간소득층은 총여가시간이 고소득층에 비해서도 적었고, 총여가시간 중 신체활동 비율은 저소득층(소득 하위25% 이하)보다도 낮았다. 즉, 중간소득계층은 총여가시간도 가장 짧고, 신체활동을 하는 비율도 가장 낮다는 점에서 건강함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취약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3. 신체활동의 유형과 대응분석 결과

위에서 제시한 신체활동들은 사실상 “어느 특정한 하루에”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즉, 여가시간의 전체를 앉아있는데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격렬한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다. 제시한 네 가지 신체활동들은 사실상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림 9-1>에서는 각 신체활동 유형들이 어떠한 조합으로 어느 특정 하루에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신체활동 각 유형의 수준을 집단으로 구분하여 교차대응분석을 실시하였다. 격렬한 활동의 경우 행위자 비율이 낮아서 격렬한 활동이 일어났는지 여부로 집단을 구분하였고, 그 외 나머지 일상적 활동과 가벼운 활동, 그리고 앉아 있는 상태는 각 활동시간을 3분위 혹은 4분위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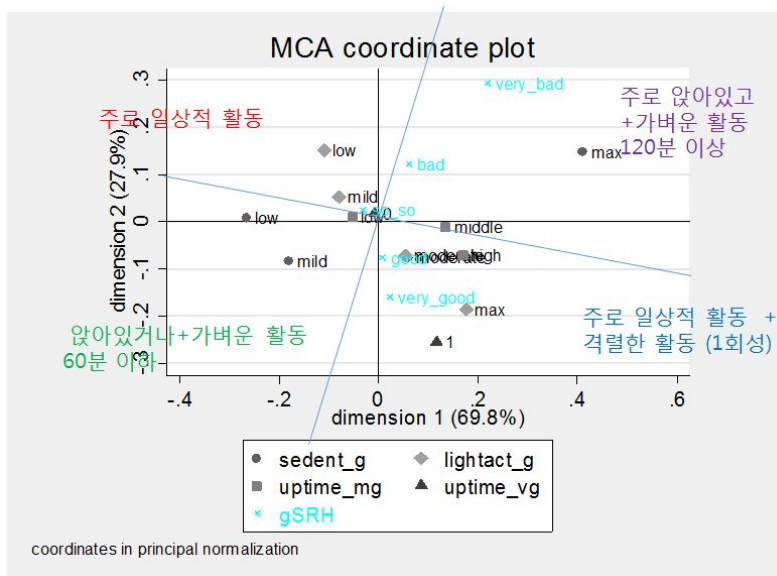
[그림 9-1] 신체활동유형별 교차대응분석 결과

분석결과, 제 1사분면과 3사분면에는 앉아 있는 상태와 가벼운 활동 수준이 함께 관찰된다. 1사분면에는 앉아 있는 상태와 가벼운 활동을 120분 이상 발생하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고, 3사분면에는 반대로 주로 앉아 있는 있다가 가벼운 활동을 짧게 하는 형태로 여가시간이 구성되고 있다. 반면에 4사분면에는 일상적인 활동과 격렬한 활동의 조합이 나타나고 그 반대인 2사분면에는 격렬한 활동 없이 주로 일상적인 활동만 일어난다. 이러한 활동 조합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가벼운 활동이 이루어진 날에는 격렬한 활동이 함께 이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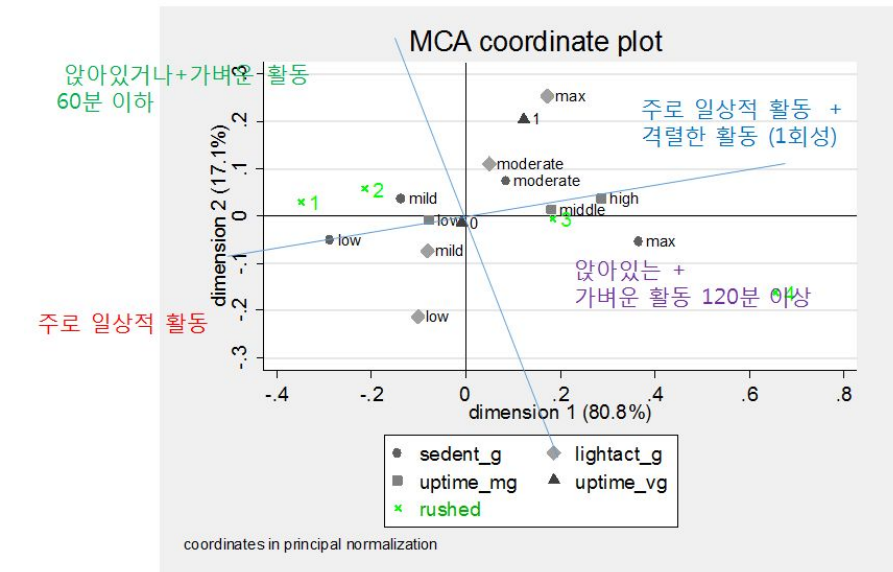
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상적인 활동이 발생하는 날에는 앉아있는 활동이 함께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처럼, 신체활동 유형들이 드러나는 방식을 고려해 보면, 각 사분면은 “어느 특정한 날의 여가시간”을 즐기는 방식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겠다.

4. 신체활동유형과 삶의 질의 관련성

여기에서는 위에 살펴본 대응분석 결과와 삶의 질 지표들을 한번 더 교차하여, 신체활동의 조합과 삶의 질의 연계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림 9-2>는 지각된 건강상태와 신체활동 유형의 관련성을 살펴본 것이다. 지각된 건강은 건강이 매우 좋음부터 매우 나쁨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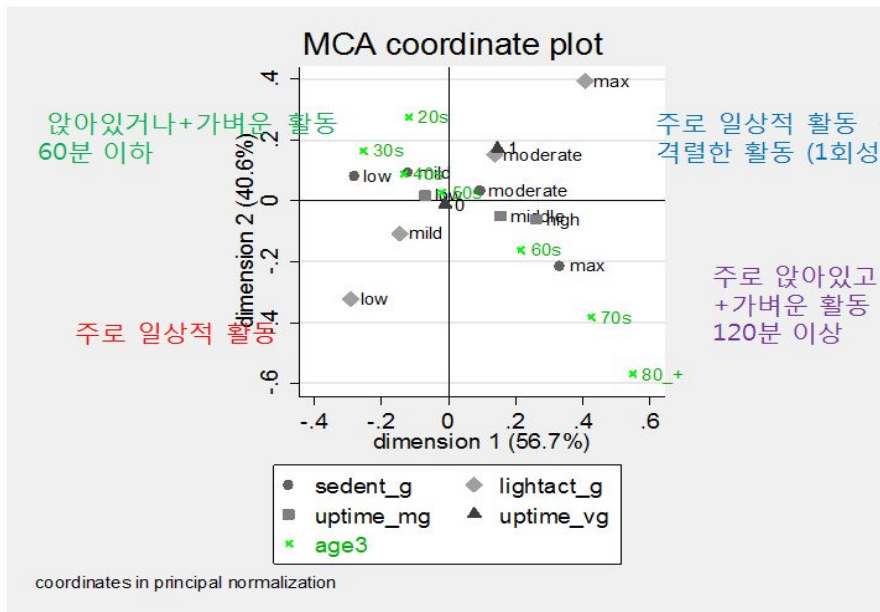
[그림 9-2] 신체활동유형 및 지각된 건강상태와 교차대응분석 결과



[그림 9-3] 신체활동유형 및 시간부족과 교차대응분석 결과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격렬한 활동을 하는 경우 건강함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에 비해, 가벼운 활동 120분과 앉아 있는 활동 위주의 여가시간을 갖는 경우 건강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만족도와 대응분석결과도 신체건강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격렬한 활동을 하는 경우 높은 생활만족과 동일한 사분면에 포함되었지만, 낮은 생활만족도는 주로 앉아 있거나 가벼운 활동 120분 이상과 같은 사분면에 위치하였다. 말하자면, 가벼운 활동을 120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운동량하고 있음에도 본인은 건강이 좋지 않고 생활만족도도 낮게 인식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번에는 시간부족과 신체활동 유형에 관한 대응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여유 시간이 없는 경우(시간부족 1, 2) 가벼운 활동은 1시간 남짓 수행하고, 그 외에 여가시간에는 주로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에 비해, 평소에 시간부족을 별로 지각하지 않는 경우(시간부족, 3, 4)의 경우 오히려 가벼운 활동을 120분 이상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가벼운 활동을 120분 수행하는 사람들은 시간여유가 많지만, 본인의 건강함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생활만족도도 낮게 평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좋지 않게 나타난다.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특별히 가벼운 활동을 하루 평균 120분 이상 활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그림 9-4] 신체활동유형 및 시간부족과 교차대응분석 결과

이에 신체활동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각 조합별로 각 조합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성 및 날짜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20-40대까지는 앉아 있거나 가벼운 활동 60분이하가 놓여 있는 사분면에 주로 몰려 있다. 위에서 시간부족을 높은수준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주로 앉아 있거나 가벼운 운동 60분 이하로 수행하는 경향과 일치한다. 반면에, 고령층(60대 이상)의 경우 앉아 있거나 가벼운 운동 120분 이하가 있는 사분면에 주로 집중해서 나타난다. 한편, 주말과 주중의 구분으로 동일한 분석할 한 결과, 주중은 “주로 일상적 활동”에 등장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격렬한 활동”이 존재하는 사분면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각 사분면에 나타난 활동의 특성들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일상적인 활동은 요일로 보면, 주중에 나타나는 활동이고, 일상적 활동이 주를 이룰 때에는 가벼운 활동이나 격렬한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가벼운 활동을 60분 이하로 하는 경우는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앉아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수행하는 활동의 양도 많지 않다. 이러한 형태는 20-40대의 운동이 부족한 날을 대변한다.

가벼운 활동을 120분 이상 하는 날로 나타나는 경우는, 시간부족을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여가시간 자체가 길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60대 이상 고령자가 가벼운 산책과 개인운동을 하는 날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고령층의 신체활동의 특성을 대표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실제 이러한 활동과 낮은 삶의 질이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고령층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가벼운 운동을 120분 이상 수행한다는 것은 건강에 대

해 관심도 많고, 또한 이를 수행하는 개인의 건강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고 판단되지만 이 연구에서는 오히려 낮은 삶의 질과 연관이 높았다. 만약 이것이 활동자채로부터 오는 특성이 아니라, 단순히 고령층의 특성에 기인한 결과라면, 오히려 가벼운 신체활동을 이용해서 고령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격렬한 활동은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는 활동임을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격렬한 활동을 주말에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는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이 건강하다고 지각하고, 생활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유추된다. 앞서 격렬한 활동 중에서도 구기운동, 등산들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주말에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신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신체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주로 40-50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일하는 연령층에서 평소에 부족한 신체활동을 주말시간을 이용해서 수행하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이러한 “몰아서 운동하기(weekend soldier)”를 하였을 때 건강상의 보상과 비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소결

현재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보건정책들은 격렬한 활동이나 가벼운 활동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지침을 두고 있다. 실제 운동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격렬한 활동은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가벼운 활동은 일주일에 5번 60분 이상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권고 지침의 핵심은 규칙적으로, 그리고 빈도 높게 신체활동을 수행할 것을 강조한다. 평소에 이러한 신체활동을 할 수 없다면, 계단걷기, 대중교통 이용하기와 같이 일상적인 활동량을 늘림으로써, 가벼운 활동이나 격렬한 활동을 하지 못하는 부족분을 채울 것을 강조한다.

이 연구에서 신체활동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생활시간자료는 매일 반복되는 활동을 포착하는데 있어 상당히 효과적인 조사법으로 알려져 있다. 하루 24시간의 일지를 분석하기 때문에 기존에 설문에서 알아보지 못하는 24시간의 배분 방법과 노동, 수면, 섭식 등 다양한 활동들 그 속에서 신체활동량이 어떻게 확보되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는 “운동시간이 어느정도 됩니까?”로 묻는 것 보다 평소에 이루어지는 운동 이외의 다른 신체활동의 영역들(e.g. 일한 시간, 가사노동시간, 이동시간)에서 나타나는 신체활동의 수준까지 고려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MET score를 생활시간일지와 접목하고자 한 노력 역시, 구조화된 운동시간 이외에 어느 정도의 신체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또한 운동시간이 24시간 가운데 언제, 어떻게 배분되고, 어떤 활동들과 함께 조우되는지 알아볼 수 있다는 점도 MET score를 활용하는 또 다른 장점 중 하나이다.

이 연구 결과, 행위자 비율 면에서 가벼운 활동과 격렬한 활동을 포함하는 신체활동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격렬한 활동의 행위자 비율이 매우 낮은 하루 평균 1%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가벼운 활동 역시 행위자 비율은 10% 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역시 일상적으로 관찰되는 활동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운동과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30대의 경우 비교적 규칙적인 운동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운동과 관련된 빈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지 않았고, 오히려 중년층의 신체활동 행위자 비율이 20-30대 보다 높았다. 생활시간자료가 규칙적 행동을 매우 잘 포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가벼운 활동이나 격렬한 활동의 수행빈도 자체가 전체 연령으로 볼 때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중년층의 경우 그 빈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주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가끔 한번 씩 신체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제 행위시간 차원으로 보면, 한번 신체활동이 이루어지면 비교적 장시간 신체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격렬한 활동의 경우 평균 120분 이상, 가벼운 신체활동의 경우 평균 90분 정도 활동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한번 신체활동을 수행하면, 몰아서 길게 운동을 하는 경향이다. 즉, 평상시 규칙적인 운동을 수행할 수 없지만, 운동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주말에 몰아서 운동하면서 일주일에 할당된 신체활동량을 채우고 있는 행태는 “자주 규칙적으로 운동할 것”을 권고하는 기존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이것이 어떠한 건강상 결과물을 초래할지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더욱이 이러한 신체활동의 양이 성별, 연령, 그리고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체계적인 차이가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건강관련 문제들이 어떤 집단에서 불거져 나올지 문제제기를 던져준다. 가령, 낮은 소득계층의 경우 신체활동량이나 유산소운동이 적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발현이 예측되고, 신체활동을 많이 하는 수행하는 중장년기 층에서는 관절염, 근육파일, 골절과 같은 외과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가시간에 주로 어떤 활동을 많이 하고, 그것은 에너지 소모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탐색하는 것과 함께, 과연 생활시간자료가 MET score를 적용할 때 유용한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비록 비노동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을 중심으로 MET에 따른 활동구분을 시도하였고, 각 신체활동유형의 비중을 알아보았다. 실제 MET score 목록에서는 가사노동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상적 활동도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고, 이동시간에 이루어지는 에너지 소모수준 역시 구체적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가시간에서의 MET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 이상 이제 하루 24시간 전체를 두고 에너지 소모 수준을 살펴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이동시간의 경우 이동수단별 에너지 소모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섭취시간의 경우 동시행동까지 포함하여 에너지 섭취시간을 별도로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 강도에 따라 에너지 소모량은 매우 다를 수 있다. 가령, 사무직의 경우 주로 앉아서 일하지만, 단순노무직이나 일용직 그리고 판매업의 경우 노동 강도, 일하는 중에 이루어지는 이동시간 등이 직군별로 매우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하루 24시간동안 이루어지는 MET score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활시간자료에 나타난 행위자 비율과 행위시간을 이용하되, 각 직군별 노동시간에 대한 에너지 소모량을 알아보는 별도의 면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차승은)

X. 기혼취업자의 일-생활 균형

일-생활의 균형을 개념적으로 접근할 때, 현재 일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고 있는가, 사회의 각 구성원이 시장노동(market work)과 보살핌 노동(care work)을 적절한 수준에서 수행하고 때로는 거부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공선희, 2008 ; 장지연, 2005 - 송혜림, 2010:12 재인용), 한 개인이 일과 가정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일과 가정 양자에 쏟아야 하는 시간, 감정, 필요한 행동 등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정도(Hill, Hawkins, Ferris and Weitzman, 2001 - 김종길·김광석·백유성, 2009 :2 재인용),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모두 잘 해내고 있다고 느끼는 상태 혹은 직장과 가정 일을 조화롭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김태홍,2008:1), 주된 삶의 영역인 가정과 직장에서 시간의 균형(노동시간과 가족시간의 균형), 몰입(정서)의 균형(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정서적 몰입측면에서의 균형), 만족의 균형(가정생활의 만족과 직장생활의 만족사이의 균형)이 달성되는 정도(윤대혁, 2008 - 송혜림, 2010:12 재인용)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주요 생활영역에 대한 절대적인 시간의 배분이 일-생활의 균형상태를 분석할 때 유용한 틀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시간 자원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분석함에 있어 분석의 대상은 취업자에 집중된다. 기본적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은 취업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업노동 그리고 가족원 돌봄을 포함한 가사노동 및 여가, 개인유지시간과 같은 영역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배분하고 있는가를 통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은 상호 간 경합 상태에 있는 경쟁재로서, 하루에 주어진 24시간을 직업노동 그리고 가사노동에 어떻게 분배하는가에 따라 일과 생활의 균형 상태를 볼 수 있다. 즉, 절대적인 시간 상의 균형은 일 그리고 가정에 배분하는 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고, 따라서 어느 정도 절대적인 시간량에서의 균등함이 확보될 때 균형이나 조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영역에 시간을 많이 배분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에 투입되는 시간량 자체는 감소될 수 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제로섬(Zero-Sum)의 원리가 일-생활 균형에 적용될 수 있다(송혜림, 2012). 즉, 직업노동시간이 많으면 그만큼 가사노동시간은 줄어들며, 반대로 가사노동시간이 많은 경우 상대적으로 직업노동에 투입되는 시간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생활영역에 배분된 시간량 그리고 이 시간량을 중심으로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를 분석하는 방법이 일-생활의 균형 상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일-생활 균형을 분석할 때 취업자 중에서도 기혼자에 주목하는데, 기혼자의 경우 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투입하는 가사노동 그리고 돌봄노동의 부담이 크므로 일과 가정의 갈등이나 불균형을 경험할 소지가 크고, 그런 면에서 이들 집단의 일-생활 균형 상태를 봄으

로써 현실적인 문제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에 기반하여 정책적 제안을 보다 명료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

나아가,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분석함에 있어서, 기존에 직업노동과 가사노동에 주목하여 일-가정 양립의 상태에 관심을 두던 경향에서 더 나아가, 직업노동과 가사노동 뿐 아니라 여가 및 개인생활 등을 다 포함하여 보다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일-생활의 균형/조화와 관련하여, 김정운 등(2005)은 일과 일 이외의 영역(가정생활, 여가생활, 개인의 성장 및 자기개발) 등에 시간과 심리적·신체적 에너지를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삶에 대해 만족스러워 하는 상태(심지양, 2010 : 6 재인용), 남녀노소 누구나가 일과 가정생활, 지역생활, 자기개발 등 다양한 활동에 있어서 스스로가 희망 하는 형태로 균형을 맞추어 전개할 수 있는 상태(천진아, 2008:5), 가족 관련 책임과 직장 책임과의 양립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여가, 훈련, 사회참여(봉사)의 제반영역과 유급노동의 균형을 맞추는 것(최은영, 2008:18 - 홍찬숙, 2011, 364 재인용) 등으로 규정된다. 특히 비근무일을 분석대상으로 할 때에는 여가와 개인유지활동에 대한 시간 투입량을 포함시켜 분석해야 일-생활의 균형 상태를 다각도로 판단할 수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집단의 경우, 근무일은 취업노동이 이루어지는 날로서 이 날의 일-가사노동-여가-개인유지 시간의 배분이 일-생활의 균형을 측정하는 기본 자료가 되지만, 비근무일은 통례적으로 직장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여가와 개인유지활동, 가사노동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근무일에 직업노동 외에 어떤 활동을 얼마나 수행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요소들, 예를 들어 성별이나 직종별, 직장휴무, 미취학자녀 등에 따라 시간 배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봄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일-생활 균형을 분석함에 있어 근무일과 비근무일을 포함하고자 하며, 유급노동과 가사노동 외에 여가와 개인유지활동에 대한 시간배분 자료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본 장에서는 시간자원의 배분을 통해 기혼취업자의 일-생활 균형 상태를 분석함에 있어서 유급노동⁶⁾과 가사노동⁷⁾에 대한 시간배분을 중심으로 여기에 여가시간 그리고 개인유지시간(이하 생활필수시간으로 명명함)⁸⁾을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일-생활 조화의 실태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후 회귀분석을 통하여 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군집분석을 통해 일-생활 균형의 상태를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집단의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6) 여기에서 유급노동은 노동시간과 출퇴근시간, 일 관련 이동시간을 포함

7) 여기에서 가사노동은 가족돌봄, 가정관리/구매/서비스, 이와 관련된 이동시간을 포함. 이하 표나 그래프에서는 가독성을 위해 가사노동이라고 표기함

8) 여기에서 개인유지는 수면, 식사 및 간식, 개인 건강관리, 기타 개인유지 및 개인유지 관련 이동을 포함. 생명유지를 위한 필수시간이라는 점에서 이 장에서는 개인유지를 생활필수 용어를 병기함

시간사용을 통하여 일-생활 균형 실태를 파악하고 일-생활 균형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제안을 탐구하기 위하여 20~60대 기혼자(유배우, 이혼, 사별)로서 18세미만의 자녀가 있고 비농가에서 주 35시간 이상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는 문제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일-생활의 균형이 일상의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시간일지는 근무일 7,419부, 비근무일 2,881부로 총 10,300부이었다. 성별로 나누어보면 남성이 62.0%로 여성보다 많고 연령별로는 30~40대가 약 9할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은 200~300만원미만 집단이 약 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직업의 경우 근무일과 비근무일에 따라 약간 차이를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낮고 나머지 직업군이 비교적 골고루 분포하였다. 정기휴일은 조사대상일에 따라 상당히 다른 분포를 보였다. 근무일과 비근무일 모두 '일주일에 2일'인 비율이 가장 높은 점은 동일하나 근무일의 경우 45.7%인데 비하여 비근무일의 경우 그 비율이 62.7%로 높아졌다. '1주일에 1일'의 정기휴일을 갖는 경우는 근무일 여부와 관계없이 두 번째 높은 비율을 보이는 점은 동일하나 근무일의 경우 27.0%인데 비하여 비근무일의 경우 16.2%로 낮아졌다. 전체적으로 맞벌이가 65.1%, 한부모가 3.8%,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가 38.6%를 보였다.

<표 10-1> 분석대상자료의 일반적 특성

(단위: n, %)

변수	구분	전체 (10,300)		
			근무일(7,419)	비근무일(2,881)
성별	남	6,382(62.0)	4,730(63.8)	1,652(57.3)
	여	3,918(38.0)	2,689(36.2)	1,229(42.7)
연령	20	236(2.3)	183(2.5)	53(1.8)
	30	3,608(35.0)	2,520(34.0)	1,088(37.8)
	40	5,472(53.1)	3,967(53.5)	1,505(52.2)
	50	892(8.7)	677(9.1)	215(7.5)
	60	92(0.9)	72(1.0)	20(0.7)
교육수준 ⁹⁾	중졸이하	372(3.6)	294(4.0)	78(2.7)
	고졸이하	4,068(39.5)	3,058(41.2)	1,010(35.1)
	대졸이하	5,222(50.7)	3,642(49.1)	1,580(54.8)
	대학원이상	638(6.2)	425(5.7)	213(7.4)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146(11.1)	767(10.3)	379(13.2)
	100-200만원미만	2,432(23.6)	1,788(24.1)	644(22.4)
	200-300만원미만	2,682(26.0)	1,984(26.7)	698(24.2)
	300-400만원미만	1,954(19.0)	1,395(18.8)	559(19.4)
	400만원이상	2,086(20.3)	1,485(20.0)	601(20.9)
직업	관리전문직	2,608(25.3)	1,748(23.6)	860(29.9)
	사무직	2,532(24.6)	1,715(23.1)	817(28.4)
	서비스판매직	2,262(22.0)	1,737(23.4)	525(18.2)
	기능직	2,032(19.7)	1,560(21.0)	472(16.4)
	단순노무직	866(8.4)	659(8.9)	207(7.2)
종사상 지위	상용종사자	6,408(62.2)	4,526(61.0)	1,882(65.3)
	임시근로자	922(9.0)	610(8.2)	312(10.8)
	일용근로자	502(4.9)	359(4.8)	143(5.0)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970(9.4)	760(10.2)	210(7.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222(11.9)	938(12.6)	284(9.9)
	무급가족종사자	276(2.7)	226(3.0)	50(1.7)
정기휴일	1주일에 1일	2,470(24.0)	2,004(27.0)	466(16.2)
	1주일에 1일&토요일격주	710(6.9)	540(7.3)	170(5.9)
	일주일에 2일	5,198(50.5)	3,391(45.7)	1,807(62.7)
	2주마다 1일	276(2.7)	245(3.3)	31(1.1)
	수시로섬	1,208(11.7)	876(11.8)	332(11.5)
	기타	438(4.3)	363(4.9)	75(2.6)
성역할 태도 ¹⁰⁾	전통적	3,750(36.4)	2,768(37.3)	982(34.1)
	근대적	6,550(63.6)	4,651(62.7)	1,899(65.9)
가족형태	한부모	392(3.8)	300(4.0)	92(3.2)
	양부모	9908(96.2)	7119(96.0)	2789(96.8)
맞벌이 여부	맞벌이	6,710(65.1)	4,755(64.1)	1,955(67.9)
	외벌이	3,590(34.9)	2,664(35.9)	926(32.1)
미취학 유무	유미취학	3,972(38.6)	2,813(37.9)	1,159(40.2)
	무미취학	6,328(61.4)	4,606(62.1)	1,722(59.8)

9) 설계서 및 코드집에서 교육정도와 수학여부를 합산하여 형성하였음.(중졸이하 : 11-15, 21-25, 32-35/ 고졸이하 : 31, 42-45, 52-55/ 대졸이하 : 41, 51, 62-65/ 대학원이상 : 61, 71-75)

1. 시간배분 실태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기혼취업자의 일-생활 조화 상태를 하루 중 시간배분과 관련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유급노동, 가사노동, 총노동(일+가사노동), 여가, 생활필수로 나누어 활동별 시간사용을 분석하였다. 시간배분을 분석할 때 일반적으로 평일/주말 또는 평일/토요일/일요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경향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근무일과 비근무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취업자의 시간사용은 요일 자체보다 근무여부가 더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있다. 오늘날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면서 주말에도 일하거나 부업을 하는 취업자가 증가하여 2014년 생활시간조사대상의 경우만 하더라도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무일인 경우가 각각 49.4%, 23.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근무일과 비근무일을 분석하는 것이 취업자의 일-생활 균형 상태를 탐색함에 있어 더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성인취업자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근무일과 비근무일로 나누어 실태를 파악한 후 이러한 시간배분이 성별 및 연령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기로 한다.

1) 시간배분실태

<표 10-2> 유자녀 기혼취업자의 시간배분 (단위: 분/하루)

	근무일		비근무일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유급노동	533	149	21	74
가사노동	91	111	230	174
총노동	624	123	251	180
여가	178	102	421	175
생활필수	638	87	768	124

18세 미만 자녀를 둔 기혼 취업자의 일-생활 균형을 시간의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해 하루 1440분의 시간을 유급노동, 가사노동, 여가, 생활필수활동에 어떻게 배분하는지 살펴보았다. 실태분석을 위해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먼저 근무일을 기준으로 보면 유급노동을 하는 시간이 533분으로 하루의 37.0%를 차지하고 가사노동시간은 91분으로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가사를 포함한 총노동시간은 624분(43.3%)이고, 여가시간은 178분(12.4%), 생활필수시간 638분(44.3%)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취업자의 경우 근무일에는 평균 약 9시간을 수입노동

10) 설계서 및 코드집에서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에서 형성함(전통적 : 적극 찬성, 약간 찬성/ 근대적 : 적극 반대, 약간 반대)

에 사용하고 자녀돌봄을 포함한 가사노동에는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만을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비근무일의 경우 유급노동을 하는 시간이 평균 21분이고 가사노동시간은 근무일보다 2.5배 많은 230분으로 총노동시간은 251분(17.4%)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과 생활필수시간은 근무일보다 각각 2.3배, 1.2배 많은 421분, 768분이었다. 근무일보다 감소한 유급노동시간 512분이 여가(243분)로 가장 많이 배분되고 가사노동(139분), 생활필수활동(130분) 순으로 배분된 것을 알 수 있다. 시간의 비율로 볼 때 비근무일의 생활필수시간은 53.3%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여가가 29.2%이며, 가사노동은 16.0%이다.

근무일을 기준으로 볼 때 18세 미만 자녀를 가진 취업자가 일평균 9시간 정도 유급노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근로자의 장시간노동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연간 2,124시간(2014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1,770시간보다 354시간이 더 많다. 하루는 24시간이라는 기본적인 제약을 갖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근로자의 장시간 유급노동이 가사 및 여가에 사용할 시간을 제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당 총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을 수 없다. 그러나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기 때문에(2015년 11월 현재) 실제의 주당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취업자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분석대상(5,150부) 중 주당노동시간이 현행 근로기준법 52시간을 초과하는 비율이 29.9%(1,541부)로 약 3할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장시간노동을 하는 집단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시간배분의 차이

(1) 성별 차이

(가) 근무일

근무일을 기준으로 성별 시간배분을 보면 분류된 모든 활동영역에서 남녀간 차이를 보였다. 유급노동시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106분 많으나 가사노동시간은 여성이 151분 더 많아 총노동시간은 여성이 44분 더 많고 여가시간과 생활필수시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각각 29분, 16분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유급노동은 더 적게 하지만 가사노동을 더 많이 부담함으로써 여가뿐만 아니라 생활필수시간에서도 남성에 비하여 열악한

상황에 있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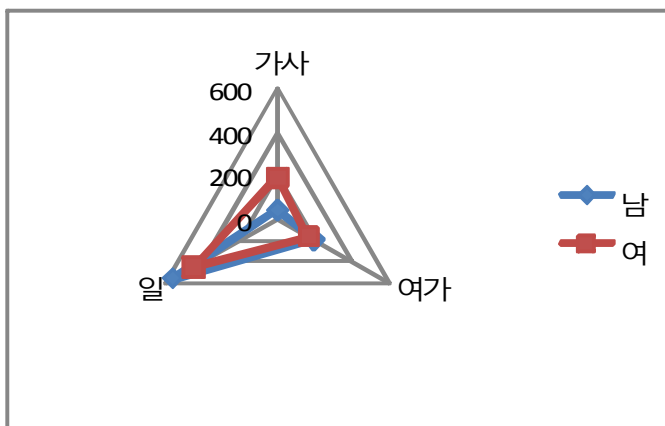
<표 10-3> 성별 시간배분의 차이(근무일)

	남 (n=4730)	여 (n=2689)	격차(남-여)	t 값
유급노동	558	452	106	30.5 ***
가사	41	192	151	-62.7 ***
총노동	600	644	44	-15.2 ***
여가	194	165	29	11.7 ***
생활필수	646	630	16	7.7 ***

(단위: 분/하루)

*** p<.001

일-가사-여가를 중심으로 남녀의 시간배분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0-1>과 같다. 남성이 여성에 비교하여 일하는 시간이 많은데 비하여 가사노동시간은 그 차이보다 더 많게 적은 점을 시각적으로 나타낸다.



[그림 10-1] 일-가사-여가시간의 성별 비교(근무일) (단위: 분/하루)

(나) 비근무일

비근무일에도 모든 영역의 시간배분에서 성별 차이를 보였다. 비근무일에는 유급노동시간이 남녀 모두 적고 따라서 남성의 유급노동시간이 여성보다 더 많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가사노동시간은 남녀 모두 근무일보다 많아졌다. 남성의 경우 가사노동시간이 156분으로 근무일(41분)에 비해 3.8배 많아졌으나 시간으로 보면 333분인 여성의 반에 미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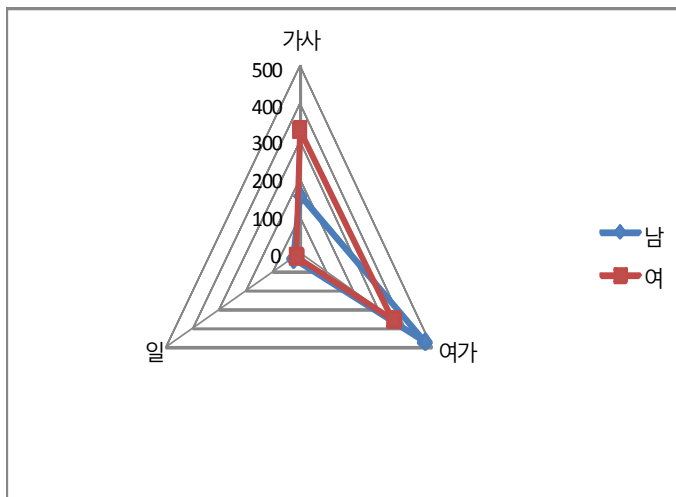
못하는 46.8%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총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는 근무일(44분)의 3.8배에 해당하는 165분으로 증가하였다. 여가 및 생활필수시간의 성별 차이도 근무일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자의 시간배분이 근무일, 비근무일을 불구하고 성별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근무일에 비하여 비근무일의 차이가 더욱 큰 점을 나타낸다.

<표 10-4> 성별 시간배분의 차이(비근무일) (단위: 분/하루)

	남 (n=1652)	여 (n=1229)	격차 (남-여)	t 값
유급노동	25	13	12	4.7 ***
가사노동	156	333	177	-31.5 ***
총노동	181	346	165	-27.9 ***
여가	470	351	119	19.4 ***
생활필수	789	742	47	10.5 ***

* p<.05, ** p<.01, *** p<.001

일, 가사, 여가시간의 성별 비교를 나타내는 그림에서도 유급노동에 비하여 가사노동 및 여가시간의 차이가 큰 점이 두드러진다.



[그림 10-2] 일-가사-여가시간의 성별 비교(비근무일) (단위: 분/하루)

우리나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특별히 적은 점은 국제비교에서도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남성의 일평균 가사노동시간은 45분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9분의 1/3 수준이다. OECD의 평균가사노동시간은 남성(139분)이 여성

(274분)의 50.7%인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45분)은 여성(227분)의 19.8%로 약1/5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여성에 비하여 현격하게 적은 점과 함께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도 OECD 평균보다 일평균 가사노동시간이 47분이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가사노동시간이 OECD 평균보다 많이 적다고 할 수 있다.

(2) 연령별 차이

(가) 근무일

성별에 따른 시간배분의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하여 먼저 성별로 나눈 후 연령에 따른 차이를 분석해 보면 남성의 경우 생활필수시간을 제외한 모든 활동시간이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여성의 경우 생활필수시간에서도 연령별 차이를 보였다.

먼저 남성을 보면 유급노동의 경우 20대부터 50대까지는 집단 간 차이가 없고 이들 집단과 60대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여 60대집단이 다른 집단들에 비하여 유급노동시간이 적었다. 가사노동시간의 경우에는 20대와 30대 사이에는 차이가 없고, 40대, 50대, 60대 사이에도 차이가 없으며, 30대 이하 집단과 40대 이상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유급노동과 가사노동에 있어서의 연령별 차이에 따라 총노동시간과 여가시간에 있어서는 차이가 20~30대, 40~50대, 60대의 세 집단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연령별 차이가 남성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유급노동에 있어서는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20대와 가장 많은 40대 사이에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사노동에서는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40대와 50대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여가에서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20~30대, 40~50대, 60대의 세 집단 사이에 차이를 보였다. 생활필수시간의 경우 남성은 집단간 차이가 없었으나 여성은 20대, 40대, 50대보다 60대가 유의한 수준으로 더 많았으며, 30대는 다른 집단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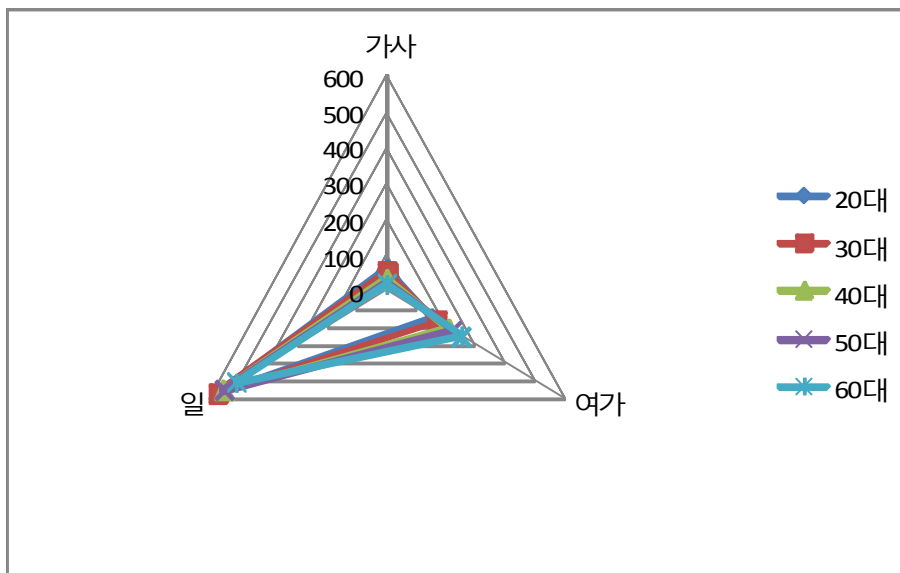
성별로 구분하여 연령별 시간배분의 차이를 분석할 결과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연령에 따른 차이가 많은 경향을 보이고, 성별 구분 없이 20대와 30대의 가사부담이 크며, 그 결과 이들의 여가시간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적은 점을 알 수 있다.

<표 10-5> 연령별 시간배분의 차이(근무일) (단위: 분/하루)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F값
		(n=111)	(n=1624)	(n=2453)	(n=507)	(n=35)	
남성 (n=4730)	유급노동	566 b	571 b	552 b	551 b	509 a	6.0 ***
	가사노동	63 b	55 b	35 a	25 a	21 a	40.4 ***
	총노동	629 c	626 c	587 b	576 b	529 a	32.0 ***
	여가	152 a	169 a	206 b	220 b	252 c	46.4 ***
	생활필수	659	645	647	644	659	.9
여성 (n=2689)	유급노동	423 a	431 ab	463 ab	474 b	438 ab	8.7 ***
	가사노동	257 d	226 c	175 b	160 b	124 a	42.2 ***
	총노동	680 c	657 bc	638 b	634 b	562 a	10.5 ***
	여가	134 a	143 a	177 b	180 b	224 c	24.4 ***
	생활필수	627 a	640 ab	625 a	627 a	654 b	5.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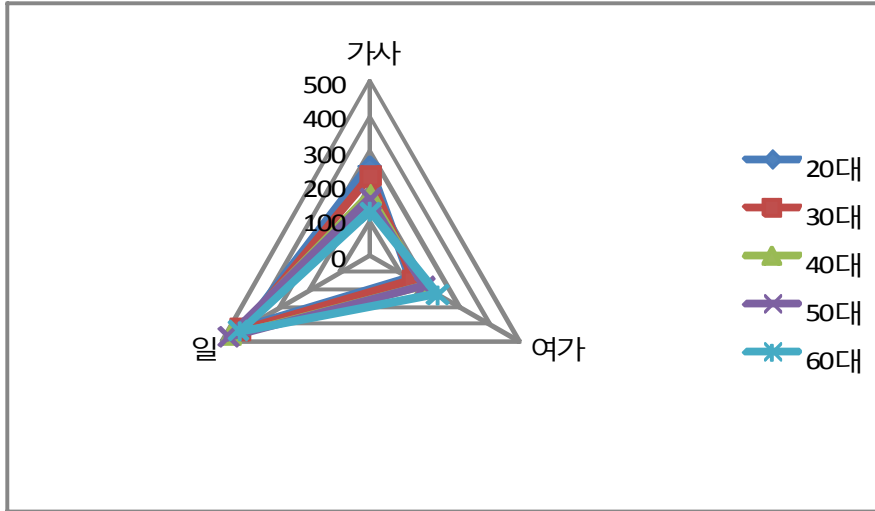
** p<.01, *** p<.001

이러한 성별에 따른 연령별 차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0-3] 일-가사-여가시간의 연령별 비교(남성, 근무일)

(단위: 분/하루)



[그림 10-4] 일-가사-여가시간의 연령별 비교(여성, 근무일) (단위: 분/하루)

(나) 비근무일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비근무일의 연령별 시간배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은 모든 영역의 시간에 연령별 차이를 보였고 여성은 유급노동을 제외한 영역에서 연령별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 유급노동시간은 근무일과 마찬가지로 50대 이하 집단과 60대 집단 사이에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60대의 경우 비근무일의 유급노동시간이 122분으로 다른 연령대의 2~40분에 비교하여 특별히 많은 점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시간은 근무일과 마찬가지로 20대와 30대 사이에는 차이가 없고, 40대 이상의 세 집단 사이에도 차이가 없으며 30대 이하가 40대 이상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여가시간은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많은 30대가 가장 적었으며, 이들 집단은 여가시간이 많은 40대, 50대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총노동시간과 생활필수시간은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집단간 사후검증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성의 비근무일 유급노동시간은 연령집단에 따라 평균 1~15분의 분포를 보이며 연령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사노동의 경우 연령대에 따라 시간량이 상당히 다르다. 20대가 420분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대가 360분으로 많으나 이들 두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며, 40대와 50대의 가사노동시간은 30대에 비하여 50분 정도 감소하는데 이들 집단과 30대의 가사노동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20대와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60대는 252분으로 20대보다 168분, 30대보다 108분 적으며 각각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비근무일의 경우 유급노동시간이 적기 때문에 가사노동시간의 차이가

총노동시간의 차이로 거의 연결되었다. 여가는 20대와 30대가 적고, 50대와 60대가 많아 30대 이하집단과 50대 이상 집단 사이에 차이를 보였다. 생활필수시간은 ANOVA 분석에서는 연령별 차이를 보였으나 Duncan의 사후검증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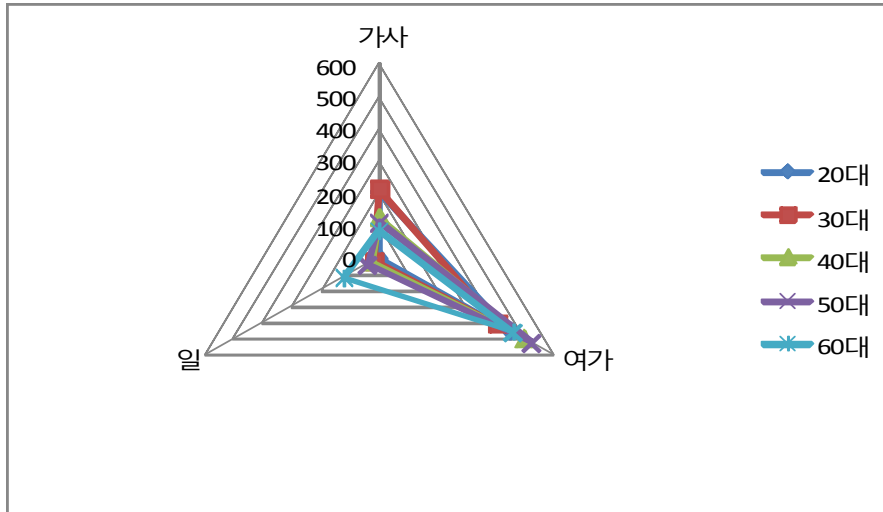
<표 10-6> 연령별 시간배분의 차이(비근무일)

(단위: 분/하루)

		20대 (n=21)	30대 (n=570)	40대 (n=885)	50대 (n=165)	60대 (n=11)	F값
남성 (n=1652)	유급노동	2 a	18 a	26 a	40 a	122 b	6.0 ***
	가사	206 b	214 b	126 a	111 a	86 a	42.0 ***
	총노동	208	232	152	151	208	25.1 ***
	여가	452 ab	409 a	500 b	525 b	460 ab	31.3 ***
	생활필수	780	799	788	764	772	2.6 *
		20대 (n=32)	30대 (n=518)	40대 (n=620)	50대 (n=50)	60대 (n=9)	F값
여성 (n=1229)	유급노동	1	12	15	10	2	1.1
	가사	420 c	360 bc	310 ab	311 ab	252 a	11.0 ***
	총노동	421 c	371 bc	325 ab	321 ab	254 a	9.3 ***
	여가	308 a	313 a	379 ab	406 b	447 b	16.2 ***
	생활필수	712	755	735	713	739	3.8 **

* p<.05,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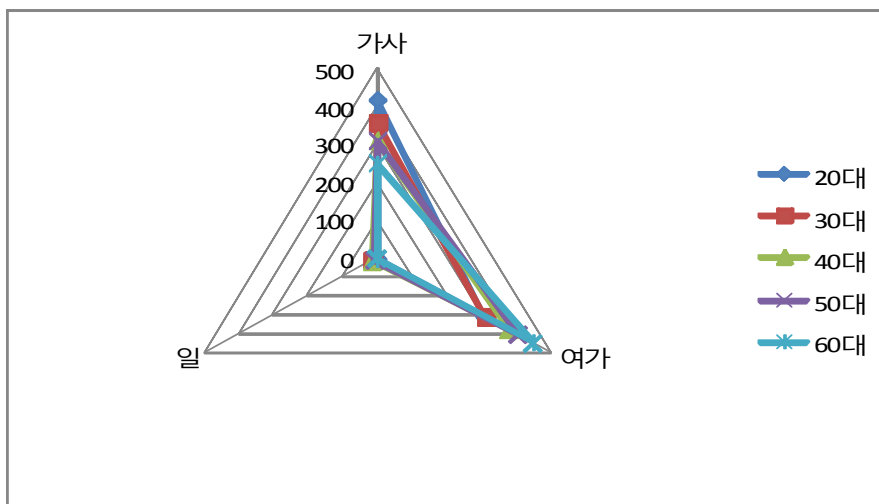
남성의 시간배분을 그림으로 표시할 때도 30대의 가사노동과 60대의 유급노동이 특히 많은 점이 두드러져 보였다.



[그림 10-5] 일-가사-여가시간의 연령별 비교(남성, 비근무일)

(단위: 분/하루)

여성의 그림에서는 20대와 30대의 가사노동시간이 많고 60대와 50대의 여가시간이 많은 점이 두드러져 보였다.



[그림 10-6] 일-가사-여가시간의 연령별 비교(여성, 비근무일)

(단위: 분/하루)

2. 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근무일과 비근무일로 나누어 유급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과 생활필수시간을 각각 종속변수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소득, 직업, 종사상지위, 정기휴일, 성역할태도, 가족형태(한부모/양부모), 맞벌이여부, 미취학자녀유무를 독립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근무일

분석에 포함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이 시간배분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력(R^2)을 기준으로 볼 때 가사노동시간이 이들 변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으며(adjusted $R^2=49.7\%$) 다음으로 유급노동시간(19.2%)과 여가(9.9%)가 영향을 받으며 생활필수시간(2.3%)은 이들 변수의 영향력이 매우 낮았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이 큰 가사노동시간에는 분석에 포함된 요인 중 가족형태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beta=.53$)로서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노동을 123분 많이 하며,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월평균소득($\beta=.18$)으로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집단에 비하여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집단이 일평균 65분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하며,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미취학자녀유무($\beta=.13$)로서 자녀가 있을 경우 가사노동시간이 일평균 31분 증가하였다.

유급노동시간은 연령, 성역할태도, 맞벌이여부, 미취학자녀유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급노동시간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beta=-.22$)이고 그 다음이 월평균소득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이 69분 적었고, 월평균소득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집단과 비교할 때 100만원 미만의 집단은 99분 더 적게 일하고 400만원 이상인 집단은 34분 더 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급노동시간에는 직업, 종사상지위, 정기휴일 등 노동관련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비하여 가족관련변수 중에서는 가족형태만 영향을 미쳐 양부모보다 한부모가 일평균 40분 유급노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가시간에 대해서는 분석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낮아 이들 변수들이 10% 미만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성별($\beta=-.19$)과 미취학자녀유무($\beta=-.16$)의 영향력이 다른 변수들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생활필수시간에 대해서는 연령, 성역할태도, 미취학유무 외의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관련 변수들의 영향력이 2.3%로 매우 낮아 생활필수시간은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는 점에 일차적 의의가 있는 활동이 주를 이루는 만큼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표 10-7> 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근무일)

구 분		유급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생활필수시간	
		B	β	B	β	B	β	B	β
상수항		591.68***		70.98***		124.35***		652.98***	
성별 (기준:남성)	여성	-68.75	-.22 ***	123.36	.53 ***	-41.18	-.19 ***	-13.43	-.07 ***
연령	연속변수	-.11	-.01	-1.33	-.08 ***	1.71	.11 ***	-.28	-.02
교육수준 (기준: 고졸)	중졸	20.28	.03 *	-17.28	-.03 **	-14.68	-.03 *	11.67	.03 *
	전문대 및 대졸	-12.79	-.04 **	10.85	.05 ***	2.66	.01	-.71	-.00
	대학원이상	-9.81	-.02	4.35	.01	2.85	.01	2.60	.01
월평균소득 (기준:100~200만원미만)	100만원미만	-99.46	-.20 ***	65.46	.18 ***	41.88	.12 ***	-7.89	-.03
	200~300만원미만	24.29	.07 ***	-8.77	-.04 **	-11.78	-.05 **	-3.74	-.02
	300~400만원미만	19.48	.05 ***	-9.49	-.03 **	-8.10	-.03 *	-1.88	-.01
	400만원이상	34.04	.09 ***	-16.36	-.06 ***	-8.41	-.03 *	-9.27	-.04 *
직업 (기준: 사무직)	관리전문직	-12.05	-.03 *	9.82	.04 **	10.89	.04 **	-8.66	-.04 **
	서비스판매직	11.25	.03 *	-4.73	-.02	-1.29	-.01	-5.24	-.03
	기능직	9.58	.03	-.38	-.00	.55	.00	-9.76	-.05 **
	단순노무직	3.76	.01	9.42	.02 *	-1.77	-.01	-11.42	-.04 *
종사상지위 (기준: 상용종사자)	임시근로자	-43.88	-.08 ***	20.90	.05 ***	14.34	.04 **	8.64	.03 *
	일용근로자	-24.53	-.04 **	11.74	.02 *	.46	.00	12.32	.03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48.31	-.10 ***	13.35	.04 ***	8.98	.03 *	25.98	.09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3.67	-.10 ***	16.83	.05 ***	12.06	.04 **	14.78	.06 ***
정기휴일 (기준: 일주일에 2일)	무급가족종사자	1.65	.00	-4.06	-.01	-12.40	-.02	14.82	.03 *
	1주일에 1일	9.52	.03 *	-10.14	-.04 ***	-3.71	-.02	4.32	.02
	1주일에 1일&토요일격주	-3.74	-.01	-3.88	-.01	-1.90	-.01	9.52	.03 *
	2주마다 1일	36.51	.04 ***	-21.98	-.04 ***	-3.56	-.01	-10.97	-.02
성역할태도	수시로침	-24.38	-.05 ***	3.09	.01	16.64	.05 ***	4.65	.02
	기타	33.96	.05 ***	2.17	.00	-11.94	-.03 *	-24.19	-.06 ***
가족형태 (기준:한부모)	연속변수	.92	.01	4.06	.03 **	-4.26	-.04 **	-.72	-.01
맞벌이여부 (기준:외벌이)	양부모	-39.70	-.05 ***	-3.74	-.01	31.37	.06 ***	12.07	.03 *
맞벌이여부 (기준:외벌이)	맞벌이	5.05	.02	11.94	.05 ***	-10.49	-.05 ***	-6.51	-.04 **
미취학유무 (기준:무미취학)	유미취학	-.19	-.00	31.01	.13 ***	-34.80	-.16 ***	3.98	.02
F값		66.18***		272.64***		31.07***		7.58***	
Adj. R ²		.192		.497		.099		.023	

* p<.05, **p<.01, *** p<.001

이상에서 활동영역별 시간에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관련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각 변수가 유급노동, 가사노동, 여가 및 생활필수활동에 대한 시간배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특징적인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성별을 보면, 남성에 비하여 여성은 가사노동에 123분을 더 사용하고 그 대신 유급노동, 여가, 생활필수활동에 각각 69분, 41분, 13분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여가시간이 증가하나 그 양은 각각 1분과 2분으로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른 영향력을 고졸집단을 기준으로 분석할 때 중졸집단은 유급노동을 20분 더 많이 하고, 가사노동을 17분 더 적게 하고 여가를 15분 더 적게 가지며 생활필수시간은 12분 더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졸집단에 비하여 전문대 이상의 대졸집단은 유급노동을 13분 더 적게 하는 대신 가사노동을 11분 더 많이 하며,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은 시간배분에 있어 고졸집단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과 관련된 변수들 중 먼저 월평균소득을 보면 전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유급노동시간은 많아지고 가사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은 적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직업의 종류로 볼 때 사무직과 비교하여 관리전문직이 유급노동시간과 생활필수시간은 더 적고 가사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은 더 많았다. 종사상의 지위에 있어 상용종사자에 비하여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가 유급노동시간이 더 적고 가사노동시간과 생활필수시간은 더 많았다. 정기휴일은 주휴2일을 갖는 취업자보다 1주일에 1일 또는 2주일에 1일의 휴일을 갖는 취업자가 유급노동은 더 많이 하고 가사노동은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밝혀져 휴일제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성역할태도는 근대적일수록 가사노동시간이 많고 여가시간이 적었다. 한부모에 비하여 양부모의 유급노동시간이 적고 여가시간과 생활필수시간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취업자는 일 때문에 여가시간이 적을 뿐 아니라 생활필수시간까지 적은 점에 비추어 일-생활 균형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맞벌이 취업자의 경우 외벌이보다 가사노동시간은 많고 여가시간과 생활필수시간은 적었으며, 미취학자녀를 가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가사노동시간이 31분 많은 대신 여가시간은 35분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2) 비근무일

분석에 포함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이 시간배분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력을 기준으로 볼 때 비근무일에도 가사노동시간이 이들 변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점은 동일하나 설명력(Adjusted R²=33.8%)은 근무일에 비하여 15.9%p 감소하였다. 가사노동시간 다음으로 설명력이 높은 시간은 여가시간으로 근무일에 비하여 1.9배가 증가한 19.3%의 설명력을 보였다. 생활필수시간의 설명력은 근무일보다 2.4배 증가하였으나 설명력은 5.6%로 낮으며,

유급노동시간의 경우 근무일의 19.3%에 불과한 3.7%로 네 영역의 시간 중 가장 낮았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이 큰 가사노동시간의 경우 근무일에는 분석에 포함된 변수 중 가족형태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비근무일에는 가족형태 외에 월평균소득, 종사상지위, 성역할태도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맞벌이여부의 영향력은 반대의 방향으로 밝혀졌다. 근무일의 경우 맞벌이에 비하여 외벌이의 가사노동시간이 적었으나 비근무일의 경우 맞벌이에 비하여 외벌이의 가사노동시간이 더 많았다. 가사노동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성별인 점은 근무일과 동일하고,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181분으로 근무일보다 58분 더 확대되었다.

여가시간에 대해서는 근무일의 경우 분석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비근무일에는 월평균소득, 종사상지위, 성역할태도, 가족형태, 맞벌이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비근무일의 여가시간에 대한 이들 변수의 영향력은 근무일에 비하여 2배 가량 증가한 점에서 비록 관련변수는 적더라도 그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생활필수시간에 대해서는 근무일의 경우 연령, 성역할태도, 미취학자녀유무 외의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비근무일의 경우 연령이 영향을 미쳐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성역할태도와 미취학자녀유무 외에 교육수준, 월평균소득, 가족형태와 맞벌이여부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급노동시간은 성별, 연령, 직업, 정기휴일의 영향을 받고 근무일에 영향을 미쳤던 교육수준, 월평균소득, 종사상지위, 가족형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근무일과 비교할 때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도 전반적으로 감소한 경향을 보이는 한편 직업에 있어서 사무직보다 관리전문직의 유급노동시간이 많은 점이 근무일과 반대의 방향인 점이 특이하다. 즉 근무일에는 사무직에 비하여 관리전문직의 일시간이 12분 적었으나 비근무일에는 오히려 14분 더 많았다.

<표 10-8> 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비근무일)

구 분		유급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생활필수시간	
		B	β	B	β	B	β	B	β
상수항		-26.01		214.41***		347.88***		903.72***	
성별 (기준:남성)	여성	-14.30	-.10 ***	181.14	.52 ***	-126.33	-.36 ***	-40.51	-.17 ***
연령	연속변수	1.12	.10 ***	-2.12	-.08 ***	3.04	.11 ***	-2.04	-.11 ***
교육수준 (기준: 고졸)	중졸	-.51	-.00	6.93	.01	-26.85	-.03	20.42	.03
	전문대 및 대졸	-1.33	-.01	26.12	.08 ***	-15.59	-.04 *	-9.20	-.04
	대학원이상	8.22	.03	41.66	.06 **	-34.56	-.05 *	-15.33	-.03
월평균소득 (기준:100~200만원미만)	100만원미만	-3.79	-.02	9.97	.02	2.74	.01	-8.91	-.03
	200~300만원미만	-1.17	-.01	-6.49	-.02	4.25	.01	3.41	.01
	300~400만원미만	2.54	.01	-14.22	-.03	7.46	.02	4.23	.01
	400만원이상	8.32	.05	-11.59	-.03	8.26	.02	-4.99	-.02
직업 (기준: 사무직)	관리전문직	14.10	.09 ***	-20.10	-.05 **	25.12	.07 **	-19.13	-.07 **
	서비스판매직	-1.36	-.01	2.69	.01	-.96	-.00	-.37	-.00
	기능직	-3.48	-.02	-3.99	-.01	7.44	.02	.03	.00
	단순노무직	-7.04	-.03	-15.18	-.02	14.59	.02	7.63	.02
종사상지위 (기준: 상용종사자)	임시근로자	1.93	.01	1.05	.00	15.37	.03	-18.35	-.05 *
	일용근로자	4.73	.01	-4.76	-.01	22.36	.03	-22.33	-.0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9.51	-.03	4.87	.01	-9.25	-.01	13.89	.0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6.61	.03	-12.54	-.02	18.88	.03	-12.94	-.03
	무급가족종사자	6.48	.01	-9.93	-.01	16.70	.01	-13.25	-.01
정기휴일 (기준: 일주일에 2일)	1주일에 1일	-3.12	-.02	-16.97	-.04 *	9.67	.02	10.42	.03
	1주일에 1일&토요일격주	-9.10	-.03	-20.46	-.03	32.85	.04 *	-3.29	-.01
	2주마다 1일	7.29	.01	-31.28	-.02	4.54	.00	19.45	.02
	수시로심	11.16	.05 *	6.18	.01	-14.85	-.03	-2.49	-.01
	기타	43.54	.10 ***	34.88	.03 *	-50.27	-.05 **	-28.16	-.04 *
성역활태도	연속변수	.76	.01	4.00	.02	-1.07	-.01	-3.69	-.03
가족형태 (기준:한부모)	양부모	-8.98	-.02	-.98	-.00	20.52	.02	-10.57	-.02
맞벌이여부 (기준:외벌이)	맞벌이	6.39	.04	-16.88	-.05 *	5.39	.01	5.11	.02
미취학유무 (기준:무미취학)	유미취학	4.93	.03	67.23	.19 ***	-67.57	-.19 ***	-4.59	-.02
F값		5.07***		55.57***		26.58***		7.27***	
Adj. R ²		.037		.338		.193		.056	

* p<.05, **p<.01, *** p<.001

다음으로 각 변수가 유급노동, 가사노동, 여가 및 생활필수활동에 대한 시간배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특징적인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비근무일에도 성별 영향이 크게 두드러진다. 남성에 비하여 여성은 가사노동에 181분을 더 사용하고 그 대신 여가시간을 126분 더 적게 가지며 생활필수시간, 유급노동시간도 각각 41분, 14분 더 적었다. 비근무일에는 연령이 모든 활동영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여가시간이 증가하나 그 양은 각각 2분과 3분으로 적은 점은 근무일과 유사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하고 생활필수시간이 감소하는 영향은 근무일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근무일의 경우 대학원 이상이 고졸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비근무일에는 고졸에 비해 대학원 이상이 가사노동을 42분 더 많이 하고 여가는 35분 더 적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관련된 변수들 중 월평균소득은 어떠한 영역의 활동시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직업에 있어서는 사무직에 비하여 관리전문직이 유급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은 더 많고 가사노동시간과 생활필수시간은 더 적은 점이 두드러졌다. 종사상지위에서는 상용종사자에 비하여 임시근로자의 생활필수시간이 18분 더 적은 점 외에는 다른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성역할태도는 비근무일 시간배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고, 가족형태는 근무일에는 모든 영역의 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쳤으나 비근무일에는 어떠한 영역의 시간배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근무일에는 맞벌의 경우 외벌이보다 가사노동시간이 더 많고 여가시간과 생활필수시간은 적었으나 근무일에는 외벌이보다 맞벌이의 가사노동시간만 더 많았다. 미취학자녀를 가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가사노동시간이 67분 많은 대신 여가시간은 68분 적은 것으로 나타나 근무일보다 비근무일에 미취학자녀의 유무가 가사노동시간과 여가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알 수 있다.

3. 일-생활 균형 유형과 유형별 특징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일-생활 균형 실태에 이어, 군집분석을 통한 유형화 작업을 통해 각 유형의 일-생활 균형의 상태를 제시하고자 한다. 군집분석은 규모가 큰 자료를 분석할 때 그 유사성 정도에 따라 그룹화하고 각 집단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전체 자료의 구조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용한 통계방식이다. 따라서 기혼취업자의 일-생활 균형상태를 분석함에 있어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의 네 가지 생활영역에 대한 시간투입을 기준으로 근무일 그리고 비근무일의 자료를 군집분석하였다.

근무일의 경우 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날이므로 직업노동시간에의 배분이 나타나는 날이기 때문에 일-생활의 균형 상태를 분석하는 직접적 대상이 된다. 비근무일의 경우 직업노

동시간의 배분이 일어날 확률은 많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직업노동 외의 시간, 즉 가사노동이나 여가 그리고 생활필수에 배분되는 시간을 통해 대상 집단들이 일하지 않는 날 어떤 방식으로 생활시간을 사용하는지 그 유형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특성들을 분석할 수 있다.

1) 근무일

(1) 기혼취업자의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에 대한 시간배분의 유형

근무일에 조사대상자들의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에 투입한 시간을 군집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0-9> 기혼취업자의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 유형별 빈도 및 표준화 점수(근무일)

(단위: 분/하루)

유형	시간(평균)	유급노동 (520)	가사노동 (96)	여가 (184)	생활필수 (641)	점수부호
	빈도수(%)					
1	2930(39.5)	530	83	147	680	+ - - +
2	1407(19.0)	421	52	334	634	- - + -
3	1118(15.1)	314	299	187	640	- + + -
4	1964(26.5)	692	33	129	586	+ - - -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1유형은 유급노동과 생활필수에 투입되는 시간이 평균보다 다소 높으면서 가사노동과 여가에 투입되는 시간은 평균보다 낮은 집단이다. 따라서 1유형은 일-생활필수 병행형으로 명명할 수 있다. 그에 비해 2유형은 유급노동이나 가사, 생활필수시간은 평균보다 적으나 여가시간은 평균보다 훨씬 높은 집단으로, 여가 집중형으로 명명할 수 있다. 3유형은 유급노동시간이 평균보다 훨씬 낮고 가사노동시간은 평균보다 훨씬 높은 집단인데, 여가시간도 평균보다 많으나 그 차이가 3분이므로 크게 차이하지 않아, 가사노동 집중형이라고 할 수 있다. 4유형은 가사노동과 여가 그리고 생활필수에 투입되는 시간은 평균보다 낮은 반면 유급노동시간은 평균보다 높아 일 집중형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그림 10-7] 기혼취업자의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 시간배분의 유형(근무일) (단위: %)

(2) 기혼취업자의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 배분의 유형별 특성

위의 분석에서 기혼취업자가 유급노동과 가사노동, 여가, 생활필수에 투입한 시간의 배분을 기준으로 총 네 개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제 각 유형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직업, 종사상 지위, 정기휴일 유무, 성역할태도, 한부모 여부, 맞벌이 유무 그리고 미취학 자녀 유무를 변수로 하여 카이제곱(χ^2) 검증¹¹⁾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분석에 투입된 모든 변수, 즉 성별·연령·학력·월평균소득·직업·종사상 지위·정기휴일·성역할태도·한부모여부·맞벌이유무·미취학자녀유무는 네 가지 시간배분 유형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주요 결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 일-생활필수 병행형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나, 그 다음이 남성은 일 집중형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가사노동 집중형으로 나타나, 성별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즉, 미성년 자녀를 두고 직장생활을 하는 남성과 여성의 경우 근무일의 생활시간 배분 형태의 1순위는 일-필수유지 병행형으로, 유급노동에 종사하면서 필수적인 생활유지활동을 병행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그 다음 순위로 일 집중형이, 여성은 가사노동 집중형이 나타나, 남성은 일에 대한 몰입도가 큰 반면, 여성은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카이 검증은 특정 속성에 대하여 집단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통계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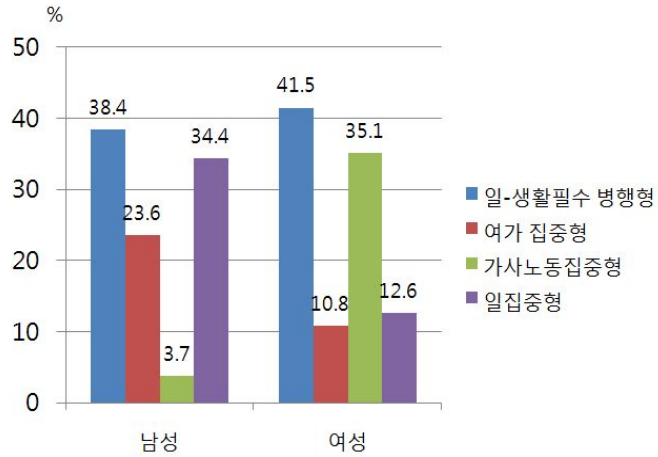
<표10-10> 기혼취업집단의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 시간배분 유형별 특징 (근무일)

(단위: 분/하루)

변수		군집	일-생활필수 병행형	여가 집중형	가사노동 집중형	일 집중형	전체	X2
성별	남		1814(38.4)	1117(23.6)	173(3.7)	1626(34.4)	4730(100)	1588.9 ***
	여		1116(41.5)	290(10.8)	945(35.1)	338(12.6)	2689(100)	
연령	20		80(43.7)	14(7.7)	41(22.4)	48(26.2)	183(100)	194.3 ***
	30		1013(40.2)	321(12.7)	484(19.2)	702(27.9)	2520(100)	
	40		1568(39.5)	867(21.9)	529(13.3)	1003(25.3)	3967(100)	
	50		251(37.1)	176(26.0)	54(8.0)	196(29.0)	677(100)	
	60		18(25.0)	29(40.3)	10(13.9)	15(20.8)	72(100)	
교육 수준	중졸이하		113(38.4)	49(16.7)	46(15.6)	86(29.3)	294(100)	23.6 **
	고졸이하		1243(40.6)	590(19.3)	460(15.0)	765(25.0)	3058(100)	
	대졸이하		1408(38.7)	671(18.4)	574(15.8)	989(27.2)	3642(100)	
	대학원이상		166(39.1)	97(22.8)	38(8.9)	124(29.2)	425(100)	
월평균 소득 (단위: 만원)	100미만		173(22.6)	125(16.3)	408(53.2)	61(8.0)	767(100)	1319.1 ***
	100-200미만		808(45.2)	276(15.4)	365(20.4)	339(19.0)	1788(100)	
	200-300미만		844(42.5)	350(17.6)	174(8.8)	616(31.0)	1984(100)	
	300-400미만		580(41.6)	295(21.1)	99(7.1)	421(30.2)	1395(100)	
	400이상		525(35.4)	361(24.3)	72(4.8)	527(35.5)	1485(100)	
직업	관리전문직		675(38.6)	335(19.2)	334(19.1)	404(23.1)	1748(100)	301.5 ***
	사무직		717(41.8)	283(16.5)	221(12.9)	494(28.8)	1715(100)	
	서비스판매직		664(38.2)	347(20.0)	303(17.4)	423(24.4)	1737(100)	
	기능직		641(41.1)	335(21.5)	70(4.5)	514(32.9)	1560(100)	
	단순노무직		233(35.4)	107(16.2)	190(28.8)	129(19.6)	659(100)	
종사상 지위	상용종사자		1898(41.9)	803(17.7)	430(9.5)	1395(30.8)	4526(100)	697.8 ***
	임시근로자		202(33.1)	89(14.6)	234(38.4)	85(13.9)	610(100)	
	일용근로자		132(36.8)	59(16.4)	106(29.5)	62(17.3)	359(100)	
	고용원이있는 자영업자		291(38.3)	208(27.4)	73(9.6)	188(24.7)	760(100)	
	고용원이없는 자영업자		345(36.8)	214(22.8)	173(18.4)	206(22.0)	938(100)	
정기 휴일	1주일에 1일		845(42.2)	393(19.6)	211(10.5)	555(27.7)	2004(100)	171.0 ***
	1주일에1일 &토요일격주		240(44.4)	102(18.9)	63(11.7)	135(25.0)	540(100)	
	일주일에 2일		1366(40.3)	588(17.3)	547(16.1)	890(26.2)	3391(100)	
	2주마다 1일		94(38.4)	44(18.0)	24(9.8)	83(33.9)	245(100)	
	수시로쉽		278(31.7)	213(24.3)	213(24.3)	172(19.6)	876(100)	
	기타		107(29.5)	67(18.5)	60(16.5)	129(35.5)	363(100)	
성역할 태도	연속변수		2.81 b	2.63 a	3.06 c	2.66 a	2.77	71.3 ***
한부모 양부모	한부모		134(44.7)	37(12.3)	50(16.7)	79(26.3)	300(100)	9.9 *
	양부모		2796(39.3)	1370(19.2)	1068(15.0)	1885(26.5)	7119(100)	
맞벌이 유무	맞벌이		1876(39.5)	840(17.7)	942(19.8)	1097(23.1)	4755(100)	267.2 ***
	외벌이		1054(39.6)	567(21.3)	176(6.6)	867(32.5)	2664(100)	
미취학 유무	유미취학		1167(41.5)	349(12.4)	473(16.8)	824(29.3)	2813(100)	130.1 ***
	무미취학		1763(38.3)	1058(23.0)	645(14.0)	1140(24.8)	4606(100)	

* p<.05, ** p<.01, *** p<.001

특히 가사노동 집중형에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 차이가 매우 큼



[그림 10-8] 기혼취업자의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 시간배분 유형의 성별 특징(근무일)
(단위: %)

연령 변수의 경우, 20대부터 50대까지는 일-생활필수 병행형에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 반면, 60대의 경우 여가 집중형이 1순위로 나왔다. 종사상 지위에 있어서 상용 종사자, 일용 근로자, 고용원이 있는/없는 자영업자 등은 일-생활필수 병행형이 1순위로 나온 반면, 임시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집단에서는 가사노동 집중형이 1순위로 나와, 종사상 지위로 인한 생활시간 배분 유형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일과 생활의 균형 상태를 분석할 때 맞벌이 인가 아닌가와 관련하여 성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맞벌이 유무를 구분하여 유형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여성의 경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10-11> 여성의 맞벌이 유무에 따른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 유형 (근무일)

(단위: n, %)

변수		군집	일-생활필수 병행형	여가 집중형	가사노동 집중형	일 집중형	전체	X2
맞벌이 유무	맞벌이	맞벌이	962(41.4)	238(10.3)	855(36.8)	266(11.5)	2321(100)	34.9 ***
	외벌이	외벌이	154(41.8)	52(14.1)	90(24.5)	72(19.6)	368(100)	

* p<.05, ** p<.01, *** p<.001

여성의 경우, 맞벌이와 외벌이 모두 일-생활필수 병행형이 1순위로, 그 다음 가사노동 집중형>일 집중형>여가 집중형의 순으로 나왔다. 이러한 공통점은 있으나 비율에 있어 차이

를 보이는데, 외벌이 집단의 경우 일 집중형에서 나타난 비율이 맞벌이 집단보다 높으며, 가사노동 집중형에서 맞벌이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외벌이 집단보다 높다. 이러한 결과는 외벌이 집단의 경우 일을 통한 소득 확보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맞벌이의 경우 일을 하면서도 가사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취업여성의 일상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시간과 관련된 주관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네 가지 유형의 시간부족감, 시간피곤함 정도, 삶의 만족도, 가사분담 만족도, 시간활용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집단 간 분석을 위해 ANOVA 통계방법을 적용한 결과 아래 표와 같다.

<표 10-12>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 시간배분 유형별 시간부족감, 시간피곤함, 삶의 만족도, 가사분담 만족도, 시간활용만족도 (근무일) (단위: 평균)

변수	유형		일-생활필수 병행형		여가 집중형		가사노동 집중형		일 집중형		F값
	유형	병행형	여가 집중형	가사노동 집중형	일 집중형						
시간부족감	3.23	c	2.96	a	3.08	b	3.40	d	106.5	***	
피곤함정도	3.32	c	3.20	a	3.25	b	3.46	d	63.2	***	
삶만족도	3.19	b	3.26	c	3.30	c	3.12	a	11.3	***	
가사분담만족도	3.37	b	3.38	b	3.21	a	3.46	c	11.8	***	
시간활용만족도	3.14	b	3.19	b	3.18	b	3.01	a	18.5	***	

* p<.05, ** p<.01, *** p<.001

주) 시간부족감 : 점수가 높을수록 부족
 피곤함정도 : 점수가 높을수록 피곤함
 삶만족도 :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
 가사분담만족도 :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
 시간활용만족도 :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

여가집중형의 경우 시간부족감과 시간피곤함 정도가 가장 낮고, 일 집중형은 시간부족감과 시간피곤함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 집중형의 경우 삶의 만족도와 시간활용만족도가 가장 낮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일집중형의 경우 전체 집단의 평균 유급노동시간인 520분보다 172분 더 많은 692분을 유급노동에 할애하는 집단이다. 즉 전체집단의 평균보다 3시간 가량 더 일을 많이 하는 집단으로 하루 평균 11시간 32분 정도를 유급노동에 할애하는 장시간 노동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시간부족감과 시간피곤함 그리고 낮은 삶의 만족도와 시간활용만족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비근무일

(1) 기혼취업자의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에 대한 시간배분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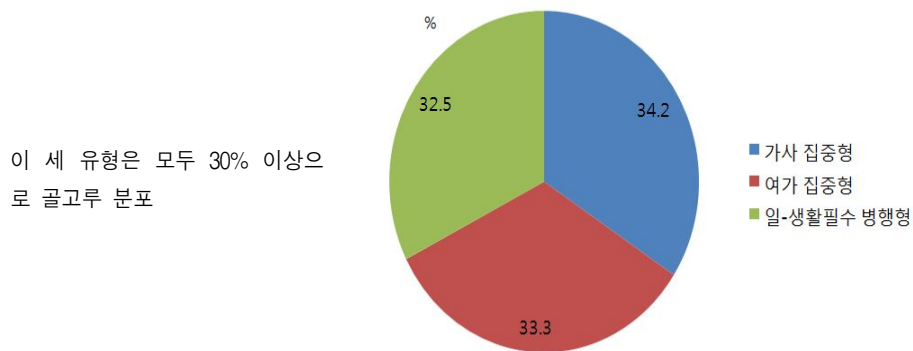
비근무일 기혼취업자의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에 대한 시간배분의 유형을 군집분석한 결과 총 세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표 10-13> 기혼취업자의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 유형별 빈도 및 표준화 점수
(비근무일)

(단위: 분/하루)

유형	시간(평균)	유급노동 (20)	가사노동 (232)	여가 (420)	생활필수 (769)	점수부호
	빈도수(%)					
1	984(34.2)	13	428	272	727	- + - -
2	960(33.3)	9	99	615	717	- - + -
3	937(32.5)	38	162	374	867	+ - - +

첫 번째 유형은 여가시간이 평균보다 매우 적은 반면 가사노동 시간은 매우 높은 집단으로, 가사 집중형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가사노동시간은 평균보다 매우 적은 반면 여가시간은 평균보다 훨씬 긴 집단으로, 여가 집중형이라 명명할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비근무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시간이 평균보다 길고, 가사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은 평균보다 짧은 반면 생활필수시간은 평균보다 길어, 일-생활필수 병행형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그림 10-9] 기혼취업자의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 시간배분의 유형(비근무일) (단위: %)

(2) 기혼취업자의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 배분의 유형별 특성

위의 분석에서 비근무일에 기혼취업자가 유급노동과 가사노동, 여가, 생활필수에 투입한 시간의 배분을 기준으로 세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각 유형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직업, 종사상 지위, 정기휴일 유무, 성역할태도, 한부모 여부, 맞벌이 유무 그리고 미취학 자녀 유무를 변수로 하여 카이제곱(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와 같다.

<표 10-14> 기혼취업집단의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 시간배분 유형별 특징 (비근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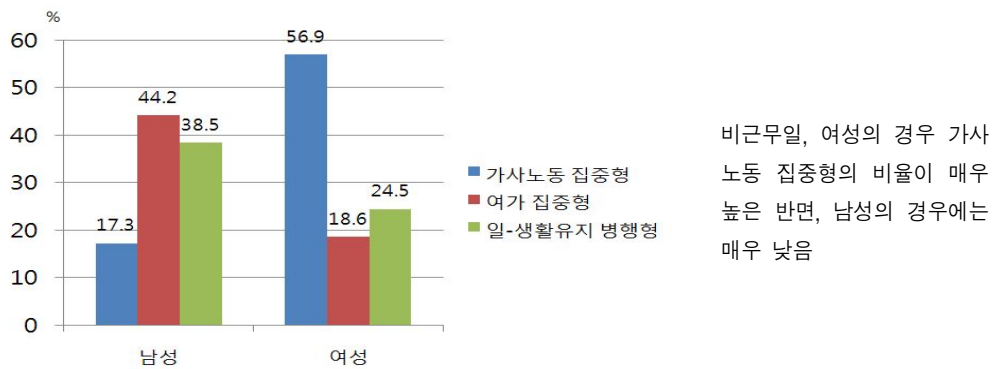
(단위: n, %)

변수		군집	가사노동 집중형	여가 집중형	일-생활필수 병행형	전체	X2
성별	남		285(17.3)	731(44.2)	636(38.5)	1652(100)	505.2 ***
	여		699(56.9)	229(18.6)	301(24.5)	1229(100)	
연령	20		30(56.6)	13(24.5)	10(18.9)	53(100)	182.0 ***
	30		480(44.1)	220(20.2)	388(35.7)	1088(100)	
	40		426(28.3)	605(40.2)	474(31.5)	1505(100)	
	50		44(20.5)	114(53.0)	57(26.5)	215(100)	
	60		4(20.0)	8(40.0)	8(40.0)	20(100)	
교육수준	중졸이하		24(30.8)	29(37.2)	25(32.1)	78(100)	9.5
	고졸이하		314(31.1)	363(35.9)	333(33.0)	1010(100)	
	대졸이하		574(36.3)	500(31.6)	506(32.0)	1580(100)	
	대학원이상		72(33.8)	68(31.9)	73(34.3)	213(100)	
월평균 소득 (단위: 만원)	100미만		201(53.0)	80(21.1)	98(25.9)	379(100)	206.8 ***
	100-200미만		308(47.8)	152(23.6)	184(28.6)	644(100)	
	200-300미만		224(32.1)	245(35.1)	229(32.8)	698(100)	
	300-400미만		127(22.7)	218(39.0)	214(38.3)	559(100)	
	400이상		124(20.6)	265(44.1)	212(35.3)	601(100)	
직업	관리전문		322(37.4)	285(33.1)	253(29.4)	860(100)	56.3 ***
	사무		285(34.9)	250(30.6)	282(34.5)	817(100)	
	서비스판매 기능		205(39.0)	156(29.7)	164(31.2)	525(100)	
	단순노무		96(20.3)	199(42.2)	177(37.5)	472(100)	
	단순노무		76(36.7)	70(33.8)	61(29.5)	207(100)	
종사상 지위	상용종사자		595(31.6)	648(34.4)	639(34.0)	1882(100)	78.9 ***
	임시근로자		164(52.6)	72(23.1)	76(24.4)	312(100)	
	일용근로자		55(38.5)	47(32.9)	41(28.7)	143(100)	
	고용원이있는 자영업자		51(24.3)	82(39.0)	77(36.7)	210(100)	
	고용원이없는 자영업자		90(31.7)	104(36.6)	90(31.7)	284(100)	
	무급가족 종사자		29(58.0)	7(14.0)	14(28.0)	50(100)	
정기 휴일	1주일에 1일		127(27.3)	175(37.6)	164(35.2)	466(100)	28.0 **
	1주일에 1일 &토요일격주		47(27.6)	74(43.5)	49(28.8)	170(100)	
	일주일에 2일		636(35.2)	577(31.9)	594(32.9)	1807(100)	
	2주마다 1일		11(35.5)	10(32.3)	10(32.3)	31(100)	
	수시로침		135(40.7)	104(31.3)	93(28.0)	332(100)	
	기타		28(37.3)	20(26.7)	27(36.0)	75(100)	
성역할 태도	연속변수		3.02 c	2.71 a	2.81 b	2.85	33.4 ***
한부모 양부모	한부모		36(39.1)	27(29.3)	29(31.5)	92(100)	1.2
	양부모		948(34.0)	933(33.5)	908(32.6)	2789(100)	
맞벌이 유무	맞벌이		755(38.6)	591(30.2)	609(31.2)	1955(100)	56.5 ***
	외벌이		229(24.7)	369(39.8)	328(35.4)	926(100)	
미취학 유무	유미취학		492(42.5)	260(22.4)	407(35.1)	1159(100)	112.1 ***
	무미취학		492(28.6)	700(40.7)	530(30.8)	1722(100)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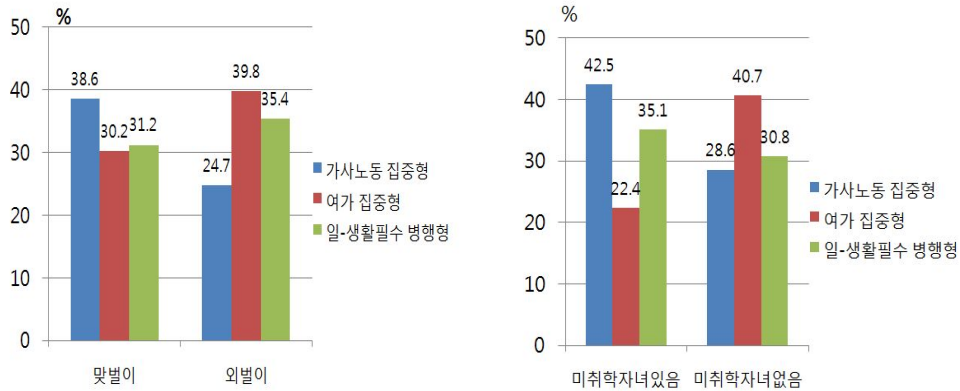
한부모 여부를 제외하고, 근무일과 마찬가지로 모든 변수에 따라 각 유형 모두에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성별을 보면, 여성의 경우 가사 집중형이 56.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일-생활필수 병행형, 여가 집중형의 순으로 나왔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여가 집중형이 44.2%로 가장 높고 일-생활필수 병행형, 가사 집중형의 순서로 나왔다. 이는 비근무일 생활시간영역의 배분에서 성별 차이가 매우 명확하게 드러난 것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 근무일에는 일과 생활필수를 병행하는 형태가 가장 많고 비근무일에는 남성은 여가 집중형 그리고 여성은 가사 집중형으로 구분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취업여성의 경우 유급노동과 가사노동을 합한 총노동시간이 남성보다 길어지는 결과와도 맞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근무하지 않는 날의 가사노동 부담을 함께 분석할 수 있다.



[그림 10-10] 기혼취업자집단의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 시간 배분 유형의 성별 특징 (비근무일) (단위: %)

연령의 경우, 30대와 40대는 가사집중형이 1순위로 나온 반면, 40대 이후는 여가 집중형이 1순위로 나와, 삼사십대가 비근무일 가사노동의 부담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맞벌이의 경우 가사노동 집중형이, 외벌이의 경우 여가 집중형이 1순위로 나왔고,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가사노동 집중형이, 없는 경우 여가 집중형이 1순위로 나와, 맞벌이 여부와 미취학자녀 유무가 비근무일 생활시간 배분의 형태에 있어 가사노동 혹은 여가에 집중하는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10-11] 기혼취업자집단의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 시간배분 유형의 맞벌이 여부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른 특징(비근무일) (단위: %)

다음으로 여성과 남성의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별도로 분석하였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맞벌이 여부에 따른 유형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남성의 경우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아래 표와 같다.

<표 10-15> 남성의 맞벌이 유무에 따른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 유형 (비근무일)

변수						(단위: n, %)	
		군집	가사노동 집중형	여가 집중형	일-생활필수 병행형	전체	X2
맞벌이 유무	맞벌이		116(13.8)	386(46.0)	338(40.2)	840(100)	14.2 **
	외벌이		169(20.8)	345(42.5)	298(36.7)	812(100)	

* p<.05, ** p<.01, *** p<.001

남성이 맞벌이인가 아닌가에 따라 두 집단 모두 여가집중형이 가장 높은 분포로 나타난 것은 동일하나, 가사집중형에서의 비율에서는 차이가 나서, 맞벌이인 경우보다 외벌이인 경우 가사집중형에서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시간과 관련된 주관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세 가지 유형의 시간부족감, 시간피곤함 정도, 삶의 만족도, 가사분담 만족도, 시간활용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아래 표와 같다.

<표 10-16>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 시간배분 유형별 시간부족감, 시간피곤함, 삶의 만족도, 가사분담 만족도, 시간활용만족도 (비근무일) (단위: 평균)

변수	유형		일-생활필수 병행형		F값	
	가사노동 집중형	여가 집중형	가사노동 집중형	여가 집중형		
시간부족감	3.16	b	3.01	a	3.17 b	13.1 ***
피곤함정도	3.28	b	3.18	a	3.30 b	10.5 ***
삶의 만족도	3.27		3.28		3.25	.3
가사분담만족도	3.28	a	3.38	ab	3.41 b	3.6 *
시간활용만족도	3.20	a	3.40	c	3.29 b	13.2 ***

* p<.05, ** p<.01, *** p<.001

주) 시간부족감 : 점수가 높을수록 부족

피곤함정도 : 점수가 높을수록 피곤함

삶만족도 :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

가사분담만족도 :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

시간활용만족도 :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

삶의 만족도를 제외하고 시간부족감, 시간피곤함, 가사분담만족도, 시간활용만족도에서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여가집중형은 다른 유형보다 시간부족감과 시간피곤함을 가장 덜 느끼고 있다. 가사노동집중형은 일-생활필수 병행형에 비해 가사분담만족도가 낮고, 시간활용만족도는 여가집중형>일-생활필수 병행형>가사노동집중형의 순으로 나와, 여가집중형의 경우 전반적으로 시간과 관련된 주관적인 인식의 긍정적인 경향을 알 수 있다.

4. 사례 분석

앞에서 기혼취업집단이 근무일과 비근무일에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에 투입하는 시간 배분을 통해 일-생활의 균형을 파악하고자 유형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몇 가지 이슈를 포착할 수 있었는데, 먼저 일-생활 균형과 관련되어 성별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취업을 하고 있음에도 기혼여성들은 근무일과 비근무일에 가사노동의 부담을 여전히 갖고 있으며, 특히 비근무일에 남성은 여가집중형이 1순위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가사집중형이 1순위로 나타나, 쉬는 날에 가사노동을 집중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생활의 균형에 대한 논의에서는 젠더관점에서 여성과 남성 간 시간 배분에 있어 불평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장시간 노동은 다른 생활영역에 배분되는 시간의 부족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시간부족감이나 시간피곤감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시간활용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은 여가나 생활필수 등의 차원에서 시간빈곤의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점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는 집단에 대한 더 구체적인 시간사용실태의 분석과 진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 다양한 요인 중에서 특히 미취학 자녀가 있는지의 여부는 근무일과 비근무일 기혼취업자의 생활시간배분 구조와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일-생활 균형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계속 강조되어 온 바, 돌봄의 부담이 가중되는 생활주기에서 일-생활 균형의 문제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미취학 자녀를 둔 집단의 생활시간 사용 실태에 대한 분석이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맥락에 주목하여, 장시간 노동을 하는 집단 그리고 미취학 자녀를 둔 집단을 선정하여, 생활시간 배분상태와 그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장시간 노동 집단의 생활시간 배분과 유형

본 장에서 장시간 노동은 근로기준법상 1주 근로시간 40시간,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금지한 기준에 따라, 1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를 장시간 노동을 하였다고 규정하였다. 다음 표는 주당 52시간 이상 유급노동을 하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시간배분을 나타낸다. 근무일의 유급노동시간이 평균 592분으로 전체 취업자(533분)와 비교할 때 평균 59분 더 많은데 이러한 노동시간 증가는 다른 영역의 시간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가사노동시간이 52분에 불과하여 전체 취업자보다 39분 더 적어 여가(13분)나 생활필수(2분) 시간보다 차이가 큰 점을 알 수 있다.

<표 10-17> 주당 52시간 이상 근로자의 시간배분 실태

(단위: 분/하루)

	근무일		비근무일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유급노동	592	135	23	77
가사노동	52	75	176	153
총노동	644	124	200	167
여가	165	100	444	174
생활필수	631	91	796	129

다음으로 근무일과 비근무일, 장시간 근로 집단의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 배

분시간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1) 근무일

장시간 노동 집단이 근무일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에 사용한 시간량을 중심으로 군집분석을 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세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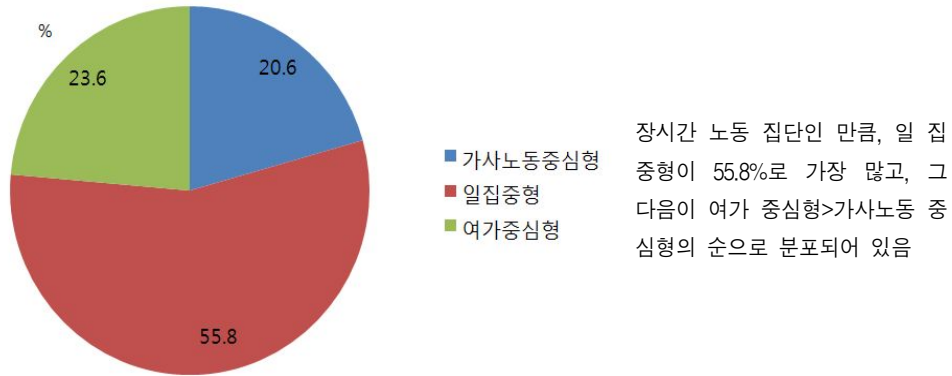
<표10-18>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집단의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에 대한 시간배분의 유형 (근무일)

유형	분(평균)	유급노동 (576)	가사노동 (57)	여가 (171)	생활필수 (636)	점수부호
	빈도수(%)					
1	516(20.6)	477	152	132	679	- + - +
2	1395(55.8)	671	27	129	613	+ - - -
3	591(23.6)	441	46	303	650	- - + +

1유형은 유급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은 전체집단의 평균시간보다 적고, 가사노동시간은 평균시간보다 95분 더 길어 가사노동시간이 전체 유형 중 가장 긴 집단이다. 이 집단의 생활필수시간은 평균시간보다 다소 긴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가사노동 중심형**으로 지칭할 수 있다.

2유형은 유급노동시간이 전체집단의 평균시간보다 1시간 이상 길고 나머지 가사노동, 여가, 생활필수에 배분된 시간은 전체집단의 평균시간보다 적다. 따라서 이 유형은 **일 집중형**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3유형은 유급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이 전체집단의 평균시간보다 적는데, 특히 가사노동시간은 106분 더 적고, 여가시간은 평균시간보다 171분 더 길다. 이 유형의 생활필수시간은 전체집단의 평균시간보다 14분 더 많다. 따라서 이 유형은 **여가 중심형**으로 지칭할 수 있다.



[그림 10-12]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집단의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 생활필수에 대한 시간배분의 유형(근무일) (단위: %)

다음으로, 각 유형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직업, 종사상 지위, 정기휴일 유무, 성역할태도, 한부모 여부, 맞벌이 유무 그리고 미취학 자녀 유무를 변수로 하여 카이제곱(χ^2) 검증¹²⁾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12) 카이 검증은 특정 속성에 대하여 집단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통계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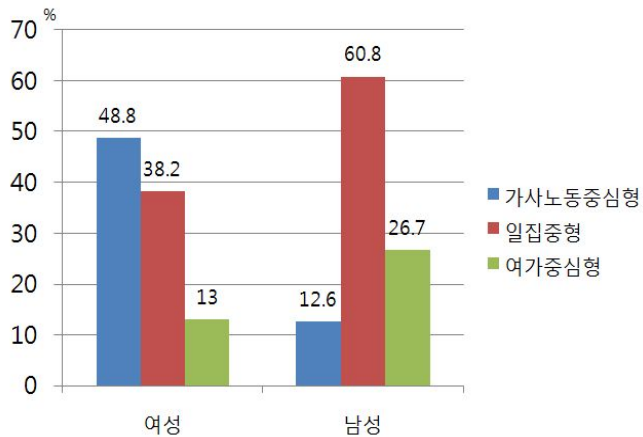
<표 10-19>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집단의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 시간배분
유형별 특징 (근무일) (단위: n, %)

변수		유형별 특징 (근무일)				전체	X2
		군집	가사노동 중심형	일 집중형	여가 중심형		
성별	남		245(12.6)	1183(60.8)	519(26.7)	1947(100)	348.8 ***
	여		271(48.8)	212(38.2)	72(13.0)	555(100)	
연령	20		19(26.8)	41(57.7)	11(15.5)	71(100)	51.9 ***
	30		214(24.5)	510(58.4)	150(17.2)	874(100)	
	40		245(19.1)	687(53.6)	350(27.3)	1282(100)	
	50		34(13.9)	145(59.2)	66(26.9)	245(100)	
	60		4(13.3)	12(40.0)	14(46.7)	30(100)	
교육 수준	중졸이하		30(22.7)	72(54.5)	30(22.7)	132(100)	6.0
	고졸이하		248(21.4)	633(54.6)	278(24.0)	1159(100)	
	대졸이하		226(20.4)	627(56.5)	257(23.2)	1110(100)	
	대학원이상		12(11.9)	63(62.4)	26(25.7)	101(100)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73(52.9)	46(33.3)	19(13.8)	138(100)	161.8 ***
	100-200만원미만		149(29.6)	228(45.3)	126(25.0)	503(100)	
	200-300만원미만		160(19.4)	488(59.3)	175(21.3)	823(100)	
	300-400만원미만		72(14.5)	293(59.1)	131(26.4)	496(100)	
	400만원이상		62(11.4)	340(62.7)	140(25.8)	542(100)	
직업	관리전문직		96(24.1)	204(51.1)	99(24.8)	399(100)	54.6 ***
	사무직		78(17.3)	280(62.2)	92(20.4)	450(100)	
	서비스판매직		208(26.0)	405(50.7)	186(23.3)	799(100)	
	기능직		87(12.9)	409(60.8)	177(26.3)	673(100)	
	단순노무직		47(26.0)	97(53.6)	37(20.4)	181(100)	
종사상 지위	상용종사자		237(17.2)	852(61.8)	289(21.0)	1378(100)	115.5 ***
	임시근로자		34(27.2)	69(55.2)	22(17.6)	125(100)	
	일용근로자		21(25.3)	39(47.0)	23(27.7)	83(100)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73(18.6)	209(53.2)	111(28.2)	393(100)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104(23.7)	199(45.4)	135(30.8)	438(100)	
	무급가족종사자		47(55.3)	27(31.8)	11(12.9)	85(100)	
정기 휴일	1주일에 1일		222(21.3)	573(55.1)	245(23.6)	1040(100)	45.6 ***
	1주일에 1일&토요일격주		41(22.8)	103(57.2)	36(20.0)	180(100)	
	일주일에 2일		84(15.1)	363(65.2)	110(19.7)	557(100)	
	2주마다 1일		37(22.2)	88(52.7)	42(25.1)	167(100)	
	수시로섬		79(25.3)	133(42.6)	100(32.1)	312(100)	
	기타		53(21.5)	135(54.9)	58(23.6)	246(100)	
성역할 태도	연속변수		2.89 b	2.60 a	2.61 a	2.66	23.9 ***
한부모 양부모	한부모		34(33.3)	52(51.0)	16(15.7)	102(100)	11.6 **
	양부모		482(20.1)	1343(56.0)	575(24.0)	2400(100)	
맞벌이 유무	맞벌이		336(23.5)	759(53.1)	334(23.4)	1429(100)	17.7 ***
	외벌이		180(16.8)	636(59.3)	257(24.0)	1073(100)	
미취학 유무	유미취학		239(22.8)	622(59.4)	186(17.8)	1047(100)	34.7 ***
	무미취학		277(19.0)	773(53.1)	405(27.8)	1455(100)	

* p<.05, ** p<.01, *** p<.001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먼저 장시간 근로 집단의 근무일 시간배분 유형에 있어 성별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은 일 집중형이 60.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가사노동 중심형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장시간 노동을 하는 기혼여성의 경우 근무일에 가사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주당 52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를 하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우 근무일에 가사노동 중심형(152분)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근무일 기혼취업여성이 갖는 총노동시간이 매우 길다는 것을 의미, 이는 결과적으로 여가시간의 제약으로 이어져 여가시간 빈곤의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할 것이다.

근무일, 장시간 근로 집단의 생활시간배분 유형에 있어,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중심형이, 남성은 일집중형이 1순위로 나타나, 성별로 명확한 차이를 드러냄



[그림 10-13]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집단의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 시간배분 유형의 성별 특징(근무일) (단위: %)

또한 맞벌이/외벌이 모두 일집중형이 1순위로 나타났고, 맞벌이집단의 경우 가사중심형과 여가중심형이 유사한 비율로 나타난 반면, 외벌이의 경우 여가집중형이 가사중심형보다 더 높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모두 1순위는 일 집중형이며, 미취학자녀가 있는 집단의 경우 그 다음이 가사노동 중심형으로, 미취학자녀가 없는 집단은 여가 중심형으로 나타나, 미취학자녀 여부가 장시간 근로 집단의 근무일 생활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장시간 근로 집단의 근무일 시간 관련 주관적 인식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다.

<표 10-20> 장시간 근로 집단의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 시간배분 유형별 시간부족감, 시간피곤함, 삶의 만족도, 가사분담 만족도, 시간활용만족도 (근무일) (단위: 평균)

변수	유형		일 집중형		여가 중심형		F값
	가사노동 중심형						
시간부족감	3.47	b	3.54	c	3.27	a	35.3 ***
피곤함정도	3.48	b	3.57	c	3.34	a	36.4 ***
삶만족도	3.13	ab	3.05	a	3.16	b	3.7 *
가사분담만족도	3.25	a	3.44	b	3.37	b	5.9 **
시간활용만족도	3.01	ab	2.95	a	3.10	b	6.4 **

* p<.05, ** p<.01, *** p<.001

주) 시간부족감 : 점수가 높을수록 부족

피곤함정도 : 점수가 높을수록 피곤함

삶만족도 :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

가사분담만족도 :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

시간활용만족도 :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

일 집중형의 경우 시간부족감, 시간피곤함 정도가 가장 높고, 삶의 만족도와 시간활용 만족도는 여가 중심형보다 낮게 나타났다. 즉, 여가 중심형은 시간부족감과 시간피곤함 정도가 가장 낮고, 삶의 만족도와 시간활용만족도는 일 집중형보다 더 높다. 이로서 유급노동과 여가 라는 생활영역의 두 축을 중심으로 시간부족감과 피곤함, 삶의 만족도와 시간활용 만족도 등이 유의하게 구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 비근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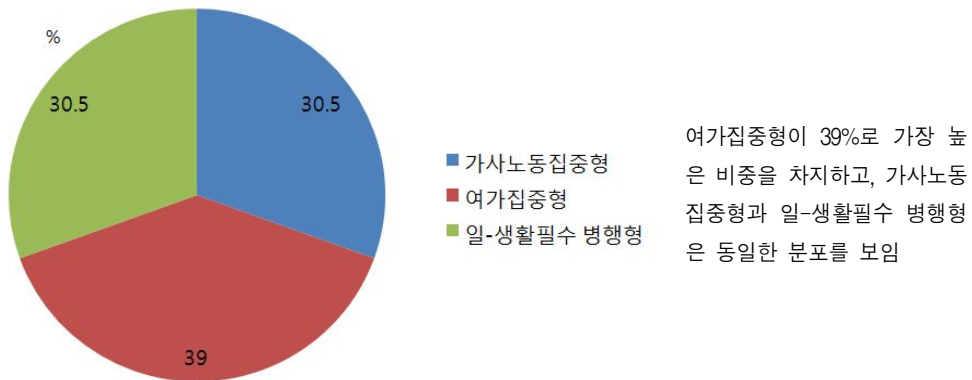
장시간 노동 집단이 비근무일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에 사용한 시간량을 중심으로 군집분석을 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세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표 10-21>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집단의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에 대한 시간배분의 유형 (비근무일)

유형	시간(평균)		유급노동 (23)	가사노동 (183)	여가 (441)	생활필수 (794)	점수부호
	빈도수(%)						
1	177(30.5)		19	381	286	754	- + - -
2	226(39.0)		9	76	612	743	- - + -
3	177(30.5)		44	122	376	898	+ - - +

1유형은 전체집단의 평균과 비교할 때 가사노동시간이 200분 가량 많은 집단으로, 가사노동 집중형이라 명명할 수 있다. 2유형의 특징은 가사노동시간은 매우 적은 반면 여가시

간이 전체집단 평균보다 171분 더 많다는 것이며, 따라서 여가 집중형으로 명명할 수 있다. 3유형은 가사노동과 여가에 투입된 시간은 전체집단의 평균시간보다 적으며, 유급노동시간과 생활필수시간이 전체집단의 평균시간보다 더 많아, 일-생활필수 병행형으로 명명할 수 있다.



[그림 10-14]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집단의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 시간배분의 유형(비근무일) (단위: %)

다음으로, 각 유형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직업, 종사상 지위, 정기휴일 유무, 성역할태도, 한부모 여부, 맞벌이 유무 그리고 미취학 자녀 유무를 변수로 하여 카이제곱(χ^2) 검증¹³⁾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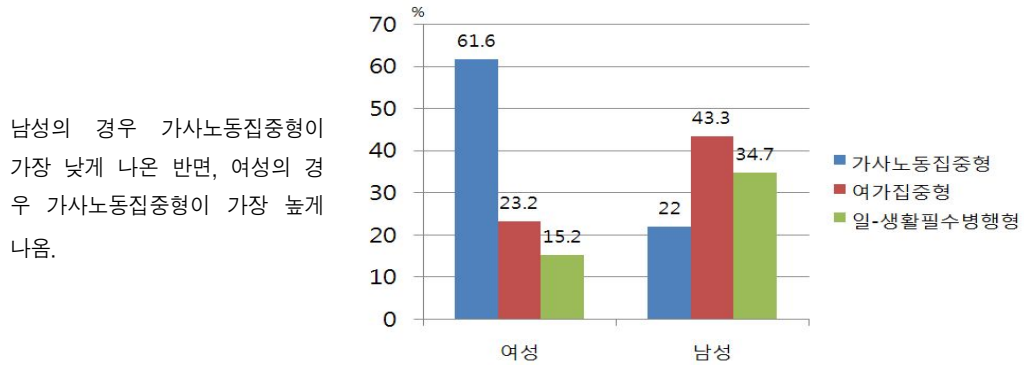
13) 카이 검증은 특정 속성에 대하여 집단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통계방법이다.

<표 10-22>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집단의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 시간배분
유형별 특징 (비근무일) (단위: n, %)

변수		군집			전체	X2
		가사노동 집중형	여가 집중형	일-생활필수 병행형		
성별	남	100(22.0)	197(43.3)	158(34.7)	455(100)	72.9 ***
	여	77(61.6)	29(23.2)	19(15.2)	125(100)	
연령	20	6(54.5)	5(45.5)	0(0.0)	11(100)	38.7 ***
	30	88(39.6)	55(24.8)	79(35.6)	222(100)	
	40	72(24.0)	146(48.7)	82(27.3)	300(100)	
	50	10(23.3)	18(41.9)	15(34.9)	43(100)	
	60	1(25.0)	2(50.0)	1(25.0)	4(100)	
교육 수준	중졸이하	5(22.7)	11(50.0)	6(27.3)	22(100)	3.2
	고졸이하	65(28.1)	91(39.4)	75(32.5)	231(100)	
	대졸이하	95(33.2)	109(38.1)	82(28.7)	286(100)	
	대학원이상	12(29.3)	15(36.6)	14(34.1)	41(100)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5(62.5)	7(29.2)	2(8.3)	24(100)	20.9 **
	100-200만원미만	37(37.4)	38(38.4)	24(24.2)	99(100)	
	200-300만원미만	47(26.0)	77(42.5)	57(31.5)	181(100)	
	300-400만원미만	35(29.7)	39(33.1)	44(37.3)	118(100)	
	400만원이상	43(27.2)	65(41.1)	50(31.6)	158(100)	
직업	관리전문직	38(30.9)	53(43.1)	32(26.0)	123(100)	17.3 *
	사무직	49(34.5)	44(31.0)	49(34.5)	142(100)	
	서비스판매직	48(36.6)	49(37.4)	34(26.0)	131(100)	
	기능직	36(22.9)	64(40.8)	57(36.3)	157(100)	
	단순노무직	6(22.2)	16(59.3)	5(18.5)	27(100)	
종사상 지위	상용종사자	127(31.3)	153(37.7)	126(31.0)	406(100)	10.3
	임시근로자	11(47.8)	9(39.1)	3(13.0)	23(100)	
	일용근로자	3(33.3)	5(55.6)	1(11.1)	9(100)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17(23.9)	29(40.8)	25(35.2)	71(100)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15(24.2)	27(43.5)	20(32.3)	62(100)	
	무급가족종사자	4(44.4)	3(33.3)	2(22.2)	9(100)	
정기 휴일	1주일에 1일	71(30.3)	98(41.9)	65(27.8)	234(100)	10.2
	1주일에 1일&토요일격주	11(22.0)	22(44.0)	17(34.0)	50(100)	
	일주일에 2일	75(33.6)	78(35.0)	70(31.4)	223(100)	
	2주마다 1일	3(23.1)	6(46.2)	4(30.8)	13(100)	
	수시로쉽	14(38.9)	11(30.6)	11(30.6)	36(100)	
	기타	3(12.5)	11(45.8)	10(41.7)	24(100)	
성역할 태도	연속변수	2.71	2.61	2.56	2.62	1.3
한부모 양부모	한부모	8(50.0)	4(25.0)	4(25.0)	16(100)	3.0
	양부모	169(30.0)	222(39.4)	173(30.7)	564(100)	
맞벌이 유무	맞벌이	101(30.1)	133(39.7)	101(30.1)	335(100)	.2
	외벌이	76(31.0)	93(38.0)	76(31.0)	245(100)	
미취학 유무	유미취학	100(38.3)	76(29.1)	85(32.6)	261(100)	21.9 ***
	무미취학	77(24.1)	150(47.0)	92(28.8)	319(100)	

* p<.05, ** p<.01, *** p<.001

주요 결과를 보면, 근무일과 마찬가지로 성별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경우 여가집중형이 1순위로, 그 다음이 일-생활필수 병행형>가사노동 집중형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집중형이 61.6%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이 여가 집중형>일-생활필수 병행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0-15]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집단의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 시간배분 유형의 성별 특징(비근무일) (단위: %)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가사노동 집중형이 1순위로, 없는 경우는 여가 집중형이 1순위로 나타나, 미취학자녀 여부가 비근무일 생활시간 배분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간 관련 주관적 인식을 분석한 결과, 시간부족감과 시간피곤함 정도에서만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가 집중형의 경우 시간부족감이 다른 집단보다 가장 낮으며, 시간피곤함 정도는 일-생활필수 병행형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23> 장시간 근로 집단의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 시간배분 유형별 시간부족감, 시간피곤함, 삶의 만족도, 가사분담 만족도, 시간활용만족도 (비근무일) (단위: 평균)

변수	유형			F값
	가사노동 집중형	여가 집중형	일-생활필수 병행형	
시간부족감	3.49 b	3.31 a	3.46 b	4.2 *
피곤함정도	3.45 a	3.39 a	3.57 b	5.1 **
삶만족도	3.07	3.22	3.10	1.7
가사분담만족도	3.46	3.47	3.46	.0
시간활용만족도	3.27	3.36	3.21	1.5

* p<.05, ** p<.01, *** p<.001

주) 시간부족감 : 점수가 높을수록 부족

피곤함정도 : 점수가 높을수록 피곤함

삶만족도 :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

가사분담만족도 :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

시간활용만족도 :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

이상과 같이, 주 52시간 일하는 장시간 근로 집단을 선정하여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에 투입한 시간량을 중심으로 그 배분의 구조를 유형화한 결과 근무일에는 일 집중형(55.8%), 여가 중심형(23.6%), 가사노동 중심형(20.6%) 등 세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이 유형에 있어 성별 차이가 명확하게 부각되었으며, 미취학 자녀 여부가 유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근무일의 경우, 여가 집중형(39%), 가사노동집중형(30.5%)과 일-생활필수병행형(30.5%)의 세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비근무일 역시 생활시간 배분구조의 유형에 있어 성별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미취학자녀 여부의 영향력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2)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집단의 생활시간 배분과 유형

장시간 근로 집단에 이어,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 남성과 여성을 선정하여 생활시간 배분과 유형화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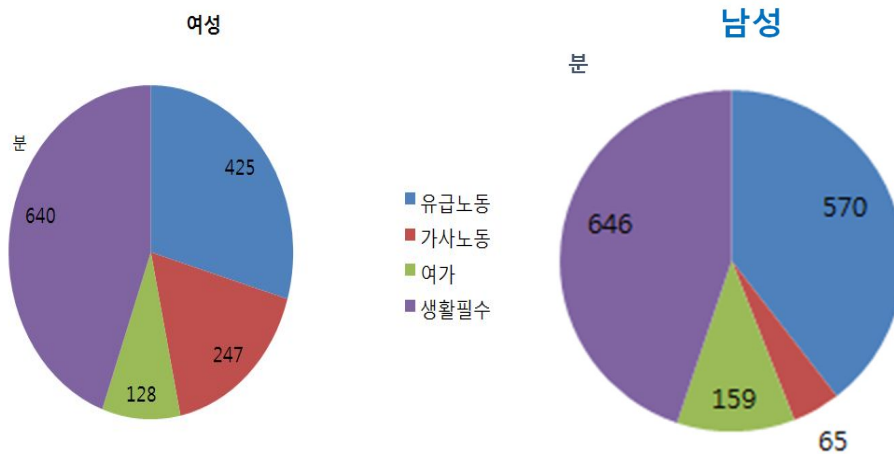
(1) 근무일

<표 10-24> 미취학자녀를 둔 유배우 맞벌이 남성과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 (근무일)

(단위 : 분/하루)

	남성 (n=789)		여성 (n=674)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유급노동	570	143	425	142
가사노동	65	82	247	130
총노동	636	124	672	103
여가	159	97	128	77
생활필수	646	87	640	86

남성의 경우, 유급노동시간이 평균 9시간 30분, 가사노동시간이 1시간 5분으로 총노동시간은 10시간 30분 가량으로 나온다. 이에 비해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은 7시간 5분, 가사노동시간은 4시간 7분으로, 총노동시간은 11시간 10분 가량이며, 남성보다 총노동시간이 근무일 하루 평균 40분 가량 더 많다. 생활필수시간은 여성과 남성 간에 큰 차이가 없고, 여가시간은 남성이 2시간 39분, 여성은 2시간 8분으로, 남성이 근무일 하루 평균 30분 정도 여가시간이 더 많다.



[그림 10-16] 미취학자녀를 둔 유배우 맞벌이 남성과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근무일) (단위: 분/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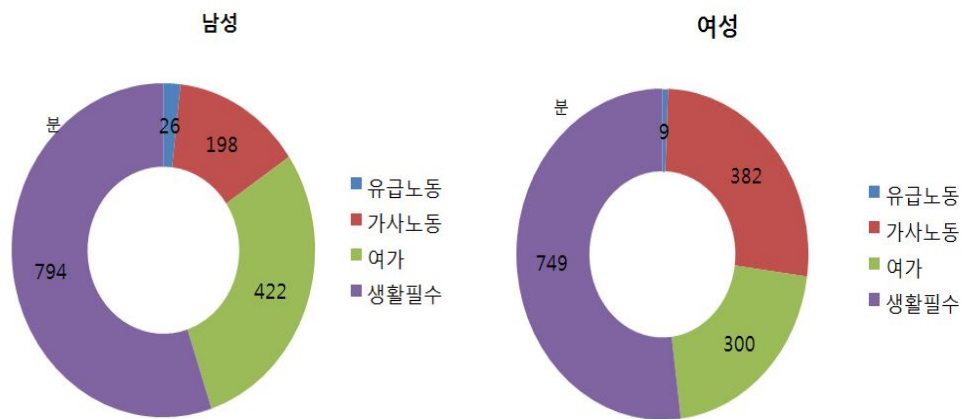
(2) 비근무일

<표 10-25> 미취학자녀를 둔 유배우 맞벌이 남성과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 (비근무일)

(단위 : 분/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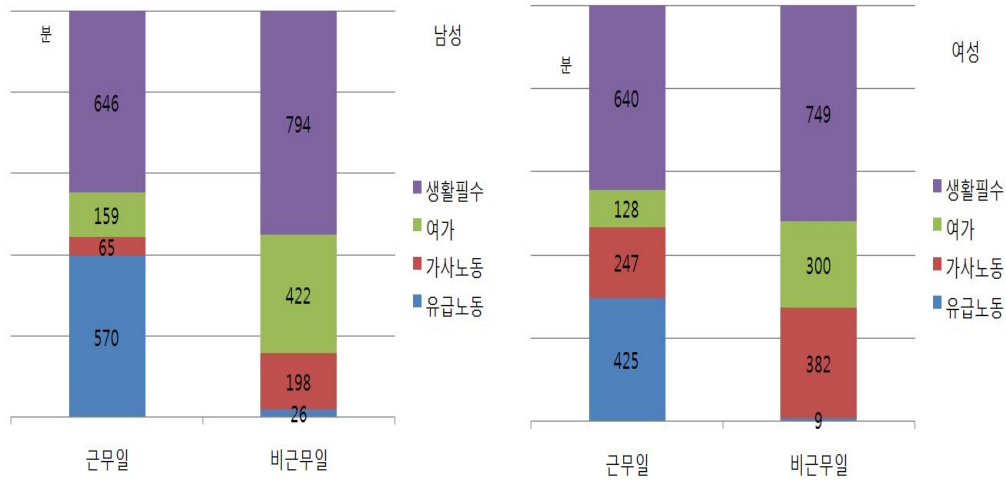
	남성 (n=313)		여성 (n=388)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유급노동	26	92	9	37
가사노동	198	146	382	161
총노동	224	157	391	161
여가	422	157	300	143
생활필수	794	116	749	111

비근무일에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남성은 생활필수에 13시간 14분을 사용하였고, 그 다음이 여가 7시간 가량, 가사노동 3시간 18분 등의 순으로 나왔다. 비근무일 남성의 총노동시간은 3시간 44분이다. 여성 역시 생활필수에 남성과 비슷하게 12시간 29분을 사용하였으나, 다른 생활영역에 대한 시간 배분은 남성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생활필수 다음으로는 가사노동시간이 6시간 22분으로 매우 많이 나왔으며, 따라서 여성은 비근무일 유급노동시간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노동시간 자체가 남성보다 훨씬 길어 6시간 30분 가량이다. 반면 여가시간은 남성에 비해 매우 짧아 5시간으로 나왔다.



[그림 10-17] 미취학자녀를 둔 유배우 맞벌이 남성과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비근무일) (단위: %)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남성과 여성이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에 사용하는 시간의 배분 상태를 근무일과 비근무일로 비교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0-18] 미취학자녀를 둔 유배우 맞벌이 남성과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
- 근무일과 비근무일의 비교 (단위: %)

남성의 경우 비근무일은 근무일에 비해 유급노동을 대폭 줄이고 생활필수와 여가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여성의 경우는 비근무일에 유급노동을 거의 안 하면서 생활필수와 여가 그리고 가사노동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히 여성의 경우 비근무일에 남성보다 여가의 증가폭이 적은 대신 가사노동의 증가폭이 크다고 할 수 있다.

5. 소결

농가를 제외하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며 주35시간 이상 일하는 20-60대 기혼취업자의 일-생활 균형 상태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일-생활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및 일-생활 균형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ANOVA 및 Duncan의 사후검증, 회귀분석,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근무일에는 평균 약 9시간을 유급노동에, 가사노동에는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을 배분하고 있다. 비근무일의 경우, 근무일보다 감소한 유급노동시간 512분이 여가(243분)로 가장 많이 배분되고 가사노동(139분), 생활필수(130분) 순으로 배분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간배분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크다. 근무일에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유급노동은 더 적게 하지만 가사노동을 훨씬 더 많이 부담함으로써 여가뿐만 아니라 생활필수시간

도 남성보다 더 적다. 비근무일에도 모든 영역의 시간배분에서 성별 차이를 보여, 총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는 근무일(44분)의 3.8배에 해당하는 165분으로 증가한다. 여가 및 생활필수시간의 성별 차이도 근무일에 비하여 증가한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자의 시간배분이 근무일, 비근무일을 불구하고 차이를 보이지만 근무일에 비하여 비근무일의 차이가 더욱 큰 점을 나타낸다.

근무일과 비근무일 모두 가사노동시간이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다. 근무일의 가사노동시간, 유급노동시간, 여가시간 및 비근무일의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의 경우 성별 변수의 영향력이 특히 크다.

군집분석을 통해 생활시간배분의 유형을 도출한 결과, 근무일에는 일-생활필수 병행형>일 집중형>여가 집중형>가사노동 집중형의 순으로 네 가지 유형이 구분되었다. 비근무일에는 가사 집중형>여가 집중형>일-생활필수 병행형의 세 유형이 나타났다. 근무일과 비근무일 모두, 성별이 시간배분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시간관련 주관적 인식(시간부족감, 시간피곤함 정도, 시간활용만족도, 삶의 만족도 등)에 대하여 장시간 노동은 부적 영향을, 여가 시간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시간 노동 집단은 근무일에 가사노동 중심형, 일 집중형, 여가 중심형의 세 유형이 도출되었고, 일 집중형이 비율적으로 가장 높다. 그러나 성별 차이가 드러나 남성 은 일 집중형이 그리고 여성은 가사노동 중심형이 1순위로 나타났다. 장시간 노동을 하는 취업여성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일에 가사노동 중심형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근무일 기혼취업여성이 갖는 총노동시간이 매우 길다는 것을 의미, 이는 결과적으로 여가시간의 제약으로 이어져 여가시간 빈곤의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할 것이다. 비근무일의 경우 가사노동집중형, 여가 집중형, 일-생활필수 병행형 등 세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이 중 여가집중형의 비율이 가장 높다. 여기에서도 역시 성별 차이가 드러나, 남성의 경우 여가집중형이 1순위로,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집중형이 1순위로 나타나, 장시간 근로를 하는 여성이 비근무일에 갖는 가사노동부담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집단은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총노동시간이 근무일 하루 평균 40분 가량 더 많다. 남성과 여성의 생활필수시간은 큰 차이가 없으나,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시간이 매우 많다. 여성은 비근무일 유급노동시간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노동시간 자체가 남성보다 훨씬 길고, 여가시간은 남성에 비해 매우 짧다. 이로써 미취학 자녀를 두고 맞벌이를 하는 취업여성의 경우, 미취학 자녀로 인한 가사노동시간의 요구가 커지고, 이로써 총노동시간이 길어지며 결과적으로 여가시간의 제약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장에서는 기혼취업자의 시간배분을 통해 일-생활 균형 상태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통계방법을 적용하여, 시간배분의 양상과 이에 영향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 시간배분의 유형화 및 그 특성, 장시간 근로자 및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집단에 대한 심화분석 등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주요 함의점은 아래와 같다.

먼저, 취업자의 경우 유급노동에 투입되는 시간에 따라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및 생활필수시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생활영역에 대한 시간배분을 통해 일-생활의 균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OECD(2015)에서 제시한 삶의 질 보고서를 보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11개 지표 중 일-생활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이 포함되는데, 이 때 유급노동시간-여가시간-생활필수시간의 배분을 통해 일-생활의 균형 상태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기에 더하여 일-생활의 균형에 있어서 유급노동과 가사노동이 상호 간 경쟁적인 관계 라는 맥락에서 가사노동시간을 합하여 시간의 배분상태를 통해 일-생활 균형을 분석하였다.

유급노동시간이 길어지면 가사노동을 비롯한 나머지 시간이 감소되면서 여가와 생활필수 활동을 통한 일상적인 삶에서의 재생산 그리고 가족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대폭 감소되기 때문에 이는 일-생활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근무일에 남성 근로자는 유급노동시간이 길고, 여성 근로자는 유급노동시간에 더하여 가사노동시간이 길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모두 노동의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비근무일에 남성은 여가시간을 대폭 늘이지만, 여성은 주 중에 못 다 한 가사노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남녀간 시간배분의 명확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비근무일에 취업여성이 갖는 가사노동의 부담을 어떻게 해결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생활 균형에 있어 불평등성은 연령이나 지역, 직업과 직종, 소득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중에 핵심 요소는 성별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특히 성별 구분 없이 20-30대의 가사부담이 크고, 따라서 여가시간이 적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연령대는 보편적으로 자녀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돌봄의 부담이 많으며 직장에서도 생산성을 발휘해야 하는 연령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돌봄과 직업의 동시적 역할을 강도 높게 수행해야 하는 연령대라는 점에서, 이 연령대의 일-생활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분석 및 연구에 있어서는 성별 차이 외에 연령대별 심층 분석을 통해 전생애주기에 걸쳐 일-생활의 불균형을 가장 높게 경험하는 세대의 문제와 특성,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시간 근로 집단이나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집단의 시간배분 실태를 통해 이들이 갖는 유급노동의 부담과 더불어 미취학 자녀의 돌봄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파

악할 수 있었다. 이는 가정생활주기로 볼 때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돌봄경감의 대책과 세부적인 사업 및 서비스가 더욱 확산될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종합할 때, 기혼취업자의 일-생활 균형 실태에 있어 성별 차이, 장시간 근로, 미취학 자녀 돌봄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함의점에 기반하여,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일-생활 균형에 있어 성별 차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 방법은 남성의 가족역할을 확산시켜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 일-생활의 불균형은 단지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남성에게는 장시간 근로가 일과 생활의 조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여성의 경우에는 유급노동에 더하여 가사노동까지 병행해야 하는 이중노동부담으로 인해 일과 생활의 조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증가는 남성 자신의 일-생활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동시에 남성의 가족역할이 확산되면서 여성의 가사돌봄부담은 줄어들어, 여성의 일-생활 균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독일기업의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 및 여가생활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최균호, 2005)에 따르면, 남성 가장의 근로시간 감축은 남성 자신의 여가시간 증가, 가사노동 시간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이는 여성의 직업활동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양성평등한 역할분담이라는 맥락에서 남성의 가족역할 확대 및 이를 통해 가사노동시간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해 개인적 인식과 실천 차원에서 남성 자신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선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가 확립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장시간 근로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가족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은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파악한 바 일-생활의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소인 장시간 근로의 문제를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남성과 여성 간의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할 수 있다. 정시퇴근문화,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 사랑의 날, 일가양득 캠페인, 유연근무제 등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다양한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그리고 실효성 강화를 우선적인 정책 과제로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기존 제도들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대상들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와 서비스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미취학 자녀를 돌보면서 취업생활을 병행하는 맞벌이 가정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직업과 직무형태, 소득, 돌봄조력자 유무 등의 요소와 함께 다양한 요구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복지선진국의 추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선택의 다양

성 존중, 체감성 향상 등과 같은 방향성에 주력하여,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의 제도로 내실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비근무일 가사노동의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취업여성의 현실을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 비근무일에 미취학 자녀의 돌봄을 포함한 가사노동의 부담을 경감시켜 충분한 여가와 생활필수활동을 통해 일상적인 에너지를 재생산하고 직업활동에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 김외숙)
(울산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송혜림)

XI. 유자녀 맞벌이 부부의 시간빈곤 실태와 정책적 함의

1. 시간빈곤의 개념과 의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자원임에도 이러한 시간에 대한 인식은 시대와 문화, 사회적 여건에 따라 확연히 구별되며 시간사용을 결정하는 구조적 제약도 다르다. 특히, 산업화 이래 시간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으며, 산업화는 가족시간(family time)이 산업시간(industrial time)에 종속되는 과정으로 전개되어 왔다. 결국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인식된 가족시간, 즉 가정에서 가족구성원이 함께 하거나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간의 만성적 결핍이 누적되어 왔다. 산업과 시장에 맞추어진 표준적인 시간사용에 대한 획일적 적용이 산업적 성과를 산출한 이면에는 적정한 수준의 가정생활시간의 희생이 있다. 결국 이러한 산업시간으로 이전된 가족시간은 우리사회의 급속한 근대화에 기여한 반면, 인구, 노동, 환경 등 다양한 사회문제와 더불어 가족기능의 저하와 가족 해체에 따른 ‘새로운 사회의 위협’을 유발하는 기제로도 작용하였다.

특히 성역할에 따른 일과 가정의 분리가 뚜렷한 전통적 성별분업 구조에서 벗어나 있는 맞벌이가정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가 직장생활을 통해 유급노동에 종사하며 일정한 노동시간을 사용하면서도 가정생활에 대한 책임성을 반영한 가사노동시간에서는 성차별이 그대로 시간배분으로 드러난다. 전통적인 남성생계부양자 유형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가사노동시간의 배분이 맞벌이 부부의 시간배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시간배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젠더의 문제이다.

이와 같은 맞벌이가정의 시간사용에서 나타나는 불균형 이슈는 시간빈곤의 차원에서도 규명될 필요성이 있다. 최근 ‘빈곤(poverty)’을 다루는 연구에서는 경제적 자원뿐 아니라 시간자원의 사용에서 나타나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의 문제, 즉 ‘시간빈곤(time poverty)’의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시간은 가장 동질적인 자원인 반면, 결국 다양한 사회구조적 요인의 작용으로 인해 시간결핍, 시간부족 등 차별적 요인을 내포한다. 시간빈곤에 대한 이해는 시간자원의 사용에 대한 인식차원을 보다 확장하여 물적 자원의 분배문제에 한정되지 않는 빈곤을 개념화함으로써 전반적인 삶의 질을 다차원적으로 고려하는 데 구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시간빈곤에 대한 연구는 소득빈곤에 대한 연구에 비해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자료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시간사용의 제약이 높은 유형인 맞벌이가정의 부부를 대상으로 ‘2014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를

사용하여 이들의 시간빈곤 실태를 살펴보고, 시간빈곤 여부에 따른 가사노동시간사용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시간빈곤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성별, 소득수준별 가사노동시간사용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간빈곤의 측정과 분석에 대한 이론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고, 나아가 시간빈곤 계층에 대한 시간정책 및 지역사회 실천프로그램에 대한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시간빈곤의 측정

1) 시간빈곤의 유형

시간이라는 자원은 하루 24시간이라는 물리적 제약뿐 아니라 경제적·문화적·제도적 제약에 놓여 있다. 시간의 사용은 일견 개인의 자유로운 혹은 합리적인 선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항상 이러한 전제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이 다양한 이론적 근거에 의해 규명되고 있다. 실상 개인이나 부부, 가족구성원이 각자의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소득수준이나 성별에 따른 사회적 경험방식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동시에 시간사용의 결과는 그러한 경험이 낳은 총체적 결과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시간빈곤의 개념은 소득빈곤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개인과 가족이 경험하는 '삶의 질'이나 '행복'의 개념을 경제적 자원의 측면에서만 정의할 경우, 가사노동을 포함한 무급노동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대한 오류와 한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빈곤을 정의할 때 소득과 같은 물질 자원만으로 한정하여 논의하는 것은 불충분하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왔다. 이에 빈곤을 경제적 자원 이외에도 시간자원을 포함하여 다차원적으로 정의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Brady, 2003), 이는 무급노동의 가치를 인식하고 빈곤을 폭넓게 이해함으로써 저개발국가 등의 빈곤수준을 보다 공정하게 비교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 되고 있다. 시간빈곤의 유형은 주관적 관점(subjective perspective)과 객관적 관점(objective perspectiv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주관적 시간빈곤(subjective time poverty)은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의 질문지 문항에서도 측정하고 있는 '시간부족감'은 시간압박(time pressure)과도 유사한 개념으로 시간에 쫓기는 느낌에 대한 인식 수준을 나타낸다. 이러한 불평등한 또는 불만족스러운 시간사용의 문제는 만성적인 시간부족에 대한 불만뿐 아니라 개인생활의 질 저하로 이어지며, 결국 가정의 여러 기능을 저하시켜 가족구성원 간 유대를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생활시간조사를 이용하여 측정한 시간부족 또는 시간압박을 중심으로 관련요인을 분석한 다수의 연구(김진욱·고은주, 2015; 장연주·이기영·최현자, 2012; 차승은, 2010)에서 규명한 바와 같이, 시간부족감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소득수준, 취업형태 등의 경제적 변수, 혼인상태, 자녀수 등 가족변수, 조사요일 등의 시간 사용에 대한 구조적 변수 등 여러 요인과 복합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관적 인식을 측정된 시간부족감은 객관적 기준에 의한 측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교분석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개인이나 가족구성원의 시간사용에 따른 부정적 결과를 이해하는 또 다른 차원으로 객관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규정한 시간빈곤을 들 수 있다. 시간빈곤은 일정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시간부족의 정도를 시간빈곤선(time poverty threshold)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시간빈곤 집단과 시간비빈곤 집단을 구분하는 데 이용하는 개념으로 앞서 살펴본 시간에 쫓긴다거나 바쁘다고 느끼는 주관적 관점의 시간부족의 개념과는 뚜렷이 구분된다. 시간빈곤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 시간사용에 관련된 정책대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사회문화적 실정을 고려하되, 객관적 빈곤선을 적용한 측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객관적 관점의 시간빈곤은 다시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기준에 따라 다르게 측정된다. 절대적 시간빈곤은 노동시간이 특정 기준 이상으로 매우 긴 경우, 필수노동의 수행에 따라 여가시간이 매우 짧은 경우로 정의된다(Bardasi & Wodon, 2006; Hirway, 2010). 한편, 일반적으로 상대적 시간빈곤은 주로 노동시간이 중위값의 1.5-2배 이상이거나 여가시간이 중위값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한다(Bardasi & Wodon, 2010; Bittman, 2004).

지금까지 다양한 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소득빈곤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소득빈곤을 측정방법을 개발하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온 것처럼, 시간빈곤을 정의하기 위해서도 설득력이 있는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기준을 세우기 위한 치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절대적 소득빈곤(absolute income poverty)을 실제로 측정하기 위해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수많은 물품의 필요수량을 이론적으로 산출하고 그에 적합한 가격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는 수많은 가정이 요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적 시간빈곤(absolute time poverty)의 기준은 인간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시간배분 구조에 대한 매우 복합적인 가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 분석을 위해 우선 시간빈곤의 절대적 기준에 대한 논의보다 상대적 시간빈곤(relative time poverty)의 정의를 다양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객관적 시간빈곤을 측정하고자 한다.

2) 시간빈곤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우선 맞벌이가정의 남편과 부인 간 시간사용의 중요한 분석틀인 성별에 따른 시간경험의 구조적 차이에 대한 연구는 가용시간의 관점(time availability perspective)과 젠더의 관점(gender perspective)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다. 가용시간의 관점은 성

별역할에 따라 시간배분이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에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가용시간을 경험하게 됨을 설명(Becker, 1965)하는 반면, 젠더이론은 성에 따른 사회적 요구와 역할 부여에 따라 시간배분이 이루어진다고 보며 이로 인해 여성은 직장근로와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을 겪게 됨을 설명한다(Hoschild, 1989).

생활시간조사를 이용한 경험적 연구결과에서 가용시간 관점은 남성의 시간부족을, 젠더 관점은 여성의 시간부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장연주 외, 2012). 시간부족 인식의 성차를 비교한 차승은(2010)의 연구에서 남성의 경우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직업 특성에 영향을 받은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다양한 요인, 즉 소득, 직종, 요일, 근무형태, 자녀연령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시간의 양뿐 아니라 질적 측면 역시 시간부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계층별 시간부족감의 수준을 분석한 연구(주익현, 2015)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시간부족을 인식할 확률이 낮아지나,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의식이 시간부족감과 같은 부부의 심리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경제적 자원과 시간자원은 긴밀한 연관을 지니는데, 가계의 소득수준에 따라 시간빈곤의 경험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특히 빈곤여성의 경우 계층적 요인을 중심으로 파악한 소득빈곤과 더불어 재량시간의 개념으로 측정된 시간자원의 빈곤도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노혜진, 2013).

3. 유자녀 맞벌이가정의 시간빈곤 실태

1) 시간빈곤의 측정과 조작적 정의

우선 객관적 관점에서 접근한 시간빈곤에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 시간빈곤의 개념을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상대적 빈곤선을 결정하기 위해 기준집단을 65세 미만 경제활동인구로 설정하고, 평일이면서 근무일의 시간사용으로 한정하였다. 상대적 시간빈곤은 '일'과 '여가'라는 두 가지 활동에 배분한 시간사용을 기준으로 하여 접근할 수 있다. 우선 전체 근로자의 일(유급노동)에 배분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중위값의 1.5배 이상을 사용한 경우를 일 기준 상대적 시간빈곤으로 정의하였다. 이때, 전체 근로자의 일 시간 중위값은 440분으로 조사되어 660분 이상을 일에 사용한 집단은 일 기준 상대적 시간빈곤집단으로 분류된다. 둘째, 여가에 배분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중위값의 0.5배 이하를 여가에 사용하면 여가 기준 상대적 시간빈곤 집단으로 보았다. 이때, 전체 근로자의 여가 시간 중위값은 150분이었으므로 중위값의 50% 이하인 75분 이하를 여가에 사용한 집단은 여가 기준 상대적 시간빈곤집단으로 분류된다.

다음으로 주관적 관점에서 접근한 시간빈곤은 생활시간조사 설문 문항 중 시간부족감에 대한 질문(4점 리커트)에서 가장 시간빈곤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응답한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2) 유자녀 맞벌이가정의 시간빈곤률

유자녀 맞벌이남성 1,687명과 맞벌이여성 1,582명을 대상으로 하여 평일이면서 근무일의 시간사용을 통해 객관적 관점에서 측정된 시간빈곤 유형 중 일 기준 상대적 시간빈곤율을 분석한 결과, 맞벌이남성의 경우에는 6.6%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맞벌이여성은 .01%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가 기준 상대적 시간빈곤에 따른 시간빈곤률은 맞벌이 남성은 18.4%, 맞벌이 여성은 25.5%로 나타났다. 한편, 주관적 시간빈곤 개념에 따른 시간빈곤률은 맞벌이 남성과 여성이 각각 39.5%, 57.8%로 나타났다. 즉, 시간빈곤률은 일 기준 상대적 시간빈곤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주관적 시간빈곤 수준이 가장 높았다. 남성은 일 기준 상대적 시간빈곤의 경우 여성에 비해 시간빈곤율이 높았으나, 다른 두 개념에 의한 시간빈곤률은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주관적 시간빈곤 개념에 의한 시간빈곤률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자녀 맞벌이여성의 절반 이상이 시간빈곤집단으로 분류된다.

<표 11-1> 유자녀 맞벌이가정의 시간빈곤률 (단위: n, %)

	객관적 시간빈곤				주관적 시간빈곤	
	일 기준 상대적 시간빈곤		여가 기준 상대적 시간빈곤		n	%
	n	%	n	%		
맞벌이남성 (n=1,687)	111	6.6	311	18.4	667	39.5
맞벌이여성 (n=1,582)	22	.01	403	25.5	914	57.8

4. 유자녀 맞벌이가정의 시간빈곤 여부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사용구조

1) 객관적 시간빈곤 여부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사용구조

(1) 일 기준 상대적 시간빈곤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사용구조

일 기준 상대적 시간빈곤 여부에 따른 가사노동 시간사용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우선, 자녀를 둔 맞벌이남성의 경우 가정관리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을 보면 시간빈곤집단은 하루 약 5분, 시간비빈곤집단은 약 16분 정도였으며, 가족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은 시간빈곤집단이 약 5분, 시간비빈곤집단이 약 19분 정도였다. 맞벌이 남성 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의 세부활동별 시간사용 차이를 살펴보면, 가정관리활동에서는 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의 차이를 보면, 차량관리 및 기타 가정관리를 제외하고 모두 시간빈곤집단의 시간사용량이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에서는 만 10세 미만과 만 10세 이상의 자녀돌봄에서 시간빈곤집단의 사용량이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를 둔 맞벌이여성의 경우, 일 기준 상대적 시간빈곤을 적용하여 가정관리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을 보면 빈곤집단은 하루 약 45분, 비빈곤집단은 약 135분 정도였으며, 가족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은 빈곤집단이 약 12분, 비빈곤집단이 약 59분 정도였다. 가정관리활동에서는 음식준비, 세탁(가정용 섬유 및 신발관리), 청소 및 정리, 상품구매에서 시간빈곤집단의 사용량이 시간비빈곤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돌봄 영역에서는 만 10세 미만 자녀 자녀돌봄과 배우자돌봄에서 시간빈곤집단의 시간사용량이 유의하게 적었다.

<표 11-2> 일 기준 시간빈곤 여부에 따른 유자녀 맞벌이 남성 및 여성의 가사노동시간 사용구조

(단위: 분/하루)

	맞벌이남성			맞벌이여성		
	시간빈곤	시간비빈곤	t	빈곤	시간비빈곤	t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가정관리	4.6(13.5)	16.5(32.4)	-7.8 ***	44.6(41.8)	135.1(76.0)	-9.9 ***
음식준비	1.7(6.0)	4.9(14.4)	-4.7 ***	32.3(35.6)	78.5(47.5)	-4.6 ***
가정용섬유 및 신발관리	.1(1.0)	.9(5.5)	-4.8 ***	2.3(7.5)	12.4(18.7)	-6.0 ***
청소 및 정리	1.0(5.0)	5.3(13.9)	-7.3 ***	9.6(14.3)	30.4(30.3)	-6.6 ***
주거 및 가정용품관리	.0(0)	.2(4.2)	-2.2 *	.0(0)	.2(2.6)	-4
차량관리	.5(4.2)	.4(4.9)	.2	.0(0)	.1(1.1)	-2
애완동물 돌보기	.0(0)	.7(10.1)	-2.9 **	.0(0)	1.0(6.4)	-8
상품 및 서비스 구입	.7(5.8)	3.0(12.1)	-3.6 ***	.0(0)	10.8(21.0)	-20.3 ***
기타 가정관리	.5(4.2)	.9(6.5)	-.9	.5(2.1)	1.7(7.3)	-8
가족돌봄	4.9(15.4)	18.7(37.6)	-8.0 ***	11.8(19.9)	58.8(70.0)	-10.2 ***
만 10세 미만 자녀	3.9(12.3)	15.3(34.0)	-7.9 ***	2.7(7.7)	46.0(69.1)	-18.1 ***
만 10세 이상 자녀	.1(1.0)	2.1(10.1)	-7.5 ***	9.1(19.7)	10.3(22.6)	-2
배우자	.9(9.5)	.6(7.9)	.3	.0(0)	2.0(6.7)	-11.7 ***
노부모	.0(0)	.01(.5)	-.3	.0(0)	.2(2.8)	-3
그 외 가구원	.0(0)	.1(1.1)	-.5	.0(0)	.2(1.7)	-4
비동거 노부모	.0(0)	.2(3.5)	-.6	.0(0)	.1(2.7)	-2
비동거 그 외 가족원	.0(0)	.4(12.0)	-.4	.0(0)	.1(2.6)	-3

n	111	1,576		22	1,560	
---	-----	-------	--	----	-------	--

(2) 여가 기준 시간빈곤 여부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사용구조

여가 기준 상대적 시간빈곤 여부에 따른 가사노동 시간사용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녀를 둔 맞벌이남성의 경우 가정관리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을 보면 시간빈곤 집단은 하루 약 14분, 시간비빈곤집단은 약 16분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가족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은 빈곤집단이 약 24분, 비빈곤집단이 약 16분 정도로 빈곤집단에서 유의하게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남성 시간빈곤집단과 시간비빈곤집단의 세부활동별 시간사용 차이를 살펴보면, 가정관리활동에서는 청소 및 정리, 주거관리에서, 가족돌봄 영역에서는 만 10세 이상 자녀돌봄과 그 외 가구원 돌봄에서 시간빈곤집단의 시간사용량이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 10세 이상의 자녀돌봄에서는 시간빈곤집단의 시간사용량이 유의하게 많았다.

한편, 자녀를 둔 맞벌이여성의 경우, 여가 기준 상대적 시간빈곤을 적용할 경우 가정관리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을 보면 빈곤집단은 하루 약 127분, 비빈곤집단은 약 136분 정도로 빈곤집단이 약간 낮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가족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은 빈곤집단이 약 72분, 비빈곤집단이 약 53분 정도로 오히려 시간빈곤집단의 시간사용량이 유의하게 많았다. 세부활동의 차이를 보면, 가정관리활동에서는 음식준비와 상품구매에서만 시간빈곤집단의 시간사용량이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돌봄영역에서는 만 10세 미만 자녀돌봄에서만 시간비빈곤집단에 비해 시간빈곤집단의 시간사용량이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 여가 기준 시간빈곤 여부에 따른 유자녀 맞벌이 남성 및 여성의 가사노동시간 사용구조

(단위: 분/하루)

	맞벌이남성			맞벌이여성		
	시간빈곤	시간비빈곤	t	빈곤	시간비빈곤	t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가정관리	13.5(34.7)	16.2(30.9)	-1.3	126.7(82.7)	136.3(73.9)	-2.1 *
음식준비	3.6(11.0)	4.9(14.6)	-1.8	72.7(51.2)	79.6(46.2)	-2.5 *
가정용섬유 및 신발관리	.9(5.8)	.8(5.2)	.1	12.4(19.4)	12.2(18.4)	.2
청소 및 정리	3.6(11.0)	5.4(14.0)	-2.5 *	30.5(34.4)	30.0(28.6)	.3
주거 및 가정용품관리	.0(.0)	.3(4.5)	-2.2 *	.1(1.1)	.3(2.9)	-1.7
차량관리	.7(6.9)	.4(4.2)	.8	.2(1.9)	.0(.7)	1.3
애완동물	1.3(20.5)	.6(4.6)	.6	.9(6.6)	1.1(6.3)	-.4

돌보기						
상품 및 서비스 구입	2.7(12.5)	2.9(11.6)	-2	8.5(19.5)	11.3(21.3)	-2.4 *
기타 가정관리	.8(5.3)	.9(6.6)	-.5	1.5(5.9)	1.8(7.6)	-.7
가족돌봄	24.4(41.7)	16.3(35.3)	3.2 **	71.7(75.9)	53.5(67.0)	4.3 ***
만 10세 미만 자녀	22.0(40.6)	12.9(31.0)	3.7 ***	60.0(76.9)	40.4(65.1)	4.6 ***
만 10세 이상 자녀	1.0(5.9)	2.2(10.4)	-2.8 **	9.4(22.8)	10.5(22.5)	-.9
배우자	1.1(7.9)	.5(8.0)	1.3	2.0(7.0)	2.0(6.5)	.1
노부모	.0(.0)	.0(.5)	-.5	.1(1.5)	.2(3.0)	-.7
그 외 가구원	.0(.0)	.1(1.2)	-2.1 *	.2(1.9)	.1(1.6)	.0
비동거 노부모	.3(4.7)	.2(3.0)	.5	.1(.7)	.2(3.0)	-.7
비동거 그 외 가족원	.0(.0)	.5(12.8)	-.7	.1(1.5)	.2(2.8)	-.6
n	311	1,376		403	1,179	

2) 주관적 시간빈곤 여부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사용구조

주관적 기준 상대적 시간빈곤 여부에 따른 가사노동 시간사용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녀를 둔 맞벌이남성의 경우 가정관리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을 보면 빈곤집단은 하루 약 13분, 비빈곤집단은 약 17분 정도로 빈곤집단이 유의하게 적은 수준이었으며, 가족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은 빈곤집단이 약 16분, 비빈곤집단이 약 19분 정도로 빈곤집단에서 약간 적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맞벌이남성 시간빈곤집단과 시간비빈곤집단의 세부활동별 시간사용 차이를 검정한 결과, 가정관리활동에서는 음식준비에서만 시간빈곤집단의 시간사용량이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돌봄 영역에서는 만 10세 이상의 자녀돌봄에서만 시간빈곤집단의 사용량이 유의하게 적었다.

한편, 자녀를 둔 맞벌이여성의 경우, 주관적 시간빈곤을 적용할 경우 가정관리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을 보면 빈곤집단은 하루 약 127분, 비빈곤집단은 약 139분 정도로 시간빈곤집단의 사용량이 유의하게 적은 수준이며, 가족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은 빈곤집단이 약 65분, 비빈곤집단이 약 53분 정도로 오히려 시간빈곤집단의 시간사용량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시간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의 세부활동의 차이를 보면, 가정관리활동에서는 음식준비에서만 시간빈곤집단의 시간사용량이 유의하게 적었으며, 가족돌봄영역에서는 만 10세 미만 자녀돌봄에서는 시간비빈곤집단에 비해 시간빈곤집단의 사용량이 유의하게 많았으며, 만10세 이상 자녀돌봄에서는 시간빈곤집단의 사용량이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4> 주관적 시간빈곤 여부에 따른 유자녀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사용구조

(단위: 분/하루)

	남성			여성		
	시간빈곤 평균(SD)	시간비빈곤 평균(SD)	t	시간빈곤 평균(SD)	시간비빈곤 평균(SD)	t
가정관리	13.3(26.6)	17.3(34.5)	-2.8 **	126.5(75.7)	139.2(76.4)	-3.3 **
음식준비	3.5(10.5)	5.5(15.9)	-3.1 **	72.9(47.8)	81.5(47.2)	-3.6 ***
가정용섬유 및 신발관리	1.0(5.8)	.8(5.0)	.7	11.7(17.8)	12.7(19.2)	-1.1
청소 및 정리	4.5(12.3)	5.4(14.3)	-1.4	29.3(31.1)	30.8(29.6)	-1.0
주거 및 가정용품관리	.3(5.8)	.1(2.3)	1.0	.2(3.1)	.18(2.1)	.5
차량관리	.6(5.9)	.4(3.9)	.9	.0(.9)	.07(1.2)	-.4
애완동물 돌보기	.4(3.4)	.9(12.2)	-.9	.8(5.5)	1.17(7.0)	-1.2
상품 및 서비스 구입	2.3(11.5)	3.3(12.0)	-1.7	10.3(20.9)	10.8(20.9)	-.5
기타 가정관리	.8(5.6)	1.0(6.8)	-.8	1.4(5.6)	1.9(8.2)	-1.7
가족돌봄	16.3(32.9)	18.8(38.9)	-1.4	64.7(74.9)	53.3(65.4)	3.1 **
만 10세 미만 자녀	14.6(32.3)	14.5(33.7)	.1	53.6(75.7)	39.4(62.7)	4.0 ***
만 10세 이상 자녀	1.1(5.7)	2.6(11.6)	-3.4 **	8.9(20.9)	11.2(23.7)	-2.0 *
배우자	.5(5.3)	.7(9.4)	-.5	1.8(6.4)	2.1(6.8)	-.9
노부모	.0(.8)	.0(.0)	1.0	.2(3.3)	.1(2.2)	.2
그 외 가구원	.0(.6)	.1(1.3)	-.7	.2(2.0)	.1(1.1)	1.5
비동거 노부모	.1(.9)	.3(4.3)	-1.9	.0(.55)	.2(3.3)	-1.5
비동거 그 외 가족원	.0(.0)	.7(14.9)	-1.5	.0(.8)	.2(3.3)	-1.7
n	667	1,020		668	914	

5. 시간빈곤유형에 따른 시간빈곤 집단의 성별, 소득수준별 가사노동시간 사용구조

1) 일 기준 상대적 시간빈곤 집단의 성별, 소득수준별 가사노동시간 사용구조

일 기준 상대적 시간빈곤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성별, 소득수준별 가사노동시간사용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일 기준 상대적 시간빈곤집단의 가사노동 시간사용의 성차를 보면, 가정관리활동에서 청소와 기타 가정관리에서만 여성이 유의하게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돌봄에서는 만 10세 이상 자녀돌봄에서만 여성이 유의하게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한편, 일 기준 상대적 시간빈곤집단 가사노동시간 사용의 소득수준 차이를 살펴보면, 가정관리활동과 가족돌봄 영역 모두 소득수준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1-5> 일 기준 상대적 시간빈곤 집단의 성별, 소득수준별 가사노동시간 사용구조

(단위: 분/하루)

	성별			소득수준별			F
	남성	여성	t	300만원 미만	300-600 미만	600만원 이상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가정관리	4.6(13.5)	44.6(41.8)	-4.4 ***	4.8(11.6)	12.1(26.7)	13.5(29.5)	.9
음식준비	1.7(6.0)	32.3(35.6)	-4.1	3.0(7.7)	7.0(18.5)	8.8(24.8)	.6
가정용섬유 및 신발관리	.1(1.0)	2.27(7.5)	-1.4	.0(.0)	.7(4.1)	.3(1.7)	.5
청소 및 정리	1.0(5.0)	9.6(14.3)	-2.8 *	1.7(4.9)	2.8(9.0)	2.1(7.3)	.2
주거 및 가정용품관리	.0(.0)	.0(.0)	1.3	.0(.0)	.0(.0)	.0(.0)	-
차량관리	.5(4.2)	.0(.0)	1.3	.0(.0)	.8(5.1)	.0(.0)	.7
애완동물 돌보기	.0(.0)	.0(.0)	.1	.0(.0)	.0(.0)	.0(.0)	-
상품 및 서비스 구입	.7(5.8)	.0(.0)	.6	.0(.0)	.0(.0)	2.4(10.5)	2.5
기타 가정관리	.5(4.2)	.5(2.1)	-2.1 *	.0(.0)	5.2(6.6)	.0(.0)	.9
가족돌봄	4.9(15.4)	11.8(19.9)	-1.5	2.6(7.5)	7.9(19.6)	4.1(11.6)	1.2
만 10세 미만 자녀	3.9(12.3)	2.7(7.7)	.4	.9(2.9)	4.3(13.0)	4.1(11.6)	.8
만 10세 이상 자녀	.1(1.0)	9.1(19.7)	-2.1 *	1.7(6.5)	2.2(10.8)	.0(.0)	.8
배우자	.9(9.5)	.0(.0)	.4	.0(.0)	1.3(11.5)	.0(.0)	.4
노부모	.0(.0)	.0(.0)	-	.0(.0)	.0(.0)	.0(.0)	-
그 외 가구원	.0(.0)	.0(.0)	-	.0(.0)	.0(.0)	.0(.0)	-
비동거 노부모	.0(.0)	.0(.0)	-	.0(.0)	.0(.0)	.0(.0)	-
비동거 그 외 가족원	.0(.0)	.0(.0)	-	.0(.0)	.0(.0)	.0(.0)	-
n	111	22		23	76	34	

2) 여가 기준 상대적 시간빈곤 집단의 성별, 소득수준별 가사노동시간 사용구조

여가 기준 상대적 시간빈곤집단의 성차를 보면, 가정관리 영역에서는 음식준비, 세탁, 청소, 구매에서 시간빈곤여성이 시간빈곤남성에 비해 유의하게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돌봄 영역에서는 만 10세 미만 자녀와 만 10세 이상 자녀 돌봄에서 만 시간빈곤여성이 시간빈곤남성에 비해 유의하게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여가 기준 상대적 시간빈곤 집단의 가사노동시간 사용에서 소득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가정관리활동에서는 애완동물 돌보기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가족돌봄 영역에서는 시간사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11-6> 여가 기준 상대적 시간빈곤 집단의 성별, 소득수준별 가사노동시간 사용구조

(단위: 분/하루)

	성별			소득수준별			
	남성	여성	t	300만원 미만	300-600 미만	600만원 이상	F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가정관리	13.5(34.7)	126.7(82.7)	-24.8 ***	82.2(91.3)	79.0(86.7)	71.8(85.2)	.6
음식준비	3.6(11.0)	72.7(51.2)	-26.3 ***	44.1(48.7)	43.9(53.9)	39.3(49.2)	.6
가정용섬유 및 신발관리	.9(5.8)	12.4(19.4)	-11.3 ***	6.1(15.9)	7.8(16.5)	7.1(15.3)	.4
청소 및 정리	3.57(11.0)	30.5(34.4)	-14.7 ***	19.1(29.1)	18.8(27.5)	35.44(2.5)	.0
주거 및 가정용품관리	.0(.0)	.1(1.1)	-1.2	.0(.0)	.1(1.1)	.0(.0)	.6
차량관리	.7(6.9)	.2(1.9)	1.4	.4(3.3)	.39(4.5)	.4(5.7)	.0
애완동물 돌보기	1.3(20.5)	.9(6.6)	.4	5.1(40.2)	.68(6.2)	.3(2.1)	3.6 *
상품 및 서비스 구입	2.7(12.5)	2.7(12.5)	-4.8	6.5(16.8)	6.0(16.9)	5.7(17.6)	.1
기타 가정관리	.8(5.3)	1.5(5.9)	-1.7	1.0(4.4)	1.4(6.4)	.7(4.1)	1.2
가족돌봄	24.4(41.7)	71.7(75.9)	-10.6 ***	54.3(82.6)	50.2(62.4)	51.7(71.8)	.6
만 10세 미만 자녀	22.0(40.6)	60.0(76.9)	-8.5 ***	48.2(78.4)	41.5(61.3)	45.7(72.0)	.5
만 10세 이상 자녀	1.0(5.9)	1.1(7.9)	-7.1 ***	4.3(14.2)	6.7(20.0)	4.0(14.5)	1.8
배우자	1.1(7.9)	2.0(7.0)	-1.5	1.9(6.5)	1.8(8.3)	1.1(5.3)	.6
노부모	.0(.0)	.1(1.5)	-.9	.0(.0)	.1(1.4)	.0(.0)	.3
그 외 가구원	.0(.0)	.2(1.9)	-1.6	.0(.0)	.0(.5)	.3(2.6)	2.1
비동거 노부모	.3(4.7)	.1(.7)	1.1	.0(.0)	.1(1.1)	.5(5.8)	1.2
비동거 그 외 가족원	.0(.0)	.1(1.5)	-.9	.0(.0)	.0(.0)	.2(2.2)	1.3
n	311	403		81	439	194	

3) 주관적 시간빈곤 집단의 성별, 소득수준별 가사노동시간 사용구조

주관적 시간빈곤집단 가사노동시간사용의 성차를 보면, 가정관리활동에서는 주거관리와 애완동물 돌보기를 제외한 모든 활동에서 유의하게 시간빈곤남성과 시간빈곤여성의 사용량에 차이가 있었으며, 차량관리를 제외한 모든 유의한 차이가 있는 영역에서 시간빈곤여성 집단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 영역에서는 노부모 돌봄 및 비동거가족원 돌봄을 제외한 모든 돌봄영역에서 여성이 유의하게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주관적 시간빈곤에 따른 시간빈곤집단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가정관리 영역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족돌봄 영역에서 만 10세 이상 자녀돌봄에서만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표 11-7> 주관적 시간빈곤 집단의 성별, 소득수준별 가사노동시간 사용구조

(단위: 분/하루)

	성별			소득수준별			F
	남성	여성	t	300만원 미만	300-600 미만	600만원 이상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가정관리	13.3(26.6)	126.5(75.7)	-36.5 ***	68.7(75.1)	71.8(83.1)	66.4(75.5)	.6
음식준비	3.5(10.5)	72.9(47.8)	-36.6 ***	39.9(47.7)	39.6(51.0)	34.5(44.8)	1.5
가정용섬유 및 신발관리	1.0(5.8)	11.7(17.8)	-14.8 ***	6.8(15.1)	6.1(14.0)	6.6(14.6)	.2
청소 및 정리	4.5(12.3)	29.3(31.1)	-19.2 ***	15.2(24.7)	17.5(26.1)	16.2(28.6)	.6
주거 및 가정용품관리	.3(5.8)	.2(3.1)	.4	.5(4.1)	.1(1.3)	.65(8.2)	2.0
차량관리	.6(5.9)	.0(.9)	2.3 *	.0(.0)	.3(4.5)	.4(4.5)	.4
애완동물 돌보기	.4(3.4)	.8(5.5)	-1.5	.8(5.0)	.6(4.8)	.6(3.8)	.2
상품 및 서비스 구입	2.3(11.5)	10.3(20.9)	-8.7 ***	5.0(15.3)	6.3(17.7)	3.6(17.3)	.5
기타 가정관리	.8(5.6)	1.4(5.6)	-2.0 ***	.5(3.5)	1.3(6.4)	.8(4.3)	1.8
가족돌봄	16.3(32.9)	64.7(74.9)	-15.3 ***	41.2(73.1)	40.2(60.6)	41.0(63.2)	.6
만 10세 미만 자녀	14.6(32.3)	53.6(75.7)	-12.2 ***	37.1(72.8)	32.6(58.5)	36.3(62.6)	.7
만 10세 이상 자녀	1.1(5.7)	8.9(20.9)	-9.3 ***	3.5(11.8)	6.0(17.5)	3.4(12.8)	4.4 *
배우자	.5(5.30)	1.8(6.4)	-4.0 ***	.3(2.2)	1.3(6.8)	1.0(4.7)	1.9
노부모	.0(.8)	.2(3.3)	-1.0	.0(.0)	.2(3.1)	.0(.0)	.7
그 외 가구원	.0(.6)	.2(2.0)	-2.4 *	.2(1.8)	.1(1.2)	.1(1.9)	.8
비동거 노부모	.5(.9)	.3(.6)	.4	.0(.0)	.0(.4)	.1(1.3)	2.4
비동거 그 외 가족원	.0(.0)	.0(.8)	-1.0	.0(.0)	.0(.7)	.0(.0)	.3
n	667	668		147	816	372	

6. 소결

시간사용은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시간은 성이나 계급의 차이에서 기인한 불평 등의 이슈는 물론,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있어 '일-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 차원에서 정책적 문제제기를 가능하게 한다. 남성과 여성 간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에, 보다 평등한 시간사용구조의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구조적 차별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질 보장이라는 궁극적인 정책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자녀 맞벌이가정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보다 적절한

한 시간빈곤의 측정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시간빈곤정책을 위한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1) 시간빈곤 유형에 따른 시간측정의 방안

유자녀 맞벌이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시간빈곤의 유형을 객관적 관점과 주관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결과, 시간빈곤율은 각 유형별로 상당히 다른 수준을 보였다. 객관적 시간빈곤을 측정하기 위하여 상대적인 재량시간의 결핍을 측정하는 시간빈곤선 기준을 일(시장노동)과 여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적어도 맞벌이가정의 시간빈곤 실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여가를 기준으로 하는 시간빈곤의 개념이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시간빈곤을 적용할 경우, 맞벌이 남성과 여성의 시간빈곤율이 모두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맞벌이 여성의 경우 이를 기준으로 시간빈곤을 측정하면 빈곤율이 미미한 수준으로만 나타나 거의 시간빈곤을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이는 주관적 시간빈곤의 개념으로 시간빈곤율을 측정한 경우와는 매우 상반된 결과이다. 항상 시간에 쫓기며 시간부족을 느낀다고 응답한 주관적 시간빈곤집단의 경우 맞벌이 남성과 여성의 시간빈곤율이 각각 39.5%, 57.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관적 인식을 적용할 경우 시간빈곤율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산출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에도, 일 기준 상대적 시간빈곤율과는 지나치게 큰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남성과 여성이 각각 18.4%, 25.5% 수준으로 시간빈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여가 기준 상대적 시간빈곤의 개념이 적어도 부부가 모두 시장노동에 종사하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시간빈곤을 판정하는 기준으로서의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시간빈곤 유형에 따른 빈곤율의 성차도 나타난다. 일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시간빈곤 수준은 맞벌이남성 집단에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여가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시간빈곤과 주관적 시간빈곤은 모두 맞벌이여성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2) 시간빈곤의 정책적 함의

최근 우리사회에서 시간사용에 대한 부정적 문제인식은 지나치게 일에 편중된 시간사용의 문제와 시간사용에 작용하는 구조적 차별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현상을 야기한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부모의 일-가정 균형의 상실은 가족구성원이 소유한 시간자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내실 있는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인프라를 요구한다. 주요 저출산정책으로 출산과 양육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육아지원제도 중 비용의 보전을 통한 접근 이외에도 가족여가나 가족문화 등에 관련된

다양한 가족친화제도(family friendly policy)의 등장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취업한 맞벌이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중 경험하게 되는 극심한 일-가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소득지원에 집중된 접근 뿐 아니라 자녀돌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일(시장)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정생활과 자녀의 학교생활을 포함한 일 이외의 생활영역의 불균형과 시간대의 불일치를 보완할 수 있는 '시간배려' 정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영역이라 하겠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지나치게 일에 치우쳐진 생활시간을 보다 가정으로 옮겨 가정생활의 유지와 가족의 돌봄에 적절한 수준까지 할애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유인하여야 한다.

특히, 시간빈곤으로 분류되는 집단을 대상으로 최소한 시간빈곤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장치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맞벌이가정에서 휴가나 휴직 등의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어도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 동안에는 자녀돌봄 등으로 인한 상실소득의 보전을 통해 가사노동시간의 투입이 실질적인 수준에서 재량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정책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지나치게 긴 시장노동시간의 통제와 더불어 적절한 가사노동시간의 보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시간빈곤 경험은 맞벌이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의 사용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 기준 시간빈곤의 경우, 즉 지나치게 긴 일 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빈곤의 개념을 적용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 시간빈곤으로 인해 가정관리활동과 가족돌봄 모두 사용시간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남성은 시간빈곤집단도 시간빈곤 여성집단에 비해 절대적으로 가사노동시간의 사용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맞벌이부부의 불평등한 시간사용의 단면을 잘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맞벌이 남성의 경우에는 가정관리활동과 가족돌봄 활동에 배분하는 시간이 거의 유사한 반면, 맞벌이여성의 경우에는 가족돌봄에 비해 가정관리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따라서, 시장노동시간이 지나치게 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줄어드는 만큼의 가정관리와 자녀돌봄 영역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을 보완하는 시간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사노동시간의 감소에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가사노동대체 서비스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실제로 상품대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가족돌봄 영역에 비해 상품대체가 가능한 가정관리 영역에 투입하는 시간의 절대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위한 시간사용정책은 직접적으로 소득보전정책뿐 아니라 가정관리 및 돌봄 영역의 서비스 지원사업 등과도 연계되어야 한다. 특히, 가사노동 중 가족돌봄 영역에 대한 서비스는 육아지원이나 장기요양보호를 중심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걸쳐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고 지원되어 온 반면, 가정관리 영역에 대한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에 의존되어 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서비스 지원을 통해 소득빈곤과 시간빈곤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빈곤계층에 대한 지역사회 수준의 가족친화사업의 주요 영역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를 획기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가사노동에 포함된 반복적이고 복합적인 속성은 대부분 피하고 싶거나 하지 않아도 전혀 불리하지 않은 노동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으나, 실제로 가사노동을 통해 노동력재생산이 이루어지며 가족구성원 간의 성평등하며 창조적인 생활문화가 형성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남성의 가사노동참여를 촉진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개별가족의 과제 이면서 동시에 사회전체의 과제로도 볼 수 있다. 불평등한 시간배분에서 비롯되는 가족갈등을 예방하고 가족구성원 하위체계간의 협력과 공감을 통한 성취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 실질적 효용도 크다 하겠다. 따라서 맞벌이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요리, 청소, 세탁 등의 기본적인 가정관리 영역의 기능적 훈련을 생활설계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실시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청소년기부터 생활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학교교육 과정의 보완도 필요하다. 국영수 중심의 교과과정 운영으로 인해 점점 위축되고 있는 학교교육에서의 생활교육, 즉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생활자립과 더불어 가족구성원 간 평등한 관계를 통한 가사노동 협력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맞벌이 여성을 시간정책 또는 시간빈곤정책에서 가장 집중적인 정책수혜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집단으로 선정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시간빈곤 해소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시간빈곤을 경험하는 집단 내에서의 성 불평등 문제는 소득불평등 문제에 비해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득대체를 통해 시간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여전히 소득으로 대체되지 않는 시간빈곤의 문제는 특정계층, 즉 맞벌이여성에게 심각하다. 이는 개인이 해결해야 할 '이중부담'의 문제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저출산의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시간빈곤의 관점에서 시간사용의 불평등을 성을 중심으로 규명함으로써 시간자원에 대한 지원과 다양한 소득지원 및 서비스지원의 연계가 필요한 계층을 선별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향후 시간빈곤의 접근은 맞벌이가정에 비해 일반적으로 시간사용에서 더욱 취약한 계층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시간자원관리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빈곤과 삶의 질을 해소하는 사회정책에서 하나의 중요한 대안적 관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사회의 삶의 질 기준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치밀한 논의의 결과로 절대적 소득빈곤을 개념화하고 실제로 복지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사업의 목표와 방향성을 이해

하듯이, 향후 시간빈곤에 대한 다양한 경험적 연구의 축적과 더불어 시간사용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통해 절대적 시간빈곤의 개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간자원을 하나의 중요한 삶의 축으로 삼아 다른 물질 자원, 관계적 자원 등을 결합함으로써 지금까지 가시적인 경제적 교환가치를 산출하지 않아 간과되어 온 가정관리와 가족돌봄을 포함한 가사노동의 가치와 삶의 질의 관계를 확장하여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서지원)

XII. 추후고려사항

- 시간대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용 프로그램파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데이터 파일 생성이 필요하다. 특히 시간대자료를 활용하여 시간량과 시간대 그리고 장소나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파악까지 한번에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파일 구성이 요구된다.
- 시계열가중치, 요일가중치 제공 혹은 가중치 구성하는데 필요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또한 요일 및 계절특성을 반영하는 분석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 시간에 관한 소규모질적연구와 같은 새로운 연구방법의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 자료가공과 함께 생활시간에 대한 새로운 주제를 개발하고, 생활시간에 나타난 다양한 영역간 분석을 시도 시간연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 기존의 시간과 관련된 이론에 대한 적용 뿐 아니라 사회학, 보건학, 가족학에서 관련 행위와 관련된 이론들을 시간연구에 도입, 적용해 보는 계기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우리사회의 시간활용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과 함께, 최근에 유급노동, 가사노동, 여가활동에서 나타나는 주요 변화를 집중 조명함으로써, 사회변화의 구체적인 방향을 탐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 경제, 가족 그리고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연구모형과 구조가 요구됨을 의미한다.
- 더 많은 국제교류기회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과제의 결과는 현재 12월에 서울에서 계획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하여, 한국의 생활시간자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나, 시간자료활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연구활성화를 위한 발표와 세미나, 심포지움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단편적인 연구논문들은 국내학회발표,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발표하여 적극적인 학문적 교류를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구창모, 『청소년의 여가제약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5.
- 김경식·이루지, 「한국인의 여가활동과 여가만족 및 행복: 국가통계자료 이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11), 424-433, 2011.
- 김기현·이경상, 『청소년 생활시간 활용 실태 및 변화』, 한국청소년개발원, 2007.
- 김두섭, 「한국 사회구조의 변화와 노년기의 가족관계」, 김두섭 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한양대학교 출판부, 23~72, 2001.
- 김복수, 「한국인의 여가와 미디어 사용」, 『한국인의 생활시간과 일상생활I: 생애주기별 접근』, 한국학중앙연구원, 225~260, 2005.
- 김상진, 「생활시간조사 연구를 통한 무보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연구: 맞벌이부부 중심」, 한남대 행정정책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김순홍 외, 『한국청소년의 삶과 의식구조』, 사회연구사, 2003.
- 김승택·김원식, 『근로시간 단축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4.
- 김은지·김수정·민현주·정수연, 『저출산·고령화가 가족형태 및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김영미, 「복지국가 제도과 남녀의 무급노동시간의 관계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정책, 21(2), 143-177, 2014.
- 김정배 외, 『21세기 청소년자원봉사 정책과 추진방향』,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김정석, 「한국 중년 남녀의 무급노동내용과 시간량」, 한국인구학, 28(1), 173-201, 2005.
- 김정석, 「노년기 관광여가문화의 탐색」, 한국노년학, 23(1), 43~58, 2003b.
- 김정석, 「노후생활에서의 성별차이-경제적 자원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6(10), 59~77, 2003a.
- 김정석, 「한국 노인들의 일상생활」, 『한국인의 생활시간과 일상생활I: 생애주기별 접근』, 한국학중앙연구원, 151~178, 2005.
- 김정운·이장주, 「여가와 삶의 질에 대한 비교문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19(2), 1-15, 2005.
- 김종길·김광석·백유성, 「BWF의 선행요인과 조직효과성의 관계」, 2009년 경영관련학회통합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18-19, 2009.
- 김주현·문영주, 「맞벌이 여성의 성역할 태도가 결혼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 - 일-가정 갈등과 일-가정 강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
- 14(2), 109-126, 2010.
- 김진욱, 「한국 노인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2, 149~177, 2006.
- 김진욱·고은주, 「시간압박, 누가 얼마나 경험하는가?: 한국 기혼부부의 수면, 개인관리, 여가시간 결핍 결정요인 분석」, 사회복지정책, 42(2), 135-161, 2015.
- 김태홍, 「일·가정 양립 정책과 지속가능한 발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08.
- 김현주·이창현·박소라,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직장인들의 주말 여가문화 이용행태 변화 - 설문조사를 통한 실시 집단과 비실시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1회 여가·문화 포럼 - 주5일 근무제 도입과 생활문화의 변화』 자료집, 여가문화학회, 24~37, 2002.
- 김효정,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 83-96, 2001.
- 노혜진, 「재량시간을 중심으로 본 빈곤여성의 삶의 질」, 사회복지연구, 44(1), 61-87, 2103.
- 두경자, 「시간관리 교육 후의 교육효과 측정」, 사회과학 연구, 15, 1-14, 2002.
- 문숙재, 『생활시간연구』, 학지사, 1996.
- 박미희·변금선, 「생애과정 전환기의 생활시간 배분에 관한 연구: 중·고령자의 생활시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5(8), 29-52, 2013.
- 박민자·손문금,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와 관련된 생활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9(2), 93-120, 2007.
- 박민자·손문금, 「고령 여성과 남성의 일상생활」, 사회과학연구, 11, 121-145, 2005.
- 박수미, 「한국고령자의 생활시간 사용에 있어서의 젠더 차이: 일, 무급가족노동, 여가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72(1), 5-30, 2007.
- 박수미, 「한국고령자의 생활시간 사용에 있어서의 젠더 차이」, 여성연구, 72, 5-30, 2007.
- 박수미, 『젠더문제와 여성의 노동참여: 노동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연구총서, 2005.
- 박수미·선보영·김진욱, 『한국여성의 생활세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5.
- 박영도 외, 『한국인의 생활시간과 일상생활II: 일상생활의 쟁점』,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박영도, 「거세된 시간, 식민화된 시간, 젠더화된 시간」, 『한국인의 생활시간과 일상생활II: 일상생활의 쟁점』, 한국학중앙연구원, 1-26, 2005.
- 박종서, 『남녀의 경제활동 특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보건복지 ISSUE & FOCUS, 156, 2012.

- 손문금, 「맞벌이 부부의 무급노동분담에 대한 실증적 연구: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5, 239-287, 2005b.
- 손문금, 「맞벌이부부여성의 이중부담과 시간의 특성: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5a.
- 손문금, 「시간일기와 자기기입식 시간측정의 비교: 성별, 종사상지위별 유급노동시간을 중심으로」, 통계연구, 11(1), 88-117, 2006.
- 손애리, 「시간연구의 특성과 생활시간조사 개발과정」, 조사연구, 1(1), 135-148, 2000.
- 송혜림, 「일/가정 양립 정책의 이론적 배경」, 변신원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교육 프로그램> 자료집.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0.
- 송혜림, 「일과 생활의 조화 - 정책에서 생활로」, 대한가정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기조강연, 2012.
- 신윤정, 『저출산 시대의 가사 노동 및 자녀 돌봄 시간 변화와 시사점』, 보건복지 ISSUE & FOCUS, 275, 2015.
- 심지양,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 안정옥, 「시간의 정치와 생활세계」, 가족과 문화, 19(2), 171-204, 2007.
- 안정옥, 「시간준거, 문화생태와 가족체제」, 한국사회학, 40(6), 56-91, 2006.
- 안정옥, 「현대 미국에서 '시간을 둘러싼 투쟁'과 소비적 현대성: 노동, 시간과 일상생활」,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 오만석 외, 『한국인의 생활시간과 일상생활I: 생애주기별 접근』,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오만석, 「하루 시간 사용을 통해서 본 한국 학생들의 일상생활」, 『현대 한국사회에서 한국인의 일상생활: 역동성과 다양성』, 2009 한국문화심층연구결과발표회 자료집, 1-33, 2009.
- 오만석, 「한국 대학생들의 시간 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인의 생활시간과 일상생활II: 일상생활의 쟁점』, 한국학중앙연구원, 127-181, 2005a.
- 오만석, 「한국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연구: 하루 시간 사용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생활시간과 일상생활I: 생애주기별 접근』, 한국학중앙연구원, 1-50, 2005b.
- 유성용, 「가족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노동시간: 1999/2004년 생활시간조사자료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3), 28-62, 2008c.
- 유성용, 「측정방법에 따른 노동시간의 차이: 자기기입식 질문법과 시간일지법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1(1), 99-125, 2008b.

- 유성용,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간 변화: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8a.
- 윤소영, 「우리나라 부부의 가계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 평가를 위한 총노동시간 및 노동분담률 분석」, 대학가정학회지, 40(8), 23-36, 2002.
- 윤인진·배은식,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한국인의 여가활동 격차와 특성: 1999년과 200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의 비교」, 2009 한국인구학회 전기학술대회 자료집, 503~519, 2009.
- 윤자영, 『자녀양육시간의 경제적 가치』, 월간노동리뷰, 2010.
- 윤철경, 『청소년 과외활동실태조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7.
- 이기영 외, 『한국과 일본의 생활시간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 이미식·전필여, 「학생의 생활시간 활용 및 도덕과 교육방향에 관한 연구」, 초등도덕교육, 28, 158-183, 2008.
- 이은진, 「직업별 노동시간의 변화」, 사회연구, 14, 179-196, 2001.
- 이주일·유경, 「직장-가정 갈등의 세대 차이와 직장-가정 갈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직장여성의 경우」, 한국심리학회지(산업 및 조직), 23(3), 471-501, 2010.
- 이재현, 「노동과 텔레비전, 그리고 생활패턴의 동시화」, 언론정보연구, 31, 117-143, 1994.
- 이재현, 「생활시간패턴과 텔레비전 편성」, 방송문화연구, 8, 267-291, 1996.
- 이재현, 「생활양식의 사사화와 텔레비전에 대한 의존」,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이재현, 「여가, 텔레비전, 그리고 인터넷-생활시간으로 본 미디어 구도의 변화」,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연구』 13, 59-81, 2001.
- 이종희·이연숙, 「주휴무제에 따른 기혼남녀의 주말 생활시간구조와 여가시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4), 165-177, 2002.
- 임미령·김대욱, 「유아기 자녀를 둔 산업단지 근로자의 일-가족 갈등과 근무환경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8(4), 371-388, 2014.
- 장연주·이기영·최현자, 「여가시간과 시간압박감의 관계: 성별에 따른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6(4), 195-211, 2012.
- 장원봉, 「생활시간조사를 통한 실업자의 일상생활에 관한 연구: 실업자의 교제활동을 중심으로」, 도시와 빈곤, 59, 106-132, 2002.
- 정영금, 「가족자원경영학적 관점에서 본 일-가정 균형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방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1-14, 2001.
- 주익현, 「계층별 맞벌이 여성의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 사

- 회과학논집, 46(1), 111-135, 2015.
- 조성은·문숙재, 「기혼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유형에 관한 사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0), 35-47, 1998.
- 지민웅·조민수, 「맞벌이 임금근로자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은 상호 대체제인가?: 법정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시장노동시간의 변화를 이용하여」, 여성경제연구, 11(1), 1-31, 2014.
- 진미정, 「가족구조에 따른 아동의 생활시간 비교」, 가족과 문화, 20(3), 187-211, 2008.
- 차승은, 「남녀의 시간압박인식 차이와 관련요인 탐색」, 한국인구학, 33(1), 27-49, 2010.
- 천진아, 「일과 생활 균형 프로그램의 활용에 관한 연구 ~ 일본 시세이도 토시바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채구묵, 「비정규근로자의 인구학적 및 직업·산업별 특성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58, 276-310, 2003.
- 최균호(2005). 독일기업의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 및 여가 생활의 변화 - 독일 폴크스바겐사의 '주 28.8시간 근무제'를 보기로. 독일어문학(30). 387-407
- 최영기, 『노동시간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1.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1999.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2004.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2009.
- 홍찬숙, 「시간제 고용은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적합한 방법인가? 구동서독 지역 여성노동시장 비교를 통한 접근」, 경제와 사회 여름호, 90, 363-386, 2011.
- 황익주, 「공장 노동자들의 여가생활 : 경기도 성남지역 노동자들의 사례연구」, 한국인의 소비와 여가생활, 한국학중앙연구원, 125-189, 1997.
- Aguiar, M., & Hurst, E. (2006). Measuring trends in leisure: The allocation of time over five decad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Bardasi, E. & Wodon, Q. (2006). Measuring time poverty and analyzing its determinants: Concepts and application to Guinea. Gender, time use, and poverty in Sub-Saharan Africa. World Bank Working Paper, 73, 75-95.
- Bardasi, E. & Wodon, Q. (2010). Working long hours and having no choice: time poverty in Guinea. Feminist Economics, 16(3). 45-78.
- Becker, G.,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The Economics Journal* LXXV(September), 493-517, 1965.
- Berger, P. and H. Kellner, "Marriage and the construction of reality",

-
- Diogenes* 46, 1-23, 1964.
- Bianchi, S. M., Milkie, M. A., Sayer, L. C., & Robinson, J. P. (2000). Is anyone doing the housework? Trends in the gender division of household labor. *Social forces*, 79(1), 191-228.
- Bianchi, S. M., Sayer, L. C., Milkie, M. A., & Robinson, J. P. (2012). Housework: Who did, does or will do it, and how much does it matter?. *Social Forces*, 91(1), 55-63.
- Bianchi, Suzanne M., Lynne M. Casper and Rosalind B. King, *Work, Family, Health and Well-Being*. New Jersey: Lawrence, 2005.
- Bianchi, Suzanne, John, P. Robinson and Melissa A. Milike, *Changing Rhythms of American Family Life*. New York: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2006.
- Bittman, M. (2004). Parenting and employment. In Bittman, M. & Folbre, N.(eds.). *Family time: the social organization of care*. London: Routledge.
- Bourdieu, P.,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4.
- Brady, D. (2003). Rethinking the sociological measurement of poverty. *Social Forces*, 8(1). 715-752.
- Daly, K., *Families and Time: Keeping pace in a hurried culture*. California: Sage, 1996.
- Daly, K.J., *Minding The Time In Family Experience: Emerging Perspectives and Issues* (Edt). Oxford: Elsevier Science, 2001.
- Folbre, N., "Inequality and time use in the household", in W. Salverda, B. Nolan, and T. Smeeding(eds), *The oxford handbook of economic inequ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Fuligni, Andrew J. and Stevenson Harold W., "Time use and mathematics achievement among American, Chinese, and Japanese high school students," *Child Development*, 66(3), 830-842, 1995.
- Gershuny, Jonathan, *Changing Times-Work and Leisure in Postindustrial Society*, Oxford Univ. Press, 2000.
- Hedges, J.N. and D.E. Taylor, "Recent trends in worktime: hours edge downward", *Monthly Labor Review* March, 3-11, 1980.
- Hirway, I. (2010). Understanding poverty:insights emerging from time use of the poor. in Antonopoulos, R. & Hirway, I.(eds.). *Unpaid work and the economy*. Palgrave Macmillan. 22-57.

-
- Hochschild, A. with Machung, A. (1989). *The second shift : Working families and the revolution at home*. New York: Penguin.
- Hochschild, A., *The Second Shift*, New York: Avon Books, 1989.
- Hochschild, A., *Time Bind*, New York: Henry Holt, 1996.
- Jacobs, J.A. and K. Gerson, "Who are the overworked Americans?" *Review of Social Economy* 56, 442-459, 1998.
- Jacobs, J.A. and K. Gerson, "Overworked individuals or overworked families? Explaining trends in work, leisure, and family time," *Work and Occupation* 28(1), 40-63, 2001.
- Jacobs, J.A. and K. Gerson, *The Time Divide: Work, Family and Gender Inequality*,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 Jacobs, J.A. and J.C. Gornick, "Hours of paid work in dual-earner couples: The United States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Sociological Focus* 35(2), 169-187, 2002.
- Krueger, Alan B.(eds), *Measuring the Subjective Well-Being of Nations*,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 Lahmers, Amy G. and Zulauf, Carl R., "Factors associated with academic times use and academic performance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1(5), 544-556, 2000.
- Lareau, Annette. *Unequal Childhoods: Class, Race, and Family Llife*. Univ of California Press, 2011.
- Lee, I.-M., & Paffenbarger, R. S. (2000). "Associations of light, moderate, and vigorous intensity physical activity with longevity The Harvard alumni health study."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51(3), 293-299.
- Lewis, H.G., "Hours of Work and Hours of Leisure", *Proceedings of the Ninth Annual Meeting of the Industrial Relations Research Association*, 196-206, 1956.
- Mattingly, M. J. and Sayer, L.C., "Under pressure: Gender difference in relationship between free time and feeling rushe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1), 205-221, 2006.
- Mill, J. S.,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with Some of their Application to Social Philosophy*, London: Longman's Green & Co., 1892.
- Rindfuss, R., "The young adult years: Diversity, structural change, and fertility," *Demography* 28, 493-512, 1991.

-
- OECD(2015). How's Life? <http://www.oecd.org/statistics/how-s-life-23089679.htm>
- Robbins, L., "On the elasticity of demand for income in terms of effort", *Economica*, June, 123-129, 1930.
- Robinson, J.P., *How Americans Use Time: A Social Psychological Analysis of Everyday Behavior*, NY: Praeger, 1977.
- Robinson, J.P., "Trends in americans' use of time: Some preliminary 1965-1975-1985 comparisons", Final Report to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U.S. Congress, Mimeo, September 1986.
- Robinson, J. P. & Godbey, G., *Time for Life: The Surprising Ways Americans Use Their Tim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9.
- Robinson, J. P.,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diaries verses alternative time use measure, in F. T. Juster and F. P. Stafford(eds.), *Time, Goods and Well-being*, University of Michigan, 33-62, 1985.
- Schneider, B. and Wait, L. "Timely and timelessness: Working parents and their children", Bianchi, S.M. Casper, L.M. and King, R.B. (eds). *Work, Family, Health, and Well-being*,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67-79, 2005.
- Schor, J., *The Overworked American: The Unexpected Decline of Leisure*, New York: Basic Books, 1992.
- Schor, J., *The Overspent American: Why We Want What We Don't Want*, New York: Harper Perennial, 1998.
- Shanahan, Michael J. and Flahery, Brian P., "Dynamic patterns of time use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2(2), 385-401, 2001.
- Sullivan, O. "Cultural voraciousness: A new measure of pace of leisure in a context of 'harride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Time Research* 4(1), 30-46, 2007.
- Timmer, S. G., J. Eccles and K. O'Brien, "How children use Time," in F. T. Juster and F. P. Stafford(eds.), *Time, Goods and Well-being*, University of Michigan, 353-382, 1985.
- Tudor-Locke, C., Johnson, W. D., & Katzmarzyk, P. T. (2010). Frequently reported activities by intensity for US adults: The American time use survey.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9(4), e13-e20.
- Veblen, T.,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New York: Viking Press, 1967.
- Zerubavel, Eviatar, *Hidden Rhythms: Schedules & Calendars in Social Life*, University of

-
- California Press, 1981.
- Zerubavel, Eviatar, *The Seven Day Circle: The History and Meaning of the Week*, The Free Press, 1985.
- Zill, Nicholas, Christine W. Nord and Laura S. Loomis, *Adolescent Time Use, Risky Behavior, and Outcomes: An Analysis of National Data*, 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 1995.